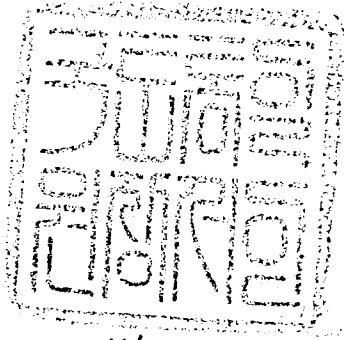


# 中共의 虛와 實

1973. 11.



450

國土統一院

研究委員 羅昌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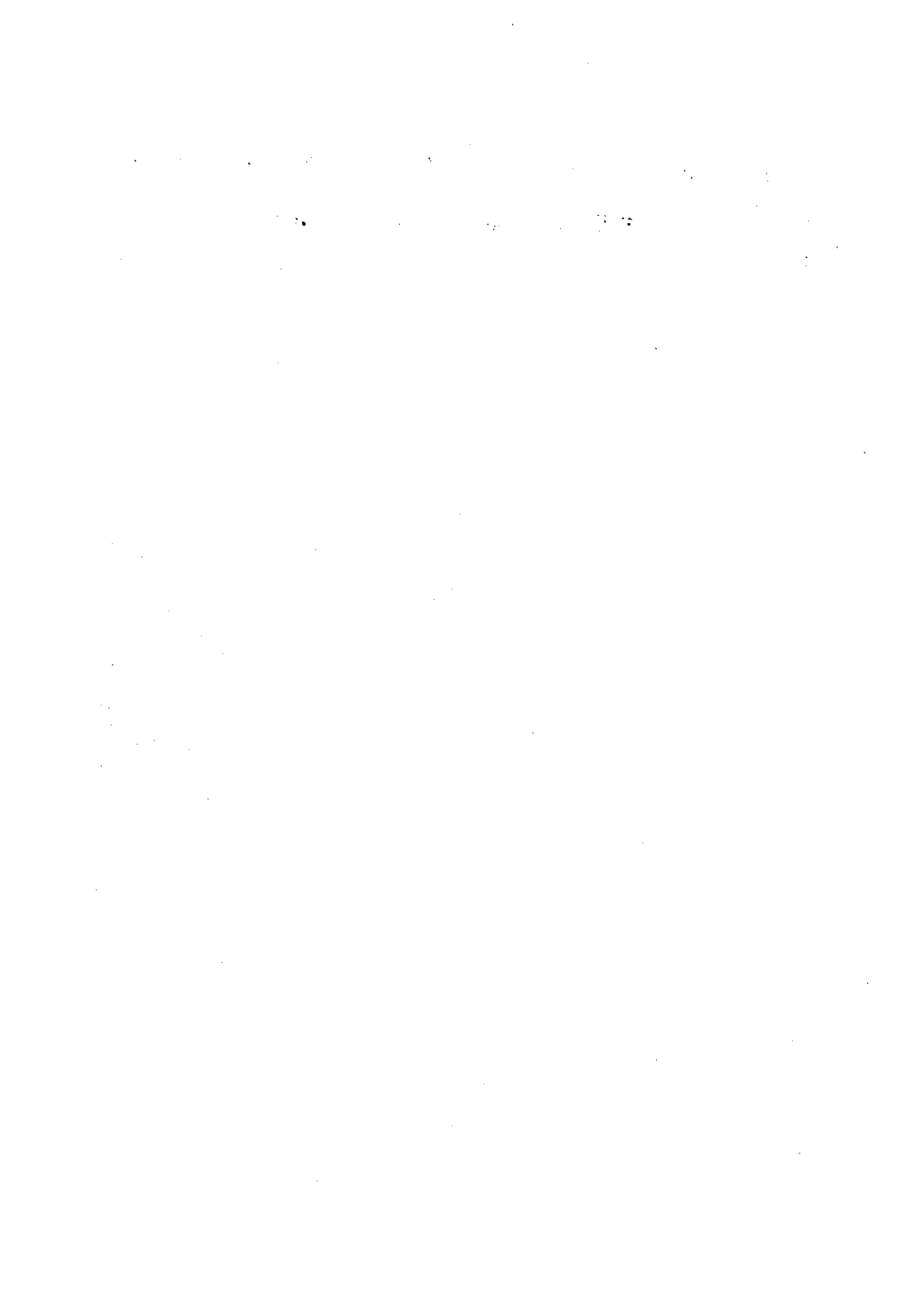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  
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  
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  
로 삼아, 창조와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  
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  
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  
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  
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  
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  
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  
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  
하자.





## 發 刊 辭

70年代에 들어 中共이 UN에 加入한데 이어 美·中共의 接近과 日·中共의 關係改善이 急進展됨에 따라 中共이 國際政治에 미치는 影響과 役割이 增大一路에 있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는 自國의 對外政策을 樹立하고 이를 展開함에 있어서 크던 작던간에 中共을 意識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中共의 影響力은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

이렇듯 中共의 影響力이 增大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中共에 對한 研究熱이 高潮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現實情은 中共에 關한 資料는 勿論, 學術研究書籍이 극히 貧弱한 狀態에 놓여 있다.

當院에서는 中共에 關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그의 正體를 把握하여 이에 對한 우리 自國의 자세 확립에 도움을 주며, 이 方面을 研究하는 분이나 關心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뜻에서 그 동안 몇몇 關係資料를 生産해 왔다.

이와 같은 努力의 一環으로 이번에는 當院에서 그 동안 研究調査한 中共問題 資料를 간추려서 이 冊字를 發刊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에 關心있는 분이나 關係機關에 從事하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1973年11月 日

國土統一院長官 金 永 善



## 머 리 말

「잠자는 사자」로 불리는 中國大陸에 共產政權이 들어선 以來, 지난 4 半世紀 동안 이들은 빈번히 隣接國家를 侵犯하거나, 紛爭要因을 誘發시켜 아시아의 緊張을 고조시켰고, 나아가 世界 平和를 위협해 왔다. 이같은 中共이 70年代에 들어서자 中蘇紛爭의 격화와 經濟沈滯로 인한 後進성을 탈피하려는 시도에서 對西方 柔軟外交를 展開, 美國을 비롯한 여러 西方國家와 關係改善을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試圖는 中共과 오랫동안 斷交했던 여러 自由友邦國家들의 關心을 增大시킴으로써, 中共의 國際政治에 미치는 影響과 關心이 날로 增大되고 있다.

우리 政府는 最近 展開되고 있는 國際情勢의 推移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위해 오래 前부터 共產國家에 對해 積極 外交를 시도해 왔으며, 이것은 蘇聯을 비롯한 몇몇 共產國家들의 呼応을 받아오고 있는 것 같다. 長久한 歷史를 통해 中國은 우리 民族의 物質文明은 勿論이고 精神文化에도 적잖은 影響을 미쳐왔으며, 또한 中共政權은 成立初부터 繼承 北韓을 使賊하여 왔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開放外交를 표방하고 있는 中共을 活用하여 北韓의 驛半島 赤化陰謀와 도발성을 견제할 수 있다면, 우리 政府는 能動的으로 中共과의 緊張緩和를 推進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一連의 狀況을 考慮하여 筆者는 中共의 現況把握을 위한 調查研究에 힘써왔으며, 그동안 研究해온 몇편의 資料를 整理하여 이冊에 소개하게 되었다.

막상 研究資料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資料不足과 筆者의 拙見으로 보다 正確히 分析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 冊字가 讀者들의 中共 現況把握에 대한 理解를 돕고, 參考資料로 活用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冊을 내는 참 뜻이 될 것이다.



# 目 次

第一章 中国革命思想과 毛澤東思想 .....	7
1. 儒學的 背景 .....	9
2. 새로운 指導理念 .....	14
3. 近代化의 모델의 시도 .....	18
4. 現實主義와 마르크스主義 .....	23
5. 初期 中共黨의 戰略 .....	27
6. 毛澤東思想의 成長 .....	34
7. 結 論 .....	50
第二章 中共革命과 「이데올로기」 .....	55
1. 中共革命의 特性 .....	57
2. 中共革命의 目標 .....	62
3. 中共革命과 마르크스·레닌主義 .....	64
4. 中共과 蘇聯 「이데올로기」 .....	68
5. 中共 「이데올로기」의 展開 .....	72
第三章 中國의 傳統에 비추어 본 中共 .....	85
1. 머리말 .....	87
2. 價 值 觀 .....	91
3. 毛 語 錄 .....	94
4. 士人과 인텔리 .....	96

5. 理想世界에의 閼門.....	98
6. 面從腹背의 精神風土.....	100
7. 民族性을 形成한 思想.....	102
8. 國家不在의 國家.....	104
9. 二面의 挑戰, 二面의 敗北.....	107
10. 傳統과의 調和.....	110
11. 참된 鬪爭.....	112
第四章 中國共產黨 半世紀의 批判.....	117
1. 中共黨 大會의 沿革.....	120
2. 黨 組織上의 變遷.....	128
3. 戰略上의 變遷.....	134
4. 中共黨內 權力鬪爭.....	147
第五章 階級鬪爭觀과 그 矛盾 .....	165
1. 中共과 社會主義革命 .....	167
2. 8期 十中全會의 轉換 .....	170
3. 中共勝利의 本質.....	172
4. 黨의 官僚化.....	178
5. 革命的 黨派性과 現實政策의 矛盾 .....	179
6. 맺음.....	181
第六章 最近 中共의 政治動向과 毛澤東 以後의 中共.....	187
1. 머리말.....	189

2. 十全大会 以前の 政治動向	190
3. 林彪事件과 政治動向	192
4. 美務派의 復歸와 政治動向	198
5. 十全大会와 政治動向	208
6. 毛澤東 以後의 中共	217
<b>第七章 中共의 軍事力과 核開發</b>	<b>225</b>
1. 머리말	227
2. 軍事力の 概況	228
3. 中共軍의 沿革	229
4. 國防機構	235
5. 各 軍의 編成	238
6. 核 開 發	250
7. 結 論	256
<b>第八章 最近 中蘇 紛爭의 樣相과 極東情勢</b>	<b>259</b>
1. 中蘇 紛爭의 沿革	261
2. 最近의 中蘇 紛爭	267
3. 最近 極東에서의 強大國의 움직임	283
<b>第九章 最近 中共의 外交政策과 韓半島</b>	<b>291</b>
1. 外交政策의 背景	293
2. 基本 外交政策	297

3. 中共 对外 政策의 變遷 .....	302
4. 中共의 对韓半島政策.....	307
5. 韓國의 对 中共자세.....	315
<b>第 十 章 中共經濟의 現況과 그 展望.....</b>	<b>321</b>
1. 概 況 .....	323
2. 中共經濟의 變遷.....	328
3. 農 業 生 産.....	339
4. 工 業 生 産.....	345
5. 国民 總 生 産.....	350
6. 对 外 貿 易.....	353
7. 맺는 말.....	364
<b>第十一章 最近 中共의 人口政策과 農業生産.....</b>	<b>369</b>
1. 穩健路線의 定着.....	371
2. 穩健路線의 復歸.....	374
3. 農業生産의 問題点.....	377
<b>第十二章 中共 社会主義 教育革命의 現況과 将来.....</b>	<b>385</b>
1. 머리말.....	387
2. 教育의 황폐.....	388
3. 農村 中·小學校 教育의 現況 .....	391
4. 都市 中·小學校의 改革現況.....	395
5. 大学·高專校의 改革現況.....	397



6. 5. 7 幹部學校의 現況.....	401
7. 맺는 말.....	403
<b>第十三章 文化革命과 中國의 傳統文化.....</b>	<b>405</b>
1. 中國의 歷史的 배경.....	407
2. 文化革命과 文化의 破壞.....	410
3. 文化革命의 過誤.....	412
4. 文化와 政治.....	415



# 第一章 中國革命思想斗 毛澤東思想



## 第一章 中国革命思想과 毛沢東思想

中共革命을 近代 中国政治思想에 연계시켜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中国 古來思想과의 相關關係 및 開化初期부터의 諸思想의 國家 近代化 計劃과를 比較해 보는데 本稿의 意義가 있다 하겠다.

### 1. 儒學的 背景

前近代의 中國은 比較的 평온하고 秩序있는 封建社會였다고 볼 수 있으며, 中國에서 共產革命 以前에는 社會的 不安이나 暴動等은 主로 農民暴動이 主이었고, 이것은 暴君에 對한 反起나 또는 交替의 연속이었다 하겠다. 歷代 中國의 革命的 變遷을 一별해 보면 大略 다음과 같이 5段階로 分類할 수 있겠다.

秦帝國 始皇帝 ( BC.221 ~ 209 )는 中國 中原을 統一하여 最初의 絶對君主로 君臨케 되었고, 六朝時代 ( 229 ~ 589 )의 貴族文明 創造의 試圖, 宋 ( 960 ~ 1279 )이 貴族 統治階級의 養成을 위해 平民 에리트 教育의 制度化를 試圖, 現實의 打破를 主張하고, 社會革新을 내세운 太平天國의 亂 ( 1850 ~ 64 ), 孫文이 주축이 되어 辛亥革命에서 5.4 運動으로 막을 내린 國民革命運動 이것들이 共產革命 以前의 民族革命이라<sup>①</sup> 할 수 있다.

이같은 革命中에서 太平天國의 亂을 除外하고는 모두 傳統的인

---

①O.Briere J.: Fifty years of Chinese philosophy, New York, Praeger 1965. P.1

中国思想의 저류를 形成해온 儒学思想은 2,000年의 歷史를 通해 統治理念의 核心을 이루어 왔고, 社会規範의 主導的 理念으로 君臨하여 왔다. 中国의 歷代 革命中에서 共產革命처럼 儒学思想을 徹底하게 소멸시킨 變革은 없었다.

儒学思想体系는 우리 世界를 3次元의 世界, 即 天(精神, 天然秩序)地(後天的 秩序)와 人(社会秩序)으로 分類하고, 이 3大要素는 同時에 複合과 混合狀態에서 共存하며, 道(way)라는 平和로운 万途에 依拠, 陰陽의 調和에 따라 秩序를 維持 發展시킨다<sup>②</sup>고 한다.

마르크스가 헤겔(Hegel) 哲學에서 도출한 辨證法的 唯物史觀에 依하면, 歷史는 經濟的 要因에 따라 變遷하는데 社会發展段階는 部族, 奴隸, 封建制度 및 資本主義段階를 거친 다음에야 共產主義 段階로 突入한다는 社会觀을 主張하고, 이 變遷의 主因은 新旧矛盾間의 對立等 辨證法的 原理에 依해 發展해 간다고 主張하고 있다.

儒家思想은 傳統的인 中国歷史를 通해 制度的 完成에 있어서 中庸主義的 목념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歷史를 通해 指導理念化되었고, 刷新力에 對한 自體理念의 목념은 性向때문에 歷代 執權層의 인기를 占하였던 것이다.

孔子는 周나라(1142 ~ 249 BC) 때 各地의 叛亂으로 王位가 흔들리고, 國家가 소란하던 時代에 등장하여 當時 諸侯들의 反抗과 社会秩序를 바로 잡는 수단으로 社会와 國家, 個人間의 조화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

②Robin A G.Quale : The Eastern Civiliz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afts, 1966. PP.281-87

그러나 儒家思想이 國家의 指導理念으로 수용된 때는 漢時代의 紀元前 136年에 董仲舒의 활약으로 事實化되었던 것이다.

儒家의 權威있는 社會觀은 漢帝國의 여러 君主들에게 우수한 治世方法을 가르쳐줄 수 있었으나, 儒家理論 때문에 古來 中國의 政治思想에 定立되어 있는 「君主는 天의 代理人」이라는 絕對主義 理念이 저축을 받게 되었다. 君主가 天의 審判을 받는다는 것을 從來의 占星家나 祭神들에 依해서 判別되는 概念이 아니고, 統治者는 人民을 統治할 權限이 있지만 陰陽의 原理에 따라 人과 天理의 自명한 現象을 判別하며, 儒家는 君主에게 天理와 寬容을 지도키 위해 仁을 教育하며, 君主에게 統治方法論을 指導하기 때문에 君主統治의 是非는 儒家에 依해 判別되어야 한다<sup>③</sup>는 것이다.

이 理論은 臣民이 君主의 統治權力에 복종해야 한다는 主張 때문에 君主는 儒家思想을 國家指導理念으로 받아들였고, 官吏任用試驗에 儒學을 치루도록 함으로써 儒家에 妥當性을 주는바 되었다. 官吏任用試驗에 儒學을 치루도록 한 결과, 儒學은 發達하는 反面에 社會秩序를 流動시키는 動因이 되었고, 이것은 時代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技術教育을 同한시하는 性向을 나타내, 社會開發을 위한 創造力이 쇠퇴하게 되었다. 儒學이 統治理念의 主導的 役割을 担当하게 됨으로써 官僚와 社會組織은 儒學을 中心으로 發展하게 되었으며 儒學 自体가 점차적으로 社會現象과의 流離 때문에 空理空論에 치우치게 되어 實社會의 政治理念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③ Wing Tsit-Chan ;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acphy, princeton Universify Press.PP.14~48.

結果의 으로 儒學은 1905年 試驗을 통한 官吏任用制度에서 削除될 때까지 傳統的인 中國 指導者의 政治理念과 中國民族의 指導理念에 크게 作用되어 왔다. 3世紀에서 9世紀까지에는 儒學은 敎思想에 크게 道進을 받게 되었으나, 新思想을 注入시키는 思想改造로 因해 漢民族이 아닌 燕, 蒙古, 滿州族等을 思想的으로 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840年代에 이르러서는 傳統的인 中國의 指導理念인 儒學은 西歐의 改蒙된 思想에 道進을 받아 從來의 社會秩序는 分散되고, 政治理念이 무너지므로 因해 社會는 소란하게 되었으며 傳統的인 中國人의 價值體系는 再評價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阿片戰爭 以後 外勢의 加重한 威脅은 中央政府의 권위를 심히 損傷시켰고, 各地의 暴動, 不正腐敗, 軍閥의 亂立등은 中央政府를 現狀維持(De Facto)에 급급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繼續的인 外勢의 侵透는 貿易港의 개항, 領土割讓을 強要당하는 不平等條約을 속출케 하였고, 西歐의 發達된 近代 商品의 上陸은 虛弱한 狀態에 있던 中國의 經濟體制를 뒤흔들고, 工業制度를 崩壞시키는 촉매가 되었던 것이다. 이 結果로 新興都市의 資本家와 在來式 農業에 基盤을 둔 農村間의 격차는 회복할 수 없을만큼 深化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理論的 根拠없는 共產革命이라는 太平天國의 亂(1850~64)은 15年間に 걸쳐 中國大陸을 휩쓸었으며, 간신히 亂을 진압한 淸朝는 1911年 辛亥革命까지 겨우 명맥만을 維持하는 바 되었다. 군웅이 항거하던 中國歷史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던 것과 같이 實權은 中央에서 分散되어 地方諸侯와 軍閥들에게 할양 되었다. 이때부터 1949年 中共이 大陸을 強占할때까지 軍閥政治는 繼續的으로 中國을



政治, 軍事的으로 威脅했다. 政治秩序는 社会秩序의 没落으로 因해 分散되었고, 儒学思想이나 西歐思想, 西歐制度 그 自体로서는 결코 當時 混亂된 社会, 政治秩序를 再統合할 수는 없었다.

저국적인 國民의 지지와 호응을 얻지 않고는 어떠한 思想이나 制度도 흔어진 地方分權의인 中国社会를 再統合할 수 없었지만 國家 再統合이라는 大命題는 시급히 要望되고 있었던 것이다.

傳統的인 指導理念으로 굳립해온 儒学思想은 西歐의 法思想에 基督敎의 救世理念이 複合된 原理에 根拠하며, 이것은 西歐의 刑法과 敎濟法에 基盤한 國家法令이라기 보다는 人間의 社会生活과 國家生活에서 展開되는 処世方式에 基盤을 둔 貴族的 社会規範을 제시하는 理論이라<sup>④</sup>할 수 있다. 이 儒学思想에 기저를 둔 中国指導理念은 近代化된 自由主義的 西歐思想과 우수한 制度에 道전을 받게 되자, 크게 쇠퇴되어 分散되는 變質을 招來하여 더 以上 漢民族의 救世理念으로 存統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儒学思想의 內在的 갈등은 새로운 指導理念으로 西歐思想을 消化할 수 있을만큼의 間隔을 維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指導理念의 追求는 中国의 傳統的 指導思想에 어긋나게 되고, 西歐와의 戰爭, 講和, 外交 및 敎育을 通해 中国이 西歐 文物을 消化하기 始作하자, 19世紀 말엽부터는 西歐文物의 진출이 보다 뚜렷히 나타나게 되었다.

④ Edmund O. Clubb ; The Far Eastern Survey, VOL.22  
1953.1. PP.18-19.

當時 수입된 學說中에서 比較的 中國 知識層에게 공명되었던 것은, 다윈의 進化論 (The Evolution of Darwin), 크로포토킨의 相互扶助論 (Kropotkin's Mutualism), 쇼펜하우어의 理想主義 (Schopenhauer's Idealism), 듀이의 實用主義 (John Dewey's Pragmatism), 러셀의 論理分析 (Russell's Logical Analysis) 등이 中國 知識層에 호소력을 가졌으며, 中國의 現實이 不安과 混亂이었고, 극단적인 革命論을 제시하는 性向때문에 마르크스理論이 一部 急進派를 刺戟할 수 있었던<sup>⑤</sup> 것 같다.

## 2. 새로운 指導理念

阿片戰爭後 20년이 될때까지는 中國 指導層은 의식적으로 西歐思想을 外面했으며, 西歐思想의 影響力 극소화를 爲해 漢民族의 指導思想인 儒學을 刷新하고 自強할 새로운 전환기가 到來했다고 主張했다.

이같은 保守思想의 強化에도 不拘하고, 西歐思想問題는 識者間에 甚한 意見對立을 露呈시켜 1860年代부터 점차적으로 西歐思想의 浸透가 增大하여, 太平天國의 亂을 진압하는데 큰 功을 세운 이름난 儒學者 曾國藩은 西歐思想의 수입이나, 彈壓中 어느것도 中國의 現實에 是 심각한 問題라고 強調하고, 同時에 西歐의 發達된 技術과 武器의 도입을 強力히 主張했다. 1890年代 譚嗣同 (1837~1909)은 會의 理論을 發展시켜 中國의 繁榮을 爲해서는 傳統的인 中國思想에 西歐

---

⑤ Y.C.Wang ; The Chinese Intellectual and the west.(1872~194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PP.1~19.

의 發達된 技術文明을 融和시켜야 한다고 力說했다. 또한 그는 大容論을 내세워 中國의 社會發展과 國家近代化를 위해선 西歐의 物質文明을 포용하여, 西歐思想에 도전받고 있는 中國의 傳統的 指導思想을 發展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

19世紀 말엽 立憲君主改革論者인 康有為와 梁啓超等은 中國 近代化 方向은 西歐化에 基盤을 두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배격하고 儒學思想을 刷新, 發展시켜야 한다<sup>⑥</sup>는 變革方向을 提示했다.

當時 中國의 改革論者들은 傳統的 中國 政治思想에 비친 世界觀인 世界의 中心으로써 中國이 아닌 現代 世界에선 實力이 西歐에 傾중된 一個의 民族國家로서의 中國改革이 要望된다는 事實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中國의 近代化를 위해선 中華思想을 떠난 民族國家로서의 中國位置를 定立한 다음에야 可能했을 것이나, 指導層에 있던 中國人들은 傳統的인 儒學을 修學하고 儒敎文化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인지 繼統적으로 儒學理念을 指導理念으로 한사코 固執하고 있던지도 모른다. 그들은 通俗的인 中華思想이 西歐 및 日本思想과 相互競合하고 이들과 우열을 判別하는 鬪爭을 展開하고 있다는 事實을 認知하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도널드 로우 (Donald Lowe)의 言及과 같이 그들은 西歐思想이 中國의 古來思想에 도전하고 있다는 事實을 긴 歷史를 통해 흔히 存在했던 傳統的인 中國指導思想에 吸收, 同化될 過渡

⑥ Ssu-yu Teng and John K. Fairbank ; China's Response to the west,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P. 61~68.

期로서의 갈등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 같다.<sup>⑦</sup>

20世紀에 접어들면서 中國의 識層, 특히 農村地域 出身의 識者들은 西歐教育을 暴發的으로 받게 되었으며, 보다 폭넓은 그들의 體驗으로 中國을 보다 높고 넓은 次元에서 思考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梁啓超, 孫文 같은 탁월한 民族主義者들은 그들의 學生時節이나 中年期에 中國의 장래를 구상함에 있어서, 中國을 西歐 形態의 國家로 發展시키려는 試圖를 展開했다. 그러나 當時 中國 未來를 걱정하고 設計할 수 있었던 中國識者間에는 中國 近代化의 推進을 急進的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方法論上에 있어서 異見을 노정시켰던 것이다. 20世紀 初半 15年間은 傳統的인 儒學思想이 現代的 改革을 단행하는 思想的 試練期에 선 過渡期였다고 할 수 있다.<sup>⑧</sup>

이 다음 段階에서는 西歐化된 急進主義者들이 中國 社會를 西歐式으로 改造하려는 試圖를 展開했고, 이 같은 努力의 失敗에도 1919年 5.4 運動에서 이 氣運이 絶頂에 達했으며, 後에 共産黨에 加担했던 많은 中國 知識層 人士들이 이 運動에 加担하고 있었다. 陳獨秀의 見解에 따르면 中國은 傳統的으로 農業社會를 形成해 왔으나 農業이 現代 文明에 기여하는 바가 적으니 既存 社會를 徹底하게 破壞해 버리고 民主主義와 西歐文明을 移植시켜야 된다고 主張했으며, 이 強硬論은 新文化運動의 指導層에 強한 호소력을 가졌던 것이다.

⑦ Donald Lowe ; The Function of china, P.86.

⑧ 羅昌柱著 ; 中共指導思想論 , 1972 . 國際學術院 . PP.21~22 .

이 中에는 胡適같은 西歐의 現實主義者가 包含되어 있었다. 胡는 諸分野에서 中國文明이 西歐文明에 뒤진다고 통탄하였다. 新文化運動의 指導層은 當時 中國의 社會政治의 병폐는 中國文明과 中國思想을 좀 먹어가고 政治的 社會的 復活은 거의 不可能하다고 통탄하고, 新文化運動의 思想開發은 全國民의 啓蒙에서만이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西歐思想과 制度보다 中國의 그것이 우수하다고 고집하던 傳統的인 儒學者들은 이같은 不可能에 無限히 도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西歐思想과 中國思想과의 融和는 當時 進化論的인 民族主義者나 革命的 民族主義者 共히 不可能하다고 간주하여, 新文化運動의 指導者들은 中國의 國家觀, 中國思想, 指導理念, 哲學等 모든 部門에 걸쳐 在來式 方式을 撤廢하고, 西歐文明에 符合되는 方向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5.4 運動의 直接的인 要因은 反帝國主義, 反封建主義 運動이지만 胡適은 中國文化가 西歐文化와 同化되기 위해서는 中國 知識層의 思考方式을 革新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그러나 陳獨秀와 李大釗等은 中國思想과 西歐思想을 가장 적절하게 調節할 수 있는 思想이 바로 마르크스思想이라고 主張했던 것이다. 西歐의 환경에서 發生했고, 볼셰비키를 通해서 發展되었지만 마르크스思想이 當時 그들에게 매력을 주었던 要因은 革命的 性向과 西歐思想 自体를 非難하는 思想이란 點에 基因한다<sup>④</sup>고 한다.

④ James Chieh-Hsiung ; Ideolog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1970. P.25.

### 3. 近代化의 모델의 시도

傳統的인 中華思想은 西歐勢力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새로운 民族主義 形成에 상당한 影響을 끼쳤을 것이다. 近代 民族主義의 核心은 리벤슨( Joseph R. Levenson )의 主張과 같이 傳統的인 中國文明이 強力한 西歐文明의 浸透로 因해 政治的·文化的·人種的 諸側面에서 中國의 再發見에 基因할 것이다. ⑩

20 世紀 初盤 20 年間은 中國指導層의 상황은 中國의 思想的 側面이 儒學에서 西歐化的 傾向으로 현저하게 轉向하여 감에 따라 中國文化圈의 쇠퇴와 그 空白을 西歐文明의 刺戟에서 나타난 近代 民族主義로 代替되던 過渡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古來 中華思想을 이은 近代 民族主義는 強硬하게 反西歐化를 指向했고, 近代 民族主義가 成長함에 따라 이같은 性向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當時 中國의 近代化 作業은 外國의 先例에 따라서나 또는 外部的 刺戟에 依해서 可能했던 것이 事實이나 단기적 시점에서 이것이 어떠한 形態의 外國을 모방할 것인지를 規定한다는 것은 지금 困難한 일이며 19 世紀 後半부터 中國은 日本과 러시아의 例를 그 모델로 추종하려는 性向을 노정시켰으나 1894~95 年 淸日戰爭에 敗北함으로써 日本 指向에서 러시아 指向으로 方向轉換의 추이를 보였지만 孫文 같은 탁월한 民族主義者들은 日本의 例를 追從할 것을 強力히 호소했다.

---

⑩ Joseph. J. Levenson ; Confusion and its Modern Fate,  
Berk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P. 95.

1890年代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中國 立憲君主主義者들에게 關心을 모으기 始作했으며 1905年 러시아革命은 점차적으로 知識層에게 影響을 주어 日本의 代替型으로 매력을 모았고, 마르크스·엔겔스의 著作物이 번역되어 中國에서 出版되기로 했으나 1917年 以前까지는 이 양상이 活潑히 展開되지는 못했다. 레닌 以前의 마르크스主義는 資本主義의 經濟體制와 先進프롤레타리아階級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當時 中國 여건에는 不可能하였던 것이다.

事實上 當時 中國 指導層 人士들은 社會主義體制에 對한 關心이 날로 증가되고 있었다. 例컨데 孫文의 三民主義中 民生主義는 國民의 福利와 計劃經濟를 主眼으로한 社會主義體制에 매력을 가진 理論이라 할 수 있고, 陳獨秀는 民生主義와 現代技術에 重點을 두고 있었고, 李大釗는 傳統的인 國民의 價值觀의 改造發展은 機械的 過程에서라기 보다는 普通妥當性 있는 精神과 物質的 調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主張했다. 同時에 李大釗는 中國의 近代化는 傳統的인 中國思想과 外界의 現象에 符合되는 調和를 이룸으로써 可能하며, 真理는 現實에 存在한다는 信念으로 安定이나 力量보다는 運動이나 變動에 重點的인 價值觀을 形成시키고 있었다. 그의 哲學體系가 政治活動에 合理性을 제지하지만 그것은 事實上 마르크스의 唯物史觀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陳獨秀, 李大釗를 비롯한 初期 左派 理論家들은 1911年 辛亥革命으로 社會主義思想에 對한 關心이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社會主義에 對한 關心 表現에 신중을 기한 듯하다.

러시아에서 10革命의 성공은 中國에 마르크스思想 수입의 刺戟劑

가 되었으며 1918年 이른봄에 李大釗가 中心이 되어 中國에 마르크스研究團體를 組織하였는데 이 團體는 中共黨의 前身이 되었다. 1912年 以後 社會主義에 對한 關心 增大와 1918年 부터의 갑작스런 마르크스理論에 對한 關心膨大는 中國土着의 마르크스主義가 되지 못하고, 볼셰비키革命에 對한 맹목적인 호기심에 맹종하는바 되어 마르크스主義에 對한 中國과 西歐 및 러시아의 見解에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近代 民族主義의 形成과 中國 近代化의 모델에 對한 옵션은 相互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볼셰비키 러시아에 對한 急進派의 급증하는 關心은 1918年 베르사이유 講和 條約 後에 中國人들의 反西歐 感情에 크게 刺戟하였다. 一次大戰의 戰勝國의 一員인 中國이 파리 講和 條約으로 山東地方에 對한 獨逸의 利權을 中國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日本에게 引繼한다는 교묘한 現實때문에 李大釗는 이 條約을 유럽의 腐敗된 協定(The European spoiled Agreement)라고 呼稱했다<sup>⑪</sup> 한다. 이것이 原因이 되어 격분한 中國 學生, 知識人, 農民, 勞動者, 商人等은 西歐 背信者에 對해 즐거워 反抗運動을 展開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5.4運動으로써 反西歐, 反帝國主義, 反政府示威로 國民革命의 方向 指向에 決定的 契機가 되었고 이 運動으로 中國 識層 多數가 러시아쪽으로 轉向케 된 것이다.

---

⑪ Benjamin Schwartz ;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Harvard University Press. PP.10~11.



5.4 運動의 結果, 中國에 봄을 이룬 學風中 聖·시몽의 理想的 社會主義(St. Simon's Ideal Socialism), 바쿠닌의 無政府主義(Bakunin's Anarchism)을 비롯한 多様な 形態의 社會主義理論이 一部 急進派 知識層에게 매력을 占하게 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레닌에 依해 革命理論化된 마르크스理論은 當時 植民地 開拓에 分망한 帝國主義 打倒를 主張한다는 것과 러시아 같은 後進國에서 革命的 成功을 거둘 수 있었다는 事實, 여기에 두차레에 걸친 카라칸 宣言(Karakhan Proposal) 때문에 中國의 急進的인 指導層을 매혹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西歐 世界에 對해 強한 호소력을 가졌던 孫文까지도 當時 中國 大陸을 둘러싼 情勢와 상황때문에 마르크스理論에 매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점이다.

反帝國主義運動이 展開되는 여건에 있는 中國의 마르크스主義의 第 1人者였던 李大釗는 마르크스主義의 行動隊長 役割을 했고, 新文化 運動期에 北京大學에서 國際自由主義論을 강의하던 陳獨秀는 5.4 運動時에 李大釗와 合勢하여 反帝運動을 提창했고, 1918년에는 마르크스思想의 土着的 改造를 認定했지만 李大釗는 레닌 以前의 마르크스思想에 집착하고 있었다.

陳獨秀, 李大釗, 毛沢東을 비롯한 많은 初期 中國共產主義者들은 우선 中國에서 先 革命, 後 마르크스思想의 追從의 자세를 취했다. 5.4 運動期에 이들의 支配的인 主張은 強力한 軍事力, 英雄主義(Heroism) 및 왕성한 民族主義는 中國革命에 있어 絶對的인 基本要素라고 看做했다고 슈람(Stuart Schram)은 論회한다.

毛沢東은 1918년에 쓴 「心力」이라는 수필에 파울슨(Paulson)의 新칸트 哲學體系(Neo-Kantian System Der Ethik)을 楊昌劑가 번역한 번역서를 읽고 中國의 傳統과 西歐傳統을 混合한 倫理的 理想主義가 무엇이며, 唯物論者가 되는 方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觀念이 實際이며, 肯定이 否定이고 俗世가 非俗世이며, 空想이 思想이라고 말하며, 生이 死이며, 現在가 過去임과 同時에 未來이며, 未來가 또한 現在이고, 작은 것이 큰 것이고, 陰이 陽이고, 높은 것이 낮은 것이고, 不純한 것이 純潔한 것이고, 두터운 것이 얇은 것이고 實存이 말이며, 倍数가 하나와 같으며 오직 變動만이 永続한다는 것이 보편타당한 理論이라고 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1918年 8月 「新青年」誌에 게재한 「體育教育의 研究」라는 論文에서 毛沢東의 思想을 엿볼 수 있다. 이들에 依하면 初期 毛沢東의 思想은 唯物論的 側面에서는 活動的이었으나, 毛沢東 自身은 中國의 傳統文化와 政治文化에 強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特히 毛가 그의 祖國인 中國과 民族 特히 漢民族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1918年 7月부터 連續적으로 3회에 걸쳐 嚮道〔週刊〕에 연재된 「羣衆의 大同團結」이라는 제하의 論文에서 이 같은 事實을 엄연히 엿볼 수 있는바 事實上 슈람은 毛의 唯物論에 對한 主張 이면에는 民族感情이 크게 도사리고 있는 論文이 바로 이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⑫

⑫ Stuart Schram ;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Paeger, 1963.PP.7~21.

毛澤東 追從者들이 毛가 1920年 以前에 마르크스主義者로 完全 傾向했다고 主張하고 있지만 에드가·스노우(Edgar Snow)가 밝힌 바에 依하면 毛澤東이 1920年 上海를 두번째로 訪問하여 陳独秀를 만나 그동안 읽은 마르크스著書에 關한 質問을 통해 陳으로 부터 많은 感명을 받았으며 마르크스思想을 中國實情에 맞게 改造할 것을 결심했다고 한다.<sup>13</sup>

當時 中共指導者들은 現實 打開等의 畵선안은 反帝國主義運動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蘇聯式 共產革命의 成功에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10月革命의 刺戟을 받아 共產主義者가 된 그들은 革命을 遂行하면서 마르크스思想을 中國 實情에 맞게 改造해 나갈 수 있다고 看做 했던 것이다.

#### 4. 現實主義와 마르크스主義

러시아의 10月革命과 5.4 運動의 反帝國主義運動은 中國의 急進派 知識層 多數를 마르크스主義에 同調시킬 수 있었으나 막상 마르크스 思想의 受容問題에는 많은 어려운 問題와 意見衝突을 제기시켰다. 존·듀이의 影響을 받은 胡適의 現實主義와 李大釗의 마르크스主義 사이에 激烈한 論爭을 자아내고 있었다. 兩人 모두 國民黨의 近代化方向에는 反對하고 있었지만 現實打開을 위한 方案에는 意見의 一

<sup>13</sup> Edgar Snow; Red Stoa Over China, New York, Random House P.157.

致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胡適은 존·듀이가 中國을 訪問했을 때 行한 演說中에서 「現實問題의 깊은 研究가 思想보다 重要하다」는 文句를 내세워 中國의 知識人들은 個別的 問題, 實質的 問題, 社會的 問題에 보다 깊은 關心을 가지고 中國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外來의 환상적인 달콤한 思想은 中國의 現實에 符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當면한 現實을 打開할 수도 없고 諸般 社會問題를 解決하는데에도 별 도움이 못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에 對해 李大釗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하여 中國의 비참한 現實을 打開하기 위해 知識人들은 거국적인 民族運動을 展開해야 하며, 群衆의 규합과 구심력을 형성하고 共同方向을 제시하는 思想을 선정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胡適은 中國의 知識人들은 政治, 社會運動에 參加하기 보다는 社會問題의 調查와 그 解決을 위해 總力을 기우려야 한다고 맞섰으니 결국 두사람의 見解差는 理論的인 基本方向에 있었다기 보다는 社會問題 解決을 위한 手段에 있었던 것 같다. ⑭

마이 스너에 따르면 胡適은 個人的 倫理에 最優先權을 두고 있는 點으로 보아 막스·웨이버(Max Weber)의 窮極의 目標 倫理(The Ethic of Ultimate Ends)의 理論을 따르고 있지만, 胡의 主張과 같이 當時 知識人들이 中國의 社會現象을 수수방관하여 政治, 社會運

---

⑭ Maurice Meisner; Li Ta-Chao and the Origins of Chinese Communism,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P. 107~108.

動에 參與하지 않는다는 것은 知識 活用に 지나치게 인식한 姿勢  
 며, 이것은 中國의 傳統的인 儒家思想에 연유하는 結果가 아닌가로  
 정의하고 있다. 反面 李大釗의 主張은 知識을 自己의 判斷에 依  
 해 活用함과 同時에 社會, 政治的 現實이 必要로 하는 만큼 서슴  
 치 말고 가담하여 活用하라는 것은 自己가 希望하는 手段과 方法  
 이 自己의 責任에 如何히 符合되며, 自己 行爲와 活動이 社會에  
 如何한 利害關係를 주는가 하는 웨버의 責任 倫理(The Ethic of  
 Responsibility)를 따른 것 같다고 풀이하고, 李大釗가 마르크스  
 主義를 信奉하는 者였으므로 그 理論과 主張이 既存社會를 破壞하  
 고 極端的인 革命을 成就해야 한다는 浸透的이고 破壞的인 方向으  
 로 흐른것 같다고 評하고 있다. ⑮

胡適은 特定한 政治, 社會的 計劃이 결코 普遍妥當性を 지닐 수  
 는 없다고 看做하고, 이같은 尨대한 政治, 社會問題를 解決하는데는  
 經驗論的 解決方案을 모색해야 된다고 믿었지만, 李大釗는 마르크스  
 世界觀을 信奉, 우선 中國의 現實을 打開하는 데는 從來의 方式과  
 같이 먼저 政治權力을 掌握하고 나서 社會, 經濟, 道德的 諸般 開  
 化를 外部의 과중한 支援없이 中國의 自力으로 解決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初期 李大釗는 中國開化는 精神開化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막상 마르크스主義者가 된 後에는 人間과 社會問  
 題를 解決하기 위해선 먼저 革命으로 自己滿足을 가져와야 된다고  
 믿어 마르크스의 革命論인 革命을 위한 破壞는 건설적이라는 主張

⑮ Ibid PP.109-11.

을 信奉하였던 것이다. 이에 反해 胡適은 社会改革을 위해서는 결코 既存 社会秩序나 制度를 破壞하는 革新的인 方案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現實主義 (Pragmatism)에 立脚하여 社会進化는 美國과 같은 哲學的, 社會學的 開發이 要望된다고 믿고 있었다.

胡適의 의도는 좋았지만, 美國의 傳統에 中國을 追從시키려는 구상은 兩國의 여건이 판이하다는 점을 根本的으로 看過해버린 감이 없지 않다. 中國의 오랜 傳統은 비교적 安定된 狀態에서 繼續維持되어 왔고 中國人의 精神의 發展過程은 思想이나 民族精神 共히 演說的인 過程에 立脚하고 있다. 中國의 思想이나 民族精神은 個人主義에 根柢를 두고 있기 보다는 集團主義에 根柢를 두고 있기 때문에 胡適이 계의한 現實主義的인 方案은 中國社會를 再統合할 수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分散시키는 排他的인 性向을 보이게 될 우려가 있다고 풀이할 수 있으며, 그런 關係로 中國의 初期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이 데올로기의 問題에 普遍妥當性이 있는 合理的인 사항만을 내세웠던 것이다.

또한 胡適은 中國 古來의 慣例를 따라 社會가 自己意向에 맞지 않을 때는 現實 도피책 (Escapism)을 取할 수 있다고 했지만, 20世紀 초두의 中國 現實로는 知識人들의 現實逃避策만으로 解決될 수는 없었다. 社會的 不安과 暴動等으로 社会秩序는 分散되고 國家기틀이 흔들렸지만 當時 中國 指導級에 있는 知識人들의 大多數가 束手無策이었고, 이것은 1911年 淸朝의 滅亡으로 政治, 社會的 秩序紊亂은 極에 達했던 것이다. 當時 与件으로 보아 이들이 道家의 現實逃避策을 따르지 않는다면, 軍閥에 野合하거나 國民黨에 加担하는

길이었고, 現秩序를 完全破壞하고 새로운 社会秩序를 樹立해야 한다는 극단革命論인 마르크스主義를 따라야 하는 길밖에 없었으니 胡適은 国民党을 挾하고 陳独秀, 李大釗等은 共產黨을 따랐던 것이다. 勿論 個人的인 野望이나, 蘇聯의 음모, 마르크스思想의 沒理解등이 계제되고 있었지만, 當時의 中共指導者들은 마르크스思想을 받아들여 어지러운 既存社会秩序를 破壞하고, 새로운 社会를 建設하여 中國을 지키고 中國을 開發하려는데 主眼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 5. 初期 中共黨의 戰略

1921年7月 13名의 代表로 發足한 中共黨은 政權에 對한 鬭爭 努力을 전혀 試圖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初期 中共黨의 상황은 国民党과 콤민테른에 對한 對外關係와 中共黨 自體의 內的 意見衝突을 調整하는 三角關係의 維持에 급급하고 있었다. 1920年代의 中國의 實情과 콤민테른이 指示하는 中國革命論間에는 接近할 수 없었던 惡條件의 要素들이 山積하고 있었다.

콤민테른은 中國 共產革命을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主導해야 한다고 主張했지만, 當時 中國 實情으로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이 革命을 主導해야 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었다. 또한 콤민테른은 中國革命을 二段階로 分類, 革命의 一段階까지는 부르조아階級이 主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蘇聯과 콤민테른은 国民党이 中國 全體革命勢力을 代表한다고 看做하여, 中共黨이 勞動者, 農民을 代表하는 유일한 政黨이라는 中共

의 主張을 묵살했고, 더욱이 蘇聯은 中國에서 西歐勢力과 日本을 即時 추방하려는데 戰略的 關心을 集中하고 있었으므로 國民黨에게 強力한 指導權을 부여하여 蘇聯이 싫어하는 外勢를 中國大陸에서 먼저 추방하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完遂한다는 것이었다. 毛沢東이 中共黨의 黨權을 잡게된 것은 蘇聯과 共민테른의 中國 實情에 맞지않는 指示를 消化하려는 中共指導層의 갈등을 교묘히 利用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20年代 中共指導者들이 싫어하면서도 마지 못하여 共민테른의 指示를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事實上 레닌과 로이(M.N. Roy) 사이에는 共민테른의 政策決定 過程에서 民族問題와 植民地問題에 對해 甚한 論爭을 자아내고 있었다. 레닌이나 로이 모두 中國革命의 二段階的 부르조아 革命에 對한 마르크스理論을 수락했지만 植民地와 半植民地 狀態에 있는 國家에서는 与件이 달랐던 것이다. 레닌은 植民地 狀態의 地域에서의 革命을 프롤레타리아階級이 政權을 引受받을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할때까지는 부르조아階級이 革命을 주도해야 하며 与件이 許諾될때 共產主義者들이 革命勢力을 引受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反해 로이는 革命運動을 始終一貫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主 導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러시아 革命과정과 同一하다는 것이다. 레닌은 로이의 主張에 對해 그 正當性을 認定했지만 그것을 수락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레닌의 中國革命에 對한 主張이 本來의 自己 의도나 10月 革命 및 유럽 革命에 對한 自己의 信念과 相反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當時의 國際共產主義運動이나 러시아와



中国의 对内外与件을 考慮하여 自己意圖를 変更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로이의 主張에 同意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結果적으로 第2次 콤민테른大会는 레닌의 主張을 우선하여 採하고, 로이의 主張을 次善策으로 받아들였다. 그 主要内容은 植民地나 半植民地 国家에서는 유럽의 境遇와 같은 社会主義革命이 될 것이 아니라 거국적인 革命이 되어야 하며, 勞働者階級이 農民과 연합할지라도 主導權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이 가져야 하며, 프롤레타리아革命運動에는 外勢에 抵抗하는 부르조아階級과도 같은 보조를 取해야 하며, 与件에 따라서는 聯合体内에서 부르조아性向에 主導權을 許諾할 수도 있다고 宣言하였다.

當時 레닌과 로이 사이의 論争은 本質的이라기 보다는 序戰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후 레닌과 트로츠키 사이에 벌어진 中国에서의 소비에트形成(The Formation of Soviet)에 對해서 심한 論争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콤민테른의 指示를 公式的으로 中共黨이 지지한 맨처음의 發表는 1922年6月 第一次 中共黨의 時局声明에서 植民地와 半植民地 狀態의 国家에 對한 레닌의 指示를 따른다고 宣言하고 中共黨은 國民黨과 聯合하여 統一戰線(The United Front)을 形成함으로써 对内 軍閥을 打倒하고 外国帝國主義를 추방하는 民主的 聯合政體를 樹立해야 한다<sup>16</sup>고 主張했다.

當時 蘇聯이 中共에게 國共合作을 중용했던 主原因은 強力한

<sup>16</sup> Conrad Brandt and John K. Fairbank;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P.62.

當時 蘇聯이 中共에게 國共合作을 중용했던 主原因은 強力한 組織과 힘을 가진 孫文의 國民黨으로 하여금 反西歐, 反日本鬭爭을 效果的으로 展開토록 함으로써 蘇聯의 安保를 確保하고, 그 安定과 發展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陰謀가 1927年9月 蔣介石의 公비숙청으로 와해되자 中共의 巨頭 陳独秀를 트로츠키路線을 따른 右派機會主義者라고 숙청했던 것이다.

國共合作은 콤민테른 代表들의 끈질긴 努力으로 孫文에게 蘇聯에 對한 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國民黨을 소비에트式으로 改編하였고, 中共의 下部 統一戰線 戰略의 주효는 급성장하는 結果를 招來했다. 하지만 지나친 中共의 浸透 와해전술로 國民黨 간부의 반목을 사게 되고 蔣介石이 黨權과 軍權을 掌握하게 됨으로써 中共은 武漢에 汪兆銘이 王動이 되어 左派政府를 세웠으나 蔣介石에 몰려 위축되는데다가, 蘇聯에서 派遣된 고문사이의 불화로 蘇聯의 秘密指合이 汪兆銘에게 누설되어 左派政府는 와해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國共合作이 결렬되게 되자 스탈린은 一連의 보복運動을 展開하라는 指示를 내렸다. 1927年 8月~12月 사이에 南昌, 湖南, 廣東에서 무장폭동을 展開했으나 이 폭동運動이 차례로 失敗하자 蘇聯은 또 이 失敗責任을 中共 事務長 瞿秋白에게 돌려 그를 추방했던 것이다.

中國이 當時 与件으로 보아 부르조아 民主革命이 시급한 段階라고 決意한 콤민테른 執行委員會의 決意에 따라 모스크바에서 열린 第6次 中共黨大會는 「中國의 現段階는 帝國主義를 打倒하는 民主革命段階라 規定하고 프롤레타리아階級の 극도하에 勞動者, 農民階級の 民主的 指導體制를 樹立하기 위해 소비에트제를 中國에 實施해야 한

다. ①7고 宣言했다. 이때부터 中共黨은 李立三의 主導下에 國民黨과 分離하여 独自の 革命路線을 指向하는 時期가 到來했다. 해리슨(Jarves P.Harrison)의 풀이와 같이 이때 中共黨은 地方基地를 活用하여 都市에 거점을 確保하려는 「自地 包圍」를 試圖했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階級 主도의 革命을 主唱한 마르크스理論과 相反되는 試圖였고, 結局에는 李立三路線마저도 失敗하고, 李立三도 추방되었으나 1930年 前後 數年間의 中共戰略이 全般的으로 失敗하게 된 데에는 몇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 中國 實情을 度外視한 鄧小平의 指示, 둘째, 鄧小平과 中共黨의 國民黨에 對한 特性이나 革命役割의 判斷은 그릇된 것이었고, 實質性이 없었다. 1922年 陳獨秀의 見解는 앞으로 몇년후에는 國民黨이 부르조아性格을 脫皮하여 모든 階級을 混合하는 政黨이 될 것으로 看做하고 있었다. 이같은 鄧小平의 路線에 對한 不合理性에 中共黨 指導者間에는 甚한 論爭을 자아냈는데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毛沢東, 陳獨秀, 李大釗派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 가. 陳獨秀派의 見解

1920年 陳獨秀가 共產主義에 加担하게 될때 그는 中國이 資本主義 段階를 뛰어넘어 社會主義段階의 産業發展을 꾀할 수 있다고 믿었고, 러시아의 前例는 封建主義에서 社會主義로의 轉換이 매우 빠르다는 事實을 證明한 것이라고 믿었다. 1922~27年 사이에

①7 Benjamin T. Schwartz ; OP.Cit. PP.102-05.

陳独秀는 中共黨을 이끌면서 表面的으로는 馮민테른의 公式的인 姿勢인 國共合作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의 個人的인 立場은 이에 反對的 立場을 取하면서 相當히 거리가 있는 理論을 定立하고 있었다.

革命은 主觀的인 欲求에 依하여 發生하는 것이 아니고 客觀的인 經濟, 社會的 欲求에 依해 發生한다고 強調하고, 中國에서는 프롤레타리아勢力이 極히 미약하다는 革命에 對한 消極的 性向은 資本主義가 中國에 成長할 수도 있다고 觀察하였다. 陳独秀는 共產黨이 國民黨과 統一戰線을 展開하면서도 獨立政黨으로 存統해야 하며, 그 黨은 프롤레타리아 政黨과 同一한 特性을 견지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1924년까지 陳独秀와 그의 同僚 彭述之는 中國의 부르조아勢力은 反革命勢力이므로 農民에게 마르크스革命精神을 고취시킬 수 없다고 견제하고, 프롤레타리아가 主導하는 政黨만이 成功을 거둘 수가 있다고 主張했다. 1929年 12月 陳独秀는 國民黨의 構造와 부르조아革命性向에 對해서 誤算했다는 것을 自認하였고, 그는 蘇聯形態의 소부르조아階級, 프롤레타리아階級, 貧民階級을 全國적으로 규합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또한 그는 과감하게 1923年 以前 形態의 프롤레타리아 勢力의 總규합을 호소했으며, 馮민테른과 中共黨의 公式的인 政策을 非難했지만, 中國의 미개한 經濟, 産業体制의 正確한 把握과 그 장래의 方向을 선정치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요컨대 陳独秀는 러시아에서 트로츠키가 發生하기 前에 中國에서 發生한 트로츠키가 陳独秀라고 인지되고 있다.

나. 李大釗 路線

1925年에서 1927年 사이에 中共党的 公式路線을 反對한 者는 李大釗로서 그는 이른바 毛澤東 以前에 農民革命을 支持한 者이다. 1919年부터 李는 젊은 知識人들이 農村地方에 출신하여 現代 文明을 보급하라고 의치면서, 中國의 識層이 農村의 大衆과 격리되었다는 事實을 指摘하면서, 中國革命은 農民革命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農民은 農村地域의 勞動者들이 라고 進제했다.

李大釗는 国民党이 中國의 全体 國民을 代表하는 도구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普遍的인 中國機構라는 信念에서 1922年 国民党과 의 統一戰線을 도모할 것을 支持하였고, 1925年부터 国民党에 對해 不信을 갖으면서 農民의 革命的 役割에 對해 關心을 모았다.

毛澤東의 湖南報告書가 나오기 훨씬 前인 1926年 이미 그의 「土地와 農民」이라는 論文에서 中國革命은 農民이 주도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는데, 그는 中國이 經濟적으로 後屬國이며, 半殖民地狀態의 國家이며 農民이 全人口의 79%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全國的 職業分佈에서 보아도 農業이 中國 經濟의 主軸을 이루고 있으므로, 農民이 가장 重要하고 強力한 革命勢力이라고 主張했다.

유럽에서 農民의 未開성과 革命에 占하는 役割의 兩側面에 모두 李大釗의 農民觀은 어긋나는 것이며, 레닌의 農民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의 補助的 役割이라는 主張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1925~27年 사이에 나타난 李大釗의 저작물에서는 農民革命은 都市프롤레타리아革命 方向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기미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는 콤민테른이 提示한 부르조아革命은 社會主義 革命에 先行해야 된다는 主張

에 同意를 表하지도 않았고, 共産黨이 에리트의 精神을 開究하거나 農民을 尊重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當時 李大釗의 農民革命 理論은 콤민테른과 中共黨의 公式路線에 저촉되는 것이었고, 한때 콤민테른과 國民黨 左派에 對한 조심스러운 接近을 非難하는 農民暴動을 進압하려고 했을때 李大釗은 農民의 邊에 서서 農民革命을 支持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李大釗은 中國革命은 農民이 주도해야 하며, 農民이 中國의 傳統的인 革命的 活力素로 看做했다. 陳獨秀派와 國際共産主義者들은 中國革命은 都市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西歐의 그것과는 프롤레타리아概念에서 區別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으나 李大釗의 革命理論은 모든 革命이 中國에서는 農民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農民을 啓蒙하여 革命을 이루어야 한다는 見解로 毛沢東 以前에 農民革命을 王張한 者가 바로 李大釗였다.

## 6. 毛沢東思想의 成長

콤민테른의 指示에 움직이던 初期 中共黨의 公式政策路線이나 陳獨秀, 彭述之, 李大釗 같은 中共指導者들의 私的 見解 모두가 마르크스 레닌思想을 中國實情에 부합시킬 수는 없었다. 毛沢東 自身은 그네들이 現在 王張하는 바와 같이 正統派 마르크스主義者는 못되는 것이며, 그는 實際에 있어서 民族主義者임과 同時에 과격한 革命家로 그가 中共革命을 마르크스理論에 合致한 革命으로 이끌려고 했지만, 마르크스理論을 中共革命에 부합되게 改造해 간 것이다.

1945年 中共党 七中全会에서 채택한 中共党史에 依하면 毛沢東一派는 1927~45年 사이의 中共党路線을 3大誤謬路線의 連続으로 規定하고 있다. 즉 1927年 11月~28年4月 사이를 瞿秋白路線, 1929年6月~30年9月 사이를 李立三路線, 1931年1月~35年1月 사이를 王明(陳紹禹)博古,(秦邦憲)等 모스크바 孫独仙大学等を 수로한 復古派路線으로 規定하고 있다.

존·루(John Rue)에 依하면 이 期間中에 展開된 中共党 指導体制에 對한 毛沢東이 強硬한 批判的인 態度를 取하는 것은 中共党 中共政治局과 毛沢東 間에 얼마나 심각한 意見衝突을 자아냈는지를 說明해 주고 있다고 한다.

毛沢東은 共產主義者가 되기 以前에 反帝國主義者였고, 民族主義者임과 同時에 急進革命家였고, 共產主義者로 進향한 以後 基本的인 마르크스理論을 소화하는 過程에서 지나치게 革命的인 方向으로 기울려졌던 것이다. 軍閥政治에 反對하는 그의 初期 마르크스主義者로서의 폭력적 性向은 레닌의 民主集中制(Democratic Centralism)가 要하는 嚴格한 黨規에 自身の 個性을 調和시키려는 過程에서 나타난 갈등이 었다고<sup>18)</sup> 한다.

當時 毛沢東은 中共革命은 民主主義에 基盤을 두어야 하지 러시아나 콰민테른路線을 맹종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했다. 그는 民主集中制와 마르크스思想을 어느정도 理解한 後에도 獨自的인 見解와 國家

<sup>18)</sup> John Rue ; Mao Tse-Tung in Opposition(1927~35),  
Stanford University Press. PP.8-9.

觀을 갖고 있어 1927~35年 사이에 中共의 野의 生活에서 中共中央으로부터 3차례의 批判과 8차례의 징계를 받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毛沢東思想이란 이런 特殊한 与件과 상황에 依拠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中国 古來思想 및 中国 特有的 革命的 与件에 따라 發展된 것이다. 大体的으로 毛沢東思想의 成長 發展過程을 마르크스主義者로 進향하는 初期段階(1920~26), 農村 地域相對의 農民暴動으로 부터 遵義政治局 會議에서 党權을 掌握할때 까지의 試練期(1927~35), 新民主主義 계창의 形成期(1935~45), 그 思想이 무르익어가는 內戰期인 成熟期(1940~49)의 수단계로 大別할 수 있다.

#### 가. 究態期(1920~26)

1920年 초두 마르크스主義者로 轉向한 때부터 1927年 中共中央 政治局에서 추방되던때까지 毛沢東은 지각있는 마르크스主義者라기 보다는 오히려 과격한 革命家의 性向이 다분한 時期였다. 蔡和森에게 보낸 편지에 依하면, 러셀(Bertrand Russel)이 中國에서 行한 講演과 같이 教育의 힘이 國家를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進입하게는 못한다는 소신을 가졌다. 當時 毛沢東이 마르크스理論을 信奉하고 있었던 것은 事實이지만, 完全한 마르크스主義者로 轉向한 것은 아니었다. 부르조아階級 위주의 經濟体制은 共產黨의 宣傳活動을 억지시키고 있었기에 毛沢東 自身은 資本主義에 對한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다른 마르크스主義者들과 같이 教育이 어떻게 하면 부르조아階級の 本質을 改造할 것인가를 論했지만, 그의 主張은



마르크스主義의 唯物論에 基盤을 두었다기 보다는 지나치게 空想的的理想主義者로서의 現實에 對한 마찰에서 생기는 갈등에 棼부림치고 있던 때라 할 수 있다.

毛沢東은 歴史的 實例를 들어 人民의 支持를 받지 못한 絶對君主, 帝國主義者, 軍閥등이 결코 오래 存続하지 못했다고 전제하고, 當時 中國은 全體人口의  $\frac{2}{3}$  以上이 不滿에 허덕이는 프롤레타리아階級에 屬하므로 中國에서 資本主義는 이미 시들었고, 共產主義時代의 도래에 對한 當爲性이 要請되며, 이것은 벌써 具體化된 事實이라고 主張했다. 이같은 毛沢東의 當時 中國에 對한 民意의 解釋은 그가 마르크스理論家에서라기 보다는 過激한 革命분자적 性向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래서 그는 中國에서 革命이 要請된다고 전제하고 비약하여 共產主義가 中國革命을 위한 가장 適切한 體制라고 結論지은 것이다.

毛沢東은 이때 마르크스理論에 對한 知識이 박약하였기 때문에 國民黨이 中國부르조아 民族階級을 代表한다는 假定下에 國共合作을 宗용하는 崙민 테른路線을 추종했던 것이다. 1920年 초두에 毛沢東은 中國民族革命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는 階級은 商人階級이라고 믿고, 모든 階級은 聯合하여 軍閥과 帝國主義를 打倒해야 하지만 現段階로서는 中國革命을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商人階級이 革命的 主役割을 担当해야 하고, 또 이들이 責任있는 任務를 遂行해야 된다고 主張했다.

毛沢東에 依하면 中國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과 부르조아階級에 對한 基準을 마르크스主義의 概念에 따라 適用시킨다면 背景이 相異

한 關係로 不當하다고 이 分類概念에 對해 毛沢東 나름대로의 獨特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이 무렵 毛沢東의 中國 社會階級에 對한 姿勢는 西歐社會에 對해서 마르크스가 내세운 主張에 接近을 試圖했고, 階級에 對한 定義는 마르크스는 生産基準에 依拠한데 反해 毛沢東은 所有權의 限界에 따라 定義했다.

1926年 1月에 發表한 中國農民에서 毛沢東은 中國農民階級과 그들의 革命性向에 對해 分析을 試圖했는데, 그에 依하면 「어떤 國家나 社會를 莫論하고, 上層, 中層, 下層의 3大階級이 存在하고 있으며, 이것을 더 詳細히 分析하면 中國에서는 大, 中, 小부르조아階級, 半프롤레타리아, 프롤레타리아階級으로 5分할 수 있다」고 말했다. 毛沢東은 自己나름대로 中國 社會階級の 分類方式을 大別하여 3億9千5百萬이 半프롤레타리아나 프롤레타리아階級이고, 겨우 5百萬이 大, 中, 小부르조아階級이라고 主張하고, 그가 分類한 5大階級은 中國革命의 장래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毛의 이같은 中國 階級分類意圖는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中國人의 大多數를 占하고 있으므로 中國에서 共產革命이 不可避하다는 것을 強調키 爲해서 取해진 것이겠지만, 이같은 準마르크스主義的 理論에 根拠한 毛沢東의 階級定義는 얼마가지 않아 무용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926年에 벌써 그의 調査記錄에 依하면 마르크스는 革命의 主軸이 工場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主動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中國에서는 工場勞動者가 農民의  $\frac{1}{10}$ 에 不過한 것이었으므로 与件에 부응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을 都市勞動者와 農民을 包含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이 무렵에 나타난 毛沢東의 論文들에서 크게 두가지 性向을 엿볼

수 있다. ①与件은 相異하지만 本質적으로 西歐革命과 中国革命 方向이 同一해야 한다고 強調하여 「現代革命은 모두 基本的으로 同一하며, 그 手段과 目標도 同一하다」고 主張했다. 繼續해서 그는 革命의 目標은 反帝國主義이며, 그 手段은 被壓迫民族과 階級の 聯合鬭爭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革命의 同質性에 對한 毛沢東의 主張은 레닌의 反帝國主義革命 보다는 마르크스의 革命理論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中国의 革命勢力과 反革命勢力에 對한 毛沢東의 關心이다. 마르크스의 階級論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만, 中国革命의 成功은 大衆의 支持度에 달려 있다는 毛沢東의 主張과 中国의 階級分類方式은 그가 中国의 現實을 直視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反映한다.

#### 나. 試練期 (1927~35)

1927年 武力暴動에 失敗하여 中国 南部 井崗山을 中心으로 根拠地를 形成하여 党이 統率하는 農民軍을 組織하고, 多樣한 共產運動을 通해 中国 特有의 革命모형을 試圖함으로써 毛沢東思想은 特殊性을 갖고 形成하게 되었다. 이 무렵 毛沢東의 關心은 農民이 주축이된 革命運動에 쏠고 있었으므로, 마르크스思想의 体系化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 이 時期에 毛沢東은 中国革命에 農民의 役割에 對해 關心을 쓰고 있었으며, 그의 農民에 對한 關心은 中共党이 콤민테른 指示下에 国民党과 統一戰線을 展開하던 時期였으므로 毛沢東은 콤민테른政策을 公開發하는 非難하지는 않았지만 農民을 中国革命에 對한 獨立階級으로 看做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에 예속시키지 않으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었다. 페어뱅크 (John K. Fainbank) 와 스와크 (Schwartz)

에 依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者로서 그때까지 農民이 革命의 獨立階級이라고 主張한 者는 毛沢東밖에 없다고 한다.

1927年 湖南省의 農民暴動을 調査한 湖南報告書에서 毛沢東은 中國의 實情에 對해 깊은 關心을 쏟고 있었으며, 그에 依하면 앞으로 얼마까지 않아 中國의 北部, 中部, 南部에서 보다 広範한 農民暴動이 展開될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強한 政府의 措置로도 鎮壓할 수 없을 것이라고 前提하고, 中共黨은 農民을 主導하여 全國적으로 中國革命을 農民革命으로 轉換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우리가 農民革命을 主導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이들을 批判하고, 反對派側에 서서 農民들과 戰爭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毛沢東은 自答하기를 農民革命은 封建地主階級을 打倒키 爲해 農民들이 展開하는 革命運動이므로, 이것이 強力한 革命勢力이 되지 못한다면 數千年 歷史를 通해 勢力을 굳힌 地主階級の 勢力을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이므로 數百萬의 農民이 強한 革命勢力을 確保하기 爲해 農村地域에 革命의 물결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sup>19</sup>고 主張했다. 이런 側面에서 毛沢東의 湖南報告書를 未完成 毛思想이라고 指摘되고 있는 것이다.

毛沢東思想의 基礎가 農民革命에 關한 關心에서 根拠한다면 이것은 1927~35年 사이에 成長한 것이 確實하지만, 1929年까지 그는 都市地域의 革命運動을 爲해 紅軍을 組織 發展시키고 農村地域의 소비에트制를 勸獎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中國革命을 主導해야 한다는

<sup>19</sup> John K. Fairbank ; OP. Cit. P.78.

信念을 가지고 있었다. 毛沢東의 農民革命概念은 李大釗에게서 연유하지만 李大釗은 毛나 레닌처럼 黨組織과 프롤레타리아革命에 대한 農民의 具體的인 役割을 認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農民革命에 대한 毛沢東의 概念은 都市勞動者가 階級革命의 副次的 役割을 해야 한다는 레닌의 理論에서 派生된 것이겠지만, 毛는 中國 對內實情을 예리하게 把握하고 外部의 反革命勢力에 基盤하고 있으며, 이 期間에 發展한 毛沢東思想은 프롤레타리아의 中國 革命에 대한 役割을 度外視하지는 않았다.

1926年 毛沢東의 中國\* 社會分析에서 中國에서 中産層(民族부르조아階級)은 分離되어 一部는 左派革命을 支援하지만 一部는 右派에 加担하여 反革命運動을 展開할 것으로 展望했는데, 스탈린도 1925年 後進國에선 民族부르조아階級이 分散되어 一部는 革命運動을 支援하고, 一部는 反革命運動을 展開할 것이라고 展望하였는데 아마도 毛 自身이 스탈린의 主張을 뒤따랐는지도 모른다. 1926年까지 毛沢東은 國民黨이 中國民族부르조아階級을 代表하는 政黨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그 後부터는 國民黨은 오로지 중상의 부르조아와 買辦資本階級을 代辨할뿐이라고 主張했다. 1927年 毛沢東은 國民黨이 프롤레타리아階級과 農民을 背反했을 뿐만 아니라 民族부르조아階級까지도 背反했다고 主張했다. 이같은 國民黨에 대한 不信이 膨大하여 1940年에 이르러서 毛는 國民黨이 이끄는 買辦資本家와 官僚資本階級을 打倒키 爲해 프롤레타리아階級, 農民, 民族부르조아階級 卽치부르조아階級の 4大階級이 聯合路線을 展開해야 한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레닌主義와 마찬가지로 毛沢東思想도 特定한 与件에서 政治權力을 掌握하기 위한 一個의 原理이며 戰略에 不遇한 것이다. 毛沢東思想은 1927年 井崗山을 根拠로 活躍하여, 1929年 江西省에 小規模의 소비에트體制를 形成하던때 本格的으로 發展하였다. 1934年 6,000 마일의 大長征期까지 国府軍과 5차례의 大規模 戰鬪를 展開함으로써 산간에 農村基地를 形成하고, 紅軍을 창建하고, 紅軍이 점거하고 있는 地域에서 効率的인 戰鬪를 展開토록 하는 毛沢東 長期의 遊擊戰術이 發展함으로써 毛沢東은 農民革命의 成功에 對한 確固한 信念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 期間 毛沢東의 革命路線은 鄧小平과 中共党中央의 路線과 相返되는 中共党内의 野의 生活에 該當된 것이다.

이름 毛沢東은 마르크스의 政治와 階級의 分析方法에 따라 黨員과 幹部를 養成해야 된다고 強調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社会, 經濟現象을 正確하고 能率的으로 分析할 수 있고 党을 墮落시키는 지나친 理想主義를 막을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의 党組織과 紀綱에 對한 關心은 마르크스理論에 依存하기 보다는 레닌의 그것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지만, 毛의 先入感的 主張이 多분히 加味되어 있는 것이다. 初期 冒險主義的인 立場을 止揚하고 長期的이고 漸進的인 革命에서 成功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對한 代表的인 글은 湖南省委員會에 提出한 前敵委報告(1928.10), 中共中央委에 보낸 前敵委報告(1928.10), 1929年4月과 1930年1月 林彪에 보내는 편지 등에서 그 기미를 엿볼 수 있다. 이에 依하면 毛沢東의 新戰略은 수 段階를 거치는 持久戰法이어야 하고 이것이 完成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이다. 그의 見解로는 當時 中共은 中

국의 執權勢力으로 登場하려는 첫段階에도 未達했다고 前提하고 있다. 이 毛沢東의 新戰略은 1927年 以前의 레닌, 스탈린의 政策과도 相馳되는 것이고, 1927年 以後 콤민테른戰略에도 反對되는 것이었다.

毛沢東의 繼統革命論과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間에는 相當한 差異를 들어내고 있다. 스와루프(Shanti Swarup)에 依하면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은 부르조아 民主革命階級에서 社會主義革命段階로의 革命的 深度가 거듭할수록 프롤레타리아階級이 革命的 主導權을 잡아야 한다고 主張한데 반해 毛沢東의 繼統革命論은 農民이 主軸을 이룬 소비에트政府가 小規模地域段階에서 점차 全國的인 大規模的으로 擴大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對한 毛沢東의 關心은 中共黨員들의 低下되는 士氣에 集中되어 同僚黨員들에게 건전한 革命運動은 農民을 基盤으로 한것이 보다 實際的이라 主張했다. 이 무렵에 나타난 毛沢東의 革命戰略은 ①都市地域에서는 國民黨과 帝國主義가 支援하는 政治權力을 掌握한 軍閥들을 이간시키고, ②中部와 南部地方에서는 1926~27年 사이에 經驗한 革命運動을 부활하여, 이 地域에서 革命同調者를 索出한다. ③強力한 紅軍과 잘 組織된 中共黨의 建設을 주간으로 한 確固한 集中基地를 確保하여 기민한 軍事作戰, 經濟的 自給自足할 수 있는 基地를 確保하는 것등은 武力革命에 있어서 必須不可決한 事況이라고 主張하였다.

또한 毛沢東은 이른바 自地(都市地域) 革命에 對해서 中國의 共產革命勢力이 弱하지만 反革命勢力도 弱하기 때문에 中國革命의 速度는 西歐의 그것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展望했다. 毛思想의 發態期에 있어서 그는 마르크스主義의 一般理論 보다는 러시아革命에 매력

을 가졌고, 이것이 中國 實情에 符合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試練期에 있어서 毛沢東은 農村地域의 소비에트經驗을 통해서 中國革命에 對한 概念自体를 變更했다. 따라서 그의 初期 主張인 西歐와 中國의 革命方向은 同一하다는 概念에 차질을 招來케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農民革命運動에 關心을 쏟고 있었고, 이를 爲해 黨의 指揮에 따르는 紅軍의 訓練을 高度化할 것을 強調하였고, 革命을 원활히 展開할 수 있는 革命基地의 戰略的 利點등도 強調하였다. 當時 毛沢東의 革命論은 鄧小平이나 中共中央의 抽象的인 方向보다는 中國革命의 經驗에 바탕을 둔 實質革命에 보다 깊은 關心을 쏟고 있었고, 그는 初期의 선배들인 陳獨秀, 李大釗처럼 鄧小平의 指示를 받아들이면서 個人的인 見解는 달리 하였지만, 毛의 그 程度는 陳과 李의 그것보다 훨씬 能動的이었고, 實現性이 있는 具體的 革命方向을 提示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 다. 形成期 (1935~40)

毛沢東이 中共黨權을 確固하게 掌握한 때는 1935年 遵義政治局會議에서 1940年 新民主主義의 發表사이었다.

이 期間에 毛는 前의 어떤때 보다도 마르크스理論家들에게 많은 壓力을 받았고, 長征에 몰려 거점을 延安에 옮긴때가 일천하고, 中共黨에 對한 自身の 새로운 任務의 과중, 中國戰爭의 勃發등은 그가 中共革命을 遂行하는데 樂觀할 수 없는 많은 問題點을 提起시키고 있었다.

이 時期에 毛沢東은 理論과 實踐에 對한 一致性을 摸索하려는 試



圖에 集中하고 있었다. 1936年12月 中国革命戰爭의 特殊性 論議에서 毛沢東은 革命戰爭의 當爲性, 革命戰爭의 一般性과 中国革命戰爭의 特殊性을 糾明하려고 試圖하였다. 그는 다른 問題에서와 마찬가지로, 軍事的 原理를 客觀的 實踐의 理論的인 反映으로 理解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中에 그는 主觀性과 客觀性, 革命性과 反革命性間의 갈등을 解決해야 한다는 必要性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같이 理論的인 要素를 實際에 調和시키도록 努力함으로써 그가 기왕에 信奉하던 革命戰略이나 政治体制로서의 소비에트制는 農民의 不滿을 適切히 解消할 수 있고, 中國의 特殊한 經驗에 바탕을 둔 解決策이 要望될 때에는 適用해야 한다는 心념을 拋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例컨데 毛에 依하면 中國革命의 特性과 紅軍의 現實은 蘇聯이나 他國이 均霑할 수 없는 많은 特殊事情이 存依한다고 前提하고 中國革命은 持久戰的인 性向도 지나고 있다고 主張했다. 事實上 中國革命의 持久性에 對해서는 江西소비에트時節인 1930年을 前後해서 그가 屢차 主張한 理論이기도 하다.

1938年 10月 「新段階」에서 毛沢東은 「우리가 마르크스·레닌의 文學을 工夫할 必要는 없으나 創始者들이 問題를 分析하고 解決하는 方法論과 見解는 배워야 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研究하는 것은 다른 問題와 함께 우리들의 長久한 歷史的 特性을 理解하고 그것을 마르크스主義에 適應시키고, 中國人의 特性과 優秀性을 이 理論에 符合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主張하고, 繼續해서 「具體的 마르크스主義가 있을 뿐이지 抽象的 마르크스主義는 있을 수 없다. 具體的인 마르크스主義란 이 理論을 그 國家의 實情에 맞

도록 適用하는 것이며, 中國 實情에 맞지 않는 마르크스主義가 抽象的 마르크스主義라고 批判하고 마르크스主義의 土着化(Sinification of Marxism)는 中國 与件에 알맞도록 마르크스理論을 適用하는 것이라고 結論지었다.

로우(Donald Lowe)에 依하면 이 新段階는 毛沢東思想의 發展에 있어서 一大轉換點이 된것 같다고 한다. 이 時期는 普通的인 마르크스主義를 中國 實情에 맞게 適用시키는데 많은 갈등을 자아낸 時期였지만 이 論文은 毛沢東이 公式的으로 마르크스主義의 土着化를 宣言한 첫 作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毛沢東은 이 무렵에 中國革命趨勢의 中國史와의 關係에 對해서 많은 關心을 쏟고 있었는데, 毛는 中國史에 唯物史觀을 適用시켜 人類平等的인 原始社會에서 奴隸制度, 封建制度 順으로 中國史가 變遷해 왔다고 史觀을 整理하였다. 그러나 當時 中國은 西歐 帝國主義의 影響으로 半植民, 半封建狀態의 國家이며, ①自給經濟의 증식, ②農村의 地主와 都市 商業資本家の 聯合으로 國民을 彈壓하고, ③君主國家에서 軍閥과 官僚의 混合支配, ④虛弱한 民族부르조아階級이 外國資本主義와 國內 封建要素와 結託하고 있으며, ⑤封建階級과 帝國主義의 彈壓으로 農民은 飢餓와 貧困에 허덕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中國에서 新民主主義의 敵은 外國帝國主義와 國內 大地主階級과 買辦資本家が 結託하여 封建主義를 延長하려는 것이라고 規定했다. 中國의 特殊与件에 따라 中國革命을 促進시키려면 中小層 農民이 勞動者와 紐帶를 強化토록 하며, 都市의 뿌머 부르조아(知識人, 都市貧者, 手工業者, 專門職業家, 小商人等)가 團合하는 것이며, 買辦階級이

아닌 民族부르조아階級도 特定時間과 範圍까지는 聯合하여 革命運動을 展開해야 한다고 新民主主義論에서 主張하고 있다.

1940年3월에 發表된 「辨證法的 唯物論」에서 毛沢東은 理想主義와 物質主義에 關한 諸學派의 哲學體系를 分析하면서 思考過程에서 一般理論과 實踐에 關係된 두 哲學體系間의 矛盾을 꼬집어 理想主義者들의 知覺行爲는 單納히 學識의 根拠에만 依存하여야 한다는 主張은 知覺은 物質에 依해 制限된다는 唯物論의 真理를 廢外視하는 것 이라고 非難하고 辨證法的 唯物論만이 思想이 社會現象에서 抽出되고, 同時에 能動的으로 實際를 正確하게 認定한다고 主張하면서 知覺과 行爲의 合一性은 不可欠한 真理라고 主張하였다. 마르크스의 辨證法的 唯物論에 對한 毛沢東의 社會階級에 關한 意識은 反마르크스 (Pseudo-Marxist) 主義的 상황에서 論理的으로 分析하고자 하는 毛의 便宜의 依存일 것이다.

이 時期에 毛는 中國 現實과 마르크스理論을 調和시키려는 새로운 理論의 必要性을 試圖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戰略的 關心은 抗日鬪爭, 中國의 特殊한 社會構造와 內部事情은 中國에서 소비에트制度를 實施할 수 없게 만들었고, 新民主主義論을 提示하지 않을 수 없도록 毛를 誘導한 것이다.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은 勞働者, 農民, 프머·부르조아, 民族부르조아의 四大階級の 聯合을 提唱했지만, 江西소비에트時節의 統一戰線理論에 따르면, 農民, 勞働者, 軍隊階級만의 聯合을 主張하였다. 이같이 毛沢東이 聯合概念을 擴大한 것은 毛兒蓋會議에서 戰時 國共合作을 提議한데 起因한다고 할 수 있다. 1920年代 革命論에 對한 毛沢東의

主張은 集約되어 있었고, 1937年 中国戰爭은 中国人의 共同敵에 對한 敵愾心때문에 毛는 戰爭遂行을 爲해 4大階級の 聯合으로 各階級の 利益을 國利에 歸屬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 新民主主義論은 延安의 소비에트制를 破棄하는 宜言이지만 毛沢東思想에 中国民族主義의 要素를 深化시킨 契機가 된 것이다.

#### 라. 成熟期 (1940~49)

毛沢東은 自身の 未熟한 마르크스理論이 現實에 直面했을때, 混亂을 일으키는 根性때문에 理論과 實踐의 合一性의 지나친 強調를 늦추고, 現實 그 自体를 直視하려는 試圖를 보인것 같다. 極斷主義(Extremism)을 避하려는 目標下에 主觀主義(Subjectism)을 배경하고, 教條主義와 黨入股主義를 배경하는 黨整風運動을 展開하여 黨幹部들의 이데올로기教育을 위한 訓練을 試圖했던 것이다. 表面的으로 整風運動은 戰沒로 因한 幹部不足, 게릴라活動 地域의 擴大에 따른 人員不足, 新黨員의 급작스런 增加에 기인하는 것이었지만 事實上 이것은 王明, 博古等 復古派의 肅清과 콤민테른政黨과 中国 現實의 罅에서 派生한 副作用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을 通해서 毛沢東의 一人体制를 공고히 하려는 試圖였다.

分明히 毛는 理論과 實際에 대해서 理論은 實際에 부응해야 한다는 實際爲主의 概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當時 中国의 政治實態를 分析함에 있어, 中共이 이끄는 農村과 都市의 프롤레타리아階級과 國民黨이 이끄는 大地主, 大資本階級과의 革命鬪爭에 있으며, 兩側은 中間階級과 大衆의 支持를 얻기 위해 相互競争한다고 定義하고, 革命

의 主張에 있어선 國民黨과 統一戰線을 戰時에 展開한다는 協定을 公開的으로 破棄하지 않으려는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다. 毛澤東이 國民黨과 統一戰線을 展開하고 있을 때 共產黨이 大衆의 支持를 보다 広範하게 받고, 大衆에 基盤을 두고 있다고 호언함으로써 國民黨에 压迫感을 加增시키려는 戰略으로 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數年後 中共의 地位가 보다 確固해지자, 毛澤東은 聯合政府論에서 國民黨을 排除해야 된다고 主張하여, 그 理由로 國民黨은 買辦民族 부르조아階級만 代表하지만, 中共黨은 民主主義에 基盤을 둔 広範圍한 諸階級과 大衆의 支持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2次大戰이 終了되자 1928年 以來 國民黨과 中共黨이 對立했던 많은 理由들은 中國을 內亂으로 몰았다. 兩黨은 事實上, 理念, 目標, 本質, 性格等 諸般 側面에서 서로 融和할 수 없는 差異를 들어내고 있었다. 國民黨의 指導理念은 性格上 신중성과 保守的 性向이었으며 그들의 政治權力은 軍高位層과 그들이 統率하고 있는 軍部の 支持를 얻고 있었고, 그들의 理念的 호소는 以後 出공 中國의 傳統的 民族主義와 新儒學思想의 健全한 調和에 있다고 強調하였다. 이에 反해 毛澤東이 이끄는 中共黨은 黨員과 農民으로 組織된 紅軍의 支持를 얻으면서 新時代에 새로운 이데올로기 教育을 強調하면서 戰爭으로 荒廢된 中國再建에 主眼을 두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1949年 毛澤東式 共產革命이 中國에서 成功하게 된 것은 蘇聯에서 볼셰비키革命이 成功한 것 보다 더 큰 驚愕心을 世界에 불러 일으켰다. 毛澤東思想이 成長하는 過程에서는 中國의 革命을 完成키 위해 中國의 特殊性을 우선 開闢했지만, 1949年 中共政權이 成立된 以後부터는 中國의 革

命路線을 마르크스理論에 符合시키도록 本格的으로 試圖했던 것이다.

內亂期에 毛沢東은 理論과 實際의 矛盾에서 나타나는 反應으로 新民主主義論을 거듭 強調했으며, 이것을 內戰期の 革命에 對한 當爲性的 目標로 삼았다.

1949年9月 中共政權 선포 卽前 毛沢東은 中共革命的 成功에 도취되어, 中共革命이 成功하게 된 理由를 세가지로 들고 있다. 이것은 ①마르크스·레닌主義는 中國의 社會建設에 不可欠한 것이었고, ②理論이 革命實際에 調和를 이루고 中國人이 마르크스主義를 正確하게 포착한 것이며, ③만약 이런 調和를 이루지 못했다면, 마르크스·레닌主義보다 좋은 理論이라 할지라도 無効였을 것이라고 前提하고, 中共의 經驗에 依하면, 革命은 모든것을 變動시킬 수 있다는 事實을 証明했으며, 앞으로 中共은 世界最大의 人口와 豊饒한 生産力을 가지고, 生活을 향유할 것이라고 호언했던 것이다.

## 7. 結 論

儒學의 普遍主義的 精神에 基盤을 둔 古來의 中華思想의 指導理念을 고수하던 19世紀의 保守主義者들은 中國近代化에 對한 那뉘듯한 方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었다. 主体意識을 強化할 것을 主張하는 自強派의 中國近代化方案은 實質的이라 할 수 있지만 中國이 單一國家임을 고집하고 新世代感覺에 맞는 制度를 따르는 民族國家로의 指向을 한사코 反對했던 것이다. 西歐化된 急進의 民族主義者들은 中國傳統을 抹殺하는 哲學的인 新 價值體制를 形成해야 한다고 主張

하는가 하면 漸進的인 民族主義者들은 오랜 時間을 통해 中国의 近代化를 推進해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當時 中国의 實情은 너무 艱박했던 것이며, 革命的인 民族主義者나 共產主義者들은 西歐와의 均衡을 維持하면서 急進的으로 中国의 近代化를 展開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1928年 以後 国民党은 曾國藩의 儒學的 體系에 基盤을 둔 政治思想을 追求했지만, 中共黨은 마르크스·레닌主義는 反西歐思想에 基盤을 두고 있고, 中国 傳統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指導思想이라고 國民을 煽動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아가 마르크스理論이 中国의 當面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西歐社會를 凌駕할 수 있게 中国社会를 資本主義 段階를 뛰어넘어 社會主義 段階로 이끌수 있다고 煽動했던 것이다. 마르크스理論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을 主張하고 있지만 中国프롤레타리아가 共產革命에 別다른 役割을 하지 못했으며, 콤민테른은 中國革命의 二段階論을 提示, 一段階는 부르조아革命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國共合作을 嚮導했지만, 1927年에 國共合作이 決裂되자 毛沢東一派는 井崗山에 根柢를 두고 새로운 獨創的인 中國革命方向을 摸索했던 것이다. 毛沢東은 中國革命 二段階說에 對해 一段階에서는 부르조아의 支持를 받는 農村革命을 完遂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毛沢東의 革命戰略은 레닌의 그것과 몇가지 點에서 다르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革命을 主導해야 한다고 主張하였지만, 毛는 勞動者, 農民을 理論的으로는 同等하게 取扱하면서도 實際的으로는 絶對多數인 中國農民이 革命을 主導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共黨이 広範한 中國大衆의 支持를 얻기 위해 国民党은 大地主, 大資本階級과 買辦資

本家を 代表하는 政黨이라 糾彈하고 中共黨은 大衆的 組織으로 勞働者, 農民, 쁘띠, 부르조아, 民族부르조아의 四大階級の 聯合戰線을 提唱했던 것이다.

毛沢東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改定이나 土着化運動은 長期間에 걸쳐 漸次的으로 展開되었다. 1920~26年 사이 毛沢東은 中國의 現實에는 外面하고 蘇聯과 콤민테른의 指示를 盲從했던 時期이며, 1927~34年 사이에 毛沢東은 中國의 農民革命을 展開하면서 蘇聯의 모형을 漸次的으로 離脫하였던 것이다. 毛沢東의 中國土着革命에 對한 処方은 毛가 中共黨權을 掌握한 다음부터이며, 이로써 理論과 實踐의 合一性을 強調하여 主觀主義와 敎條主義를 排擊하는 整風運動은 毛沢東思想의 成熟에 決定的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49年以後 毛沢東은 民族의 社會, 經濟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延安時節에 行한 持久戰의 戰略의 적용을 試圖했다. 毛沢東은 中共의 經濟, 政治問題의 現在와 將來에 對해 中國의 歷史보다는 마르크스思想에 依해 解釋하고 있다.

結果的으로 毛沢東의 中共革命은 마르크스主義에 立脚한 革命이라기 보다는 當時 外勢의 壓力에 倚靠하는 中國을 救하고, 指導理念의 不在로 홀어지는 中國大衆속에서 急進의인 革命으로 政治權力을 掌握하려는 意味에서 마르크스理論中에서 中國人에게 共感을 얻을 수 있는 要素란을 들고 나섰으며, 中國에 맞지않는 마르크스理論을 中國 實情에 맞도록 하는 마르크스理論의 土着化를 試圖했던 것이다.



## 参 考 文 献

- o Briere. O.J. ; Fifty years of Chinese philosophy, New York. Praeger. 1965.
- o Robine G.Quale ; The Eastern Civiliz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afts. 1966.
- o Wing-Tsin Chan ; A Source book in Chinese Philosop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 Y.C.Wang ; Chinese Intellectual and the West(1872-194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o Ssu yu-Teng and John k.Fairbank ; China's Response to the West, Harvart University Press, 1954.
- o James Chieh-Hsiung ; Ideolog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1970.
- o Joseph J.Levenson ; Confusion and Its modern Fate, Berkley, California University Press.
- o Benjamin Schwartz ;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Harvard University Press.
- o Stuart Schram ;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Praeger 1963.
- o John Rue ; Mao Tse-Tung in Opposition(1927-35) Standford University Press.
- o Edgar Snow ;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Random House.
- o Conrad Brandt and John K. Fairbank ;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sism, New York, Athenews 1966.

- 金相浹著 ; 毛沢東思想, 知文閣
- 羅昌柱著 ; 中共指導思想論, 國際學術院
- 羅昌柱著 ; 中共外交論, 一潮閣
- 羅昌柱著 ; 國共合作을 通한 中共戰術, 國土統一院
- 毛沢東 ; 毛沢東選集, 人民出版社

## 第二章 中共革命과 「이데올로기」



## 第二章 中共革命과 이데올로기

### 1. 中共革命의 特性

本章에서 筆者는 ①革命的 本質이 무엇인가? 그리고 中共革命이 革命의 本質에 얼마만큼이나 接近하는지를 규명해보고, ②마르크스·레닌主義가 中共革命에 얼마만큼이나 作用했는가를 해쳐본다. ③中共黨의 正統性이란 무엇인가? ④毛沢東下에 있는 中共黨의 指導權의 目標은 무엇인가? ⑤毛沢東下에서의 이데올로기의 技能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究明을 시도해 보고저 한다.

• 革命은 暴力的 物質鬭爭을 통해 政治權力의 계승이다. 社会變動 變數에 대한 社会自体内의 메카니즘이 社会機能의 障礙를 원만하게 解決할 수 없고 (Disfunction), 社会問題가 社会全体 技能의 癆의要素로 전과되거나 秩序回復을 위한 非暴力的 動員의 能力이 심히 감소되면, 變革에 對한 壓力이 팽대하여, 自動적으로 革命 要因을 誘發시켜 變動變數가 全般的으로 감염되는데 이때는 革命이 불가피 하다.<sup>①</sup> 고 존슨(Chalmers Johnson)은 革命的 社会学的 研究(A Study of Sociology of Revolution)에서 定義하고 있다.

中共革命의 歷史的 背景을 考察해 볼때, 이 존슨의 定義중 몇가지를 反映한다. 太平天国亂後 半世紀 동안은 中国社会의 正常的인 技能은 마비되었고, 西歐勢力의 浸透, 軍閥間의 權力相爭, 中日戰爭等은 中国 社会技能을 마비시키는 加速劑가 되었다 할 것이다.

---

註① Chalmers Johnson; Revolution and Social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PP. 1~22.

그러나 존슨은 政治, 社会的 壓力이 變革에 對해 重點的으로 다른 原理이므로, 中國革命은 이보다 附加的 要素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19~21世前에 새로운 도전에 부딪혀 分散되던 中國 指導理念인 儒學思想으로, 當時 中國은 새로운 體制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를 代替할 수 있는 新價值體系가 成立되어야 했다.

紀元前 136年에 國家의 指導理念으로 등장한 以來 儒學思想은 傳統的인 中國社會의 外部構造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中國人의 精神 바로 밑바닥을 형성해 왔다. 中國에서 儒學은 西歐社會의 法律, 基督教의 救世理念과 社會倫理, 社會正義를 綜合시킨 것과 유사한 社會價值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 儒學의 治世理念인 理의 沒落은 社會, 政治的 分散을 招來하는 가장 심각한 機能장애 요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마르크스·레닌理論과 볼셰비키革命은 不具化된 中國의 社會理念을 마비시키는 加速劑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존슨은 革命的 政治, 社會的要因에 主力하고, 文化와 이데올로기의 側面에 對해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지만, 이것은 中共革命에서는 막중한 作用을 했다는데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中共의 思想改造運動, 敎理敎育運動, 社會主義敎育運動等을, 새로운 社會主義人間을 形成하고, 새로운 思想體系와 文化體系를 형성하려는 데 目的이 있는 文化, 이데올로기革命運動으로 一貫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文化·理念革命은 毛沢東이 中國에서 추구하기를 시도하는 永久革命의 集約된 概念이기도 하다.

1927年 毛沢東은 革命은 단란회(單亂會)가 아니고……한 階級이 적대계급을 타도하는 暴力的 기교(奇巧)에 의한 鬪爭이다 라고 主張했는데, 만약

註② 羅昌柱 著; 中共指導思想論, 國際學術院. P. 73.

中共革命이 이와같다면 1949年 中共政權이 成立됨으로써 完遂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1958年 毛沢東은 中共이 社会, 經濟革命期에 접어들었고, 이것은 政治, 이데올로기, 技術, 文化革命과 併行하고 있다고 主張한 것을 보면, 中共革命은 만찬회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暴力革命보다도 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英國, 美國, 仏蘭西, 러시아의 諸國革命을 比較研究한 브린튼 (Crane Brinton)은 이 國家들의 革命過程上의 共通點 도출을 시도했다. 이에 依하면 이들은 革命의 回復期 (Convalescence)를 맞기 전에 感染期 (Predome) 加熱期 (Fever) 災亂期 (Crisis) 등 수단계를 共通의으로 經유했다.<sup>③</sup>고 한다. 中共革命도 이와 유사한 몇 단계를 거쳤지만, 러시아, 美國, 프랑스, 영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外國 帝國主義의 착취같은 革命的 特性을 지니고 있었다.

이어 브린튼은 1898年 百日天下計劃의 失敗로 1830年代부터 參與되어 오던 革命중조가 최고조에 달했고, 지식층의 封建王朝에 對한 忠誠心이 심히 分散되어, 1898~1910年 사이는 도위가 (Empress Dowager)의 경우처럼 中國革命의 加熱期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11年 清朝의 滅亡은 革命의 災亂期로 접어들게 했고, 이 期間은 袁世凱의 손에 權力이 集中化되던 때였다. 그러나 袁의 沒落은 1916~27年 사이 무질서한 軍閥간의 鬭爭을 자아내 새로운 災亂期를 맞을 加熱期라 할 수 있으며, 이때 蔣介石은 中國을 統一하고 南京政府를 세웠던 것이다.

國民黨 政權의 國威伸張과 治安秩序의 確保는 日本帝國主義의 威

註③ Crane Brinton; An Anatomy of Revolution, New York, Vintage 1965, PP. 221~225

脅을 가중시켜 1937年 中日戰爭을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國民黨 富豪들의 勢力팽창은 革命 意識을 심히 감소시켜 다시 革命的 回復期가 보이는 듯 했으나, 內戰期의 걸잡을 수 없는 權力分散은 革命的 熱을 불러 일으켜 1949年 기점으로 決定的 危機로 몰았던 것이다. 이로써 集權한 中共은 權力의 中央集中을 시도하였고, 브린튼이 말한 革命的 狂亂期 (delirium)은 文化大革命期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브린튼의 豫見보다 훨씬 위에 온것이라 할 수 있다. 브린튼에 依하면 回復期는 災亂期가 끝난 다음에 自然的으로 도래하는 段階로 旧秩序에로의 환원적 性向이 농후한 短期的 現象이라고 한다.

그는 例로써 프랑스革命期의 로베스피어 (Robespierre)의 몰락을 回復期로 보고, 러시아에서는 레닌의 生存末期로 보며, 1921年 러시아에서 新經濟政策 (The New Economic Policy.) 宣布後에 나타난 소비에트의 企業家와 프랑스에서 로베스피어 몰락후에 나타난 利潤業者들을 比較評價하고 있다.

또한 그는 소비에트의 新經濟政策의 失敗와 1928年 以後 스탈린의 計劃經濟策은 18世紀 부루메어 (Brumaire) 구데타以後에 군림한 나폴레옹의 政策과 별로 다를바 없다고 主張한다.

毛沢東은 中國革命이 階級鬪爭에서의 主導權問題와 反帝國主義的 側面에서 他國革命과 根本적으로 區別된다고 主張했다. 西歐의 부르조아 民主革命은 부르조아 階級이 主導했지만, 中國에서는 中共黨의 指揮를 받아 勞動者, 農民이 革命을 主導하였고, 볼세비키 革命도 中國과는 달리 帝政러시아 自体가 帝國主義 國家였다는 것이다.

브린튼은 外勢의 抑圧으로 因한 革命을 다루지 않았고, 中國에서



封建王朝의 滅亡은 神聖 로마帝國의 滅亡과 오토만 (Ottoman) 의 滅亡, 英國王朝의 滅亡때와 같이 新形態의 새로운 國家再建의 必要性에 起因한다고 說明하고 있지만, 當時 中國은 長期間에 걸친 帝國主義國家에 對한 反抗과 封建王朝인 天子國家에서 民族自治國家로의 전환이라는 重大한 시련대에 서있었던 것이다.

20世紀 初頭 中國의 近代化를 위한 熱望에서 孫文, 蔣介石, 毛沢東을 비롯한 많은 革命指導者들이 反帝國主義를 표방했지만, 이들은 中國 장래 革命方向에 對해서는 심한 차이를 들어내고 있었다.

러시아의 革命에 對한 레닌의 根本的인 關心은 資本主義의 惡을 타도키 위해 마르크스主義의 革命運動을 扞한것은 아니었지만, 러시아의 社會 近代化와 工業化를 促進시키려는 誘因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기초로 마르크스主義를 活用했다고<sup>④</sup> 우람 (Adam Ulam)은 정의하고 있는데, 毛沢東의 의도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인가?

大衆의 自發的인 參與는 社會, 經濟的 不均衡을 시정하고, 大衆과 에리트間에 놓인 政治, 社會的 장벽을 무너뜨린 다음에야 可能했을 것이며, 大規模의 土地를 所有한 大地主와 特權資本家들로 구성된 旧式에리트를 타도하고, 農民과 노동자의 地位와 生活을 向上시키겠다는 主張은 當時 비참한 現實에 혀터이는 中國人의 심리적인 刺戟劑가 되었을 것이며, 이렇기 때문에 毛沢東一派는 中共이 旧式 秩序를 完全히 剷해 버리고, 새로운 아주 單판의 國家를 建設하겠다는 口号가 大衆에게 호소력을 갖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毛沢東은 1940年 新民主主義論에서 「破壞 없이 건설이 있을 수 없으며, 戒방이

註④ Adam Ulam; The Unfinished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0. P. 155-180

없으면 洪水가 있지 않고, 中斷이 없인 運動이 있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主張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破壞는 貴族独占의 國家와 大衆이 根柢한 社會間의 장벽을 제일 먼저 해소하며, 이 장벽은 大部分의 匪細匪國家처럼, 中國에서도 다양한 形態의 凍結(Immobility)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經濟的 凍結(農民의 기아와 地主의 포식), 市民凍結(大衆의 參與不足), 業務보다 명예에 치우친 階級凍結, 表面的 狀況과 傳統的 狀況에 기인한 心理的 타성등이 이것이라는 것이다.

中共黨의 建設的인 計劃은 國家再統一, 새로운 價值觀의 定立, 社會組織 人間關係의 새로운 規範의 定立, 새로운 一體感의 確立, 國家近代化를 促進시키는 새로운 技術開發等이 여기에 包含된다. 中共黨의 口號는 對內的으로 反封建이고, 對外的으로 反帝鬪爭이었다. 그래서 毛沢東은 愚公離山이라는 逸話에 中共革命의 持久性을 비유했던 것이다.

## 2. 中共革命의 目標

毛沢東은 新中國概念을 民主, 富強, 統一國家로의 發展이라고 定義했는데, 슈람(Stuart Schram)에 依하면 富強이란 概念은 中國의 傳統的인 概念인 富國強兵에 연유하지만, 民主라는 概念은 民主主義라기 보다는 人民에 關係된 것으로 풀이했다.<sup>⑤</sup> 1949年 毛沢東은 中共革命目標를 再定義했는데, 이에 依하면 中國을 農業國家에서 迅速히 工業國家로 발전시킴으로써 社會主義 國家를 建設해야한다고 定義했다.

註⑤ Stuart Schram; OP.Cit. PP.277 - 78.

人民民主主義專政에서 毛는 中国의 当面 과제로 ①人民國家 技能의 強化, ②地主階級과 부르조아階級の 打倒, ③民族 부르조아階級の 再調整, ④農民教育의 強化, ⑤窮極의인 社會主義와 共產主義國家를 形成키 爲해 勞動者와 中共黨의 支配下에 新民主主義의 建設, ⑥工業國家水準의 經濟發展을 爲해 農業과 工業의 社會化를 提唱했던 것이다.

充分한 研究와 體驗도 없이 1956年 毛澤東은 蘇聯과의 理念鬭爭에서 이데올로기 整化運動은 社會主義의 實現 以後에도 繼續되어야 한다는 高집으로 修正主義論을 제기했고, 社會主義 段階 그 自体가 부르조아要素가 完全 除去된 것이 아니며, 毛澤東은 社會主義 國家 建設이 中共革命의 目標라고 믿지도 않았고, 中共革命이 社會主義 社會를 建設함으로써 完遂된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다.

슈와츠(Benjamin Schwartz)에 의하면 全體主義的 政治權力만을 추구하는 것이 中共의 目標라고 看做하는 것은 不當한 表現이며, 오히려 여기에 中國史를 통한 社會 近代化와 國家 建設이라는 目標가 부가되는 것이 妥當한 것이라고 提議하고, 만약 中共이 國家 近代化와 社會開發을 도모하고 強力한 影響力을 行事할 수 있는 國家關係를 樹立한다면, 政治權力은 自然히 強化되고 正當化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하고 이데올로기와 政治權力의 두 要素를 中共指導者들은 目標와 手段의 關係로 ⑥主張해 왔으므로, 1949年 이후 中共活動을 주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中共革命의 目標를 간추릴 수

註⑥ Benjamin Schwartz: Modernization and the ma's Vision, Some Reflections on Chinese Communist Goals. China Quarterly No. 21(1965).

있을 것이다.

①中共指導者들이 主張해 온 바와 같이 새로운 政體, 새로운 制度, 새로운 使命과 國際關係에 있어 새로운 權威를 伸張할 수 있는 中國 社會의 建設. ②마르크스理論體系를 樹立하기 위해 繼統的인 思想의 주입, 再教育과 이에 대한 適應을 통한 社會價值觀과 行動樣式의 指向, ③人民民主主義 專政이라는 政治體制로 國家와 社會를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作風을 수반하는 社會動員體制의 強化, ④傳統的인 第一集團(家族單位의 社會)으로 부터 忠誠心과 集團意識概念을 民族國家的 黨과 새로운 作業關係 集團으로 轉向, ⑤프롤레타리아精神에 스며든 國家와 個人間의 一體感 形成의 試圖, ⑥在來式 技術과 現代技術을 調和시킨 技術教育의 改鑿, ⑦集團의 手段에 依한 急進의 發展을 刺戟할 수 있는 經濟體制의 社會化, ⑧外國의 支配나 依存을 배제한 強力한 現代 國家의 定立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中國에 共產政權이 成立된 것은 共產主義의 本質에 부합된 制度의 實現이 아닌 權力追求라는 단순한 目的에서라기 보다는 毛沢東革命과 國家建設은 中國을 近代化하려는 欲望이 混合되어 있으며, 近代化의 一般的 目標을 마르크스 理論에 適應시키려는 것이라고 우람은 지적하고 이것은 레닌의 革命理論과 一脈相通하며 마르크스理論은 強力한 工業化와 近代化를 위한 理論的 根柢를 제시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 3. 中共革命과 마르크스·레닌主義

우리의 學習改革이란 演說을 통해 毛沢東은 1941年 5月 「中共의

目標는 中國革命의 成功이고, 화살은 마르크스·레닌主義로 中共黨은 이 화살이 中國革命과 東方革命의 目標를 적중시키는 것을 보기위해 감시해야 하며, 만약 이 화살이 빗나갈때는 한낱 가치없이 버려진 부러진 화살과 같다」고 했다.

마르크스理論이 毛沢東에게는 目標를 위한 手段이었고, 中共革命이란 과녁은 마르크스理論과 전혀 独立的으로 存在한다고 간주한 것 같다. 이같은 半마르크스主義的 연역에도 불구하고, 毛沢東革命의 目標구조에는 마르크스理論의 役割에 대한 再評價를 암시해주고 있다.

존슨 (Chalmers Johnson) 은 中共이 中日戰爭時 敵軍 裏面에서 結果보다는 革命을 위한 理論的인 도구로 마르크스 理論을 活用토록 시도했고, 이것을 農民이 지지토록 시도했다고 풀이했다. 黨은 好戰的이고 急進的인 性向을 보였고, 中共黨의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解釈은 中國의 民族主義에 부착되어 있다고<sup>⑦</sup> 主張했다.

이같은 존슨의 見解는 中日戰爭이 한창이던 時期였고, 더욱이 中共의 勝利에 對한 展望이 거의 없었을때의 狀況이었다. 그러나 中共政權이 成立된 以後 毛沢東態度와 특히 1958年 以後의 性向으로 미루어 보아 마르크스主義가 中共革命에 있어서 目標를 위한 手段에 不過하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新民主主義論에서 毛沢東은 理論과 實踐의 合一性에 對해 強調하였고, 手段과 目標의 同格化를 시도했다. 內亂期에는 마르크스主義를 中共革命의 手段으로 取扱했지만, 政治, 社會的 諸般 條件과 權力構造

註⑦ Chalmers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37~45, Standford Univ. Press. 1961. P.494

를 붕괴시킨 것은 마르크스理論에 依한 價值觀과 組織 및 計劃을 遂行키 위한 方案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目標와 手段은 相互補完的인 方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9年 毛沢東은 부르조아階級이 帝國主義의 侵略期에 中國革命을 成功시킬 基本勢力이 못되었다는 理由로 革命을 主導할 수 없다고 主張했고, 더욱이 民族부르조아階級은 여러 차례 革命을 主導했으나 번번히 失敗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勞働者階級은 그동안의 革命活動을 통해 보아온 바와 같이, 利己的이 아니며 가장 正確하고 長期的인 見解를 가진 革命遂行에 많은 貢獻을 한 階級이므로, 民主主義 專政은 勞働者階級이 주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포이엘 바하의 理論(Theses of Feuerbach)에 기반을 둔 古典的인 마르크스主義에 依하면 프롤레타리아 獨裁의 合理性은 完全히 非人間化된 勞働者는 歷史的 使命을 遂行하는데 있어 가장 良心的이라는 前提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分明히 레닌의 「무엇을 이룩했는가?」(What is done?)의 에리티즘(Elitism)에서 도출한 理論일 것이다.

毛沢東에 依하면 프롤레타리아黨은 大衆의 기대보다 더한 業績을 이루어야 하며 前衛隊나 指導者보다 確固한 革命性을 堅持하며 大衆으로 부터 배우는 겸손을 지녀야 하며, 大衆과 같은 步調를 取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만약 中共의 革命方向이 이와같다면 文化革命의 失敗는 당연히 소수인에 集中된 黨權을 破壞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타운센드(James Townsend)의 分析과 같이 中共이 의미하는 集團利益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을 包含한 여하한 階級利益에 優先한다고 한다. 延安時節에는 日本侵略에 對한 抗拒手段으로 大衆組織의 主導

야 되지만, 中共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이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中共은 社會主義 段階를 뛰어 넘는다는 口實로 未來의 보다 큰 代價를 약속함으로써 現段階에서 人民의 物質에 對한 誘因을 늦추려는 戰略으로 毛沢東은 臨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1963年 7月 26日 北京周報 ( Peking Review )는 「犠牲을 회피하는 者는 革命을 파괴한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中國人民은 永遠히 노예상태로 희생될 것이다. 오늘의 희생은 國家 百年大計를 爲한 長期投資이며, 오늘의 희생만이 來日의 도약을 기약할 것이다.」는 論說을 게재했다.

毛沢東의 犠牲概念에 依하면 受動的 기권이나 失望狀態에서의 자학보다는 主觀的인 概念을 다분히 包含하고 있는바, 決心, 意志力 勇氣와 排戰心을 가지고, 對内外障礙를 除去기 위해 끊임없는 鬪爭을 住民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毛沢東의 階級鬪爭에 對한 概念은 對内外敵을 打倒하는 手段으로 活用한다.

마르크스主義의 階級鬪爭論에 依하면 階級이란 社會의 物質的 基盤에서 形成되고 社會主義로의 發展過程에서만 이루어지는 鬪爭이라 定義했다. 그러나 毛沢東의 이에 對한 概念은 黨과 勞動者 階級の 指導者로서 自己 地位를 活用하여, 勞動 貴族化하려는 要素를 타도하며, 殘存하는 부르주아要素와 在來式 병폐적 구습을 지닌 자를 打倒한다는 두 概念에서 현저한 內在的 牲向을 지니고 있다.

毛沢東은 階級鬪爭論을 經濟, 社會的 領域을 필선 증가하는 鬪爭으로 擴大했는데, 이것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淨化와 教化를 통해

人間의 本心을 改造하여 이른바 社會主義 人間을 만든다는 理念과 文化, 教育的 제한 領域까지 階級鬭爭을 適用하려고 드는 것이다. 大衆의 分散으로 부터 제어하는 것은 共產主義의 社會構造가 아니라 이 데올르기 淨化로서만이 可能하다고 毛는 고집한다. 이같이 毛沢東의 階級鬭爭概念은 마르크스 理論에 內在的 이 데올르기의 特性을 加味하고 있고, 社會主義 段階에서도 階級鬭爭이 계속한다고 主張함으로써 修正된 階級鬭爭論을 제시하게 되었다.

毛沢東의 矛盾論은 마르크스 理論에 基盤을 두고 있지만, 中國 特有의 陰陽學에 힘입는바 크다. 矛盾은 주어진 一極에서 뿐만 아니라 陰陽兩極에서 同時에 發展한다는 것이 이것이고, 이보다 더욱 비약한 것은 矛盾이 없다면, 모든 現象은 存在價值를 상실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孔子로 부터 연유하지만, 陰陽學에서 보는 格言 「內憂와 外患이 없다면 그 國家는 亡하는 증조다」에 힘입는 것 같으며, 코헨(Arthur A. Cohen)의 풀이와 같이 이것은 모든 現象이 相互關係에 있다<sup>9</sup>는 레닌의 主張에서 도출한 것일 것이다.

毛沢東에 依하면 「生이 없다면 死는 存在치 않을 것이며, 또한 死가 없다면 生도 不在할 것이다. 꼭대기가 있으므로 밑바닥이 있고, 밑바닥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가 있는 것이다. 不幸이 없다면 幸福이 없을 것이고 同時에 幸福이 있으므로 不幸이 存在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생각컨데 이 주장은 老子의 「幸運은 不幸에 關係되고, 不幸은 幸福때문에 存在한다.」는 理論에서 도출한 것일 것이다. 毛는 자주 老家의 理論을 引用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陰陽學이 마르크스·레닌

註⑨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17



的 役割에 党地位를 合理化했다. 그후부터 中共은 프롤레타리아 独裁는 여타 政治權益에 우선한 大衆利益과 目標에 기반한다고 主張했다. 社会主义로의 指向은 特殊階級の 利益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全国民을 日本侵略으로 부터 救濟하고 大衆의 最大利益을 指向키 위한 수단이라 宣傳했다.

事實上 農民과 勞動者를 指稱하는 프롤레타리아 擁護運動은 文化 革命期에도 再試圖됐지만 毛沢東一派의 關心은 프롤레타리아의 利益에 두지 않고, 當時 行政權을 掌握하고 있는 劉少奇派와 党幹部, 軍幹部, 知識人으로 構成된 特殊階級을 타도하여 무너져가는 毛沢東 中心의 指導体制을 再確立코져 한데 있을것이다. 毛沢東一派는 自己存統과 權力的 지속을 위해 集團利益의 追求라는 명목으로 이같은 手段을 繼續 되풀이 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分明히 集團利益의 強調는 빈번히 個人利益을 侵犯하려는 手段이며, 社会主义國家의 個人利益의 排除概念은 西方國家의 이것에 對한 概念과 本質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毛沢東은 國家發展上 個人利益을 小發展段階, 國家利益을 大發展段階로 간주하여, 大를 위해선 小를 犧牲해야 한다고 主張해 오고 있으나 지난 4半世紀 中共의 發展上을 최고해 보면, 眞정으로 그들의 國家發展이 어느程度였나 하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럽다. 아렌트(Hannah Arendt)에 依하면, 프랑스革命期에도 共和國의 德性(The Virtue of Republic)이라는 名目으로 團結과 同情間의 對立을 내세웠는데, 團結은 集團利益을 同情은 個人利益에 關한 것으로 看做하여, 革命의 신속한 完遂를 위해선 個人利益에 對한 執着을 버리고 集團利益에 對해 매진해야 된다는 政策을 施行한 者

이 있다<sup>8</sup> 한다.

毛沢東의 集團利益에 對한 概念과 프랑스 革命期 로베스피어의 團體利益에 對한 概念을 프랑스의 境遇는 革命期에 現實 打開을 爲한 民心收拾과 混亂 打開策이라 할 수 있겠지만 毛沢東의 境遇는 中共 革命의 目標과 革命을 성취시키는 方法에서 감상적인 요소보다는 보다 合理的이고 長期的인 비존을 제시함으로서 人民의 物質에 對한 誘因 (Incentives)을 늦추고, 社會主義란 名目으로 個人의 희상을 강요하기 爲해 취해진 方便이라고 아렌트는 結論짓는다

#### 4. 中共과 소련 이데올로기

中共과 소련의 革命에 對한 誘因問題 (Incentives)를 살펴보면, 中共의 土地改革은 土地를 所有하지 못한 農民에게 再分配한다는 口號로 어느 程度 그 호소력을 가졌지만 後期 物質에 對한 精神革命의 緊요성을 강조함으로써 國家的 要求와 個人의 役割間의 均衡을 유지코저 試圖했으나 많은 問題點을 수반하게 되었다. 生活水準과 經濟條件을 소련은 從來보다 好轉토록 시도했고, 그것이 어느 線까지는 가능했으나 中共은 이것을 소련에 비등하게 改鑿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人民을 선동하여 理想國家의 建設이라는 政權의 口號를 中斷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事態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毛沢東은 三面紅旗運動이 失敗함으로서 現實的인 方案으로 劉少奇로 하여금 新經濟政策을 추진토록 하고 자기는 第二線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中共으로서선 社會主義 經濟制度의 수립과 富國強兵을 同時에 成就해

註⑧ Hanah Arendt: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1965.

思想에 못지않게 毛沢東思想에 影響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헤겔哲學의 辨證法과 中國 古來의 陰陽學은 相互連関性이 있으나, 陰陽學에 依하면, 陰은 陽에 對照的 狀況이 아니고, 相互補完의이며 選択의이라 할 수 있다. 毛沢東의 敵對的 矛盾이 마르크스主義에 힘입은바 크다면, 아마도 非敵對的 矛盾은 陰陽學에 힘입은바 크다 할 것이다. 毛沢東에 依하면 非敵對的 矛盾은 진정한 敵對的 性向을 지니지 않으므로 資本主義에서 社會主義 段階로 發展한 다음에도 繼續될 것으로 主張하고 있다.

毛沢東은 헤겔의 方法論을 쫓아 矛盾論에 對한 最終의 解沢을 陰에서 陽으로 移動하는 循環運動에 두지않고 高度의 發展段階를 試圖하는 進歩에 두고 있다는 점이 本質的으로 헤겔의 辨證法과 區別된다 하겠다.

스탈린 死後 蘇聯은 社會主義 社會란 矛盾과 階級鬭爭을 늦추고 物質的 誘因을 보다 圓滑하게 充足시켜야 된다고 主張했으나, 毛沢東은 이를 反對하고 社會主義段階에서 矛盾이란 高度의 水準에 限해 存在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毛沢東은 物質的 誘因의 擴大를 資本主義와 植民主義段階로의 후퇴라고 看做, 이것은 革命精神과 革命意欲을 저하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革命은 그 死後까지도 繼續해서 維持되어야 한다는 信念을 가지고 있다.

커비 (Stuart Kirby) 의 主張에 依하면, 스탈린은 그의 生存時까지의 革命에 對해 言及했지만 毛沢東은 後繼者問題, 中國 共產國家 建設에의 適否問題, 毛沢東式 共產主義의 繼承問題에 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 한다.<sup>⑩</sup> 1953年 毛沢東은 中共革命이 두가지 側面에서 蘇聯의 그것과 判이라고 主張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①1840年代부터 繼續되어온 中國特有的 反帝國主義運動은 蘇聯에는 없었고, ②스탈린死後 蘇聯지도자들의 革命의욕이 지나치게 弱화된 修正主義者라는 것이다.

毛沢東은 中共内部와 外部의 수정주의자를 축출한다는 명목으로 權力의 공고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中共과 蘇聯이 設定하고 있는 目標은 事實上 大同小異한 것이며, 兩國 共히 集團手段과 國家와 黨을 通해 富強하고 平和로운 社會建設에 두고 있는 것이다.

兩國 指導者들에 依해 展開된 強力한 手段은 지난 50여년간 經驗해온 中共과 蘇聯의 複雜한 問題點들이 말해주고 있다. 兩國은 發展段階가 다르고, 人種的 條件, 經濟的, 地改學的 條件이 다르며, 中共이 最近 표방하고 있는 人間價值觀이 本質的으로 다르다.

革命目標의 同質性은 각기 받아들이는 特殊한 手段에 關한 性向과는 區別되는 것이며, 이것은 中蘇關係의 對立과 中共内部 指導者들 間의 對立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 5. 中共 이데올로기의 展開

### 가. 中共 이데올로기

中共이데올로기는 그 內容이 방대하고, 適用範圍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正確히 究明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

註⑩ Stuart Kirby ; The Frame Work of the Criticism Communist China, China Quarterly No.2 1962.2. P.2

中共이데올로기는 政治權力과 機構, 리더쉽, 政策과 社会倫理에 密着되어 있으며 同時에 道德과 權威의 源泉이며 社会秩序와 政治計劃의 기초로 作用해 왔다.

어떤 學者의 主張에 따르면 “共產이데올로기는 倫理的 問題와 民族的 問題의 解決方式을 제시하고 認識論, 史觀, 實存意識, 哲學과 思想의 普遍性과 思考方式을 古來 陰陽學에서와 유사하게 辨證法에 依拠하여 어떤 準則을 제시한다.”<sup>①</sup>고 主張한다.

西歐政治史를 돌이켜 볼때, 政治와 宗教는 原則적으로 分離되어 있고, 宗教는 政治現象의 批判을 통해 不合理的 要素를 시정하는 制度的 채널로 作用하여 왔고 西歐政治體系는 本質적으로 世俗的이었지만, 政治現象과 道德現象間에는 끊임없는 對話를 이루면서 本質적으로 獨立되어 왔다.

그러나 東洋政治史에서 宗教는 政治로부터 分離되지 않고 混在해 왔으며, 現中共에서도 政治와 道德概念은 混在하고 있다. 中共政權은 個人倫理와 公衆道德을 수호하며, 社会正義의 實現과 立法家로 군림하여 왔으며 古來 中國王國처럼 現中共政權은 批判될 수 없고 도전받지 않으며 大衆이데올로기에 依해 인정된 政策이 수행되는 期間中에는 絶對的 대상으로 군림하고 있다.

中共政權의 價值觀과 個人的 價值觀을 一體化하려는 시도는 人民의 희생과 鬪爭을 반대없이 수락시키려는 意圖에 기인하며 이 시도를 革命의 目標에 부착시켜 간주하며 이것의 성취능력에 依해

註：① James Chieh-Hsiung; Ideolog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1970. P. 107

정권의 기준이 評價되며, 計劃대로 수행될 때만이 大衆의 忠誠心을 얻을 수 있다고 評價하고 있다.

中共指導者들은 그들의 目標을 實現키 위해 人民에게 國家에 대한 政治, 社會活動에 최대한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國家와 人民間에 特定한 對話體를 設定하고 있다. 이 對話體는 人民으로 부터의 意見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리는데 本意가 있는 것이 아니라 中共指導者가 제시한 一連의 價值體系, 倫理的 原理가 人民의 善을 實現하고 人民이 이것을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合理的으로 主張키 위한 技巧인 것이다. 이 人民機構는 目標達成에 對한 特殊한 任務를 띄고 있으므로, 이 機構를 管理運營하는 責任은 黨指導者와 黨幹部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黨幹部教育은 다른 教育에 우선하고 리더쉽과 責任은 엄격한 訓練을 요하게되므로 黨指導者들과 幹部들은 그들이 人民이 強要당하는 努力에 못지않게 그들도 고된 희생을 하게 된다고 한다.

黨이 設定한 目標는 國家的 共同方向을 제시하고 있지만, 黨은 이 目標를 達成할 方向과 安定, 治安을 確保할 수 있는 組織作業을 위한 必要한 制度的 근거를 設定하고 이에 對한 意見을 綜合할 必要性을 찾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參與와 行動類型을 조작하는 根柢를 제시하기 때문에 制度的 精神的 영역을 代表하고, 組織은 이데올로기의 身體와 같은 구실을 한다.

中共의 政治權力은 體制의 構成分子에 依해 發生되는 責任에 比例하여 分配되는 性向이 있다. 보다 큰 義務에는 安定, 信賴, 威信과 政策決定에 對한 參與度에 보다 큰 影響을 끼치기 때문에 보다 많

은 訓練을 수반하고 있다. 黨과 行政官史, 制度的 機構間의 相關關係는 緊密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모든 制度는 黨 最高幹部會議의 政策決定에 참여하는 幹部로 부터 人民大衆에 이르기까지 中央政權으로 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權利義務와 權力의 程度가 分配된다는 理論이 成立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原理는 敵對階級이라 칭하는 階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現在까지도 制限 行動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 나. 中共이데올로기의 機能

中共의 이데올로기는 道德体系的 原理임과 同時에 國家權力이며 立法家로 作用하며 儒學理念을 凌駕하는 價值觀으로 設定되어 있다.

儒學理念은 傳統的인 中國 社會에서 成長한 道德價值觀이었으나, 共產이데올로기는 共產政權이 成立됨으로써 外見上으로 儒學을 代替했을 뿐이다.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제몽키 위해 中共은 可能的 通信手段을 總動員하여, 宣傳과 教化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儒學思想을 대체한 中國人의 思想으로 스며들어 소화되지 못하고 爲政者들의 執權手段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中共이데올로기의 機能을 살펴보면,

① 戰爭과 疾病, 貧困과 기아로 고통당해온 中國人에게 希望을 제시한다. 對外敵을 打倒한 후에 社會正義를 실현하는 平和로운 번영을 기약하며, 如何한 부르조아 浸透도 받지않는 自由로운 正義國家를 建設한다고 約束한다. 1949年10月 中共政權成立 宣言에서 毛沢東은 中國全域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革命運動을

展開한 人民은 …… 이제 人民解放戰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全國의 大多數人民이 해방되었다고 선언했는데 이것은 中共이 데올로기의 機能과 직결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2) 中共이 데올로기는 現中共政權이 傳統的 中國史를 통해 새롭고 참신한 知的 組織의 哲學體系를 形成한다고 提議한다.

이 哲學構造는 形而上學과 辨證法的 構造로 形成된다는 假定에 기반하고 있다. 毛沢東은 「矛盾論」에서 「人間學問史를 통해 宇宙發展計劃에 形而上學과 辨證法은 相互反對의 立場을 취해 왔는데…… 歷史를 돌이켜 보건데 中國이나 西洋에서 形而上學은 理想主義的 世界觀을 가지고 人間社會의 主體의 地位를 占해 왔다.

유럽에선 唯物論도 初期 段階에선 形而上學的 側面을 多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유럽 국가들의 社會, 經濟는 高度로 발전된 資本主義 段階이므로 生産과 科學 等도 高度로 발달하여 階級鬭爭도 最絶頂에 달했으며, 공장 프롤레타리아 階級은 歷史發展에 受動的 勢力이었으므로 마르크스의 唯物辨證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毛沢東은 이 두 哲學體系의 比較에서 마르크스 哲學이 形而上學에 우선하다고 主張했는데, 이것은 事實의 本質에 內在的 發展要因을 추구하나 形而上學은 外在的 要因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形而上學的 世界觀은 事物을 독립시키고, 통계적, 相互連関性等을 연제시켜 관찰하지 않지만, 辨證法的 世界觀은 人間歷史의 共通의 영역의 접근을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 中共 이 데올로기는 國家의 目標, 國家의 機構 및 組織과

---

註② Theodore H.E. Chen; The Communist Regime, New York Praeger, 1967, P.33



國家의 計劃을 제시한다. 共產主義의 科學的 妥當性을 證明하고, 黨의 革命的 目標을 設法하며, 이를 實現키 爲해 國家를 統治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力量은 黨의 法的 根柢가 될 것이다. 舊制度를 打破시키고 새로 탄생한 革命政權에 對한 理論的 근거와 當爲性을 제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美國의 獨立宣言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은 人民의 人權을 國家로부터 分離 保護키 爲해 自然法思想 (Law of Nature)와 自然神權 (Nature's God)을 호소하였다. 天賦人權을 보호키 爲해 政治權力은 人民에 있고, 統治者는 被治者의 同意에 의해야 한다는 人民意思를 집요하게 表現한 경우이다. 이를 政治思想的 側面에서 볼때 獨立宣言의 實質的인 重要性은 當時의 政治思想과 政治理論을 요약한 表現이며, 新生共和國의 政治體制에 對한 설득력 있는 理論的 根柢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中共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르크스·레닌主義는 中共이 창건한 制度에 對해 理論的 根柢를 제시하는 것이다. 中共이 내세운 敵對性의 계의는 人民民主主義 制度를 設法할 수 있는 革命을 正當化하기 爲해 反帝, 反封建, 反官僚的 資本主義를 표방하고, 이에 對해 동조세력을 結合하기 爲해 農·勞계급과 小民·民族부르조아의 4大階級의 結合을 강력히 主張했던 것이다. 新生國家는 共產黨이 統治하고, 革命鬪爭期에 벌써 4大階級의 支持를 받았다고 표명함으로써 民意에 依한 政治를 시행하는 新民主主義 國家를 建設한다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生産手段에 있어서 個人의 所有欲을 박탈하는 所有制의 폐지는

共産主義가 中國에 紹介한 制度中 가장 심각한 것이지만, 事實上 다른 여러分野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政治, 社會 分野에서도 個人 所有制의 폐지와 같은 조치가 強要되었다.

①政權은 勞働者階級이 主導하고, 勞働者, 農民에 기반을 둔 人民 民主主義 國家이며, ②國家機關과 社會勢力의 지지를 받는 政權은 企業의 社會主義化, 社會主義 國家建設을 수단으로 점차적으로 資本主義 經濟制度를 폐지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社會主義 社會를 實現한다는 것이다. ③ 모든 國家機關은 人民과 密着되어야 하고, ④國家는 특히 4大階級을 中心으로한 人權에 關한 事項을 발표하고, ⑤政府는 모든 反動的 要素와 利敵要素를 정리하며, 法律에 의하여 特定기간에 걸쳐 地主와, 부르조아階級の 政治權力을 박탈한다. ⑥國家는 계속해서 生産增加를 도모하는 경제계획을 세우고, 國家經濟制度和 交通, 運輸手段을 擴張하여 人民의 物質生活과 文化生活을 向上시키며, 國家의 自主權을 공고히 하며 國家安保를 확보한다는 것 등이 中共政權이 成立된 직후 中國人에게 소개된 새로운 政策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政策은 中共의 모든 社會, 政治機構를 통해 實現되었는데 例컨대 1953年 反革命分子의 政治活動금지, 無産階級の 選舉權 擴張, 1950年의 結婚法, 1954年의 中共憲法등과 毛沢東의 이데올로기의 政策演說과 報告를 지원키 위한 制法과 그 施行令등이 바로 이것이다. 毛沢東의 演說과 報告書中에서 이런 부류에 屬하는 것은 新民主主義論(1940), 聯合政府論(1945), 中共黨7期二中 全會報告(1949), 新政治協議會 準備委員會에서의 演說(1949), 人民民主主義 專政論(1949) 등을 들 수 있다.

1966年 文化革命期에 이데올로기 教育運動時, 黨常任機構의 命令과 革命司令部의 命令體系는 中共의 기존 法습이나 憲法機能을 마비시킬 수 있을만큼 絶對的이었다. 이 例는 中共이데올로기는 모든 法습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証明해준 것이며, 이것은 또한 政治掛首(Politics is Command)란 毛沢東의 政治第一思想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政治는 法律, 經濟, 社會, 教育等 諸般事項을 支配한다는 극단 革命的 性向이 다분한 경우가 된다.

(4) 이데올로기는 全体 社會思想 및 個人思想과 行爲를 批判하는 一連의 基本的인 道德價值觀을 提供한다. 歷史적으로 볼때 全体主義 國家가 特定한 行動基準을 設定했다면, 中共은 全体의 國家를 통해 一定한 價值觀과 感情樣式을 要求하며, 同一한 社會主義 人間型(Socialist man)을 形成하려는 이데올로기 萬能의 全体主義國家라 할 수 있다. 中共黨이 처방한 新價值體系는 新文化임과 同時에 프롤레타리아 文化라 主張하여 反帝國主義 文化와 反封建主義 文化를 대치한 바로 그것의 中心部에 位置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主張하는 新文化運動의 가장 重要한 價值는 民族主義, 科學主義, 大衆主義인바, 이들이 舊文化의 세가지 잔재적 要素와 鬪爭한다는 것인데 卽 帝國主義, 中傷的 資本主義의 影響, 非象적이고 形而上學的이며 空理空論에 치우친 哲學的 理想主義, 封建主義의 잔재와 植民主義의 打倒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概念中 大部分은 過去 獨裁政治와 外勢의 壓力을 打倒키 위한 社會政治的, 精神的 防禦機構로 開發되어 왔던 것이다.

中共이데올로기는 一連의 道德的 價值觀을 設定할뿐만 아니라 優先體系를 設定하여 黨核個幹部와 大衆에게 黨基本政策의 相互強度를 判

別하게 된다. 例컨데 毛沢東의 四大優先原則은 ①人間은 武器에 優先하고, ②이데올로기 課業은 政治課業에 優先하며, ③政治課業은 他 課業에 優先하며, ④實踐的 아이디어는 知識的 아이디어에 優先한다는 것이다. 또한 毛沢東思想은 日常生活에도 이와 유사한 價值序列을 提示한다. 個人은 感情의 抑制과 目標達成으로써 生活만족을 체울 수 있다고 主張하는데 傳統的인 中國哲學은 感情抑制概念에 유사하며, 現 中共은 目標達成에만 主力하고 있는바, 이것은 個人의 欲心을 극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個人을 犧牲시키고, 集團 社會에 제시된 目標에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다.

毛沢東 追從者들은 毛沢東思想을 마르크스·레닌思想을 制圧한다고 主張하고, 이를 精神的인 原子彈 (Spiritual Atomic-Bomb) 라고 극찬하여, 人民의 가장 뛰어난 政治性은 政治意識, 勇氣와 犧牲精神 이라 主張한다. 毛沢東思想에 의한 價值觀의 評價基準은 三가지의 假定이 成立될 수 있다. ①西歐와 中國에서 傳統的으로 강조된 形而上學的 哲學體系보다 辯證法的 唯物論이 우선하며 唯物論에 根 拠한 新文化는 번영할 수 있는 반면, 形而上學에 根拠를 둔 舊文 明은 消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合理主義는 強調되어야 하며 偶像 (Idolatry) 과 모든 不合理한 現象은 大衆教育을 통해 根切 되어야 하며 風俗 (Geonomy) 같은 皮相的인 實際는 根切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③階級鬭爭은 強調되어야 하고, 이概念은 中庸主義에 기반한 教育思想의 대체에서 나타난 概念이기 때문에 많은 努力을 要하는 問題라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辯證法的 過程은 團合에서 鬭爭을 거쳐 團合 (Unity, Struggle, Unity)의 過程이 發展을 도 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5) 中共 이데올로기는 中共人民이 周辺 國際情勢를 식별하고, 人民相互間의 意思疏通方式을 提示한다. 中共指導者들의 世界觀은 共產 이데올로기, 外國에 對한 直接經驗의 不足, 西歐史觀과 哲學觀의 沒理解 等에 의해 制限을 받고 있다. 이런 理由에서 中共指導者들은 集團社會와 個人 多數와 少數를 保護하는데 基반을 둔 相互解決方式에 對한 아레나(Arena)로 인해 西歐的 政治概念을 理解하는데 힘든다.

이데올로기 課業을 통해 中共은 人民의 政治意識을 開發시키며, 國家의 欲望과 實積을 大衆에게 垂直으로, 非黨에리트 等에게는 水平으로 傳達한다. 大衆은 너무 龐大하고, 非黨에리트의 思想改造는 지나치게 어려우므로 黨은 水平通信方法보다는 垂直通信方法을 통해 高次的인 地位를 佔하고 있다.

政治通信에 關한 強度는 中共黨의 大衆路線에 基반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概念에 나타난 大衆路線은 黨政策의 凡한 弘報며, 黨指導層이 強악한 리더쉽과 機構的 論理는 大衆에 對한 黨의 全幅의인 犧牲만이 아닌, 大衆과의 一體感을 부각할 수 있는 結束心을 개발하여 大衆으로 하여금 黨政策을 지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中共黨의 主要目標인 社會結束 單一目標를 요구하며, 이것은 共通된 用語와 同一한 思想體系를 創案하는데 도움을 주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毛一派에 依하면 政治通信과 社會統合은 旧惡과 修正主義를 根切하고, 精神을 세뇌하여, 人間을 改造시켜야 하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努力을 경주해야 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創意的인 毛沢東思想의 研究와 適用의 強調는 毛沢東이 文化革命이나 社會主義教育期間에 單一化를 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實例를 보여준 경우가

된다 할 것이다.

(6) 中共이 테올로기는 辨証法的 分析에 依한 一連의 方法論的 技能을 提示하고 있다. 毛沢東은 이 테올로기 作業을 통해 分析的 이고 實際的인 行動方式을 提示하지만, 아마도 一分爲二概念은 毛沢東思想中에서도 가장 複雜하고 어려운 性向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結論的으로 中共思想體系는 思想과 實踐을 混合한 結合概念이며 思想概念은 主觀世界와 客觀世界를 統合하는 概念으로 上部構造, 下部構造와 經濟構造, 이 테올로기 등은 基本的 마르크스主義의 行態的 構造에서 活用되었던 것과 유사한 범주로 区分할 수 없으며, 相互有機的 連關性을 가진 連續的 行態인 것이다. 實踐이 테올로기와 순수한 理論的 이 테올로기를 억지로 分離시키려는 分析方法으로는 中共이 테올로기의 實體를 把握하려는 切實한 方法은 되지 못할 것이다.

参 考 文 献

- Chalmers Johnson; Revolution and Social System,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 Crane Brinton; An Anatomy of Revolution, New York, Vintage 1965.
- Franklin Houn; A short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New York, Prentice-Hall, 1965.
- Adam Ulam; the Unfinished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60.
- Karl W. Deutch and William A Polz; Nation Building, New York Atherton 1966,
- James Townse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John W. Lewis;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 Andrew Gyorgy; Issues of World Communist, Porinceton N. J. Van Nostrand 1966.
-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人民日報, 紅旗.
- 羅昌柱著; 中共指導思想論, 國際學院 1972.
-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匪情月報, 問題与研究, 政經研究 北韓 等 定期刊行物, 外多数参考.





### 第三章 中國의 傳統에 비추어 본 中共



### 第三章 中國의 傳統에 비추어 본 中共

#### 1. 머릿말

中共을 다녀온 日本人 桑原壽二의 설명을 따르면 다음과 같다.

「벌써 十餘年前일이 되지만 “새로운中國”을 旅行하고 돌아왔다. 二個月가까이 滯留하였기에 옛中國의 同窓이나 友人들과 차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破壞와 建設이란 숨결은 確實히 느꼈지만 友人의 心中情談을 듣거나 마치 맨발로 밟힌 文化的 霧囿氣의 荒蕪現象을 봄에 따라 前半生을 中國人社會에 埋沒되어 살아왔던 나의 中國에의 鄉愁는 어처구니없이 사라졌다. 革命이기때문에 歷史에 對한 態度가 무너지고 文化總點檢의 性格을 띄우고있는 것은 當然하며, 既成制度나 體制가 破壞되는 것은 當然하다. 旧中國에의 鄉愁에 짓고자하는 생각 자체가 틀려있던 것이다.

그러한 것은 心中에서 十分理解되며 나 또한 그의 變貌를 보는 것이 目的이었다. 그러나 實際로 그霧囿期에 接하고 相面한 友人의 表情을 읽고 쓸쓸한이야기를 들었을때의 感慨는 또한 別個의 것이었다.

旅行을 마치고 中國을 떠날때 瞬間의 나의 最終的인 結論은 「왜? 그리 서두를까」였다는것을 率直히 말해두고 싶다.

「왜? 그리 서두를까」는 그後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恒常 腦裡에서 사라지지 않는疑問이다. 毛沢東은 新民主主義論에서 自身있게 漸進的인 社會主義 移行을 말했기 때문이다. 1957年頃까지 「隱步前進(一步一步着實히)을 建設의 基本스스로간으로 하고있었던 것이다.

中國의 物質的 또는 精神的인 實際條件에서 볼때 그 스로간은 妥當하고 賢明한 것이라고 世界各處에서 肯定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가 나혼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의 疑問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確實히 後進的 農業國家로 부터 急速한 國家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또 亞細亞的 停滯性에서 脫皮하기 爲하여는 낡은制度의 根本的인 變革은 不可避할 것이며 資本蓄積을 爲한 連續緊張의 要請과 精神動員도 不可欠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것은 그러한 合理主義的인 回考만으로는 되지않은 몽클한 그 무언가가 있었다. 그곳에는 우리들의 思考를 超越한 他의 要因, 例컨데 그와같이 오래된 歷史와 文化, 伝統의 명예와 그리고 그를 打破하려하는 中國의 奧深한 곳에 沈潛하는 中國獨自의 要因이 있었는건 아닐지.

무어라해도 저넓은 國土, 八億이란 民族, 깊고 깊은 歷史와 文化가 革命앞에 가로놓인 것이다. 그러한 “ 넓이 ”와 “ 時間 ”과 “ 깊이 ”는 더없이 보듬에 富한 重圧과 抵抗의 壁이 되어있을 것이다. 그러한 中國의 條件에 처한 리액손이란 機期와 衝動이 旅人에게 「왜? 그리 서 두를까」의 疑問이 되어 반울림으로 나온것은 아닐지.

앞선 하나의 單位, 한地區의 曲型을 全國적으로 擴大시킴의 不當性을 說明, 모든 鬭爭形態 組織形態는 보다뒤진 大衆의 本來 意圖와는 달리 「서두르고 있다」, 이것이 참된要因이 되고있는 것이 아닐까. 그곳이 中共問題에 있어서 探求하여야할 포인트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이런等等이 其後 끊임없이 繼續되고 있는 나의 問題意識인 것이다.

이러한 問題意識을 가지면서 日本이나 諸外國의 新中國論을 읽고 느끼는것은 그것들은 제가끔 훌륭하고 價值있는 策論이란 것을 疑心할餘

地는 決코 없지만 자칫 하면 中國 또는 中國民族不在의 中共論, 或은 文化革命論에 빠져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經濟決定論의 見解. 西歐合理主義의 觀點에서의 批判. 맑스主義를 基準으로한 分析等等, 이것들은 勿論 絶對 必要하다. 여기에서 말하고자한 것은 그러한 作業은 必要條件이지 特히 中國에 關한限 充分한 條件으로는 되지않지 않나 하는 것이다.」

“ 歷史란 革命의 連続이다.”

그 境遇, 亦是 第一 먼저 생각할 것은 中國民族의 歷史觀일 것이다. 아무래도 結論이 먼저 나오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 歷史란 有德者가 不德者를 바꾸는 革命의 连续이다」하고 要約될 것이다. 「 歷史는 革命의 连续이다」란 歷史觀은 아무쪼록 記憶에 남겨주었으면 한다. 따라서 中國에 있어서의 革命이란 單只 어느時代의 時代思想. 階級思想이 아니고 그것은 政治理念이며, 또한 歷史理念이기도 하다. 그것은 「三千年來 一貫한 根本思潮이며 根柢를 求하면 古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것은 狹意의 政治理論이나 社會理論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哲學으로서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필경 그것은 流行思想도 新思想도 아니고 古典에 根柢한 哲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革命이란 무엇이나를 問題가 나올 것이다. 위에서 그것은 「有德者가 不德者를 代身한다」고 說明하였으나 잠깐더 探索하여 보자. 思考方式을 그 古典에 처한 態度로서 說明하고 있다.

要約하면 中國에서의 古典(五經)은 絶對真理를 記述한 것이며, 真理 그 自体로 생각한다. 그에 反하여 우리를 包含한 卽 모든民族의 古

典에 對한 態度는 古典은 尊重하지만 道理는 古典우에 있고 古典은 道理의 좋은 그림자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中國에 있어서는 古典이 真理, 그 自体로 意識되어 五經(古典)속에는 人間生活에 必要한 道理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意識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生活의 規範으로 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生活, 그것까지도 古典에 一致시키려 努力한다고 大概 이와같이 指摘되어 있다.

「歷史란 有德者가 不德者를 代身하는 革命의 連續이다」 이것이 中國의 土着된 革命觀이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그러한 有德者가 될 性格이 다음의 指摘한바에 依해 分明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結局 有德者란 古典에 있는 道理를 體得한 者이런가 가차왔는 者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낡은 時代와 訣別하고 새時代를 創造하는 것이 아니고 庶民이 革命을 期持하는 것은, 實은 古典의 世界, 道理의 世界에의 復歸이다. 따라서 中國革命의 原義는 完全한 意味의 復古主義로서 現在 우리가 생각하는 革命인 리볼류-손파는 거의 異質의 인 것이다.

中共革命의 初期段階에서 이와같은 훌륭한 展開도 이러한 角度에서 捕着하여볼 必要가 있지는 않을지. 共產主義思想이나 맑시슴이라 하는 高踏의 教養은 一部の 指導層을 除하고는 一般庶民의 自覺의 原動力이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庶民의 優先的인 問責은 長期戰爭 國土의 荒蕪, 戰後處理의 失敗, 結局 「天命은 벌써 다됐다」, 不德者로서 國民政府가 비추인것은 아니었을까. 歷史란 有德者의 不德者에 對한 革命의 連續이라고 意識하는 中國人에게 말하게 하면 中共革命을 單純한 國共交替 그러한 意味에서의 “革命”이라고 觀念되어진 것은

아닐지? 여기서 注意할 것은 中國의 그와같은 特殊한 風土는 革命을 시원스럽게 받아주는 代身, 새 革命政府에 對하여서도 그 処事에 따라서는 금방 外面하고 만다. 참으로 非情한 風土라는 것이다. 「天命은 쉽지가 않고」 「天命은 無常한 것」이란 用語가 끊임없이 古典에 나오는 것이다.

不德者= 國民黨을 代身하여 나타난 有德者= 中國共產黨은 이러한 思考와 性格을 基準으로서 보았을 境遇, 어떻게 비추었을가는 單只 興味있는 問題라고만은 볼수없지 않을가.

勿論 그에 對하여 嚴密한 批判을 건대낼 解釈을 筆者는 準備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했던 革命과는 전혀 다른 革命에 當面하여 懣惑하고 떨면서 動搖하였을 中國民族이 눈에 떠오른다. 古典에 따라 數千年의 歷史의 試練에 견디어왔든 人間의 秩序, 社會의 制度, 政治의 慣習과 體制, 絶對로 正當하다고 民族의 信念으로 되어 있던 모든 制度나 體制가 解体되어 根本적으로 破壞되고 變更되는 過程에서 보여준 反應은 그것이 이러한 中國의 風土위에서이므로 머없는 시련을 當한 重負으로서 新政權에 덮쳐가고 있다는 想像도 할수 있지 않을가.

## 2. 價 值 觀

「天命은 쉽지가 않고 天命은 無常한것」, 그리고 非情하게도 「天命은 다했다」고 觀念하는 中國民族, 그를 對象으로 하는 毛沢東革命, 그곳에서 革命政權의 獨自의인 困難이 想像된다고 大体로 指摘되어 왔다.

그점에서 順次的으로 또한 그와의 關聯性에서 中國의 中心思想을 이

루는 「天命思想」을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參考로 「世界大百科事典」을 펼쳐보면 天命은 單只 人命」이라고도 한다. 中國思想, 特히 儒家의 重要한 概念, 儒家에서는 人間은 德을 向하여 自發的인 努力을 無限히 繼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德이 높다 하여 반드시 幸福을 얻는 것은 아니고 德없는 者도 富貴할 수 있다.

이 矛盾을 매꾸는 것이 天命의 概念이다. 天命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命한것 「招請하지 않고 達하는 것」이다. 그것은 人力을 超越한 變德스런 運命이다. 故로 사람은 모든 努力을 다한후 찾아온 不幸에 對하여는 天命으로 알고 웃고 縮念하라는 것이다.

이 態度가 孔子가 말한 「命을 아는것」이다. 不過 이밖에 안된다. 代表的인 百科辭典으로서의 이 中國의 中心思想에 주어진 스페이스는 너무 적은 感이 있다. 中國民族의 人生觀, 運命觀에 制限해서 解說하지 않으면 안되었든 執筆者의 苦衷도 알만하다. 그리하여 그런 意味에서 要領있게 解說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天命思想을 이 側面에서만 取扱하였다면 天命思想이 痛哭을 할 것이다.

「天이다, 命이다」의 諦念을 中核으로한 人生哲學의 範圍에 限定하지 말고 政治思想으로서의 天命觀이 重要하지 않을가? 天命思想— 그곳에는 絶對者(天)가 어느 特定한 個人에게 權力을 外面하는 暴君으로부터 權力을 빼앗는다는 積極的인 革命思想도 包含되어 있다— 에는 極히 高度의 哲學과 政治思想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것의 追求가 基幹이 아닐가. 왜냐하면 北京政權이 当面하고 있는 하나의 內發生要因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要約하면 天命思想이란 첫째로, 絶對者が 王者에게 權力을 주어 地上의 政治를 執行시킨다는 思想이다. 結局 이것이 天命인 것이다.

둘째는, 天이 王者에게 權力을 주는 것은 王者自身을 위한 것이 아니고 人民을 平安하게 하기위한 思想이다. 따라서 人民을 平安하게 못하는 王者로부터는 權力을 빼앗아 他的 有德者에게 주는 것이 된다. 王者다움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세번째는 王者의 政治目的은 地上에 道德(上記古典에 表現된 道理)을 實現하는 것이 根本으로, 말하자면 哲人政治의 遂行者로서 王者가 우선 德을 쌓지않으면 안된다는 思想이다.

네째는, 天命은 人民의 意思에 따라 判別된다는 思想이다. 人民에게 呪詛當하는 王者는 벌써 天命을 잃을 獨天暴君이므로 그러한 王者는 追放(放伐) 당해도 좋다는 思想이다. 다섯째는 天下는 公有物이란 思想이다. 그리고 여섯째는 王者 아래 萬邦이 協和한다는 思想이다.

여기서 世界諸國의 思想을 고어낸다면 共和政治의 理念에 發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要컨대 天命思想이란 「天이다. 命이다」의 諦念的인 人生觀만이 아니고, 더없이 積極的인 革命思想이라는 것이다. 그 王朝나 政權執行者에 統治할 資格의 有無의 裁斷은 人民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政治思想으로서 現在의 中共을 보는 경우는 重要한 基準을 提供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 注目할것은 人民은 오늘의 王者의 命命에 服從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기 爲하여는 德望을 쌓은 자가 善政을 하고 있을것이 前提條件이 된다는 點이다. 필경 王이란 絶對者와 人民間의 單純한 媒介者에 不過하다는 것이며 現在의 權力者란 눈에 보이지 않는 絶對者로부터 權力을 받은사람(人)에 지나지 않는다. 그사람은 “인”이

되기 위해 絶對的인 独裁者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보여지는 思想으로서의 躍動이 重要하다. 一般에 流布되어 있는 「十八史略」中の 詩의 一句節

日出而作： 아침이 되면 들에서 일하고

日入而息： 밤이 되면 돌아가서 쉴 뿐이다.

鑿井而飲： 우물을 파면 마실물이 나오고

耕田而食： 스스로 밭을 갈아 먹을 뿐이다.

帝力干我何有哉： 帝力이라 말하지만 이 나하고는 무슨關係 있으랴.

이처럼 天命思想뿐만 아니라 中國民族의 心情을 表現한 것은 없다.

王者란 가끔 權力을 받은 “人”에 不過하다. 이 “人”의 役割은 人民을 爲하여 善政을 배풀고 真理의 媒介者가 되어야 한다. 絶對的 独裁者 등은 딱 질색이다라고 하는 躍動이 보여진다. 共產主義체제의 中央集權制와 빈틈없는 權力의 集中, 計劃經濟遂行에 不可避한 干涉을 方針으로 하고 있는 新中國으로서는 이와같은 귀찮은 被治者는 없을것이다.

帝力과 나사이에 무어가 있느냐의 二元論은 價値의 一元論을 原則으로 하는 共產主義에 對하여서는 그 思考自体가 용인할 수 없는 抵抗이 될 것이다.

### 3. 毛語錄의 発想

특히 文化革命期에 들어서 「人民日報」의 現地報告의 연구석에 슬며시 「想變天」 「變天賬」 등의 用語가 자주 나오고 있다는點에 注目하고 싶다. 廣州에는 「變天社」라 하는 젊은이의 集團으로 秘密政治結

산가 組織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나만 引用해 두자.

「그들은 表面上 아주 부지런하지만 남몰래 “變天賬”을 숨겨두고 있어 이윽고 世上이 바뀌기(變天)라도 하면, 그 土地沒收證書로 잃었던 樂園의 回復을 아직껏 잊지않고 있다」(七一. 六. 二. 人民日報)

다시 말하면 現政府도 이제 길지 않을것 같다. “變天” 世變도 早晚오겠지, 그래서 “變天賬” 이 政權이 되어서 沒收된 土地나 財産의 台帳이나 記錄을 벽속에 부친다거나 항아리에 넣어 못속에 던져 숨겼다가 世上이 바뀌었을때 되찾는 證書로 하자는 것이다.

前記의 詩에 表現된 政治에 對한 思考와 後者의 “想變天”(이王朝도 그리 길지는 않다)의 思考 그와같은 民族的 思考方式과 中共政權과의 물고 쫓기고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 用語가 參된 意味에서의 “鬭爭”이 아닐지, 부루조아思想의 復活과 그에 對한 끊임없는 鬭爭의 要求, 이른바 鬭批改運動이라던가, 批修整風(修正主義批判의 整風)運動의 繼續展開의 要望은 우리 常識의 範疇內에 있는 階級鬭爭이 아니고 위에말한 中國의 風土 그 自体를 指摘하고 있는 것이다. 俗談에 눈코 뜰새 없다는 農村과 農民이 無限하게 넓어 펼쳐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天命思想의 第三의 요소는 結局은「王者는 우선 德을 닦아」哲人政治의 執行者다워야 한다는 思想이다. 中國의 歷史傳統의 支配原則은 當時의 統治者가 그의 參된 가르침을 宣言하는것, 結局은 哲人政治 이곳서 始作한다는 宣言을 한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것은 儒敎의 가르침을 따라 行하여 왔던 것이나 文革期에 「손에 손에 毛沢東 語錄」이란 異常한 風潮가 一種의 通過儀禮로 되어진 것도 그러한 中國의 傳統의 變形的 繼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儒敎나 혹은

伝統思想의 徹底한 否定위에 成立된 革命政權으로서는 革命의 語錄을 가지고 經典에 代身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毛沢東語錄의 論語化는 그러한 中国的 意味内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점에 注意를 하여야 할 것이다.

十餘年前에 한나그베의 눈에 비추인 「왜 서두르고 있을가」라는 設問에 對하여 前者는 그 民族的 契機를 形成한다면, 後者 차라리 革命의 書 經典化運動은 民族的 思考樣式에 對한 挑戰이라 할 것이다.

#### 4. “士人과 인태리

여기서는 前述의 古典에 對하는 中國人의 態度問題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로 한다. 古典이란 道理, 그 自體이었으며 그것은 最高絶對真理를 表現한 것이었다. 그것은 生活의 規範으로서만이 아니고 常住坐臥行藏 一切를 古典에 一致시키려 努力하지 않으면 안될 準則이었다. 要컨대 人間生活에 必要한 道理는 모두 그곳에 包含되어 있다고 하는 思考方式이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文字있는, 特權階層에 依한 文化独占이 生길 것이다. 왜냐하면 文字있는 文人만이 그곳에 接近하여 그境地에 들어갈 수 있는 有資格者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뒤집어서 文字없는 庶民이 바라보는 경우, 그것은 政治와 道德과를 矛盾없이 體現할 수 있는 存在이며 한편 있어야 할 存在인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文人官僚層의 中國社会에서 우리들의 想像을 능가할 地位와 權威가 생겨 中國에 独自の 特殊官僚層이 形成된다. 庶民側에서 말하면 그者が 行하는 政治가 道德과 一致하지 않을 때는 그 矛盾과

分離를 抗衡하여도 좋다는 것이 되어, 이에 革命은 正当化될 것이다.

이와같이 唯我独尊의인 存在가 된 官僚層은 一面 腐敗한者也 發生할 것이며 他面 「人間으로서의 任務를 實踐할 수 있는 人間」으로서 自覺하는 層도 發生할 것이다. 日本民族의 民族精神의 本을 形成하여 온것은 어느쪽이나 하면 武士道에 對하여 中国의 그것은 文人 鬼인것도 그 때문인 것이다. 中国에서 말하는 “士人”이란 文人이지 武人은 아니다. 同文同種 따위로 安易하게 말하나 日本의 “士魂”에 對하여 中国은 “文魂”이다. 이점의 認識이 重要한 것이다. 武에 對하는 文의 積極的 意義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要컨대 絶對 真理를 伝할 수 있는 最低限度의 條件은 그의 길을 說明한 古典을 읽을 수 있는것. 理想世界에 해쳐 들어가는 乘車券을 入手한것은 文學있는 文人만이라는 思考다. 그러한 風土에서 生成한 特殊한 階層이 이른바 “士大夫” 또는 “讀書人” 或은 “神士”라고 불리우는 階層이다. 腐敗官僚로 墮落하여 体制內에 뎌뎌스럽게 사라가는 때거리도 있 으려니와 自己의 各營로 살아 「天下道 있으면 곧 나오고 道없으면 곧 숨는다」(孔子— 政治가 正道에서 行하여 지면 官道에 오르나 그렇지 않으면 潔白하게 下野한다)는 者들도 發生할 것이다.

이와같이 中国의 知識人이란 一種 獨特한 精神構造를 갖고 있는 階層이며 西歐式의 概念上에 있는 文化人이 아니다. 그것은 現時의 王朝와 庶民과에 積極的인 媒介者로도 되며 레지스탕스의 積極的인 役割을 하는 存在도 된다. 中国知識人에 對한 이같은 認識이 緊要하다.

유럽, 아메리카의 講演旅行을 마친 某 中國人 大學教授는 그의 歸國 報告에서 第一 強調한— 보다는 切齒腐心 熱辨한것도 이점에 對한 諸

外國人들의 認識이 두터워서였을 것이다. 이곳에서 引用할 餘裕는 없으나 結局 中共에서 말하는 知識人을 인테리겐자로 解釋함에 있어서 諸外國은 事實誤認을 犯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正確히 말해서 그것은 決코 우리들의 概念에 있는 靑白한 인테리는 아니다. 自由世界의 이론바 進歩的 文化人과는 比較할 수 없는 政治的인 意義와 比重 및 背景을 갖고 있는 것이다.

### 5. 理想世界에의 閼門

萬一 그것을 단지 인테리로 把握한다면 絶對的이라 해도 可할만큼 中國의 實相은 把握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新中共 成立以來 二十四年間의 文人의 抵抗을 順序로써 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 아우트라인도 記述할 餘裕도 없으나 그것은 實로 놀랄만한 抵抗의 山脈을 이루고 있다고 밖에 할말이 없다. 이와같이 말하면 自己의 運命이 이렇게 될것을 알고 있으면서 現政府가 誕生한 一九四九年以來 거의 每年 連續的인 文人의 抵抗이 일어나고 있다. 그 過程에서 많은 文人이 追放당하고 或은 肅清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것은 結局 文化革命에로 擴大되어 기울어 갔든 것이다.

어떤 者는 「革命英雄도 어느瞬間에 一分間의 動搖가 있었을 것이다.

그 一分間의 動搖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그는 英雄人物, 卽 神이라는 것이 되어 그 非現實性에 사람들은 尊敬하되 멀리하게 마련이다.」라고 쓰는가 하면 어느 文人은 「어느 人物이 如何히 成長하였는가의 過程을 쓸 것이지, 肯定의 人物을 아무렇게나 蔑視하는 것은 公式主義의

陷穽에 떨어질뿐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어느 作家兼 外交官은 「作家의 人物創造는 人間임으로 類型的으로 지니고 있는 複雜性속에서 그쪽이 지니고 있는 主要한 個性을 抽出할것이며, 그 複雜性을 상상한다면 眞実味와 追進性을 喪失한다.」고 抗議하면 어느 저널리스트는 「英雄이라 말해도 普通人間에서 成長한 것이며 天上에서 춤추며 내려온것은 아니지 않으나」고 說明하고 있다. ……等等 그리고 文化革命에 의한 知識人 彈壓을 擴大하여 갔다는것은 周知에 屬한다.

旧中国時代 國家試驗(科擧)에 合格하여도 主流를 이루지 못하는 知識人, 或은 不合格者, 이러한 失意의 文人이 發生하였다. 또한 그 當時 王朝의 姿勢에 不滿을 품어 일부러 아웃 사이더가 된 氣骨있는 文人層도 나오며 腐敗한 官界에 投身하는것을 더럽게 여겨 스스로 自己疎外를 求하는 讀書人階級도 發生하였다.

그러한 官僚階級에 屬하면서 自發的으로 또는 他律的으로 政治 世界에서 隱退하여 鄉村에 逃避한 階層은 逸民, 或은 隱逸, 高士 또는 名士라고 稱하여 졌다. 上述한바의 「天下道 있으면 곧 나타나고 道 없으면 곧 숨는다」바르 그것이다.

勿論 그들은 제멋대로의 生覺이나 疎外當했다고 하는 個人的 不平不滿을 갖인者가 大多數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重要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 庶民의 눈일 것이다. “眞理”의 길을 헤쳐나가 애써서 高貴한 애리트 코스를 指向하면서, 또 到達할 수가 있음에도 讖때문에 一級下의 階層— 被支配階層에 果敢히 投身한 그 自体가 道에 忠하며 志操있는 高士로서 비추었을 것이다.

大体로 中国의 鄉村에서는 諸般事, 一切를 取扱하고 있는것은 옛부터

의 慣習이나 先例에 能한 “父老”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다. 中國과 같은 農業社會에 있어서는 四季와 農事일을 分別할 수 있는 經驗者, 필경은 老人支配는 自然스러우며, 不可避할 것이다.

“父老”라고 잘도 이름지어진 것이다. 時代가 흐름에 따라 그 父老우에 上述의 神士, 說書人— 文字없는 太古의 自然村에 “文字있는 사람”, 드리어 真理를 터득한 精神中心이 形成된 것이다. 그 政治的 影響力은 想像하기 어렵지 않다. 「자, 돌아가지 않으련……」의 歸去來辭는 여기서 되살아 난다고는 할 수 없을지……

「中國歷代의 君子는(이들) 逸民의 뜻을 貫徹시켜 또한 逸民을 許容함으로서 天下萬民의 歸服을 얻는 寬大한 聖天子가 되며, 또 逸民의 君主에 對하는 對立意識을 緩和시키는데 腐心하였다」— 여기에 中國의 別派知識人의 特殊性이 있다고 볼 것이다. 卽 그層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現時의 統治者를 擁護하는 積極의인 媒介機能을 演出할 수도 있으며 革命에의 觸媒作用도 할 수 있는 그들이다. 즉 그들은 否定과 肯定의 役割을 하는 二面性을 가진 으시시한 政治的 存在인 것이다.

##### 5. 面從腹背의 精神風土

이러한 中國特有의 伝統과 性格을 充分히 認識하고 新中國을 보면 勿論 「逃避하는 “世外의 桃源”도 아니고 “竹林의 世界”도 아니다. (人民日報) 嚴格한 統制下에 있는 新中國의 世界에서는 「자! 돌아 가련…」의 “逸民”을 決定지을 餘地는 全혀 없다. 그런데 一九四九年以後 거의 每年 繼續되고 있는 上記知識人의 抵抗, 그 밑물같은 抵抗



을 감안하더라도 “精神的 逸民層”은 廣大한 範圍와 깊이로 形成되어 있다해도 틀림 없을 것이다. 現在 「人民日報」는 자칫하면 脫이대 올로기에 指向하기 쉬운 幹部의 生態, 解馳되어 가는 青年層, 無政府主義思潮의 蔓延을 하소연하고 있는것이 그것 때문일 것이다.

러시아의 風土와 러시아인의 氣質에 對하여는 설명한바 없으나 이러한 亂世와 革命의 連續에 의해 단련되어 몸에 부친 슬기가 民族의 性格으로 定着하고 있는 八億의 民族이 그곳에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共產主義라 할지라도 政治와 統治機構의 組織이 相違한 것은 當然하지 않을지!

같은 世界觀에 서서 아주 닮은 方向을 걷고있는 이 兩國이 只今 괴로 괴로 췌는 妥協안되는 사이가 된것은 一般的으로 指摘되고 있는 要因 外에 그에 對処하는 民族과 風土의 相異가 그 基本이 되어있는 것은 아닐지!

二十二年間 毛沢東은 인태리嫌惡症에 걸려있다고 一般的으로 말해지나 그는 틀림없이 그런性癖이 있었다. 그의 知識層에 對한 態度는 매우 神經質의 이었다. 그는 知識層에 對한 懷疑를 決코 풀려고 하지 않았다. 때로는 「利用하면서의 改造」(只今이 그렇다)란 總和政策을 쓰기로 하였으나, 主流로서 一貫하고 있는 知識人政策은 「지나친 革命」(毛沢東)으로 強壓을 加해 왔었다. 「讀書無用論」(文化人은 처참한 꼴을 당한다. 讀書는 必要없다.) 「文化危險論」(文化面에 발돋으면 위험하다. 避하는 便이 좋다.) 等等 하는소리(어느것이나「人民日報」)가 論述할 程度, 그들은 彈壓을 받았으며 그리고 只今 農民 勞動者 로부터 再教育의 洗禮를 받고 있다. 知識人이 지닌 二面性은 修正主

義에의 溫床이 된다. 그러므로……고 一般的으로 말해지고 있으나 그것만이 아니고 遊說하면 中國 “讀書人” 階層의 特殊한 自尊心과 背景인 面從腹背의 精神風土에 손을 쓰고 있는 一面이 있는것도 注目할만한 일이다. 「왜! 저리 서두를가」라고한 한旅行者의 눈에 비친 疑問을 풀 하나의 열쇠는 이런곳에 있는것은 아닌지. 그것은 中國知識人の 獨特한 精神構造이며 社会的 存在였다. 知識人을 단지 인테리로 解釈하고 인테리란 概念으로 單純하게 理解하는 外部世界에서는 도저히 把握할 수 없는 “中國의 要因”이 그곳에 있었고 또 있고 繼續있을것이라고 筆者는 생각하고 있다.

## 7. 民族性을 形成한 思想

「왜! 서두르는가」의 또 하나의 內在的인 要因으로 旧中國의 社会制度의 特質을 指摘할 수 있다. 그 特質은 우선 政治体制에 있어서의 分散性 地方自治制의 孤立. 閉鎖性에서 求할 수 있다. 그러한 特質을 認識의 基礎로 하면서 若干 迂回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맑스主義者 毛沢東으로 부터 맑스主義를 능가하고 毛沢東이 보다 強하게 影響받고 있는 中國의 傳統思想이란 무어냐의 假說은 興味있는 問題이다. 果然 儒家이나, 道家이나, 그보다는 法家이나의 問題가 되겠지만 筆者의 現在到達한 結論으로는 第一 強하게는 法家로 부터이고, 다음이 儒家로 부터 影響을 받은 것이며, 그와 對置되어 있는 思想이 道家라고 본다. 法家思想과 毛沢東의 關聯性은 特別한 關心이 가져지는 問題이나 이小片에서는 記述할 餘地가 없다. 여기서는 上記 社会

制度의 特質을 解明하면서 中共이 取한 對應措置에 焦點을 두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中國의 民族性을 形成한것은 儒敎와 道敎思想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中國의 民族性에 보다 強하게 投影된것은 儒. 道家라고 말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探索은 課外로 하고, 要컨데 儒敎는 中國의 古代文化의 正統을 傳한것에 反하여, 道敎는 反正統의인 思想을 代表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이 兩者는 根源을 같이 하면서 前者는 主로 支配階級間에 行하여진 西周文化의 傳統임에 對하여 後者는 主로 被支配階級間에 行하여진 民間思想의 傳統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通說로 되어 있다.

政治學的인 視角에서 보면 儒敎는 支配者인 小敎敎權層의 思想體系임에 反하여 道敎는 勞動하는 平民의 思想體系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新羅에 있어서 花郎道가 支配層의 思想임에 反하여 佛敎는 庶民을 代表하는 思想이었다. 關係와 같은 것이다. 勞動하는 庶民의 思想體系인 道敎가 新中國의 革命政權의 政策을 妨害하는 阻害要因이 되어 있다는것을 念頭에 두었으면 하겠다.

그러나 花郎道 또한 佛敎信者이며 花郎道도 庶民思想形成의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이와같이 이 兩者가 相互浸透結合하여 韓民族의 普編的 性格이 形成되어 있는 바와 같이 支配階層의 思想으로서의 儒敎와 被支配階層의 思想인 道敎가 相互神完結合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그곳을 探索하는데서 中國民族性의 普編的인 것을 찾을수 있을 것이다.

이境遇 普編性을 어느 面으로 볼것이나면 新羅의 경우 佛敎인 것처럼 中國에서도 道敎便이 普編性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莫然

하게 一方은 政治哲學임에 對하여 後者는 보다 많은 宗教의 性格이 強함으로 一 儒敎에도 크리스도敎의 바이블에 比할만한 書經이 있지 않으나 反論에는 辨明할 路이 없으나 儒敎란 家族體制나 氏族社會의 道理, 上下統屬關係의 秩序를 說明한 冊이며, 窮極의 으로 求하는 것은 政治와 倫理를 融合시킨 德治, 王道思想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對하여 道敎는 絶對的의 位置를 人爲的이 아닌 自然에서 求한다.

無爲自然에 還하라等 그로부터 導出되는 虛無思想—이라고 이와같이 말하여 진다. 武力이나 經濟를 重視하고 法의 平等을 主張하는 法家는 勿論 儒敎의 德治主義에 對하여서도 또한 社會主義의 傾向을 띤 墨家의 合理主義에서도 이러한 모든 學說은 道敎의 批判의 對象이 된다. 中國의 近代化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먼저 아나키즘이 活潑히 導入되었으나 그것은 그 以前에 中國에는 아나키즘의 體質이 있었다는것, 그것은 中國의 風土와 決코 無關의 것은 아닐 것이다.

## 8. 國家不在의 國家

어려운 論議는 그 方向의 專門家에게 맡기기로 하고 經驗을 通하여 道敎의 始祖, 老子의 다음말은 저변에 있는 中國의 社會와 中國人의 心性을 보다 正確히 表現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鷄犬之聲相聞, 民至老死相往來 ( 닭이나 개소리가 들릴만큼 가차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 백성은 늙어죽을때까지 가고 오고하지 않으려 한다.

要컨대 放任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稅金은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放任한 代價로」라고 한 稅 ( 國家干涉 ) 에 對한 觀念은

上記 詩와 더불어 中國人の 心性을 象徴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要컨데 自然村에 無制限한 自由의 要望이다. 閉鎖的인 單細胞化, 自己完結的인 世界, 이것이 教祖 老子的 理想하는 世界이며 그러한 潛在心理가 支配階層에 屬하는 儒家(一般教養人讀書人)에도 普遍的으로 存在하는 것은 確實하다. 이것을 또한 小國寡民의 思想이라고도 말한다. 儒敎世界와 對置하여 말하면 儒敎의 人本主義에 對한 自然主義이며 上下關係의 秩序追求의 體系(儒敎)에 對하여 道敎는 虛無思想이다. 端的으로 是 平民으로부터의 要求나 答弁을 代表하였다. 이것은 요컨데 일하는 人民의 思想을 代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中國人은 거의 自己가 사는 마을밖에 모른다. 그 地方 以外일에 對하여는 아무런 興味도 없다」라고 B. 모-스氏는 指摘하고 있지만 대략 適當한 評言 것이다. 그 端片的인 表現속에는 中國에 있어서 國家와 個人과의 關係를 表示하고 있다. 稅金에 對한 関念은 前述한바이다. 同氏는 「徵稅官의 規則的訪問을 別途로 한다면 政府란것의 現實的인 存在가 全人口의 一割程度의 사람이 認識되고 있을지도 疑心스럽다.」고 表現하고 있다. 必要로 하는 政治(國家)란 「民의 將來에 存在하는것」이며 따라서 「政治란 被治者의 服從속에만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國家와 個人의 斷切關係의 發生이다.

「民의 將來」一法이란 것을 根本的으로 不信하였다고 말하는 便이 適當한 것이다. 一에 있어 個人의 身分保障은 어디서 求할 것인가의 問題가 발생하나 再論할 必要없이 村落自治이며 家族 血族社會이다.

個人이 宗教社會라고 하는 「集團화된 親族속에서 埋沒한다.」는것에 따라 安全과 身分과를 保障한다.

따라서 그 國家는 個人不在의 國家이며 國家不在의 國家이다. 그곳에 “有”로서 “在”하는 것은 血緣社會이며, 家族社會뿐이다.

그들은 國家에 對하여 그들의 祖上이 要求한바와 같은 同一한 權利 밖에 要求하지 않는다. 同時에 國家에 依한 一定限度の 干涉이나 一定限度の 服從의 要求를 必要惡으로 받아들리는 그들이다. 왜냐면 그로 因해 安定된 生活이 保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一定限度內와 限度外를 區別할 수 있는 賢明한 그들이기도 하다. 限度外에 達하여 轉될수 없게 되며는 天命思想에서 보여주는 積極的인 面 마칩내는 「天命은 無常한것」의 革命에의 起爆作用을 한다.

行政力の 浸透는 겨우 縣城都市까지, 縣城을 한발짝만 멀어지면 点点이 깔려있는 村落은 古요하기 수풀과 같은 自然村이며 太古적 背景으로 構成된 自治社會이다. 그곳은 法이 아닌 因襲이나 慣習을 秩序의 基準으로 하는 世界였다. 참으로 老子의 理想으로한 그 모습이였다.

그것은 都市(政治)와는 完全히 隔離된(하려고 하는) 世界임을 旧中國을 조금이라도 알고있는 사람은 一種의 鄉愁에 젖으며 追憶될 것이다.

여기서 앞에서 指摘한 點을 생각하면 政治體制로서의 中國의 特質은 分散性. 地方自治組織의 孤立, 閉鎖性에서 求한다고 하였는 點이다. 즉 廣大한 土地에 無限히 펼쳐있는 넓은 農村 그곳은 “小國寡民”思想에 由來한 自己完結의 世界를 指向하는 社會이다. 그것은 그대로 地方主義性에 結付되어 國家支配에 對한 遠心作用으로서 機能이 可能한 社會인 것이다.

## 8. 二面의 挑戰 二面의 敗北

共產中國의 中央集權制— 強力한 求心化要求는 그것에 正面對立될 것이다. 毛沢東이 그러한 傳統社會에 對하여 徹底한 破壞를 人民公社革命에서 試圖하여 온것은 當然할 것이다. 國家不在의 國家化시킨 血緣社會의 徹底한 解体를 試圖한 것이다.

또한 그解体가 있고서 처음으로 個人不在의 國家— 個人의 解放과 個人과 國家의 密着이 可能할 것이다. 사람은 公社革命을 主로 하여 原始萬積을 爲한 體制의 措置란 側面에서 取扱하고 있으나 그 以上으로

舊中國의 社會制度的 特質이 가로 놓여 있어서 그것은 舊中國에 對한 毛沢東의 挑戰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公社革命이란 天下를 公社單位로 分割支配하는데 必要로 하는 一元化를 追求한 政治的措置였다고 말할수 있으며 또 노리는곳도 그곳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支配의 보다 下層의 完壁을 期한 이 體制의 措置가— 마침내 人民公社化가 進行됨에 따라 公社의 世界가 그것을 奇貨로 하여 逆으로 自己完結的인 方向을 取한 것이다.

이와같이 統一과 支配를 爲한 措置가 도리어 遠心性을 觸發한곳에 中國의 요소가 보여지는 것이다. 人民公社처럼 「中國과 中共」이 複雜한 關係를 象徵한 것은 없다.

「社會鬭爭에서는 先進階級을 代表하는 勢力도 때로는 失敗한다. 그것은 思想이 不正確하기 때문이 아니고 鬭爭力량의 比較에 있어서 一方의 先進勢力이 地方의 反動勢力에 一時的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一時的인 失敗이지 以後의 어느時期에는 반드시 成功한다.」 이것은 人

民公社挫折後 毛沢東의 述懐이며 敗北辭이기도 하다. “社会鬭爭, “鬭爭力量의 比較”, 一時的失敗等等은 分明히 中國農村의 制度와 傳統의 壁이 두꺼워서 부셔지지 않았다.

「우리를 보다 強했다. 人民公社는 失敗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思想은 바른路線임에는 틀림이 없다. 我方의 權勢로 因한 一時的인 失敗이다」라는 毛沢東의 思考方式은 그것을 實現하기 위한 條件을 構成한다. 이는 手段을 取하겠다는 諒告와 같은 것이다. 意識革命, 人間改造, 思想革命은 社會主義教育運動에서 文化革命으로 擴大하여 갔다.

이것이 참된 動機이며 目的일 것이다. 마침내 「意識形態領域에서의 階級鬭爭」이라 定義하는 文化革命의 展開는 人民公社에 理想的인 世界를 實現시키기 위한 條件構成運動이라 할 수 있다. 社會革命(人民公社)의 先行條件으로서의 意識革命(文化革命)이 不可欠하다. 意識革命을 先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人民公社革命— 社會革命은 中途에서 挫折되었다는 把握方式이다.

意識革命앞에 가로 놓인 보다 強力한 阻害要素는 特殊한 “文魂”을 가진 上述의 “讀書人”이며 古典에서 絶對眞理를 発見하고 絶對眞理의 傳統을 이어받은 歷史 그自体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文化革命段階에서 우선 외쳤든 스토간은 四旧破壞, 四新創造(낡은思想傳統, 風俗, 習慣을 破壞하고, 새로운 四個의 그것을 創造한다.)이었던 것도 그때문이다. 新四史(새로운 村史, 家史, 人民公社, 工場建設史)를 提昌하고 正史(二十四朝史) 不要의 宣稱을 한것도 또한 그때문이다.

全般的인 歷史에 對한 挑戰과 毛沢東의 참된 가르침(語錄)에 依한 歷史, 여기서 비롯한다는 發想으로 文化革命은 이끄러졌다. 이 中國的



意味內容은 이곳에 이르러 判然할 것이다. 換言하면 旧中國에 對한 毛澤東의 第二次 挑戰이 文化革命에 의하여 試圖되었다는 것이다.

그當然한 歸結로서 文人, 作家, 저널리스트, 歷史學者가 鬭爭焦點이 되어 大量 追放當하였다. 모든 真理는 “毛書”에 있다고 한 一種의 思考停止의 要求를 內容으로한 文化革命의 發動과 그곳에 있는 中國의 人 意味內容도 마침내 이곳에서 判然할 것이다. 그렇다고하나 毛澤東의 歷史觀은 「現在의 新文化(共産主義)라 할지라도 中國古來로 부터의 旧文化의 發展線上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自己나라의 歷史를 尊重하지 않으면 안된다. 歷史를 中斷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尊重”이란 歷史에 一定한 “科學的”인 地位를 賦與한다는 것이다. 結局 歷史傳統의 點檢的 受容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破旧立新」이란 歷史에 對한 正面的인 挑戰으로 轉化되어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問題가 있다. 그것은 挑戰하지 않으면 안될 “中國”이 嚴然히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서두르는가」의 이것이 또하나의 要因을 이루고 있는것은 再言을 不要로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毛澤東은 人民公社革命과 文化革命으로 두번에 걸쳐 旧中國에 對하여 挑戰한 것이다. 第一次의인 挑戰- 人民公社革命은 中途에서 挫折되었고, 第二次挑戰- 프로레타리아트文化大革命도 그後의 移行狀況을 보면 徹底하게 失敗하였다. 上記 “破旧立新”의 스토간은 어느 사이 行方不明이 되고 또한 “四新創造”라한 当初 掲載되었은 目標도 마침내 紙面에 完全히 追放當하였다. 中國은 旧殼을 脫皮하지 못하는 存在라고 徹底히 批判받았다. 이른바 “實權派”가 잇따라 名譽 回復되어 之來의 포스트에 復歸되어 가고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文化革命을 象徵한 두사람의 “文革男” 林彪, 陳伯達은 그 政治生命이 끊겼다. 文化革命의 先驅者集團으로 華麗하게 登場한 紅衛兵은 三·五·全 全國의 農村에 “下放”이라는 이름의 追放処分을 받았다.

이러한 文革의 실패와 더불어 中共은 如何히 脫文革化할 것인가 苦心하고 있다.

이와같이 毛沢東의 旧中國에 對한 第二의 挑戰도 마침내는 中國의 두터운壁을 破壞할 수는 없었다. 中國의 歷史와 傳統의 強韌함을 歴歴히 보여준 것은 하나하나의 感은 아닐 것이다. 中共은 如前히 中國속에서 左傾이란 彷徨을 하고 있다는 評은 過하지는 않을 것이다.

## 9. 傳統과의 調和

이제 本稿의 焦點, 中國人の 古典에 對한 特殊한 思惟方式을 되돌아 보면 그것은 道理 그自體로 意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人間生活에 必要한 道理가 모두 包含되어 보고 들을수 있는 生活의 모두를 古典에 一致시키려 努力하고 있었던 것이다.

綜合하여 보면 中國의 民族性이 모두 이곳에서 緣由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絶對眞理는 우리에게 있고 또한 그眞理를 實現한 先例가 古代에 있었다고 하는 思考는 「正當한 것은 우리뿐」이란 中華意識이 發生할 것이며, 모든것을 先例로부터 배운다는 思考에서는 保守主意的 性格과 經驗主義가 導出될 것이다.

歷史나 傳統思想에 挑戰하고 歷史의 廢棄宣言을 行한 毛沢東이지만 延安의 經驗에 絶對性을 發見하고 이른바 毛沢東思想은 「맑스·레닌主

主義의 最高段階이며」 그것은 世界革命의 「一般的인 普遍的 眞理이다」,

「放之四海而皆准」( 이것을 四海에 傳播시켜 )의 絶對的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야 全世界人民의 눈은 모두 北京에 쏠리어 毛沢東思想을 마음의 燈불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毛沢東이 그곳에 있다.

러시아 十月革命 五十週年을 記念하는 論文이 發表되어 있으나 그結語는 참으로 興味거리다. 왜냐면 過去의 束縛을 모두 버리려고 하는 指導集團이어야 할 北京政權이 前의 中國人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革命家와 中國人의 奇妙한 勾合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內容을 보면 現在의 世界는 毛沢東思想의 新時代로 들어갔다.

「一八世紀末 革命의 中心은 프랑스에 있었다.

一九世紀 中葉은 獨逸로 옮겨져 맑스가 태어났다.

二十世紀 初期에는 러시아에 옮겨져 레닌이 태어났다.

現在 中心은 中國에 옮겨져 毛沢東이 태어났다.

偉대한 프롤레타리아文化大革命의 試鍊을 거쳐 世界革命의 中心 中國은 또다시 強國이 되었다.

눈앞에 中共이 推進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文化革命은 새로운 歷史條件下에 있어서 十月革命보다 보다 높은 段階에서의 繼續이다.」

共產主義革命家 毛沢東에게도 血管에 脈々히 받아들인 躍動하는 中華思想을 우리는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中華思想을 한마디로 말하면 唯我獨尊이나 교묘하게도 “唯我獨革”이라고 北京政權은 말하고 있다.

위에서 筆者는 그舞臺는 中國이며 그對象은 中國의 社會와 民族이고 그것을 指導하는 者는 共產主義者 以前의 中國人이라고 指摘하였지만 여기서 中國人과 共產主義者와의 奇妙한 勾合이 보일 것이다.

經驗主義와 保守性은 中蘇이데올로기論爭에 있어서 십분 發揮되어 있을 것이다.

延安의 體驗을 絶對化하여 蘇聯의 成熟段階에서 行하는 共產主義에의 挑戰을 挑戰으로 보지않고 修正主義의 異端이라고 批判하며 未成熟段階에서 行하는 우리挑戰만이 맑스·레닌主義를 純化시킨 것이라는 思考方式이 바로 그것이다.

古典에 生活規範을 求하여 常住坐臥 一切를 그에 適用시키려는 努力속에 中國民族의 形式主義가 生긴다. 現中共에도 그것은 脈々이 받아어지고 있다. 例컨데 蘇聯이 그것은 帝國主義的인 侵略이었다고 認定하면 現在의 國境線을 尊重한다. 이條件에서 未解決狀態로 남아있는 部分의 交涉에는 応한다는 兪想, 닉슨便에서 訪問한다는 形式을 加추고서 美中首腦會談의 實現等に 體面과 形式主義의 傳統은 革命政權인 新中國에도 裏退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것을 보는 것이다.

「形式을 加추다」는 體面과 結付되어 그것은 또한 調和의 思想으로 展開하여 간다. 그體面과 調和의 思想을 新中國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關하여 筆者로서는 言及하고 싶으나 紙面關係로 省略하며 前述한바와 같이 北京의 指導者도 亦是 中國人이라는것을 강조한다.

## 10. 참된 鬭爭

이리하여 文化革命은 熾烈하게 展開되었다. 그러나 中國의 遺制는 아직도 頑強한 抵抗을 하고 있다. 그것을 血緣社會에 象徵시켜 最近의 「人民日報」에서 拔萃하여 結論을 맺자.

「그들 階級の 敵은 아직도 封建迷信思想으로 農民을 眩惑시켜 農村 社会底辺에서 混亂을 惹起시키고 있다. “美人計”를 利用하여 青年層에 侵透해 들어온다. 特別히 注意할 것은 그들은 農村社会에 潛在하여 있는 封建宗親觀念을 利用하여 그에 便乘, 血緣關係를 階級關係로 代替시켜 階級性을 沫殺하고 있다.」(人民日報七一. 六. 八)

「우리들의 大隊(村)党支部는 農村의 現狀을 分析하여 보았다. 그 結果 나타난 特徵은 旧態依然하게 旧風俗이 宣揚되어 있어 禮物를 보내거나 宴會를 배플거나 하는 “宗親觀”(同族間의 親近味)을 販賣하며 甚하면 旧社会를 讚美하며 오늘을 諷刺하고 있다는 것이다」(人民日報七一. 六. 十一)

「階級隊列의 整備는 프롤레타리아獨裁의 強化를 위해 不可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大隊(村落)에서는 同姓 同族에 拘碍되어 義理 人情을 外面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同族間에 그놈은 敵性이라는 것을 確實히 알고 있으면서도 同族을 감싸고 保護하여 決코 適癢하려고 하지 않는다. 現在의 우리들은「只有階級親, 沒有宗族親」(階級에 親交만 있을 것이고 血緣間의 親交는 있어서는 안된다)만이 必要하다」(人民日報. 七一. 六. 一九)

「七一年 六月分만의 「人民日報」를 더듬어 보아도 금방 이러한 農村 報告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그러한 指摘은 今日에도 間接的으로 이어지고 있다. 文化革命에 依持한 意識革命, 人間改造는 現在北京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中途에서 挫折된 것이다. 따라서 中共에서 말하는 鬭爭의 本質은 “中國”과 “中共”의 對決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萬一 그길을 貫徹

하려 하면 教育活動, 또는 毛沢東思想의 徹底化運動은 더욱더 必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이란 한마디로 定義한다면 「그것은 想像할 수 없는 復元力을 가진 怪物이다.」이란 것이다. 過去 仏教를 삼켜 버리고 크리스트教를 投骨脫胎하여 왔다. 이에 따른 問題의 포인트는 「中國이 共產主義化되느냐 共產主義가 中國化되느냐, 또는 中國이 共產主義를 삼켜 버리느냐」를 軸으로 하여 그싸움은 맴돌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들이 말하는 階級鬭爭의 참뜻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부르조아 프로레타리아間의 對立鬭爭이란 西方 世界의 尺度로서 公式적으로 取扱한다면 意外의 過誤를 범할 것이며 中共의 實態는 結局 把握하지 못할 것이다. 如何히 毛沢東은 二回挑戰하여 二回 모두 失敗한 것이다. 그곳에 모든 問題가 集約되어 있을 것이다.

参 考 文 献

- 小島祐馬；中国の 革命思想
- 市瀬正幸；中国思想の 精髓
- 毛沢東選集；人民出版社
- 桑原寿二著；中国と 毛沢東
- 岩村三千夫著；現代 中国の 歴史，徳問書房
- 岩間一雄著；中国政治思想史研究，未来社
- 国際関係研究所編；共産党 原始資料選輯 1，2，3集
- Yu Frederick T.O ; Mass Perssuation in Communist, New York Praeger.
- Meisner Maurice ; Li Ta-Choa and the Origin of Chinese Marxism, Havard University Press.
- John W.Lewis ; The Leadership in Communist China, New York W.W.Norton.
- Robert J.Lifton ; Revolutionary Immortality ; Mao Tse-Tung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 Gentzier J.Mason ; A Syllabus of Chinese Civilization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oak A. Barnett ; The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羅昌柱 著；中共指導思想論，國際學術院
- 羅昌柱 訳；周恩來，國際學術院
- 金相浹 著；毛沢東思想，知文閣
- 金俟燁 著；中國의 最近世史 外 多數 書籍 및 定期刊行物 參考。



## 第四章 中共黨 半世紀의 批判



#### 第四章 中國共產黨 半世紀의 批判

아편전쟁후 노골화된 西歐帝國主義의 침략과 開化된 日本勢力의 中國進出은 半封建狀態에 있던 中國을 당황케 했다.

나날이 더해가는 西歐先進國들의 對中進出은 中國을 半殖民地狀態로 몰고감에 따라 中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等 諸分野에 걸쳐 剝奪을 수 없을만큼 分散되고 있었다. 孫文이 주축이 되어 展開한 新文化運動과 國民革命運動은 辛亥革命으로 封建王國을 滅亡시키고 西歐思想이 주입된 民國을 세울 수 있게 만들었으나, 國民革命에 對한 知識層의 소극적인 姿勢와 一般大衆의 沒理解로 袁世凱를 中心한 北方軍閥에 잠식되었다.

1917年 러시아에서 10月革命의 成功은 自然히 中國人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다. 中國에서 長期間에 걸친 國民革命은 부진함에 반해 러시아에서 共產革命이 급진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當時 中國의 將來를 걱정하는 識層에 자극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1次世界大戰의 戰勝國인 中國이 파리講和條約에 의해 中國에게 어떤 利益을 提供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山東地方에 점거한 獨逸의 利權을 日本이 인수하게 한다는 웃지 못할 現實은, 더구나 西歐 諸國에 對해 반발심을 가진 中國人에게 충격파를 던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原因이 되어 1919年5月4日을 기해 발발한 5.4運動은 孫文을 中心한 國民革命 指導階層이

主導하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關心이 增大되고 共產革命에 대한 매력을 갖게 됨으로써 中國에서 共產主義가 발판을 굳히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中共黨이 어떤 過程으로 發足하여 發展成長하게 되었는가를 몇가지 角度에서 高찰코져 한다.

### 1. 中共黨 全黨大會의 沿革

러시아에서 1917年 레닌이 主導下에 볼셰비키(Volsheviks) 政당이 政權을 장악한 후 유럽의 共產革命方向으로 內部的 階級鬭爭을 시도했다. 이 努力이 失敗하자 1919年 3月 레닌은 國際共產黨 運動을 촉진하기 위해 제 3인터내셔널(The 3rd International)을 모스크바에서 결성했다. 레닌은 “파리는 北京으로 돌아서,, 라는 迂廻戰略으로 極東地方으로 그 초점을 迅速히 轉換하게 하였다.

1920年 4月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은 東方部長 보이틴스키(G.Voitinsky)를 中國에 派遣하여 中共黨의 조직을 추진시켰다. 中國에 온 그는 李大釗, 張國燾, 陳獨秀等 左派知識人들과 接觸하여 中共黨 臨時中央을 組織하였다.

1年間の 準備期間 끝에 1921年 7月 60餘名이 채 못되는 黨員으로 13名의 代表가 모여 上海 租界女學校에서 1全大會를 갖게 됨으로서 30年이 지난후에는 中國大陸을 席捲하게 되어 버렸다.

#### 가. 1全大會

1全大會는 마링(G.Maring)과 國際左派勞動機構(The Red International Labor League)의 니콘스키(Nikonsky)의 지휘를 받았다.

党的 機構와 党章(規約)問題로 심한 論争을 벌였으나, 當時 對内外 情勢와 中共党的 立場을 감안하여 当面 問題로서 勞動組合運動을 發展시키기로 決定하고 勞動組合의 감독기구로는 中国勞動機構書記局을 設置키로 결의했다.

또한 党的 活動은 共産主義原則에 따르며 窮極의으로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추진하지만 當時 孫文이 主導하여 展開하고 있는 國民革命 運動에 協助的 姿勢를 취할 것등이 論議되었다.

黨員이 적은 小數党이었기에 1 全大會는 中央黨組織에 관한 必要性을 느끼지 않았고, 3 名으로 이루는 中央三人局을 두어 陳独秀를 黨書記, 張國燾를 組織責, 李大釗를 宣傳責으로 選出하였다.

## 나. 2 全大會

1922年 7月 123 名의 黨員을 代表하는 20 名의 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官憲의 눈을 피해 한코우에 있는 西湖에서 會同했다. 이 大會는 中共党的 進路에 對해서 論하고, 当面 國際情勢와 中共党, 國際共産主義運動과 中共党, 議會鬭爭, 商業組合과 中共党, 中共党的 組織擴大와 國民黨과의 統一戰線 結成節次에 關한 決議文이 採択되었다. 同時에 同大會에서는 中共党章과 中共党 宣言文을 採択하였으며 陳独秀를 書記長에, 李大釗, 蔡和森, 張國燾, 高君宇等을 中共中央委員會 組織準備委員으로 選出하였다.

同大會는 宣言文을 통해 當時의 中國을 半殖民地, 半封建狀態에 있다고 進계하고 中國의 革命目標는 反帝國主義運動과 反封建主義運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中國革命을 展開하는 과정에서 小農

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中國革命의 主要目標을 勞動政權을 성립시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階級이 뭉쳐야 하고, 私有財産을 打破하여 共產主義 政治体制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規定했다. 또한 中國革命의 當面 目標로 쁘더·브르조아階級과 연합하여 地主階級을 타도하고 軍閥을 打倒하여 內亂을 종식시키며 民族的 平和를 지키고 中國을 解放시키기 위해 反帝國主義運動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 다. 3 全大會

300 餘名の 黨員을 代表하는 20 餘名の 代表들이 모여 1923年 6月 瓜州에서 열렸다. 이 大會에는 陳独秀, 瞿秋白, 張國燾, 譚平山과 毛沢東도 包含되어 있었다. 1923年 1月 12日 코민테른 執行委員會가 決議한 中國革命에 關한 特別宣言에 따라 本會는 國民黨과의 合作에 關한 妥의를 전개했다. 이 大會는 中共黨과 國民黨에 關한 決定과 이에 대한 宣言文을 채택하였다. 同大會는 9名の 中央委員과 5名の 候補委員을 選出하고 陳独秀는 書記長에 再選되고 黨機關紙 편집인으로 選出되었으며, 瞿秋白은 黨宣傳責에 選出되고, 毛沢東도 처음으로 黨中央委員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다.

코민테른 執行委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들은 國共合作을 再確認하고 中共黨員은 希望에 따라 國民黨에 加入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에 對해서는 國民黨 組織을 全國의으로 확장하여, 中國의 모든 革命勢力을 규합하여 國民革命을 촉진하는데 전심하라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한편 中共黨員들은 國民黨內的 左派를 포섭하고 노동기구에 계급의

식을 붙여넣는 革命要素를 開發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中共黨은 國民黨에 침투하여 國民黨이 左·右派로 分裂되면 左派를 포섭하여 右派를 공격하고, 國民黨을 교란시켜 中共黨 自身이 성장, 발전하려는 戰略으로 臨했던 것이다.

#### 라. 4 全大會

1925年 1月 950 名의 黨員을 代表한 20 餘名의 代表들이 모여 上海에서 會晤를 가졌다. 同大會에서는 黨章問題와 國共合作問題에 關해 集中的으로 다루었으며, 同大會宣言文을 채택하였다. 黨中央機構의 要員을 選出하고 國民革命運動과 商業組合運動, 群衆運動, 婦女運動에 關해 논의하고 同時에 이들 運動 機構에 關해 論했다.

國民革命에 關한 決議文은 中國에서 國民革命運動의 成功은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參與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프롤레타리아政黨은 國民革命運動에 能動的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政黨은 獨立政黨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國民革命을 주도할 수 있고, 이르기 위해서는 國民革命運動에 부르조아階級の 뒤를 따를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階級이 主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는 또한 國民黨은 左·右·中道の 三派로 分離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中共黨은 國民黨 左派를 포섭 활용하며, 中道派의 中立을 유도하며 中共黨과 國民黨 左派는 國民黨 右派를 고립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 마. 5 全大會

1927年 4月 80 餘名의 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武漢에서 會同하였다.

當時 中共黨員數는 7,900 餘名이 되었고, 이 大會에는 코민테른 代表와 國際左派勞動機構 (The Red International Labor League) 代表들도 參席했다. 同大會는 第7次 코민테른 執行委員會가 결의한 中國의 政治現象, 土地問題, 革命政府의 性格에 關한 決議文을 討議하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 大會에서는 29 名의 中央委員과 2 名의 候補委員을 選出했는데 여기에는 陳独秀, 張國燾, 譚平山, 蔡和森, 瞿秋白, 李維漢, 李立三, 周恩來, 鄧仲夏, 羅亦龍, 項英, 向忠堯, 彭湃, 陳延年, 張太雷, 羅章龍 등이 包含되어 있었고, 陳独秀는 黨書記長으로 再信任되었으며, 毛沢東도 同大會에 參席했으나 中央委員에서는 除外되었고, 投票權마저도 박탈당했다 한다.

#### 바. 6 全大會

6 全大會는 國共合作의 結果로 共產黨活動의 제약때문에 中國에서 열리지 않고, 強硬한 蘇聯의 態度에 따라 코민테른 代表 부카린 (N. Bukharin) 의 감독하에 1928 年 7 月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6 次 코민테른大會와 때를 같이한 이 大會에는 84 名의 代表가 會同했다. 同大會는 從來의 統一戰線 戰略을 재검토했으며, 瞿秋白을 左派모험주의, 陳独秀를 右派機會主義者라고 규탄하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大會進行中 派閥間的 심각한 의견대립을 자아냈으나 코민테른과 蘇聯의 壓力으로 「소비에트形成問題, 土地改革과 勞動者, 農民問題 宣傳과 軍事作戰, 青年運動, 婦女子運動」에 關한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또한 同大會는 새로운 黨章과 新指導體制를 확립했다. 中央委員에 李立三, 向忠堯, 周恩來, 項英, 瞿秋白, 張國燾, 蔡和森 등이 選出되었고, 또한 向忠堯, 書記長, 李立三, 宣傳責, 周恩來 軍事委員을 中心으로 政



治局을 결성하였다.

#### 사. 7 全大会

7 全大会는 6 全大会 以後 15 年만에야 열리게 되었다. . 주지하는 바와같이 井崗山鬪爭期에 毛沢東은 成長할 수 있었으나 中共中央은 모진 시련을 다 겪게 되었다. 1930 年代 초반 5 차례에 걸친 剿共作戰에 물려 南部 江西 소비에트에서 北部 陝西의 延安에까지 물리게 되었고, 1937 年부터는 抗日鬪爭을 위한 国共合作과 戰爭中이어서 党大會를 가질 수도 없었고 党權이 毛沢東에게 주어지는 過程인 관계로 党内鬪爭으로 大會를 치를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 大會는 1937 年 12 月 延安에서 가진 政治局會議를 비롯하여, 1938 年 11 月 6 期 6 中全會에서 7 全大会에 관한 절차를 의결하였고, 1939 年 코민테른은 가능한 한 빠른 時日內에 大會를 개최하자는 電文을 보냈으나, 當時 여건이 許諾하지 않기 때문에 7 全大会를 무기한기시켰던 것이다. 本 大會는 政黨으로서 範모를 完全히 일신한 大政黨으로 121 萬名의 黨員을 代表한 548 名의 代表와 208 名의 候補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열렸다. 이 大會에는 毛沢東의 政治報告書, 劉少奇의 党報告書, 朱德의 軍事報告書가 제출되었다. 이 大會에서는 新黨章이 채택되고 中央委員會가 44 名의 委員과 33 名의 候補委員으로 구성되어 毛沢東이 中共中央委議長이 되었다.

新黨章은 毛沢東의 一人指導體制를 강화하는 方向으로 채택되었으며 毛沢東은 中央委議長, 政治局 議長, 書記長, 軍事委議長에 選出됨으로서 党權, 軍權을 完全히 장악하게 되었다.

아. 8 全大会

1956年 6月 15 ~ 27日 사이에 中央政權이 成立된 후 맨처음으로 열린 党大会로서 10,738千名의 黨員을 代表한 1018名의 代表와 86名의 候補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北京에서 열렸다. 또한 이 大会에는 共產諸國의 代表와 世界各國의 共產黨代表 400餘名이 읍서버로 參席한 가운데 進行되었다.

本 大会는 劉少奇가 제출한 黨章改定에 관한 政治報告와 2次 5年計劃에 관한 報告를 鄧小平, 周恩來에 依해 청취했으며, 中央委員會를 97名의 委員과 73名의 候補委員으로 選出 구성했다.

本 大会에서 가장 刮目할만한 사실을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입각하여 中國革命의 특수성이 깃들인 毛沢東思想을 中共의 基本理念으로 채택하며 集團指導體制와 個人的 偶像化는 相反된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이 毛沢東思想을 黨章에서 삭제해 버렸던 것이다.

자. 8 期2 中全會

中共黨 大会는 5年 任期로 選出되고, 中央委員會는 年1회의 會合을 갖도록 黨章에 規定되어 있다. 1958年 5月 8 期2 回中央委員會會議가 열렸다.

本 會議는 各階層의 地方黨과 軍部에서 派遣된 읍서버를 包含해 10,000名이 넘게 參席하였고, 이 會議에서는 劉少奇의 業務報告書에 관한 決議文을 채택하였으며 鄧小平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共產黨·勞動黨大會에 관한 보고를 받고 譚震林的 農業開發計劃 修正案

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同大會에서는 25名의 中央委員과 候補委員을 選出했으며 劉少奇는 社會主義의 建設을 위한 總路線을 제창했다.

#### 차. 9 全大會

文化革命으로 피폐된 對內秩序를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9 全大會는 1969年 4月 北京에서 열었다. 이 大會에 參席한 代表는 革命群衆 軍事指導者, 革命指導者들이 包含되었으며 이로 因해 심한 論爭을 牙았다. 本 大會에서 林彪는 政治報告書를 提出했고, 新黨章은 毛 沢東을 黨主席, 林彪를 毛의 後繼자로 指定하고 中共思想의 基本으로 毛沢東思想을 挾한다고 規定했다.

이 大會에서는 中共中央에 170名의 委員과 109名의 候補委員을 選出했으며 이들중 53名만이 8 全大會에서의 中央委員이 유임되었을 뿐이다. 軍部가 黨指導層의 45% 이상을 장악했다는 事實은 黨이 銃劍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심각한 사태를 말해주고 있다.

10 全大會는 73年 8月頃에 開催될것으로 外信이 伝하고 있으며, 이때는 아마도 林彪의 자리 메꿈이나 林彪問題의 解決等 심각한 問題들이 山積하게 될 것이다. 中央黨은 초기 6 全大會까지는 大體的으로 1년에 1회의 大會를 가졌으나 7 全大會부터는 黨規를 외면한 채 黨大會를 繼續 연기하여 不規則的으로 가져왔다. 6 全大會까지는 党内 指導部에 심각한 의견대립을 나타내지 않았고, 蘇聯과 코민테른의 指示에 따랐으나 그 以後부터는 党内 指導部の 심각한 政策見解差, 派閥間의 對立, 對內外問題의 불안等 여러가지 要因을 利用한 毛

沢東一派의 독주에 依래 左右되었다.

## 2. 党組織上의 變遷

中央党은 創党時인 1921年에는 57名의 黨員밖에 되지 않았으나 1960年代 中盤에 들어서는 1,800萬名의 黨員을 가진 世界第一의 共産党이 되었다. 다음표는 中共党的 수적증가 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表 1. 時代에 따른 中共黨員數

時 代	年	黨 員 數
國 共 合 作 期	1921.7	57
	1922.7	123
	1923.7	300
	1924	900
	1925.1	950
	1926	50,000
	1927.4	57,977
武 力 暴 動 期	1927.8	10,000
	1928.7	40,000
	1929.7	50,000
	1930.9	60,000
	1931.1	68,000
	1932.7	107,000
	1933	200,000
	1934.1	300,000
	1935.1	80,000
1936	30,000	
中 日 戰 争 期	1937.5	40,000
	1938.1	200,000
	1939	300,000
	1940.7	800,000
	1941	700,000

時 代	年	黨 員 數
中 日 戰 争 期	1942	800,000
	1943	700,000
	1944	900,000
	1945.4	1,210,000
內 戰 期	1946	2,200,000
	1947	2,700,000
	1948.9	3,000,000
	1949.9	4,480,000
1949年 이 후	1950.7	5,000,000
	1951.7	5,800,000
	1952	6,200,000
	1953	6,200,000
	1954.2	6,500,000
	1955.7	8,545,000
	1956.7	10,734,000
	1957.9	12,720,000
	1959.9	13,960,000
	1961	17,000,000
1963.5	18,000,000	

出處：羅昌柱著；中共外交論 P.91

### 가. 1次 國共合作期

創黨初이면서 中共黨員數가 급격히 增加한 것은 對國民黨 統一戰線 戰略에 기인한다. 1923年 1月 26日 孫文과 요제 (A.A.Joffe)가 國共合作을 宣布함으로써 中共黨은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加入하게 되었다. 이로써 中共黨은 그 成長發展을 위해 國民黨의 組織과 基盤을 活用할 수가 있었다. 그 結果 國民黨 中央의 組織部, 勞動者部 農民部等을 中共分子들이 장악하게 되었다. 譚平山은 國民黨 一次大

회에서 組織部長으로 選出되었다.

#### 나. 剿共作戰期

1927年 4月부터 国民党과 南京政府는 合同하여 共產黨員들을 国民党의 職位에서 박탈하려는 運動을 展開하였다. 1927年 7月 武漢政府에서 国民党左派와 中共黨이 分離하는 것을 계기로 中共黨은 国民政府에 물려 심한 타격을 받게 되고 1930年을 전후하여 英國경찰이 국제공산조직을 소탕하였기 때문에 中共은 對內外的 악조건에 處하게 되었고, 이로써 심히 分散되었다. 이같은 一連의 事態는 組織上으로도 中共黨員數가 심히 감소되어 10,000名선으로 떨어졌고, 1930年 초부터 南中國 江西소비에트에서의 中共建設運動으로 1934년에는 30萬名으로 급성장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대한 共產革命은 完全히 失敗하였고, 더우기 1933년부터 国民政府의 소공작전에 물려 江西地域에서 6,000 마일의 長征을 거쳐 1935年 9月에는 西北部 陝西省 延安地方에 은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北部에 물린 毛沢東은 倂간병은 겨우 3만여명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들의 장비는 형편없고 태반이 부상병과 병상에 누어있는 장정들 뿐이었다. 延安의 토굴에 숨어 담배를 피어 물고 명상에 잠긴 毛沢東은 自然히 国府軍의 재차 소공작전을 방어해야겠고, 이렇게 하려면 与論을 움직이어야 된다는 結論을 얻게되어 內戰 中止 一致抗日的 呼호를 내세움으로써 陣멸을 피하여, 抗日을 위한 對国府 統一戰線을 전개하여 소생발전의 여지를 開闢했던 것이다.

### 다. 抗日鬪爭期

1937年 4萬名の 黨員에서 日本이 항복한 1945년에는 121萬名이라는 30倍의 增加를 보였다. 이같이 놀랄만하게 中共黨員數가 增加한 이유는 아마도 抗日鬪爭期에 對國府 統一戰線戰略이 적중했다는 事實과 劉少奇의 白地革命運動이 적중했다는 事實을 들수 있겠다.

中共은 國民黨과의 抗日合作의 전술로 70%의 力量을 中共自體發展에 20%를 國民黨과 合作維持에 10%를 抗日鬪爭에 경주하라는 指令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當時 中共의 目標은 100萬名の 黨員增加와 100萬의 中共軍 養成이었다. 1936年 中共中央 北中部書記長이 된 劉少奇는 中共의 힘을 은익시키기 위하여 中共組織을 陽性組織에서 秘密組織으로 轉換하여 抗日鬪爭期에 國民黨의 지탄의 證據物을 은익시키는데 努力했던 것이다. 이 戰略은 7期6全大會에서 偉대한 劉少奇同志의 白地革命戰略으로 추앙되었으나, 文化革命期 劉少奇 批判中에 하나는 劉가 抗日鬪爭期에 黨命을 거역하고 反民族的 惡모를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 라. 內戰期

1946년부터 1949년까지 中共黨은 막대한 人員을 증발했는데, ① 解放地域에서 다양한 政治運動을 통해 ② 軍部內의 運動을 통해서 ③ 國府 占領地域에서는 反政府運動과 反民主運動을 통해서 증발했다.

마. 政權 成立 以後

中共政權이 成立된 후의 中共黨은 수적으로 自然히 급증하였으나 中共黨員의 質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元老黨員들까지도 都市地域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繼統的인 整風運動에서도 何等的 效果를 보지 못했다. 新黨員들은 革命鬪爭이나 階級鬪爭에 對한 經驗이 없으며, 黨에 對한 忠誠心이 極히 弱했다. 그렇기 때문에 中共黨은 數的으로 강하지만 그 組織運營上에 많은 問題點을 자아내게 되었고, 막상 政權을 장악하게 된 後에도 大衆의 生活水準의 向上, 經濟的 後進性의 탈피, 軍隊의 現代化等 富國強民을 實現해야 한다는 어려운 問題點들의 山積으로 因해 갖은 狂亂的 受難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바. 中共黨의 性分

中共黨은 構成性分으로 보아 프머·부르조아黨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理論에 依하면 農民은 프머·부르조아階級이라 한다. 여기에 提示하는 수개의 資料에 依하면 1939年 부터 北中國에서 中共黨員의 資格이 매우 緩和되었고, 이로 인해 中共黨員의 各階層別 構成比를 農民 60~63%, 勞働者 5~10%, 인텔리겐자는 25%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었다. 1959年은 1,272,000名의 黨員中에서 農民 66.8% 勞働者 13.7%, 인텔리겐자 14.8%, 기타가 4.7%의 分布를 보였다.

中共黨을 프롤레타리아黨으로 만들기 위한 많은 努力에도 農民의 比重이 증대됨으로 1949年 7中全會에서는 農民黨員數를 규제하고, 勞働



者の 발골을 주장하기도 했다. 1950年 6月 7中全会에서는 앞으로 3~5年内에 中共党은 工場労働者를 발골하여 全党員數의 1/3 以上으로 하고, 당분간 農民黨員을 늘이지 않는다는 決議文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一連의 試圖는 別다른 效果를 얻지 못했다. 사실상 지난 20年間의 中共党 成分을 보면 農民이 70% 以上을 차지해 오고 있으며, 인테리겐자階級을 포함하면 80% 以上을 점해오고 있다.

이같은 反프롤레타리아 要素는 지금껏 中共党内 鬭爭의 主要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疑心할 바 있다.

#### 사. 党内 肅清

1964年 以來 党要職을 包含한 黨員中 숙청자수는 180萬名 以上이 된다고 한다. 1970年 8月 10日 周恩来가 밝힌 事實을 베이루트新聞이 보도한바에 의하면 文化革命을 전후하여 1700萬名의 黨員中 그 1%가 숙청되었거나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한다. 이것은 수년전 모스크바 中國語放送이 文化革命期에 500萬名 以上이 숙청되었다는 보도와는 그 거리가 너무나 멀다. 蘇聯의 발표처럼 숙청인원이 많지도 않겠지만, 周恩来가 발표한 것처럼 적지도 않을 것이다.

中共党은 두차례의 國共合作期에 자기들의 퇴각을 엄호하면서 음성적으로 自党的 發展과 自党的 힘을 무한히 축적해 왔다. 政權이 성립된 후에도 그 黨員數가 外形的으로 부쩍 늘었기 때문에 그 기강과 紀律 및 党内結束이 자연히 해이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中共黨의 갖은 整風運動의 妥當性 있고 稅得力있는 구실마저 되어 왔다.

### 3. 戰略上的 變遷

가. 一次國共合作期(1923.1 ~ 1927.7)

코민테른 中國支部는 1921年 7月 57名의 急進의이고 과격한 革命分子들을 間으로 中國共產黨을 發족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當時 諸般여건에 依拠 맨처음 부터 政治權力을 노리지는 않았다. 當時 中國여건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이나 社會主義 革命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나라는 아니었다. 中國은 ① 農業國家였기에 經濟的으로 後進國이었고, 當時 中國에는 勞働者인 프롤레타리아階級은 겨우 200萬名에 不過했다 한다. ② 中國人은 資體主義에 依해서가 아닌 帝國主義와 軍閥의 抑壓을 받고 있었고 ③ 國民革命은 國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國民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었다.

當時 中國의 처참한 環境과 現實을 감안하여 코민테른의 指示에 따라 1922年 2全大會부터 中共黨은 國民黨과 合作하여 國民革命運動에 참여하면서 共產黨의 膨脹運動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國共合作을 도모하여 中共의 發展을 기하려는 저의에서 蘇聯과 코민테른은 마링(Maring), 요페(A.A.Joffe)를 비롯한 수명의 代表를 中國에 派遣하여 孫文의 실득을 무한히 試函했다. 이들은 소비에트 政治體制가 中國에는 합당하지 않고 共產黨이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入黨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1923年 1月 26日 孫文과 요페는 상하이에서 國共合作에 關한 原

則的인 問題에 合意하여 孫文, 요페共同聲明書를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中共黨이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入黨할 수 있었으므로 中共은 對國民黨 統一戰線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國民黨에 침투하여 교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李大釗의 國民黨 入黨宣言에 依하면 中共黨이 國民黨에 가입하는 것은 國民黨을 돕고 國民革命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中共黨이 國民黨에 침투하여 國民黨을 축출하고 中共黨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했다.

그러나 事實上 中共黨은 國民黨의 이름으로 中共의 組織을 膨脹시켜 中國을 共產化하겠다는 저의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目標를 달성키 위해 中共黨은 蘇聯의 마링(Maring), 보로딘(Borodin), 루이스(Louis)와 코민테른 代表들의 指示를 받아 國民黨에 침투하여 교란하고, 國民黨을 左派, 右派, 中道派로 分離하여 左派와 공동으로 右派를 고립키 위해 中道派의 中立을 유도하는 등 갖가지 수단으로 國民黨 전복음모를 전개하였으며 中山艦艦事件 勞働者, 農民폭동의 조종, 國部에서의 영향력 증대, 北伐의 방해와 武漢左派政府의 建립등으로 國民黨은 흩어짐에 反해 中共黨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1927年 南京政府는 공산당 숙청을 선언하였고 蘇聯의 秘密指令에 놀란 汪兆銘은 中共黨과의 絶絶을 고함으로서 武漢政權은 해체되었고 이들도 中共分子를 추방하고 소탕하는 蔣介石政府에 협조하게 되어 一次國共合作은 絶絶되었고 그래서 1923年 孫文의 聯蘇容共政策은 1927年 7月을 기해 폐기되었고, 中國의 蘇聯과의 友好關係는 단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蘇聯은 國共合作의 結果에 對한 責任을 陳獨秀의 右派機會主義의 責任으로 몰아 그를 숙청했던 것이다.

#### 나. 武力暴動期(1927.8 ~ 1937.7)

1927年 8月 南昌暴動으로 부터 中共黨은 그후 10餘年間 武力暴動을 일삼던 農村계급의 活動을 展開하게 되었다. 農村地域에서 農民의 支持를 얻기 위해 地主를 몰아내는 土地改革을 포방하면서 蔣介石政權에 도전해 오고 있었다. 이 運動은 스탈린의 指示와 코민테른의 武力暴動에 對한 決定에 의해 支援을 받고 있었지만 이 革命運動은 러시아 10月革命과는 달리 農民이 主動이 된 革命運動이었다.

國共合作이 결렬된 후 中共은 蔣介石政府의 강력한 소탕작전에 몰려 都市地域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農村으로 山間으로 숨어서 土着革命勢力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當時 中國 農村은 통신, 交通手段이 빈약하여 效果的인 政府의 統治權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地主와 農民과의 對立에 끼어들어 農民의 편에 서서 地主를 규탄하고 農民을 선동하여 紅軍을 창설하여 武力暴動을 전개하는데 主力하고 있었다.

1927年 8月 27日 中共中央緊急會議는 陳獨秀를 右派機會主義者로 規定, 숙청하고 앞으로의 中共革命路線을 土地改革과 武力暴動으로 규정하였다. 同時에 同大會는 農村地域에서 武力暴動을 展開토록 결의했으나 이것이 모두 失敗하자 1928年 8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6全大會에서 그 責任을 瞿秋白에게 돌려 그를 左派冒險主義者로 結論지었다. 그리고 中共은 또다시 새로운 革命路線으로 大衆의 支持를

인는 武裝暴動을 전개하고 紅軍을 조직하여 소비에트制度 (Soviet Government) 를 實施할 것을 결의했다.

1930年 4月 政府軍은 中部地域에서 共產黨소탕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李立三은 이때를 革命的 決定的인 時期로 규정하고 수개처에서 都市暴動을 전개하여 우세한 기세를 타고 全國各地에서 武力暴動을 成功的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主張했다. 都市暴動政策을 밀고가던 李立三路線도 失敗하게 되었고, 1932年 말경 中共은 上海地域에서 패배하여 그 本部를 江西地方으로 옮길 수 밖에 없었다.

이 期間中에 中共黨의 소비에트制度의 形成에 관한 努力은 상당한 效果를 보게 되었고, 1933年까지는 江西省을 中心한 수많은 소비에트地域이 결성되어 毛沢東을 수령으로 30萬名의 紅軍을 形成할 수가 있었다. 이 中共勢力은 200餘縣을 지배하고 中國全土의 1/6以上の 行政마비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이에 蔣介石은 5차례에 걸친 剿共作戰을 전개하였고 4차례는 毛沢東의 遊擊戰에 물려 失敗했으나 제 5차 소공작전은 中共을 南部 江西省에서 北部 陝西省 保安에까지 물리게 하였다.

陝西省에 몰린 毛沢東은 전멸을 피하기 위해 苦心하던 차에, 1935年 7月 코민테른의 反팻소 人民戰爭의 자극을 받아 抗日救國을 주장하고 이것으로, 國民黨의 先安內後攘外政策을 규탄하여, 大衆의 지지를 유도하게 되었다. 1936年 12月 西安事變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抗日을 위한 國共合作을 결정하게 되고 1937年 7月의 北京郊外의 노구교 (Marco Polo Bridge) 事件으로 中國戰爭이 全面戰爭化 되자 國共合作이 具體化되었던 것이다.

다. 抗日 民族統一戰線 (1937.7 ~ 1945.8)

中日戰爭은 中共을 全滅 위기에서 구해준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国民党과 다시 國共合作을 도모하는 유일한 구실이 되었다. 中共黨의 秘密記錄은 國共合作에 대하여 記述하기를 . . . . . 우리는 蔣介石을 제거하는 鬭爭을 중지하고 抗日戰爭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中共黨의 利益을 위한 것이며, 中共黨의 재정비와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 . . . 우리당은 抗日鬭爭을 전개하는 동안에 各 政黨, 團體 軍隊, 官僚 사이에서 적대의식과 모순을 개발하고 이를 유리한 方向으로 유도하여 우리黨의 革命目標에 영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抗日鬭爭과 함께 反革命勢力을 分散시키고 弱화시키며 이를 붕괴시켜야 하며, 革命의식이 決定的 시기에 도달할때 신속히 質量的 變化를 유도하여 프롤레타리아政權을 수립하고 社會主義革命을 추진한다. . . . . 고 주장했다.

抗日鬭爭 8年間の 中共黨은 自黨의 發展에 70%의 力量을, 20%를 国民党과의 合作維持에, 10%를 抗日鬭爭에 경주하라고 毛沢東은 1937年 9月 北部地域으로 떠나는 朱德 軍에게 指示했던 것이다. 이렇게 中國人을 抗日이라는 愛國心으로 자극하여 中共黨은 크게 成長할 수가 있었다. 7全大會가 열린 1945年 4月에는 1937年 抗日合作 始作시에 4萬名에서 121萬名으로 급증했고, 軍事力도 3萬名에서 92萬名에 民兵 220萬名이라는 어마 어마한 수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수천만의 人口를 가진 19個 解放地域을 통치하고, 이 같은 中共의 實力을 재평가한 후에 毛沢東은 国民党과 武力對決을

결심케 했던 것이다. 그는 勞動階級이 주도한 全人民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聯合政府를 設立할 것을 주장하고, 國民黨 政權을 완고파의 反民族勢力이라 규탄하였다. 中日戰爭의 8년에 國民黨은 抗日戰爭으로 심히 弱化되는데 反해 中共黨은 相對的으로 그 이면에서 成長發展하게 되었고, 이것은 決定的으로 國民黨을 축출하고, 中共이 中國을 점거하는 결과를 초래한 기초가 되었다 할 것이다.

라. 平和와 民主統一中國을 위한 統一戰線 (1945.8 ~ 1949.9)

中日戰爭이 끝나자 中共은 그들의 抗日統一戰線戰略을 平和와 民主中國 建設을 위한 統一戰線戰略으로 轉換하였다.

1945年 8月 ~ 1947年 7月까지는 이 戰略遂行을 위한 防禦戰略期라 할 수 있다. 이 期間中에 中共은 蘇聯의 保護를 받으면서 만주지역에 급침하여 日本 關東軍 장비를 인수받았는데 이것중 중요한 것은 소총 74만정, 1만 8천정의 기관총 4천문의 포와 800대의 탱크, 800대의 비행기, 6百個의 탄약고, 기타 병기와 성가리함대를 인수했던 것이다. 政治協商을 통해서 결정적 시기를 위한 時間을 벌고, 빈번히 국민정부군을 침범하여 辺打辺談戰略으로 임하면서 자체성장을 촉진했던 것이다.

1947年 7月 부터 中共은 攻擊期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해 10월에 中共은 人民解放軍(中共軍)을 창설하고, 8個項의 基本政策을 선포하여 蔣介石打倒를 부르짖었다. 그해 12月 中共黨은 北部 山西에서 회합을 갖고, 國府 打倒戰略의 轉換點이 도래했다고 결의

했다. 1948年 5月 中共은 모든 民主團體와 人民團體는 人民會議 創設과 聯合政府의 樹立을 위한 協議에 參加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바로 이것은 政治權力의 장악을 위한 中間段階라 할 수 있다. 그 해 11月부터 4路軍은 滿洲에서 南中國으로 이동하고 1949年 3月 中共黨은 7期二中全大會에서 軍事運動을 地方에서 都市로 轉換할 것을 결의했다. 이같은 軍事的 行動을 展開함에 있어 民主同盟을 개발하고 國民黨革命委員會의 創設을 주장하고, 民兵을 징발 무장시켜 國府軍을 공격하고 學生運動과 勞動運動을 전개하는 무력폭동을 조종하였다.

1949年 9月 北京에서 열린 政治協商會議는 共同宣言文을 채택하고 中共政權의 成立을 선포했다.

中國戰爭이 끝난 불과 4年만에 中共은 中國本土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 主要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中日戰爭 8年間に 中共은 公開的으로나 非公開的으로 또는 直接的으로나 間接的으로 國民黨에 침투하여 勢力기반을 確立했다.

② 戰後 中共黨은 中國의 政治, 經濟, 社會的 혼란기를 이용, 政府統治地域에 침투하는 第2戰線戰略을 전개하여 政府軍의 동요를 조장하고, 새로운 차오스(Chaos)를 造成할 기회를 용이하게 포착할 수가 있었다.

③ 統一戰線 같은 다양한 위장전술은 國民黨과 國府를 고립시킬 수 있었으며, 더우기 國民黨의 主導權을 分散시키고 이를 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矛盾을 개발했던 것이다.

④ 蘇聯은 中共黨에 軍事, 政治, 經濟, 分野 直接的인 援助를 제



공하였다.

⑤ 共産党的 活動, 蘇聯의 작용, 美国內의 共産主義者의 농간으로 美国의 對中政策은 中日戰爭 中間무렵부터 中共黨에게 本意아닌 利益을 주게 되었다.

⑥ 무엇보다도 蔣介石政府는 當時 中國을 이끌수 있는 原動力이 不足하였고, 이것을 共産黨이 교묘하게 對内外 宣傳에 활용하여 적 증된 것이 中國의 경우라 하겠다.

#### 마. 國家經濟 回復期(1949.10 ~ 1952.12)

政權을 成立한 직후부터 中共은 對内反共勢力을 축출하고 國內秩序의 回復과 經濟사정을 개선키 위해 蘇聯에 의지하고 蘇聯의 援助를 얻으면서 對外政策에 있어선 親蘇一辺倒政策은 추구하고 있었다.

① 土地改革運動: 土地改革運動은 中共이 政權을 잡는데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한 것이다. 1950年 土地改革法을 선포하여 土地改革運動이 本格的으로 전개되었는데 地方의 反共産要素인 地主를 타도하고 그들이 所有한 土地와 財産을 박탈하는 좋은 契機가 되었다.

② 反動分子 追放運動: 1950年 7月 中共當局은 反動分子의 억압에 관련된 教育을 실시한다고 반포하고, 1951年 2月에는 反動分子 처벌에 관한 法令을 선포했다.

이 運動의 主攻擊目標은 反動分子, 党内反動勢力, 反動路線을 취하는 前国民党 人士와 党幹部, 國民政府를 지지하는 反共産主義運動을 展開하는 軍隊들이 包含되었다.

③ 反美親朝運動: 韓國 動亂이 발발한 即後 中共은 대규모의 反

美運動을 展開하였고, 그해 10月에는 中共 등이 韓國戰에 派兵하게 되자 反美運動과 北韓援助運動으로 비행기와 무기헌납運動을 전개하였다.

④ 三反五反運動: 共產黨 幹部들의 不正腐敗를 막기 위해 1952年 겨울철에 反腐敗, 反浪費, 反부르조아運動이라는 三反運動을 전개했으나 그 經過가 심각하게 전개되어 資本家들의 영향력이 상상 이외로 비대한 것을 認識하고 三反運動을 反賂物, 反脫稅, 反橫額, 反低質商品, 反도둑運動으로 擴大하였다. 이 運動의 主體生물의 對象은 私企業人과 商人으로 全体 460,000세대가 숙청되고, 22억달라가 몰수되었다.

⑤ 이데올로기 改造運動: 이 運動은 인텔리겐자의 세뇌공작이다. 中공정권이 성립된 후 中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學習으로 單一化政策과 教育轉換政策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知識人이 자아비판으로 共產主義를 學習하고 새로운 世界觀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바. 社會主義 轉換運動期(1953 ~ 57)

위에서 말한 總路線期間中에 中共은 기본적으로 中共政權은 國內反對派를 除去하고, 經濟적으로는 政府의 財源을 확보하는데 主目的이 있었다.

이 다음 段階로 中共은 在來式 方式에서 탈피한 新民主主義 國家를 창설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계속 15年間에 걸쳐 연차적으로 社會主義 工業을 建設하고 企業의 國有化를 위한 기초를 확립하고 國防力

의 現代化, 農業과 手工業, 私企業과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各種 企業체를 社會主義化한다는 것이었다.

初期 中共은 改革政策을 과감히 實行하여 總路線의 方向에 따라 三大轉換運動을 전개하여 먼저 集團農場은 相互扶助팀과 低水準의 相互協力을 이루도록 하며, 이것이 점차 그 規模를 擴大하여, 手工業은 販賣供給루트를 통해 集團工業化하며, 私企業과 商業企業은 都 市購買方式을 통하여 大企業化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5年 下半 期부터 中共의 심각한 不安狀態를 인지한 當局은 都市에서 社會主義의 大潮流를 일으키기 위해 急進의인 社會主義政策을 實現하게 되었다.

그리고 1956年 여름철에 中共은 社會主義를 完全히 建設했다고 公포하였다. 社會主義革命의 補完과 三大轉換運動은 大衆에게 강력한 不滿과 저항을 받게 되었고, 이래서 中共은 1955年 후반기에 成 分이 불투명하거나 社會主義 總路線에 의구심을 품은 자를 숙청하겠 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반항이 繼續되어 協同農場의 效率性を 거의 마비시켰다. 1956年 헝가리暴動이 發生했을 당시 中共內에서도 각종 소요가 많았었다. 따라서 1957年 中共은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分野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을 강조하여 全人民을 상대로 成分調査에 나서게 되었다.

#### 사. 三面紅旗運動 (1958 ~ 60)

러시아 10月革命 40週年을 즈음하여, 1957年 11月 모스크바에 서 열린 世界共產黨大會에서 中共과 蘇聯은 戰爭과 平和, 平和共存과

共産革命問題를 놓고 심한 의견대립을 노출시켰다. 이 大會에서 毛沢東의 代表는 社会主義 宗主國 蘇聯에게서 第2次 5個年計劃을 수행할 막대한 經濟援助를 蘇聯으로부터 받을 것을 의도했으나, 兩國間의 심한 論爭은 兩國의 잠재적인 敵對意識을 노출시켜 그 目的은 말살되고 말았다.

1957年부터 毛沢東은 社会主義 建設을 위한 總路綫, 大躍進運動, 人民公社 등의 三面紅旗運動을 선포하여 中共을 침략으로 부터 방어한다는 政策을 시행했다. 1957年 12月 中共은 反浪費, 反復古主義에 기반을 둔 運動을 선포, 강철증산과 石炭증산, 수리시설의 확충을 호소했다. 同時에 毛는 中共이 大躍進運動으로 15年 以內에 영국의 강철과 石炭生産量을 추적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1958年 5月 8期 2中全會에서 中共의 總路綫은 社会主義 建設을 보다 앞당길 수 있고, 보다 經濟的으로 부담이 적게 들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方案이라고 규정했다. 1958年 8月에 열린 政治局會議는 人民公社에 對해 組織의 軍隊化, 行動의 戰鬪化, 生活의 集團化의 三大目標에 基盤한 政治, 軍事, 經濟 單位체로 作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三面紅旗運動은 經濟, 社会的으로 完全 失敗했다. 이 運動은 人民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中共內에서도 極左派 소행이며 反蘇運動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으며 對內外 壓力에 依해 毛沢東은 1958年 12月 8期 6中全會 國家主席職을 사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都市地方의 人民會社는 農村地方에서 기반을 굳힐 때까지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959年 봄철 3面紅旗運動을 右派機會主義者들의 소행으로 전가시켜 彭德懷는 이 運動에서 反黨行爲와 反動行爲를 자행했다고 규탄하고 숙청했다. 그러나 1959 ~ 1961年 사이의 經濟危機에 中蘇關係는 악화되고 反毛運動뿐만 아니라 右派運動, 修正主義運動, 부르조아運動이 창궐함으로써 中共黨은 이 運動을 完全 失敗하게 되었고 그 結果 劉少奇時代가 도래한다.

#### 사. 再調整期 (1961 ~ 1965)

1961年 1月 8期9中全會에서 中共은 政治, 經濟的으로 再調整을 선언하였다. 第一段階에서는 農業生産에 力點을 두고 重工業生産과 建設에 對해서는 어느정도 늦추고 있었다. 人民公社에서 3大改造運動을 폐지하여 農民이 家族과 함께 同居할 수 있도록 하고, 私企業運營者들에게 私企業活動을 보장하고 自由市場制를 復活했다. 人民公社의 範圍는 축소되고, 그 所有權의 限界는 三段階로 區別되었다.

政治的 分野에서도 整風運動은 段階的으로 實施되었으며 党内 實力者보다는 下級 實務者들이 비교적 많이 除去되었다. 이같은 經濟的 再調整은 社會主義의 退步와 함께 資本主義로서 복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1962年 9月 中共 8期9中全大會에서 人民들에게 階級鬭爭精神과 人民公社에 依한 集團經濟體制를 망각하지 말라는 決議文을 채택하였다. 階級鬭爭 意識을 促進시키기 위해 1962年에서 1963年 여름까지 文學과 藝術에 對한 社會主義 教育運動을 展開하였다. 이두 運動의 目標은 資本主義 要素와 부르조아階級的 影響을 除去하고 農村地域에서는 舊社會의 傳統的인 폐습을 타파하고, 이데

올로지 側面에서 封建的이고 修正主義의 경향을 제거한다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運動도 他政治動員運動과 같이 그 目標을 달성하지 못했다. 政治, 經濟分野에서는 個人財産의 확대, 自由市場의 擴大 私企業運營의 自由化를 표방한 「三自一包」와, 帝國主義, 修正主義, 反動主義와 共存하며, 對外支援을 감소하는 三和一少運動이 전개되었다. 新부르조아要素와 新부르조아적 知識분자와 새로운 착취자들은 黨과 政府內에서 동조자를 얻게 되었다. 文學과 藝術分野에서는 資本主義文學과 封建主義文學에 탐닉하게 되었고 黨政策에서도 修正主義者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中共黨內에서도 劉少奇파는 權力을 공고히 하여 毛沢東派를 축출하려는 試圖를 보였다.

이같은 性向은 蘇聯의 후르시초프와 共存하려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정신적으로는 헝가리폭동같은 사태가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判斷한 毛沢東은 反對派를 제거하고 몰락하려는 戰略으로 文化大革命을 개시했던 것이다.

#### 아. 文化大革命 (1965.11 ~ 1969.3)

1965年9月 中共中央會議에서 毛沢東은 修正主義者들이 中共中央을 점거하여 부르조아階級이 판을 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의 除去를 劃策했으나 中共은 當時 劉少奇派가 政權을 잡고 있었으므로 毛沢東一派는 北京을 피하여 상해에서 文化革命을 개시했던 것이다.

상하이에서 시발한 이 文化大革命運動은 수년간 全國적으로 紅衛兵에 依해 소요되고, 이것이 權力탈환方向으로 점차 기울어졌다.

1966年8月 中共中央의 決議에 依하면 文化革命은 中共의 精神文化

와 物質文化의 發展을 위해 必要不可欠한 運動이라고 주장했다. 그 무렵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의 論說에 依하면 文化革命은 이데올로기 側面에선 階級鬭爭이고 리더십鬭爭이며, 프롤레타리아階級이 이데올로기 面에서 부르조아階級을 압도하여 社會主義가 資本主義를 制壓하는 鬭爭이며 中共內에서 中共黨을 지지하는 과가 國民黨을 지지하는 反動分子를 타파키 위한 運動이라고 못박았다. 文化革命은 사실상 中共의 第二革命이라 할 수 있고, 毛沢東이 反對派를 제압키 위한 權力鬭爭에 主眼이 있는 것이다.

#### 4. 中共黨內 權力鬭爭

1921年 中共黨이 成立된지 半世紀가 넘었지만 그 半世紀 歷史는 權力鬭爭으로 점철되었다. 中共鬭爭은 派閥間의 싸움이라기 보다는 兩派鬭爭으로 언제나 敗北하는 派는 右派機會主義者나 左派冒險主義者로 규탄되고, 勝者는 正統派임과 同時에 바른 路線을 걷는者라고 주장되어 왔다. 말하자면 左派, 右派라는 레텔은 그들 權力鬭爭에 있어서 하나의 方便인 것이다.

毛沢東 以前의 中共指導者들, 예컨대 陳独秀, 瞿秋白, 李立三, 王明(陳紹禹)등도 모두 右派 또는 左派라는 罪名으로 숙청되었다.

1935年 1月부터 毛沢東은 軍權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黨의 唯一한 指導者로 추앙되었다. 1945年 4月 6中全會에서 「우리 黨의 몇몇 問題에 關한 決議」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1921年 창당 이래 中共黨은 모든 行動綱領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一般原則으로

삼았으며, 毛沢東思想과 中國共產革命의 경험은 이것을 代表한다.

中共党的 理念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代表하고 있기 때문에 큰 成果를 얻을 수 있었고, 이제 中共党은 이데올로기 政治的, 組織的인 견고성과 단결성을 과시하는 大政党이 되었다고 선언했으며 1971年 7月 1日 人民日報, 解放軍報, 紅旗의 共同論說은 이것을 再確認했다.

毛沢東은 1935年 遵義會議 以前에는 中共党的 指導的 人物이 되지 못했다. 그 當時에는 많은 鬪爭路線에서 毛沢東은 지탄을 받고 있었다. 1942年 整風運動을 展開하기 전에는 毛沢東 一人指導體制가 확립되지 않았다. 整風運動에 一人指導權을 확립하면서 毛沢東思想을 中共黨指導理念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1945年 6中全會議에서 毛沢東은 그 以前의 中共路線을 三大誤謬路線으로 규정하고 毛沢東思想을 中共党的 正確한 路線으로 設定함과 同時에 劉少奇路線을 白地(都市地域) 革命路線으로 認定하므로써 劉少奇를 그 後繼者로 指令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35년이 지난 1968年 劉少奇路線을 修正主義路線으로 규탄하였지만 毛沢東路線은 보다 健全한 中共路線으로 확인되었다. 毛沢東一派가 아무리 歷史를 歪曲하려해도 그것은 不可能하게 될 것이며, 다음의 요약은 中共黨 半世紀에 나타난 權力鬪爭史이다.

#### 가. 陳獨秀의 日和見主義

陳獨秀는 1921년부터 1927年 7月까지 中共黨을 이끈 中共指導者였다. 1922年 8月 한코우大會에서 中共黨이 코민테른의 指示에 依해



國共合作에 對한 統一戰線을 受諾한 후부터, 그는 크민테른 代表인 보로딘(Borodin)과 로이(Roy) 등의 指揮를 받아야만 했다.

1927年 4月 蔣介石政府가 國民黨에 들어온 共產分子들의 교란작전에 불만. 清黨運動으로 中共分子를 숙청하자 武漢政權은 共產黨과 결별을 告함으로써 國共合作은 결렬되었다. 이에 陳獨秀는 크민테른에 依해 統一戰線戰略을 失敗했다고 규탄받게 되었다. 그 結果 中共党内 反陳運動이 전개되었고, 党内에서도 프랑스에서 教育받은 蔡和森, 周恩来, 李立三과 蘇聯에서 教育받은 瞿秋白, 任弼時와 湖南 湖北地方의 童必武, 毛沢東등으로 갈려 意見이 분분하게 되었다.

8, 7會議에서 크민테른代表와 中共党内 各派閥은 統一戰線의 失敗를 陳獨秀 单独責任으로 돌려 그를 右派機會主義者로 규정하고 國際共產運動을 배신하고 農民과 勞動者를 배신했으며 中共革命을 外面했다고 규탄하여 숙청했다. 毛沢東의 湖南農民報告書가 제시하는 方向이 中共革命의 바른 길이며 陳獨秀는 右派機會主義者로 國民黨만을 생각했지 農民을 생각치 안했으며, 張國燾는 左派機會主義者로 勞動運動만을 重視했지 農民을 경시했다고 毛沢東은 비난했다.

毛沢東의 湖南農民報告書는 1926年에 完成되어 陳獨秀에게 中共 中央名義로 發刊할 것을 건의했고 陳도 이를 승락했다 한다.

1927年 봄철에 열린 全國農民大會에서 決定된 大規模의 土地改革案을 中共 5全大會의 正式案件으로 채택할 것을 毛沢東이 強力히 건의했으나 中共中央은 이것을 거부했다. 毛沢東은 湖南貧民運動에 대한 活動에 중사하여 湖南農民協會를 貧民協會로 개칭하는 바람에

陳独秀의 반대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毛沢東의 活動이 他地方으로 옮겨졌다 한다.

張國燾의 左派機會主義論은 中共 3 全大會에서 張은 國民黨 組織이 勞動運動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案에 對해서 反論을 제기했고, 이것이 표결에 부쳐졌을때 毛沢東은 張을 支持했으나 陳独秀가 反對함으로써 1표차로 否決되었다 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같이 毛沢東의 路線이 方向이 없었는데 그의 路線을 中共黨의 正確한 路線이라 할 수 있겠는가?

#### 나. 瞿秋白의 左派冒險主義

陳独秀를 추방하고 中共黨 事務長이 된 瞿秋白은 코민테른의 指示에 따라 廣西, 浙江, 渭華, 順直, 海陸豊과 廣東地方을 위시한 여러 辺方地域에서 共產暴動을 展開했다. 이 運動이 失敗하자 1927年 11月 中共中央政治局 擴大會議에서 指탄을 받게 되었고, 毛沢東은 이때 政治局 候補委員에 진출하였다. 毛沢東이 主動이된 湖南省黨委員會는 瞿秋白路線을 세가지로 批判했다. ①地方의 마적단과 雜軍만은 우대하였기 때문에 農民이 革命運動에 동조하지 않았고 ②暴動地域에서 農民政權을 成立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③勞動軍이 점령한 地域에서 土豪劣紳을 除去하는 鬭爭을 전개치 않았으므로 瞿秋白路線은 失敗했다고 主張했다.

1928年 7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6全大會에서 코민테른의 指揮에 따라 暴動政策의 失敗에 對한 責任을 瞿秋白에게 물어 그를 左派冒險主義로 몰아 中共書記長에서 추방했다. 그 後任에 向忠堯이 選出

되고, 瞿秋白은 中共政治局員과 코민테른 代表자리를 맡게 되었다.

1930年9月 그를 코민테른이 中國에 보내 3中全會를 주재토록 했다. 1931年1月 4中全會에서 그는 國際主義者들에 의해 규탄을 받게되고 中共中央委員職을 추방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魯迅과 친교를 맺었다. 1933年 江西소비에트에 加担하여 中國中共소비에트 人民教育會 委員이 되었다가 1935年3月 國民政府軍에 체포되어 그해 6월에 처형되었다.

#### 다. 李立三路線

船員出身이었던 向忠發이 書記長으로 된 後는 政治局 常務委員이며 宣傳部長인 党内 実力者 李立三에게 実權이 移讓되는 것은 當然한 事實이었다. 1930年5月 中部 中國에서 内亂이 發生되자 李立三은 이를 革命的 高潮期로 간주하여 이해 6月 政治局會議에서 새로운 革命期의 도래와 수개 地域에서의 革命勝利는 全國을 커버할 수 있다고 決議하였다. 革命的 高조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수개 地方에서의 革命勝利는 프롤레타리아 武力革命이 全國적으로 勝利할 수 있는 基本要素가 된다고 主張했다. 勞働者階級の 스트라이크에 依한 革命的 자극이 없고, 이것이 中心都市에서부터 勝利하지 못한다면 하나나 또는 수개 地方에서의 勝利는 全國的 勝利로 연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李立三은 糾察隊와 革命委員會의 組織을 외치면서 全國的인 黨支部組織을 강화하고 소비에트地域에서 暴動을 지원받는 勞動 總罷業을 통해 政治權力을 잡고 土地改革을 단행하도록 指示하였고

同時에 紅軍은 南昌, 武漢, 長沙를 공격하여 揚子江 地域을 점거하라고 命令했다.

李立三路線을 맨 먼저 反對한 者는 廣西省黨書記 何孟雄과 羅章龍 (商業組合代表) 이었고 國際主義者인 王明과 당시 코민테른 代表 미후(Pavel mif)였다. 미후로부터 中共黨의 파벌 싸움에 對해 報告를 들은 코민테른은 瞿秋白을 中國에 보내 3中全會를 주재토록 했는데 이 會議에서 李立三路線 自体가 틀린것이 아니라 李立三의 戰略이 오류였다고 결정하여 李立三路線의 中止를 선포했다. 이 以後부터 李立三路線은 中共黨內 路線으로 지속되었으나 그 反對派인 何孟雄, 羅章龍, 王明은 李立三, 周恩來, 向忠發, 瞿秋白一派의 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 中共黨이 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中共中央緊急會議를 開催하였다. 이 會議 卽後 周恩來는 모스크바에 가서 스탈린을 면담했다. 스탈린은 李立三의 과오를 指摘하여 周恩來에게 李를 숙청하고 調和路線을 指向하라고 指令했다 한다. 코민테른의 意志를 充分히 教育받은 周恩來는 故國하여 國際主義者들을 옹호키 위해 王明을 廣西省黨 書記가 되도록 천거하고 4中全會를 미후와 함께 주재했다. 向忠發을 이 會議에서 中共書記로 選出시켜 實權은 王明에게 주어졌다. 1931年 6月 向忠發이 國民政府軍에게 체포되자, 王明은 黨書記長을 떠맡고 李立三은 蘇聯에 재교육을 명목으로 보내졌다. 李立三路線을 反對한 何孟雄, 羅章龍派는 한사람도 中共中央委에 끼이지 못하였으나, 李立三의 지지자인 周恩來는 王明이 들어온 다음에도 實權團의 核心을 차지했다.

敗北한 何孟雄派는 4中全會의 결의에 불만, 秘密 反黨團體를 결

성하였으나 何가 國民政府軍에게 체포되자 그 權限이 羅章龍에게 넘어갔다. 羅도 國民政府에 자수함으로써 何.羅의 부하들은 王明의 國際主義派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毛沢東은 李立三路線을 마지못해 따르게 되었지만 事實上 毛沢東에게 南昌, 湖南진격을 하도록 조종한 者는 當時 中共中央 軍事部長을 맡고 있는 周恩來의 감언에 依했다 한다. 毛沢東은 長沙에 진격하여 南昌을 거쳐 湖南에서 彭德懷軍과 합류하였지만 失敗하였고, 이것은 向忠莛에 依하여 李立三路線의 추종자라는 지탄을 받은 要因이 되었다.

#### 라. 國際主義派의 反毛鬪爭

소비에트地域에 對한 統制를 위해, 國際主義者들을 党内 右傾派를 숙청한다는 명목으로 反毛鬪爭을 展開하였다.

(1) 1932年 4月 中共中央은 수개성에서 中國革命의 成功을 위한 鬪爭이 機會主義者들의 망서림에 있다고 규탄하는 決議案을 채택했다. 이것은 毛沢東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에 依하면 毛沢東은 國民政府의 共匪討伐作戰을 觀望하고 南部 江西地域에서만 틀어박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소비에트地區에서 農民소비에트 方式을 택해 지극히 危險한 트로츠키路線을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毛沢東은 中國소비에트運動은 프롤레타리아階級이 주도해야 하고 勞動者運動에 依해 展開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 …… “正確한 路線은 南部, 江西 基地는 추중하고 西部福

建基地는 이미 오래전부터 1931年 11月 南部江西基地委員會의 결의를 무시하고 있으며 1932年 8月 紅地 中央局會議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毛沢東을 비난하였다. 여기에서 1931年 中共中央會議는 毛沢東을 第1軍前戰委員會 書記職과 第1軍 總政治委員職에서 박탈했다.

이렇게하여 毛沢東은 黨과 軍權을 모두 박탈당했던 것이다.

(3) 1932年 8月 國民政府軍은 第4次 剿共作戰을 전개하였다.

中共中央은 이에 대한 反擊戰略會議를 開催하였는데 여기에서 毛沢東은 從來에 沉했던 것과 같이 中共은 敵을 깊숙히 유인하여 적이 피로해질때 그의 허점을 맹타하는 遊擊戰術을 극구 제창했다. 이에 대해 周恩來와 그 同調者들은 敵이 오기전에 陣地를 비어 놓고, 그길로 都市地域을 強打하여 國民軍이 되돌아오기 前에 都市地域을 선취하는 戰略을 제의했다. 그래서 周恩來案이 中共中央案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福建省黨 書記 羅明은 毛沢東案을 채택하였으나 그 軍隊는 政府軍에 參敗하여 패주하였으므로 中共中央은 羅明을 규탄하게 되었다. 그 結果 陳邦憲, 周恩來는 將兵들에게 羅明路線을 규탄할 것을 중용하였다. 이것은 바로 反毛路線인 것이었다. 毛沢東의 有能한 部下인 羅明, 鄧小平(當時 江西省黨書記), 毛沢譚(毛沢東의 弟), 古柏(毛의 秘書), 譚震林(福建軍區司令員), 蕭勁光(福建·江西軍區司令員) 등이 批判되고 攻擊되었다.

(4) 反毛運動은 1934年 5中全會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依하면 毛沢東은 土地改革의 脫線과 軍事戰略의 오류, 反革命勢力의 除去方法의 오류 및 소비에트展開의 오류등을 꼬집어 규탄했다. 더우기 毛의 土地分配 調查問題에 關係 극단적인 경고를 가했다.

또한 1934年 1월에 열린 第2次 全國소비에트大會에서는 毛沢東이 人民委員會 議長職을 내놓게 되고 形式上의 中央執行委員會 議長職만을 주었다. 이같은 一連의 事態進展은 毛沢東을 政治的 暗黒期로 들게 만들었다.

毛沢東은 國際主義者들에게 패배한 것을 자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毛沢東이 黨權을 장악하였을 때는 그의 右派機會主義를 黨의 正確한 路線으로 소비에트地區에 실시했다. 또한 그는 國際主義者들을 革命理論과 實踐을 理解하지 못한 左派機會主義者라고 규정, 속칭했다. 同時에 그는 國際主義者들은 民主主義와 社會主義革命을 分別할 수 없는 者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들이 勞動者와 農民의 正義를 식별하지도 못하고 中國革命의 어려움과 지구성을 理解하지 못하는 者들이며, 이런 狀況下에서 革命戰爭을 如何히 遂行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者들이라고 毛는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中國의 階級現象을 調査 研究한 者들도 아니며, 中國의 부르조아 階級の 分類方法도 몰라 革命方向을 單純히 獨斷的인 冒險主義路線으로 轉換시키고 4大階級の 聯合에 對한 原理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들이라고 철저히 규탄했다.

#### 마. 毛의 黨權掌握

國際主義者들의 손에 中央黨權이 掌握된지 얼마되지 않아 國民政府는 5차례에 걸친 剿共作戰을 展開하므로써 中共黨을 궁지로 몰아 南部 江西地域에서 6,000마일을 쫓아 멀리 陝西地方인 延安地方으로 몰았다. 長征期間에 中共黨은 코민테른과 何等的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中共黨 指導層間의 많은 불평이 전개되어 王明을 필두로한 國際主義者들의 指導權은 事實上 無能化될대로 無能化되었던 것이다. 1935年 1月 長征中에 열렸던 遵義政治局 擴大會議에서 毛沢東에게 비로소 黨權을 掌握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바 되었다. 中共中央의 彭德懷, 劉少奇, 劉伯承등의 불평과 黨總書記長인 秦邦憲을 저세하고 자기 스스로 黨書記長이 될 수 없던 점을 勘案하여 張聞天을 書記長에 추대하고 자기는 黨政治局 常務委員과 黨中央軍事委員長이 되었다.

遵義大會 以後부터 毛沢東은 繼續적으로 國際主義派를 除去키 爲한 努力을 강화했으며 1937年 10月 그동안 코민테른 代表로 모스크바에 가있던 陳紹禹(王明)가 延安에 돌아옴으로써 毛沢東의 指導權에는 相當한 威脅을 던졌다. 그는 一方으로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指示를 받고 왔다는 事實과 한편으로는 毛沢東이 코민테른의 統一戰略을 위반했다고 비난함으로써 毛의 指導體制에 強力한 도전을 하게 되었다. 1937年 11月 王은 中共中央政治局에서 우리의 抗日 鬭爭과 當面課業」에 對하여 力說했다.

結果적으로 王은 武漢地域의 共產活動을 감시토록 周恩來와 秦邦憲을 派遣토록 說得했으며 이 시기는 陳紹禹가 毛沢東 指導權을 가로챌 수 있었던가의 問題點을 제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일이 있던 얼마후에 武漢은 日本軍에게 점령당하므로서 國民政府와 共產黨과의 유대가 약화되었다. 新四軍의 事件에 즈음하여 毛沢東은 王明派를 右派機會主義者라고 비난하여 王이 日本占領地域에서 革命鬭爭을 잘못 유도하고 反動的 國民黨과 野合하는 政策을



밀고 나간다고 비난, 공격했던 것이다. 이것은 中共이 対日 鬪争을 対国府 鬪争으로 轉換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同時에 毛沢東은 이때 蘇聯에서 教育받고 돌아온 復古派의 主張을 꺾기 위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国的 土着化를 主張하여 王明을 教条主義者이며 外國의 原理를 그대로 받아 들이려는 盲從主義라고 비난하였다. 그래서 1942년부터 전개된 整風運動은 急格히 瞞대한 中共党内 整備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其實은 王明을 중심으로 한 親蘇派 勢力을 제거키 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1943년에 이르러서는 中共党的 歷史的 經驗이라는 명목으로 中共 指導層의 많은 反對派를 右派機會主義者, 左派冒險主義者, 党入股, 盲從主義라고 비난 속칭했던 것이다. 이 論争은 1945년 4월 7日 中全會에서 中共党的 몇몇 歷史的 決定으로 合理化되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毛沢東의 一人指導權을 公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 7日 全大會에서 毛沢東思想이 中共党章에 正式으로 明文化되었으며 이大會에서 毛沢東은 中共中央委議長, 中央政治局 議長, 中央軍事委議長, 中央書記局 議長의 4大重職을 独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毛沢東은 遵義會議에서 軍權과 党權 掌握의 可能性을 굳힌지 10年만에 軍權, 党權을 確固하게 独占하였던 것이다.

毛沢東이 党權鬪争 과정에서 張国燾가 強力한 反對派가 되었다.

그래서 張을 反党 軍部 派閥을 組成하고 分派主義를 開發하는 反逆者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張国燾가 1938年 4月 武漢에 도피한 다음 毛沢東은 張의 추종자들을 모조리 속칭했다.

바. 執權 後의 主要鬭爭

1) 高·饒反党共謀: 이 事件은 1953-1954年 사이 滿洲共産黨을 둘러싼 反中央陰謀事件으로 그 全貌가 1955年 8全大會에서 高崗·饒漱石의 反党陰謀에 關한 決定에서 表面化되었다. 이에 依하면 高崗은 北東部 党書記, 北東部 中共軍 司令員, 北東部 政府主席이라는 職책을 憑藉하여 反党運動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1949年부터 北東中國을 本土에서 빼어내어 獨立王國을 建設하려는 陰謀와 中共中央의 副主席과 國務院 首相직을 꿈꾸었다는 것이다.

또한 饒漱石은 中共中央組織部長으로서 高와 密通하여 權力을 掌握키 위해 수차 權力찬탈 陰謀를 展開했다는 것이다. 그밖의 그의 罪名은 高崗下에서 党中央의 反動分子 處理問題에 대해 党命을 거역했다는 것이다. 文化革命期에 中共은 高·饒의 背後에서 劉少奇, 彭德懷가 조종한자라고 그들을 규탄했다.

高·饒事件은 그 真相이 너무나 모호하여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마도 高가 스탈린의 滿洲戰略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고 있는것 같다. 高崗이 모스크바와 密着되어 있던 事實을 毛沢東은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1953年 초에 그를 中央計劃委員會 前출시켰지만, 스탈린의 死亡時까지는 그를 肅清하지는 않았다.

이때 劉少奇는 그의 심복 彭真을 滿洲地域 党副書記로 임명했었는데, 高崗은 이때 中共中央이 党을 基地区와 白地로 분류하여 白地에 對해선 劉少奇의 權力鬭爭의 目標가 되는 것으로 生覺했다. 또 하나의 問題는 高崗의 事件에 林彪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事實이다.

2) 彭·黃反黨聯盟：當時 國防相이며 中央政治局委員，軍事委員會副議長 겸 國務院 副首相인 彭德懷와 中共黨 中央書記局 秘書이며，中共軍 總參謀長 겸 國務院 副首相인 黃克誠이 反毛路線으로 三面紅旗運動을 背反했다는 것이다. 彭의 숙청은 1959年 8月 廬山에서 열린 8中全會에서 行하여졌으며 이 會議에 彭德懷는 總路線과 大躍進運動의 成功을 否認하면서 中共의 처참한 現實에 關한 意見書를 同會議에다 보고했었다. 實際로 彭은 얼마전에 東歐와 蘇聯을 시찰하고 蘇聯 軍事指導者들과 많은 見解一致를 보고 돌아온 바로 뒤의 일이었다. 8中全會議에서 彭은 高崗과 같이 反毛·反黨陰謀를 한 자이며 反革命勢力과 右派機會主義者들과 내통했다는 罪名으로 숙청됐던 것이다. 격렬한 鬭爭끝에 彭德懷，黃克誠，張聞天은 國務院 職位에서 추방되었으나 劉少奇의 강력한 弁護로 党内地位는 박탈시키지 않으므로써 彭德懷 숙청싸움은 일단락을 지었다.

3) 毛沢東，劉少奇鬭爭：毛沢東과 劉少奇間에는 오랜 期間동안 密月이 이루어졌다. 1935年 1月 遵義政治局擴大會議에서 奏邦憲을 물아내고 毛沢東을 옹호했으며， 1935年 瓦密堡會議에서 劉少奇를 北中國局 書記로 임명하여 國民軍 占領地域에서의 共產運動을 전개토록 지령했던 것이다. 劉少奇는 1942年 整風運動의 立案者이며 執行者였던 것이다. 劉의 共產黨의 自我修養이란 冊字는 當時 共產黨員들의 필독서가 되고 있었다. 1945年 7全大會에서 毛沢東 思想을 추켜 올린者가 바로 劉少奇 장본이기도 하다. 劉少奇의 白地鬭爭은 「우리黨의 몇몇 歷史的 決定」으로 격찬을 받았고， 毛沢東이 重慶會談에 參席할 동안 劉少奇는 中共黨 主席庶理를 맡

있고 國民軍이 延安을 점거하게 되자, 毛沢東, 周恩来 등은 辺方에 머무르면서, 劉少奇는 陝, 甘, 寧 革命運動議長이 되었다. 中共政權이 成立되자 劉少奇는 黨業務를 맡고 있었으며 毛沢東의 手足인 理想家로 활약하다가 毛가 三面紅旗運動으로 失敗하자 1959年 國家主席職을 劉에게 인계했고 1961年 몽간메리 제독 (Marshall Mornagan Mery) 이 毛沢東을 訪問했을때 劉少奇가 毛의 後繼者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劉少奇의 背景을 더듬어 볼때 그가 文化革命期에 反逆者, 右派修正主義者라고 비난받고 숙청되었다는 事實은 理解하기 힘들것이다.

1970年 中共黨 50周年 共同社說은 劉少奇가 文化革命期에 王明의 國際主義路線을 추종했다고 비난하였다. 劉少奇를 重用하고 있었지만 劉와 毛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반목이 있었던 것 같다. 劉少奇는 그의 地位를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毛의 後繼者가 될 수 없다고 生覺했을 것이고, 毛沢東에게는 劉가 그의 權力을 擴張하는 것은 自然히 毛沢東의 地位를 위태롭게 한다는 두려움이 팽대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바로 이 事實이 오랫동안 兩者의 반목요인이 되었고, 이것이 劉를 결정적으로 숙청케 만들었을 것이다.

毛·劉 鬭爭은 1958年 6中全會에서 三面紅旗運動이 失敗한때부터 黨內外的으로 表面化되었던 것 같다. 이 會議에서 毛沢東은 人民公社가 農村에서 失敗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都市地方으로 擴張하는 것을 보류하고 毛沢東이 第二線으로 물러나고 劉少奇와 鄧小平 兩人에게 中央權力을 分担시키도록 하는 壓力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毛沢東이 受諾토록 만들었다. 毛沢東은 繼續해서 自己의 權力을 신장하

러하고 劉少奇는 자기 영향력을 팽창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兩者의 분쟁은 증가되고 이것은 1959年 8中全会에서 맨처음으로 노정되기 시작했다. 그 結果 毛는 彭德懷와 黃克誠을 해임시켰으나 劉少奇의 강력한 弁護로 党内地位를 維持시키고 그 後任에 林彪와 羅瑞鄕을 推薦했던 것이다. 1960年 初頭부터 林彪는 中共軍内에서 毛沢東思想 教育을 강조했으나 羅瑞鄕은 軍事訓練 優先原則을 고수함으로써 兩者間에 의견충돌을 자아냈다. 1959年 劉少奇는 北京市 政府主席이 된 후 三面紅旗運動의 失敗를 자인하고, 그 여과를 解決키 위해 새로운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1961年 10中全会에서 再調整政策을 선포했고 1962年 9月 10中全会에서 毛沢東은 階級鬭爭을 忘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1963年 毛沢東은 社會主義教育運動을 선포했지만 劉少奇는 地方에서 이 運動의 展開過程에서 毛沢東의 影響을 감소시키면서 相對的으로 劉自身の 影響력을 강화시키려는 方案으로 밀고 나감으로써 毛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64年 毛沢東의 '中共軍에게 배우라는 口號는 劉·鄧그룹의 反撥을 사게 되었고 그런 結果 1965年 末에 이르러 毛沢東은 文化革命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毛沢東의 文化革命의 강화는 權力鬭爭에 있어선 成功할 수 있었을지라도 이 데올로기 鬭爭에서는 何等의 成功을 거두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文革의 앞잡이였던 陳伯達이 林·毛사이에서 숙청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林彪의 숙청: 1971年 9月 12日 정체불명의 비행기가 외몽고영토내에 추락했는데 이것은 中共指導層의 權力鬭爭과 직결된 것으로

세 밝혀진 바에 依하면 林彪가 탔던 비행기라고 전해졌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林彪는 9全大會에서 毛沢東의 公式 後繼者로 지명되었었는데 어찌하여 숙청되었을까?

中共이 밝힌 林彪의 罪狀은 反毛運動으로 毛沢東을 제각하고 林體制의 王國을 만들려는 陰謀를 전개했다고 主張했다. 林彪와 함께 숙청된자는 黃永勝, 邱會作, 吳法憲, 李作鵬等 高位 軍實力者들로 林彪의 심복들이었다.

事實上 文化革命期에 林彪가 毛沢東과 密着하게 된 것은 劉少奇의 강력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毛의 戰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 自身이 그 後繼者로 林을 지명하게 된 것은 本意보다는 여러가지 부차적 要因이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外部 專門家들에 依해 추정되었다. 一般적으로 알려진 바에 依하면 林彪는 中共中央의 권좌에 오른 후로 그것을 미끼로 하여 軍權에 依한 統治方案을 摸索하는 것은 中共의 黨이 軍을 지휘한다는 方針에 어긋나고 있었고, 中央의 黨權과 軍權을 측근위주로 편성하고, 地方軍區도 前四路軍 出身者들에게 그 實權을 주므로써 林彪의 地位를 공고히 하려는 陰謀를 전개했던 것이다. 이것은 分明히 毛沢東의 地位를 흔들게 되었고 毛의 측근인 江青派와 周恩來派에게 威脅的 要素가 되었을 것이다. 分明히 中共의 統治權力이 毛沢東, 林彪, 江青, 周恩來 라인으로 구성되었다면 比較的 中央의 權力과 軍權을 掌握한 林은 地方勢力에 對한 인기와 기반이 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周恩來는 葉劍英을 오른팔로 하여 軍事的 元老級을 포섭하고, 自己의 個人的 人望을 이용하여 聯合派를 形成함으로써 林派를 거세시킬 수가 있었

을 것이다. 林이 強硬路線을 추구하는 職業軍人이었다는 점을 勘案해 볼때 分明히 中共의 開放外交政策과 그의 退陣은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하여 林彪派는 毛沢東의 中共에 依해 숙청되었던 것이다.

지난 半世紀가 넘는 中共의 權力鬭爭史를 돌이켜보건데 派閥싸움과 權力싸움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 鬭爭은 中共政權이 成立된 後로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제 많은 反毛派가 거세 되었다.

그러나 또 政策路線에서 다른 견해를 主張하거나 비위가 거슬릴 때는 反毛派를 구성하여 숙청시킬 것이다. 事實上 共產主義者들은 무한한 淸內鬭爭을 전개해오고 있다. 소련이 그렇고, 越盟, 北韓, 中共 모두다 그렇다. 말하자면 共產主義 發展史는 權力鬭爭의 連續이며 이것은 永久히 그치지 않는 矛盾造作에 依한 鬭爭 반복이다.

参 考 文 献

- o John K. Fairbank ; 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Anthenum, New York.
- o Warren Kuo; The Analytical Histo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 II. III. IV,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
- o Lyman P. Slyke; Enemies and Friends; The United Front in Chinese Communist Poaty.
- o Arthur A. Cohen;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New York. Abeland Schuman.
- o Tang Tsou; American Failure in Chi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 Anthony Kubek; How the Far East was lost. Henry Regnery Co.
- o 波多野乾一著；中国共産党史 1, 2, 3, 4, 5, 6, 7 卷
- o 毛沢東；毛沢東選集，人民出版社。
- o 貝塚茂樹著；毛沢東伝。
- o 金相浹著；毛沢東思想，知文閣。
- o 金俊燁著；中国의 最近世史
- o 蔣中正著；蘇俄在 中国，中央文物交応处
- o 羅昌柱著；中共指導思想論。國際學術院
- o ' ; 中共外交論。一朝閣
- o 羅昌柱訳；周恩来 文海出版社
- o 問題与 研究。世界週報，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匪精月報 外多数参考。



## 第五章 階級鬭爭觀斗の矛盾



## 第五章 階級鬭争觀과 그 矛盾

### 1. 中共과 社会主義革命

中國은 共産黨이 支配하는 나라이지만 現在는 아직 共産主義가 實現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本來의 뜻에 있어서의 共産主義 國家도 아니다. 中共의 出版物에는 「社会主義革命과 社会主義建設에 一層 大發展을 促進시키고 푸롤레타리아階級獨裁를 더욱 堅固하게」라는 말이 아직도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바와 같이 그들은 中共이 國家를 支配하고 그위에서 社会主義改造가 基本的으로 끝난 오늘에 있어서도 社会主義가 完全히 實現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社会主義革命의 過程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는하나 權力은 中國共産黨의 手中에 있으므로 權力爭奪을 위한 革命이 아니고, 政權의 安定과 社会主義體制의 充實 強化를 爲한 鬭争, 即 社会革命的 統行을 指針으로하는 理由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思考는 中華人民共和國 成立初期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一九五四年에 制定된 「中華人民共和國憲法」은 「이 政權은 人民民主主義 政權이며 人民民主制度란 新民主主義制度이다。」라고 서술하고, 이어서 이는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부터 社会主義社會의 建設에 이르기까지의 過渡的 現象이다. 過渡期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任務는 順次로 國家經濟를 社会主義工業化로 轉換시켜 農業, 手工業, 그리고 資本主義商工業에 對하여 차례로 社会主義改造를 完成하는 것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依해 明確하여진바 中共은 이 過渡期의 基本任務가 達成되면 社會主義社會에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첫째로 社會主義工業의 建設에는 三次五個年計劃이 必要하고, 強力하고 高度의 社會主義工業化를 實現한 國家가 되기에는 四~五十年 지난 今世紀後半을 目標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五個年計劃執行 責任者였던 李富春의 서술을 보더라도 共產主義社會의 前提로서의 社會主義社會가 實現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社會主義改造의 完了는 新民主主義段階로부터 社會主義段階에의 移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事實이다.

또한 中共中央의 「農業生産組合의 育成發展에 關한 決議」(一九五三年十二月十六日)에서는 「現在中國은 必야흐로 社會主義革命, 換言하면 社會主義的 改造의 段階에 있다. 우리는 順次的으로 社會主義工業化를 實現하며 農業 및 手工業과 資本主義商工業에 對하여 順次的으로 社會主義改造를 實現시켜 우리나라를 偉大한 社會主義國家로 建設하여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社會主義改造의 完了後에는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強化發展이 必要한 任務로 된다. 換言하면 社會主義革命은 基本的으로 끝났다는 立場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점에 對하여 소련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스탈린은 「레닌主義의 諸問題」속에서 부르조와革命과 프롤레타리아革命은 다섯가지 相異점이 있음을 拳論하고 있는데 프롤레타리아革命, 바꾸어말하여 社會主義革命의 基本特徵으로되는 것은 첫째, 前國家機關의 破壞및 新國家機關에 의한 交替 둘째, 權力의 獲得은 單只 革命의 開始에 不過하고 權力은 旧經濟의 再建과 新經濟組織間의 지렛대 役割로 利用된다는 두가지점

에 帰着시켰다. 要컨대 스탈린이 뜻한바의 意味는 푸를레타리아에 의한 權力의 獲得과 旧國家機構의 完全한 解体위에 푸를레타리아階級은 新國家機構를 利用, 社會主義經濟에의 再編成을 行하여 工業化를 達成하여 간다는 것이다.

이 理論을 中國에 適用하면 中華人民共和國의 成立은 첫째 要件의 達成이며 社會主義 改造의 完了는 둘째 要件의 達成을 意味하고, 階級鬭爭은 基本的으로 끝나고 再編된 社會主義經濟의 發展이 中共의 主된 任務로 된다. 事實은 中共自身도 自國의 革命에 對하여, 스탈린의 理論과 같은 判斷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1949年 中共政權이 成立되고서는 人民民主主義獨裁는 새로운 性格을 띄우기 始作, 實際에는 社會主義革命의 獨裁가 되고 푸를레타리아트獨裁가 되었다.」(人民日報・1960.10.3)고 記述하고 있다.

中共은 人民民主獨裁의 政權으로서 充分하였으나 事實은 이國家權力을 掌握하고 있는 者는 中國푸를레타리아 階級을 代表하는 中國共產黨이며 이政權에 의하여 國內에서 社會主義改造를 強行, 그結果 社會主義經濟體制에의 再編成이 끝나고 中國은 社會主義段階로 옮겨졌다. 이제 過渡期의 主任務는 達成되어 革命에서 社會主義建設을 目標로 하는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볼 수 있다.

第1次 5個年計劃時 中共의 主張은 모두 이러한 思想을 實証하고 있다. 經濟面에서 國有化 比重의 增大, 그리고 社會主義經濟建設을 통한 社會主義經濟體制가 強化되어짐에 따라 푸를레타리아階級 以外의 國民도 차차 社會主義의 支持者로 變하여간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 2. 八期中中全会의 轉換

그렇지만 이러한 思考가 1962年 9月の 八期中全會에서 轉覆되었다.

9月 27日 發表된 「十中全會公報」는 「푸롤레타리아革命과 푸롤레타리아獨裁의 歷史的 時期 全體를 通하여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옮겨지는 歷史的 時期 全體를 通하여 (이期間은 數十年 또는 보다 長期를 要함) 푸롤레타리아트와 부르조와지의 階級鬭爭이 存在하며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라는 두개의 鬭爭이 存在한다.」고 宣言하였다.

新民主主義段階부터 社會主義段階로의 移行過程을 過渡期로 規定한 從來의 理念을 바꾸어 社會主義의 全段階는 過渡期이며 階級鬭爭이 存在한다고하는 階級鬭爭觀을 表明한 것이다. 이는 毛沢東의 提案을 採択한 것이나 그後 中蘇紛爭의 過程에서 이러한 생각은 一層 明白히 되었다.

最近 自由中國 當國에서 入手한 「中共中央第12號秘密文獻」에 依하면 毛沢東은 「共產主義社會가 되면 鬭爭은 없어질 것인가? 나는 그렇게는 생각치 않는다. 共產主義가 되어도 亦是 鬭爭은 있으나 다만 그것이 新과舊, 正確과 誤謬의 鬭爭이 될 것이다. 萬年 後에도 誤謬는 亦是 잘못된 것이며 正정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正邪의 鬭爭은 共產主義이건 아니건 制度에 關係없이 存在한다고 말하고 있다. 毛沢東의 이 理念을 따르면 資本主義의 殘滓가 濃厚한 社會主義段階에서는 階級鬭爭이 存在한다는 것은 至極히 當然한 것이다.

八期中全會의 公報는 階級鬭爭이 存在하는 理由를 「뒤집힌 反動支配

階級은 滅亡치않고 復活을 企圖하는 것이다. 同時에 社會에는 부르주아지의 路線과 舊社會의 慣習이 아직도 存在하고 一部 小生産者에게도 自然發生的인 資本主義에의 鄉愁가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人民中에는 社會主義改造를 받아들이지않은 사람이 있으나 그들은 小數이고, 全人口의 몇%를 點함에 不過하나 機會만 있으면 社會主義의 路線을 벗어나 資本主義路線에 움직이려 눈독을 드리고 있다. 이러한 狀態下에서는 階級鬭爭을 避할 길 없다. 이는 맑스·레닌主義가 일찌기 明白히 한 歷史的 法則으로서 우리는 絶對로 잊어서는 안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같이 蘇聯서는 후르시초프가 「全人民의 黨, 全人民의 國家」라고하여 階級鬭爭을 國內의 基本的 矛盾으로서의 意義는 喪失되었다 하고 있을때, 中共은 共產主義가 實現되기까지는 階級鬭爭은 없 수 없으며, 資本主義復活을 企圖하는 者가 存在하는 限, 階級鬭爭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強調한 것이다.

이 毛沢東의 提案은 中共指導部의 合意下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毛沢東이 國家主席인 時期에도 第1次 5個年計劃 當時까지는 蘇聯의 經驗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그後 劉小奇時代에도 같은 方針을 取하였다. 社會主義改造가 끝나고 社會主義段階의 始作과 더불어 社會主義經濟建設이 中心任務가 되어 階級對立 또는 階級鬭爭은 主要한 國內矛盾으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56年 9月の 中共 八全大會에서 鄧小平은 黨員의 入黨條件을 社會性分에 依하여 區別할 必要는 없어졌다고 오히려 階級 그自體의 存立을 否定하는 演說을 行한 것이다. 그理由를 그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勞動者나 黨員은 하나의 階級속에서의 分業에 不過하게되었습니다. 품팔이나 農業雇傭人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貧農과 中農은 只今에는 다같이 農業協同組合員이 되어있어, 그들의 區別은 甚지않아 歷史的 遺物로서의 意義밖에 갖지못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革命兵士는 徵兵制度를 實施하면서부터 이미 하나의 特權階級은 아니게되었습니다. 知識人의 大多數는 政治的으로는 勞動者階級便에 서 있으며 社会性分面에서는 急速히 變化하고 있습니다. 都市의 貧民과 自由職業者는 벌써 社会階層으로서의 條件을 거의 喪失하고있습니다. 每年 많은 農民, 學生, 勞動者, 黨員이 革命兵士가 되며 또한 많은 革命兵士는 農民, 學生, 勞動者, 黨員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社会性分을 두 種類로 分類하는 것이 어떤 意義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設령 分類한다고 할때 分類의 確實한 基準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 鄧小平의 發言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1956年9月의 八全大会 當時의 中共指導部는 蘇聯과 전혀 같은 革命觀 階級鬭爭觀이 서있어서 當時 宣傳되어 있었던바와 같이 漸進的인 社会主義建設을 基本目標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中共勝利의 本質

이와같이 理念的轉換을 불러 일으킨 理由는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가 있다. 第1은 中国独自の인 條件에 의한 것이며, 第2는 共産党独裁體制 그 自体가 가지는 弱點때문이다.

第1의 問題는 中国이 農業國家란 事實때문에 發生되었다. 總人口의



8割이 農民이며 工業무를레타리아트가 占하는 比率은 적고, 經濟的으로 農業經濟가 中心이며 革命的 主体勢力을 形成하는 것은 農民이다.

1949年 10月 成立된 中華人民共和國政府는 事實上 中國共産黨이 支配하는 政權으로 出筭하였으나 共産黨政權이 成立하였다하여 農業國家인 中國의 現實이 一變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中共이 支配하는 新政權은 國家權力을 利用하여 위로부터의 革命, 社會主義에의 移行의 條件을 整備하는 것이 主된 任務로 되었었다. 中共이 當時 人民民主專政을 旗幟로하여 民主黨派와 統一戰線을 形成, 漸進的인 社會主義에의 接近을 宣伝한 理由는 그들이 이 事實을 充分히 理解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中共政權의 漸進的인 社會主義에의 接近이란 中國現實에 適應한 方針의 採択은 아니고 中共政權의 強化, 安定을 妨害하는 理由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中國革命이 特異한 經過에 依하여 一層擴大된 것이다. 中共은 1927年 武漢政府의 沒落 以來 國民政府의 治下에서 武裝鬭爭을 展開, 自己의 地方政權의 樹立, 局部的이기는하나 恒常 一部 民衆을 그의 統治下에 두어왔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流動的이어서 華南에서 西南, 西北, 華北으로 移動하였기 때문에 그간 中共의 影響力은 中國의 広範한 地域에 波及 되어있었다. 中共의 支配地域을 一層 擴大시킨 것은 中日戰爭의 時期이나, 이 時期의 中共地方政權의 任務는 抗日民族統一戰線에 民衆의 結合과 그를 爲한 民主制度의 實現에 의한 協力體制를 造成하는데 있었으므로 中共支配下의 一般民衆은 社會主義와는 無關한 存在였다.

戰後 國共內戰에 있어서 中共이 勝利한 背景에는 中共解放區의 民主

化와 土地改革이 民衆의 積極인 戰爭遂行에 대한 協力を 얻었고 反面 國民黨의 支配復活은 旧地主支配勢力을 復活시킨다는 宣傳이 國民黨軍의 孤立을 促進시킨 事實이다.

그러나 中共의 全國的 勝利는 解放軍의 軍事的 勝利에 依해 얻어진 것이다. 戰後 各地서 軍事管理委員會를 設置, 占領支配體制가 行하여졌던 事實에서도 中共의 全國支配 成立의 本質을 明確히 하고 있다. 오늘날 中共內部에서 軍事管制的 性格에 對하여 論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一部에 疑問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表面上으로는 民主革命의 段階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事實은 그러한 過程을 거치지 않았다. 新占領地區에서는 小作料와 高利를 制限하고, 土地를 分配하며, 土地와 旧支配層에 對한 彈圧이 併行하여 施行되었다. 그 限度에서는 旧體制의 支配層은 解体되고 一般地主는 政治權力을 剝奪당하여 新政權의 管割下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一般農民과 같이 土地를 分配받아 그 生活은 保障받았다.

新政權이 直面한 最大의 問題는 秩序의 回復과 生産 및 經濟體制의 回復에 있었으므로 支持勢力과 非支持勢力의 區別은 嚴格하지는 않았다. 地方行政機關 및 生産機關에 對해서는 作業을 繼續할 것을 命命하고 在職人員의 貸金과 地位를 保障하여 新政權에 協力할 것을 呼訴하였다. 過渡期가 經過함에 따라 旧國民政府 所屬要員의 審査와 不良分子를 除去할 計劃이었으나 行政도 生産의 回復도 新政權의 存立에 關하여 緊要課題이었으므로 有能한 限 思想이나 過去의 經歷은 그리 問題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一般 勤勞者의 動搖를 막기위하여 最小限度의 必要에서 멈추었다고 생각함이 妥當하다.

不過 3年未滿인 1953年까지에 秩序와 經濟回復을 達成한 根本理由는 여기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물론 1950年 10月 韓國의 6.25事變 介入에 의한 國內緊張을 利用하여 革命体制의 強化가 이루어져 積極的 抵抗分子에 對한 反革命鎮壓法이 發効되기도 하였으나, 大部分의 舊政府要員은 新政權下에서 일터를 얻었던 것이다. 事實 文革過程에서 暴露된바에 의하면 國民政府의 中堅幹部가 新政權下에서 地位를 얻고있고 黨幹部中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韓國戰爭 休戰後의 1954年, 各級幹部에 對하여 全國的 審査를 企圖하였으나, 너무 尙大한 數에 達하였으므로 劉小奇에 依해 中止되었다. 그리하여 八全大會에서 鄧小平이 報告한 바와 같이 階級性分의 相異는 거의 問題視안되며 非黨員大衆도 차차 社會主義에 協力하고 있고 舊인태리나 부루조아도 社會主義에의 協力を 通하여 自己改造의 過程에 있다고 判斷한 것이다.

그러나 事實上 鄧小平이 判斷한 階級性分의 變化는 局部에 멈추고 思想의 改造 맑스·레닌主義·毛沢東思想을 積極적으로 支持한 層이 넓혀진 것은 아니다. 1956年の 「百家爭鳴·百花齊放」의 情勢下에서 民主黨派의 反擊이 同時에 일어났던 事實을 보면 이는 明白하다. 舊知識層에서만이 아니라 國民의 大多數를 占하는 農民에 對한 思想的 影響은 一層 약했다.

前述한바와 같이 土地改革, 初級 農業合作社 時代에는 貧下中農에 一切의 權限이 주어졌으므로, 農業의 集團化를 推進하는 勢力이 農村을 支配하였다. 그것은 곧 中共支持勢力의 擴大를 意味한다.

그러나 高級農業合作社로부터 人民公社와 組織이 農村에 있어서 普遍

성을 띠어 따라 農民에 依한 政治支配의 優位性은 상실되었다. 集團經營下에서는 農民의 個人經營에의 發展은 不許하였으나, 個人的으로 蓄積할 土地는 얼마든지 있었다. 農民이 個人經營時代에 가지고 있었던 小부루조이根性은 消滅되기는 커녕 集團經營속에서도 持續되어 調整政策의 時代에 一時에 表面化되었다.

中共이 当初에 取한 新民主主義段階, 漸進的인 社會主義에의 接近이란 方針은 社會主義에의 接近은 커녕 中國의 現實속에 中共 그自體를 埋沒시킬 危險도 隨伴하는 것이었다. 中共이 農業集團化를 加速시키고 또한 社會主義改造의 加速化를 行한 것은 毛沢東의 夙願보다는 中共政權 그自體가 갖는 基本矛盾의 露出에 기인한 것이다.

#### 4. 黨의 官僚化와 民衆으로부터의 離脫

第2의 中共獨裁體制 그自體가 지니는 弱點도 農業國家인 中國의 現實을 背景으로하여 나타나고있다. 1945年 4月 第7次黨大會 當時 中共黨員數는 121萬이었으나 中共政權 成立後의 1956年 9月 第8次黨大會에서 發表된 黨員數는 1,073萬餘로 急膨脹하고 있다. 國共內戰의 過程에서 中共에 參加한 者도 많으나 大部分은 政權成立後 執權黨인 中共에 入黨한 者이다. 黨員의 成分을 보면 勞働者 14% 農民 69.1% 其他 5.2%로 構成되고 있어 當然之事이지만 農民이 壓到的인 比率을 占하고 있다. 全人口에 對한 黨員의 比率은 1.7%이었다.

이와같이 黨員의 急膨脹은 執權黨이 된 中共이 政權支配의 指導核心 멤버로서 黨組織網을 全國的으로 擴大하기위한 必要에서 行하여진 것이

다. 이와같은 黨員의 膨脹에도 不拘하고, 全國의 行政 및 經濟部門을 中共의 指導下에 掌握하기는 아직 不充分하였다. 그리하여 党外大衆의 協力이 必要하게 되고 民主党派와도 손을 잡고 長期共存을 宣傳하여 思想의 統制보다는 우선 社會主義建設에의 協力이 要請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勿論 이것은 共產黨의 指導權의 포기도 아니고 中共이 掌握한 政權의 解放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中共이 맑스·레닌主義의 立場에 서서 社會主義의 實現을 追求하는 限權力의 解放이나 讓步는 없었다. 民主党派와의 共存宣言은 어디까지나 政策的인 計略에 不過하였다.

第8次大會에서 劉小奇는 「中國의 民主諸黨派의 社會的 基礎는 民族 資本家階級 그리고 中産層과 그들 階級에 屬한 知識人들입니다. 社會主義的 改造가 完成된 後에는 民族資本家階級과 中産層의 成員은 社會主義 勤勞者의 一部로 되겠지요.」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에 對한 保障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社會主義體制가 強化됨에 따라 呼不應問에 新體制에 順應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限 그들은 日和見主義의 立場을 버릴리는 없다. 社會主義改造가 끝나고, 工業建設이 推進되어도 農業國家로서의 中國의 本質은 當分間 變하지 않는다. 農民中에는 旧態依然 남은 慣習이 살아있어 資本主義的 利益追求의 餘地가 남아있는 狀況에서는 農民自體의 思想을 社會主義에 改造시킬 條件은 없다. 表面的으로는 社會主義體制가 갖추어져도 그 社會的 內容은 너무나도 옛과 變함이 없다. 例컨대 文革의 激動을 거쳐 革命委員會가 設置된 段階에서 縣革命委員會의 事務所를 본 農民이 日帝時代에는 이곳이 憲兵隊였었다. 其後 縣의 事務所가 되었었는데 只今은 事務所임에는 變함이 없겠지, 하는자가 있다고 「人民日報」는 伝하고 있는데,

農民中에는 이 程度의 關心밖에는 없는 者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社會條件은 當然히 党内에 反映되고 黨員의 大部分은 農民出身이며 그들은 潜在的으로 小브로조아意識을 가지고 있다. 그와같이 그들은 大部分은 政權成立後에 入党을 하였으며 革命에 獻身할 때, 党官僚로서 民衆에 君臨할 時期에 黨員이 되었다. 그중에는 旧國民政府의 下級官僚가 많았고, 1958年의 入党運動時에는 資格條件을 一層緩和시켰다. 最近 劉小奇 批判의 形態로 指摘되고 있는 出世主義者는 「升官 發射」(立牙出世와 돈벌이)의 入党者도 當然히 있었을 것이다.

中共의 獨裁體制는 權力을 党에 集中시키지 않으면 成立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行政, 經濟, 文化의 모든 權力이 党에 集中되어 있어 党的 決定이 모든 것에 優先한다. 맑스·레닌主義나 毛澤東思想, 또는 社會主義란 思想의 目標은 民意의 集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中共自身の 綱領을 大衆속에 擴大시켜 그를 實現하는데 大衆을 協力시키는 것에 中共의 使命이 있는 것이 大衆路線이라든지 最近宣傳되고 있는 論議를 다하라고 외치는 것은 政策을 無理없이 定着시키는 手段이지 基本方針 그 자체의 論議가 許用된 것은 아니다.

中共의 各級組織, 省委, 地方委, 县委職員에 對하여는 廣範圍한 人事移動이 行하여져 그 地區出身者가 그 地區의 責任者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区委, 人民公社黨委, 生産大隊 支部書記는 大部分 現地 黨員속에서 選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下部黨組織은 民衆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쉬우나, 事實은 그렇지 않다. 前述한바와 같이 上級黨委의 決定은 絶對的이다. 下級黨委는 上級決定을 施行하기 위한 手段의 選任自由가 있을뿐이다. 熱誠的인 黨責任者는 上級官署의 意見

이나 上級幹部와의 人間關係에 関心이 쏠려 大衆과는 流離하는 傾向이 있다. 이러한 事情은 党專任者가 官僚化되는 根本原因이다.

### 5. 革命的党派性和 現實政策의 矛盾

毛沢東이 階級鬭爭을 잊지말라하고, 브루조아思想의 克服을 強調한 것은 以上の 事實을 考慮하면 当然하다. 毛沢東의 企圖가 当然하다고 理解된다하여 그 企圖가 반드시 實現된다고는 할 수 없다.

中國의 現實에 適應시키면서 着實한 社會主義에의 接近을 識圖하려면 共産黨이 支配하는 政權의 社會的 基盤은 언제까지도 確立되지않고 不安定의 條件을 남기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를 打破하기 爲하여 勞動者, 貧下中農을 基本으로하는 支持勢力의 上位에서 스피드업시키면 中央은 孤立되고 폴란드暴動이나 헝가리事件과 같은 累를 犯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中共의 政策은 恒常 이 兩端間에서 움직여왔다.

毛沢東은 50年의 黨史中에 10回의 路線鬭爭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左右의 偏向으로 分類하여보면 左翼偏向 4回 右翼偏向 6회가 된다. 高崗 饒漱石의 反黨聯盟의 內容에 對하여는 不明한데 蘇聯과 맺었던 點으로 보아 右翼偏向으로 본다는 이야기다. 換言하면 陳獨秀, 羅章龍, 張國燾, 高崗, 饒漱石, 彭德懷, 劉少奇가 右翼偏向 瞿秋白, 李立三, 王明, 林彪가 左翼偏向이 되는 것이다. 事件으로서의 右翼偏向이 많으나 影響을 준 時間이라는 點에서보면 左翼偏向의 時間이 긴 것이다. 卽 中共活動 속에서는 左翼偏向은 支持받기 쉬우나 右翼偏向은 즉시 抵抗을 받는다는 것이다. 「形은 左, 實은 右」라는 批判도 左가 받

아드리기 쉽다는 事實을 前提로 하고 있을 것이다.

毛沢東에 依해 提案된 文化革命의 經過도 이 事實을 立証하고 있다. 毛沢東은 부루조아思想의 影響力을 克服하는 것, 그것은 理念上 階級的 党派性을 確立하는 것이고 그것을 爲하여 勞動者階級, 貧下中農層, 革命的 知識層을 結束하여 現實에 適應하는 것이고 方向을 잃지않은 政策에 方向性을 주는것이지 現實 그自体를 無視하는 것은 아니었다.

毛沢東이 上海人民公社를 否定하고 革命委員會를 提唱한 것, 또는 文化革命은 部分的 改革運動이다. 또 革命的 大聯合 革命幹部의 復甦을 提唱한 것은 모두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動脈硬化증에 걸린 党官僚機構는 大衆으로부터 遊離된 党組織을 再編成하기 위하여는 龍頭蛇尾格인 改革運動으로서는 目的을 達成할 수 없었다. 어느 程度의 極左路線의 拡大를 放任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同時에 現實의 客觀的 分析보다는 綱領解釋으로 政策을 判斷하는 黨員에게는 右翼偏向보다도 左翼偏向이 容易한 길이다. 잘, 잘못을 犯한다 하더라도 理論의 原則에 充實하였던 結果로 보기 때문이다.

舊幹部의 復活, 人民公社의 生産隊를 基礎로하는 3級所有制의 繼續을 보고 文化革命은 무엇때문에 있었는지 疑心하는 者가 많다. 中共은 現實化되어 간다는 評價도 있다. 그러나 效果有無는 中共自身の 問題이지 第3者의 評價와는 스스로 다른 點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結論을 내리기에는 좀 빠를지도 모른다.

只今 그들이 目的하고 있는 것은 最近의 中共出版物에서 보는바와 같이 思想的 領域에서 革命的 党派性의 確立 - 高級幹部가 唯物論과 觀念論을 区分하지 못하고 무얼할 것인가 채찍을 받고있으나 -



理論教育과 革命에의 献身을 불러일으키는 運動과 同時에 革命的 党派性을 大衆속에 沁어가는 것이다. 이 革命的 主体勢力을 確立하는 것은 中國의 現實에 適應한 社會主義化로부터 오는 現實에의 妥協을 制止하려고 하는데 있다. 現實의 正確한 認識만으로는 充分치 않다. 現實을 正確히 認識함과 同時에 現實改革의 展望을 보면서 着實한 社會主義化에의 前進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毛沢東도 指摘한바와 같이 政策의 現實的인 適用은 現實的인 妥協의 可能性이 많아 右翼偏向의 要因이 되기 쉽다. 이것은 毛沢東自身에 의해서 中共黨史를 이와같은 見地에서 分析하여 보여준 점에서도 明白하다. 思想的 領域에 있어서 階級意識의 強調는 政策面에서 左翼偏向을 낳기 쉽다. 文革過程에서도 官僚機構一消한 名目下에 旧幹部의 追放이 當然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政策面에 있어서도 人民公社의 自留地의 廢止, 生産隊를 基礎로한 3級所有制 代身 擴社併隊(公社, 生産隊의 規模 擴大)가 局部的으로 행하여졌다.

이것은 各級黨指導者가 右傾政策보다는 左傾政策을 安全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危險을 犯하기 보다는 決定된 것만 하면 된다는 消極性을 낳게 된다. 中共이 當面하고 있는 것은 이 두개의 相反된 問題를 如何히 調整하느냐에 있다. 最近擡頭되고 있는 「路線과 政策」의 一致도 이것을 뜻하고 있다.

## 6. 맺 음

文革中 擴大한 極左傾向은 林彪의 追放이란 形態로서 終息된 것처럼 보

이지만 問題의 解決이 결코 된것은 아니다. 方海의 「조금이라도 政治經濟學을 배우자.」(紅旗 72·7 期)는 「生産手段所有制의 面에서는 社會主義革命이 基本的으로 勝利를 얻은 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長期에 걸쳐 두개의 社會主義所有制 卽, 하나는 社會主義國有制 또 하나는 社會主義集團所有制가 存続할 것이다. 이 두種類의 所有制는 모두 社會主義公有制이다. 그것들은 工業과 農業의 特異한 生産 發展의 水準을 反映하고 있으며 社會主義社會의 工農聯盟의 經濟的 基礎이다. 社會主義國有制와 現段階의 農村人民公社의 生産隊를 基礎로 하는 3級所有制의 社會主義集團所有制는 基本的으로는 當面한 우리나라 生産 發展水準에 適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經濟的側面에서는 現體制가 長期間繼續될 것이며 中國과 같이 後進 農業國家에서는 일시에 社會主義를 實現할 수는 없다는것은 至極히 當然한 主張이다. 文革後 政策을 中國의 現實에 適合시키라는 主張이 強化되고있다.

方海論文도 「價值法則, 等價交換의 否定 社會主義社會에 存在하는 商品生産의 必要性和 必要性的 否定, 두개의 社會主義所有制의 區別의 混同程度가 다른 集團所有制의 區別과 混同 하여서는 안된다」고 附言하고 있다. 現實을 無視한 急進政策을 取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政策의 現實的인 適用만을 強調한다면 現實的인 妥協만이 關心事가 되어 「社會主義에의 接近」이란 目的이 흐려진다. 劉小奇批判의 出發點은 여기에 있었다.

이를 避하기 위하여 맑스·레닌主義나 毛沢東思想의 學習이 強調되고 있지만 理論과 實踐의 統一은 말하기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毛沢東

은 理論이란 實踐에 의하여 檢證된다고 한다. 階級鬭爭속에서 理論도 深化된다고 하나 中國은 現在에 있어서 階級鬭爭은 觀念上的 또는 理論上的 問題에 不過하고 實踐의 主体는 生産, 建設이라는 問題이며, 理論과 實踐의 統合은 具體적으로서는 結合되어 있지않다. 「階級の 敵」이란 말은 있으나 지나치게 恣意的이다.

따라서 毛沢東이 主張하는 思想的 領域에 있어서 階級的 党派性的의 確立, 이 見地에서 理論政策에 의한 着實한 社會主義에의 念願은 理想으로서는 理解되지만 實現으로서는 至極히 困難한 것이다. 美中接近이나 日中國交正常化라는 現在の 政策은 中國의 工業化, 經濟建設의 緊要性を 國民에게 理解시켜 中國의 後進性脫皮를 促進시킬 것이나, 反面 思想的 領域에 있어서의 階級鬭爭 맑스·레닌主義, 毛沢東思想을 空念仏化시킬 可能性이 있다.

이의 調整은 50年의 中共黨史가 立証하듯이 繼續反復되는 것이며, 오로지 左翼偏向 以外는 없는 것이다. 中國共產黨의 一黨獨裁가 繼續되는 限이 時計의 추를 멈출 수는 없다. 中共의 現實主義란 짧은 사이의 추의 振動에 不過하다. 그것이 긴가 짧은가는 經濟建設의 必要度보다는 黨指導部의 勢力關係에 의하는 것이 많다.

## 参 考 文 献

- 0 Hsieh Chin-Tu;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1921~37, 1937~49, Standford University Press
- 0 Brandt Conrad and John K Fairbank;A Documentary History of Chinese Communism,Harvard University Press
- o Doak A Barnett ; Cadres, Bureaucracy and Political Power in Communist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 o Chen Jeromer ; Thought Reform of Chinese Intellectua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o Gittings John ; Survey of the Sino-Soviet Dispute ; A Commentary and Extracts from the Recent Polemics 1963~67, Oxford University Press.
- o Hsiao Q Ta ; The History of Modern Chinese Factions, Yale University Press.
- o Donald M.Nowe ; The Function of China in Marx, Lenin and Ma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 Shurman Franz ; Ideology and China ; Ideology in Fluxy, Harvard University Press.

- 伊藤喜久蔵著；文革の三年，経済往来社，
- 国民党中央委編；大陸反毛反共思想 組織与行動，国民党 中央委編
- 菅沼正久著；連続革命と 毛沢東思想，三一書房
- 羅昌柱著；中共指導思想論，国際学術院
- 羅昌柱訳；周恩来， 国際学術院
- 中共研究，問題与研究，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外 多数参考



第六章 最近 中共의 政治動向과  
毛澤東 以後의 中共





## 第六章 最近 中共의 政治動向과 毛澤東 以後의 中共

### 1. 머리말

· 잠자는 사자'로 알려진 8億이 넘는 人口를 가진 中國이 共產化된 後 4半世紀동안 繼統적으로 國際政治의 긴장요소 내지는 不安의 要因을 조성해왔다. 最近의 分析에 依하면 中共의 領土는 9,500만㎢. 人口는 8億~8億5千萬 사이며, GNP는 1,200億弗, 1人當 GNP는 130~150弗(1971年)로 推算하고 있다. 現 中共의 行政組織도 直割市를 包含한 29個의 省, 및에 2,331個의 縣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軍區도 11個의 1級軍區에 36個의 省級軍區를 가지며, 軍, 勞動者, 革命組織의 3結合으로 구성된 革命委員會로 조직되어 있다. 行政府署도 상당히 축소되어 總理 1人, 副總理 7人, 20個部에 3委員會로 文革 以前의 조직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으며, 그들의 發表에 의하면 全公務員數가 1/3로 縮少되었다고 한다.

中共은 레닌式 中央集中制(Democratic Centralism)로 黨이 政府와 軍을 통솔하는 소비에트式 政治體制이지만 文革으로 林彪를 中心한 軍部 勢力的 影響力 擴大로 軍이 黨과 政府를 支配하는 國家로 轉換하여 많은 實務派 指導者들이 肅清되었다. 그러나 文革의 기운이 점점 감소되자, 大衆運動은 革命強度보다 生産에 力點을 두고 있다. 이것은 文革期에 「解放軍으로 부터 배우라」는 口號가 「軍은 人民으로 부터 배우라, 人民은 軍으로 부터 배우라.」는 方向으로 轉換하여, 最近에는 「人民으로 부터 배우라.」는 口

특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이런 냄새를 맞볼 수 있다. 이같은 現象은 당연히 紅보다 專에 치중하게 되어 文革으로 숙청된 實務派들이 大舉復活되고 있다.

人民公社도 農民의 不平不滿에 다소 好意的인 反應을 나타내 最近에는 農業 採算을 生産隊 單位로 縮少시켜 物質刺戟을 強化하는가 하면, 教育制度도 國家運營에서 公社運營體制로 變更하여 生産과 教育을 연결시키고 있다. 教育에도 종전의 試驗制度에서 性分把握과 政治性에 의해 선발되며, 物理, 化学, 数学, 外國語에 力點을 두고 있다. 人民의 生活教育도 毛沢東思想의 學習, 肉體勞動을 통한 겸손, 規律, 勤勉生活를 強調하고 있다. 관료기구의 縮少는 大衆의 비판에 귀를 기울리게 되고, 이것은 官리의 오만불손을 어느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最近 毛沢東一派는 西方側에 對한 柔軟한 實利追求 外交를 反對한 完고파를 肅清하고 毛沢東의 이론인 「黨은 軍을 통솔하고, 軍은 武器를 管理한다.」는 理念에 입각, 軍의 影響力 減少에 부심하고 있다.

이같은 狀況에서 1973年 8月 10全大會까지에는 中共內의 政治的 實力派는 毛沢東, 劉少奇잔당, 周恩來, 江淸의 4個 分派를 이룬 가운데 對內外 政策遂行의 實力者는 周恩來로 分析되고 있었다.

## 2. 十全大會 以前의 政治動向

1966年 文化革命이 始作되기 以前에는 大體的으로 中共의 政治動向은 壓力그룹, 支配그룹, 政策決定 그룹의 三類로 分析할 수 있다.

當時의 支配그룹이 中央에서 細胞組織까지 펼쳐있는 中共黨이라면, 軍部, 工場管理者, 公社管理者, 科學技術을 包含한 專門家, 党内 知識人을 圧力그룹이라 할 수 있고, 最高 政策決定水準은 各派閥間의 妥協에 依한 少数人의 獨點物로 例컨데 毛沢東, 劉少奇, 鄧少平, 林彪, 周恩來 등이었다.

文化革命 期間에는 正規的인 政策이 어려울 정도로 黨, 政府의 各級 機構가 完全破壞 되므로써 急進派 紅衛兵의 各축에 의한 直接的인 政治指導까지 시도되었으나 지나친 紅衛兵의 狂亂은 많은 指導層 人士를 肅清하게 되었고, 이같은 속칭바람은 黨書記級の 幹部를 대거 肅清하여 政治不在 現象이 나타났으나 紅衛兵의 소요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林彪를 거두로 한 軍部の 개입은 軍隊 一色現象을 낳게했다. 이같은 狀況은 1969年 4월에 들어 9全大會에서 林彪體制를 擡게 했고, 林彪의 地位가 毛沢東의 그것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軍部の 影響力이 增大되었던 것이다. 이 結果 中共中央의 幹部 45%가 軍部出身이었고, 林彪派가 中央政治局의 半數 以上을 占거하게 되었으며 地方에서도 省委 水準에서 29個省市 第1書記 29名中 24名이 軍部 出身이 掌握하고 書記級の 60%를 軍이 掌握하게 되었다.

文革의 수습기에 접어들자 1968년부터 黨改編을 着手하였고, 改編된 黨은 派閥間의 分裂과 逆流에 고민하고 있으며, 支配的인 安定 勢力은 아직 형성치 못하고 있는것 같다.

最近 밝혀진 바에 의하던 周恩來의 중도와 그룹이 中共의 實力者로 이에 復旧된 實務派와 高참참모들이 가담하고 있다. 上海出身의 急進派 指導者와 許世友를 中心한 南京軍區 實力者와 陳錫聯을 비롯

한 瀋陽(滿洲)軍區 實力者들이 모두 主導權鬭爭의 각축으로 文革後 指導階級이 계속 유동적으로 되어 왔다.

現在 中共을 통치하고 있는 中共의 最高 政策決定者는 80代의 毛沢東을 떠맡고, 70代後半의 周恩來 葉劍英 그룹의 實務派와 50代와 40代를 混合으로 이루어진 江清, 張春橋, 姚文元의 革命急進派로 分類할 수 있겠지만, 어느파나 毛沢東에 對한 忠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크게 周恩來의 實務派와 江清의 革命派로 壓縮할 수 있다.

### 3. 林彪事件과 政治動向

林彪 除去後 1년이 지난 1972年 8月에야 中共은 林彪事件을 發表했다. 이에 의하면 林彪에 對한 攻擊을 鞏固戰에서 彭德懷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으나 1958年 彭事件에 그를 배신했고, 中共軍의 元老 朱德元帥에 對해 반목 질시했고 個人的인 政權野欲에서 紅衛兵을 조직, 조종하여 文化革命을 극단적인 政治改革으로 유도했으며, 毛沢東에 對한 신임미끼로 軍, 黨, 政府의 全權을 掌握하려는 음모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事實上 毛沢東의 林彪에 對한 戰略의도는, 當時 劉少奇가 掌握하고 있는 組織基盤이 毛의 地位를 弱화시켰고, 組織에 依한 통치는 毛沢東思想에 기반한 이데올로기作用의 弱化를 가져왔으며, 이같은 現象의 除去를 위한 社會主義教育運動도 劉少奇體制에서는 別다른 成果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같은 狀況은 毛沢東으로 하여금 劉少奇의 除去를 위한 試圖를 전개토록 誘導했던 것이다. 毛沢東의 權力回復의 戰略에 犧牲된 者가 林彪라 할 수 있다. 1967年 林彪의 影

響力 增大를 전제키 위한 手段으로 徐向前을 기용하였던 것이다.

最近 밝혀진바에 依하면 林彪의 罪名을 대체적으로 情勢問題, 路線問題, 政策問題의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情勢問題에 있어서 「林彪는 中共의 좋은 情勢를 오도하고, 「政情不穩」, 人民經濟는 停滯하고 發展치 않는다」, 「反修正主義 鬭爭을 공격한다.」

「毛沢東思想을 하부에 전달하고 學習하는 것을 주저한다」 등으로 規定하고, 둘째, 路線問題에 있어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社會封建主義라 規定하고, 毛沢東의 繼統革命을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과 같은 것이라고 主張했으며, 林彪의 親子로 하여금 封建王國의 樹立을 企圖했다는 것이다. 셋째, 政策問題에서는 強國民窮으로 農民은 굶주리고, 勞動者는 變형된 搾取者라고 主張하고, 5.7 幹部學校에 가는 것을 變형된 實業者로 간주했다고 非難하고 있다.

事實上 이같은 事項은 林彪가 事實을 歪曲한 것이 아니라, 現實의므로 問題가 되는 事項이다. 毛沢東과 江清, 그 사위 姚文元, 毛沢東의 친척 王海容, 李納 등이 中共의 文芸宣傳部門을 掌握하고 있으며, 이것은 中國의 思考에서 毛王朝라는 비방이 있을 것이다. 君主制, 民主制의 體制如何를 莫論하고, 指導層이 一家一族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自身의 安全은 自身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相對的 安定밖에 없는 中國의 權力構造에서 오는 特徵이다. 毛沢東과 血緣關係가 없는 汪東興이 文革의 混亂에서 일락 中央政治局 候補委員으로 등장하고 十全大會에서 政治局 委員으로 등장한 것은 延安時代부터 現在까지 毛沢東의 호위자로서 毛沢東에 밀착한 關係라고 생각한다. 프롤레타리아黨이라도 在野黨時代와 다르고 그 權力이 確立되고 一國의 指導者로서의 地位가 確立됨과 同時에 연고자가

그 주변을 굳히는 形이 確實해지는 것은 中國의 特徵에 틀림없으나 獨裁者의 一般的인 性향이고, 프롤레타리아 黨의 癩的存在가 되었다.

무릇 政治不安, 經濟의 停滯, 人民生活의 침체는 全人民의 毛沢東에 대한 信賴와 支持度를 顯著히 減少시켰다.

또한 民衆의 不信感 際去에 對해 實務派와 急進의인 文革派의 見解는 相衝되어 점점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黨에 對한 人民의 信賴를 회복하려는 政策遂行이 必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程度 수정주의라 할 수 있는 路線을 挾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72年 8月 19日 人民日報는 「어느 人民公社의 貧下中農의 生産增大에 對하여 普通의 경우에는 표창에 그쳤으나, 이때는 副償으로 장려물자를 주었는데 이것이 地方黨委員會에서 問題가 되었다. 黨委는 이것이 劉少奇의 修正主義로 物質刺戟, 金錢優先이 된다는 反對가 나왔다는 것이다. 討論 結果 黨의 基本路線을 학습하고, 이것이 黨의 基本政策에 合致하다는 報道가 그것이다.

이렇게 볼때 反革命修正主義는 最近에 와서 黨의 路線政策에 가깝다고 인정되고 있다. 文革以後 한때 劉路線을 강경히 攻擊하였으나 이것은 점점 공허해지고, 文革中 높이 외쳤던 改治優先, 毛路線이라 規定되던 것도 지금은 많이 退色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政策은 國務院을 배경으로 實務行政權을 쥐고 있는 周恩來에 依해 実行되고 있다. 이같은 情勢를 배경으로 이미 文革이 一段落되고 그 混亂을 수습하려던 1969년부터 修正主義者로 비난되어 現職을 쫓겨난 黨員으로 지도層에 있던 人物들이 부직되기 始作했다.

한편 林彪 去勢後의 權力改編과 政治動向은 毛沢東・周恩來體制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中共政治局에서도 常務委員인 毛沢東, 周恩来, 林彪, 陳伯達, 康生の 5人中에서 林彪와 陳伯達은 肅清되었고, 康生은 臥病中으로 活動할 수 없어, 實際로 活動하는 자는 毛沢東과 周恩来뿐이며, 政治局 委員 21名中에서도 黃永勝, 吳法憲, 邱會作, 李作鵬, 葉群등이 숙청되고, 朱德, 劉伯承, 聶必武등은 老齡, 謝富致는 死亡, 許世友, 陳錫聯은 任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 결국 毛沢東, 周恩来, 江清, 葉劍英, 張春橋, 姚文元, 李先念등 7人뿐이었다. 더욱이 1972年 6月 6日 베트남인시政府 樹立 記念리선션에 中共側의 參席한 黨과 國家의 指導者로 周恩来, 葉劍英, 張春橋, 李先念, 紀登奎, 華國鋒, 郭沫若, 徐向前등 9名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指導者 그룹中에 郭沫若, 徐向前, 華國鋒 3名이 注目된다.

郭沫若是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 副委員長, 徐向前은 中央軍事委員會 副主席이지만 湖南省黨委 第一書記 華國鋒이 일약 國家指導者 수준에 올랐다는 事實은 政府機關 責任者가 아니고 이를 지도하는 立場, 即 黨中央政治局에 들어간 것으로 專問家들이 추측했는데 과연 이번 十全大會에서 그는 政治局 委員으로 登場했다.

다음 地方黨 組織을 살펴보면, 이미 1967年 11月 黨中央의 「革命委員會에서 이미 成立한 地域의 黨組織 回復에 관한 指示」, 同年 12月의 「黨組織의 정돈, 회복, 再建에 관한 意見과 問題」라는 指示에서 各軍區, 省軍區 黨委의 意見을 자문하여 縣級 이상의 組織에 對하여 討議토록 했다.

1969年 4月 9全大會에서 新黨規約을 만들고, 그에 따라 黨再建을 시도했으나, 별성과 없이 1970年 8月 9期 2中全會에서 整黨, 建黨 工作을 促進키로 결의했다.

1970年 12月 湖南省党委가 재건되고, 1971年 8月 티벳, 四川, 黑龍江, 寧夏省党委가 成立되므로써 省級党委의 재건이 一段落되었다.

毛沢東과 党中央의 党再建指示가 있었던 1967年 11月부터 3年 10個月이 걸렸다는 것은 얼마나 党再建이 어려웠나를 암시해 주고 있다.

이렇게하여 재건된 省級党委를 종전과 比較해보면 다음과 같은 事實을 알 수 있다.

①各省의 党代表大会의 代表수가 종래의 2倍以上으로 增大하고 있다. 이것은 代表의 決定이 下部로 부터 節次에 따라 選出한 것이 아니고 上部에서 말하는 軍, 党 그리고 人民大衆出身者의 상의가 可能하고, 더욱이 이 3者中の 派閥이 存在하기 때문에 總和的으로 正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②新党委 指導部の 大多數는 現地軍區와 駐屯하는 現役軍人이 兼任하고 있다. 29省党委의 간부 158人中 現役軍人은 95人으로 60%, 党幹部出身이 53人으로 33%, 大衆組織 代表는 10人으로 6.3%에 不過했다.

表 1. 各軍의 党要職 占有比率 ( 1971. 8月現在 )

체통	지위 인 수	제 1 서 기		서 기	
		数	%	数	%
第一野戰軍		2	6.9	3	1.9
第二野戰軍		5	17.2	15	9.5
第三野戰軍		5	17.2	12	7.6
第四野戰軍		7	24.1	24	15.2
第五野戰軍 (華北兵團)		3	10.5	10	6.3
系 統 不 明				31	19.9
党 幹 部		7	24.1	53	33.3
大 衆 代 表				10	6.3
合 計		29	100	158	100



또한 第一書記 29名中 現役軍人 22名으로 73.9%, 党幹部가 7名으로 24.1%의 구성을 보이지만 大衆代表는 한명도 없다. 이렇게 해서 軍人이 党的 上席을 차지하고 元來 党이 軍을 지도하는 理念은 없어지고, 事實上 軍의 指導權이 確立되어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이것은 文革에서 人民大衆이 党을 批判하고, 党體制의 崩壞는 軍의 影響力 增大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共産黨을 통한 프롤레타리아專政, 即 党獨裁의 原則은 事實上 崩壞된 셈이며, 그렇기 때문에 党的 一元화된 指導가 主張되게 된다.

「党이라해도 軍人黨員과 其他의 黨員의 區別을 없애고 平等하게 行動할 것.」이 주장되고, 党要員과 軍黨員의 단결과 派閥對立을 해소시키는 努力을 전개해 왔으며, 軍人出身者가 地方幹部의 의견을 듣고 自己의 잘못을 고쳐, 모든것을 第一書記에 맡기고, 決定된 事項을 實行한다는 運動은 바로 軍과 党幹部사이의 見解조성을 위한 몸부림일 것이다.

1972年 8月1日 建軍日의 人民日報, 解放軍報, 紅旗의 공동사설에서 「党的 軍에 對한 指導」가 強調되었다. 「權力은 銃口에서 나온다.」라는 文革期에 強調되던 口號를 지적하면서 現在는 많이 변했다고 전제하고 古典會議에서 強調된 「三大規律·人頃注意」의 毛沢東 特有의 軍訓練을 強調하면서 「軍의 겸허, 人民에게의 봉사」를 강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文革期부터 「人民은 軍을 배우라」라는 口號가 「人民은 軍을 배우라, 軍은 人民을 배우라」라고 되고 「軍은 人民에게 배우라」는 구호로 변천하게 되는 소지가 될 것이다. 단지 軍司令, 第一書記 및 革命委員會 主任을 兼任하고 있을 때 同一軍人인 第一書記가 軍司令員에게 命令해도 不合理

하다.

또한 省 以下 單位의 党委에 關하여 省党委委員會의 재건이 시작되어 1972年 7月 現在 全國 208區의 党委의 재건을 完了했다 한다. 그러니까 全國 2,300餘縣의 党委 50%가 재건된 셈이 된다. 특히 湖南, 福建, 安徽, 廣東 各省에서 党委의 재건이 林彪事件으로 混亂에 빠진 듯하다.

#### 4. 實務派의 復歸와 政治動向

文革으로 이례적인 軍人의 진출은 党幹部 및 行政官僚의 위축을 가져왔다. 1969年부터 中央에 있어서는 党幹部의 부활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나, 地方에서는 党委의 재건과 함께 軍人進出이 1972年 8月까지는 뚜렷이 나타났으나, 그 以後부터는 漸次 軍勢力의 進出이 약화되고 있다. 旧省党委 候補書記 以上 280名中 248名이 해임되었고, 또 旧第一書記 29名中 4名이 復活되었으나 3名은 書記로 格下되었다. 注目할만한 사실은 復活된 者의 대다수가 反革命修正主義者라는 낙인이 찍힌者들이라는 점이다. 旧廣東省党委 第一書記 趙紫陽, 旧山東省党委 第一書記 譚啓龍, 旧湖南省党委 第一書記 張平化 등이 들어 있다. 더욱이 張平化는 「생각만 해도 화가나는 놈」이라고 江淸에게 미움받은 者인데, 이것은 文革을 비판한 系列의 진출을 의의있게 하는 것이며 左傾 文革派 急進勢力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反해 文革中에 좌천되고 비난받은 지도層의 復活에 反하여 再教育의 必要가 主張되고 毛路線의 學習이 要求되었다.

1972年 元旦의 共同社說의 毛路線의 向上에 對한 要求는 1月31日 「人民日報社說에서는 各級黨組織에 「路線教育의 強化, 毛思想의 活用, 마르크스·레닌, 毛沢東思想의 學習에 의한 世界觀의 改造를 要求하고 있다. 活動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는 口號가 되풀이 되지만 이것은 幹部層의 대거부활로 무시되는 形便이다.

1971年부터 單純히 路線教育에 머무르지 않고 「레닌著作」의 學習과 毛著作의 學習이 병행되고 共產黨宣言, 프랑스內戰, 國家와 革命 등의 古典學習運動을 強化하고 있다. 主觀의 改造와 同時에 事物의 發展에 客觀法則의 인식이 要求되고 主觀에만 기초를 둔 唯心論的 認識이 배격되고 있다.

그 代身 唯物論의 認識이 強化되지만, 그 內容은 實驗과 調查에 根拠하는 實態에 따른 工作이 強調되고 있는데 이것은 旧幹部의 復活에 批判的인 文革派의 毛路線 學習에 對하여 그것을 肯定하면서 唯物論이란 名目으로 主觀主義, 主意主義를 배격하고 客觀的 事實을 重視하려는 實務派의 반격으로 보인다. 더욱이 雙方 모두 毛沢東指導의 型으로 主張하고 있음이 問題이지만 어느것이나 毛沢東을 등에 업고, 自己들의 立場을 有利하게 유도함과 동시에 毛沢東 自身은 이렇게하여 漸次 象徴的 存在로 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 ○ 復帰旧幹部表 (一) ( 1968.9 ~ 1969.3 )

氏 名	旧 職	現 職
鄧 子 恢	計画委副主任	
林 雲 海	外貿部部長代理	外貿部副部長
賈 石	外貿部副部長	上 同
劉 希 文	外貿部長助理	中日備忘録貿易代表
會 山	内務部部長	
周 赤 萍	冶金部副部長	福建省革命委員会副主任
范 文 彩	石炭部副部長	燃料化工部副部長
杜 星 垣	水電部副部長	水利電力部副部長
王 英 先	水電部副部長	
周 子 健	一機部副部長	
李 正 亭	労働部副部長	
汪 少 川	建工部副部長	
武 競 天	鉄道部副部長	
徐 今 強	化工部部長代理	燃料化工部副部長
謝 轟 鶴	二輕部副部長	輕工業部副部長
王 磊	商業部副部長	北京市革命委責任者
段 雲	財貿室副主任	
邱 創 成	五機部部長	
白 向 銀	建材部副部長	建材部副部長
王 震	農墾部部長	
干 桑	公安部副部長	

氏 名	旧 職	現 職
謝 懷 德	對外經委副主任	
石 少 華	新華社副社長	新華社副社長
劉 偉	三機部副部長	
李 強	外貿部副部長	外貿部副部長
周 化 民	上 同	上 同
錢 之 光	紡織部副部長	
賴 際 堯	建材部部長	
徐 馳	冶金部副部長	四川省革命委副主任
羅 青 長	國務院副秘書長	
錢 正 英	水電部副部長	水力電力部副部長
孫 曉 風	石油部副部長	燃料化工部副部長
袁 宝 萃	物資部部長	
謝 北 一	建委會副主任	建委會副主任
郭 魯	鐵道部副部長	交通部副部長
鐘 天 翔	動電部副部長	電信總局長
夏 之 翔	一輕部副部長	輕工業部副部長
辺 彊	六機部副部長	
徐 斌 洲	八機部副部長	第一機工部副部長
岳 志 堅	科學委副主任	
陶 琦	交通部副部長	
餘 秋 里	計画委副主任兼石油部部長	
方 毅	對外經委主任	外經部部長

氏 名	旧 職	現 職
齊 勇	海洋局局長	
張 林 池	農墾部部長	黒龍江省革命委副主任
吳 凡 吾	外專局副局長	
劉 型	農墾部副部長	
干 眉	交通部副部長	交通部副部長
徐 達 本	八機部副部長	
程 担	内務部副部長	
李 夢 華	体委会副主任	体委会副主任
李 芸 林	化工部副部長	燃料化工部副部長
張 乃 召	氣象局副局長	氣象局副局長
万 復	旅遊局副局長	
高 峻	四機部副部長	
張 修 竹	農林弁公室副主任	
郭 力	一機部副部長	
廖 承 志	僑務委会主任	(中日友好協会会長)
李 富 春	副総理	
方 桌	人民銀行副行長	人民銀行副行長
劉 劍	機関局副局長	
趙 啓 民	三機部副部長	
張 克 俠	林業部副部長	
朱 光	五機部副部長	
顧 明	建委副主任	計画委副主任

氏 名	旧 職	現 職	
康 世 恩	石油部副部長	輕工業部副部長	
曹 魯	一輕部副部長		
李 夢 夫	秘書庁副主任		
宋 毅 仁	紡織部副部長		
郝 德 青	外事室副主任		
蕭 克	農墾部副部長		
劉 復 之	公安部副部長		公安部副部長
張 彬	水電部副部長		水利電力部副部長
姜 齊 賢	農墾部副部長		
李 齊 雲	八機部副部長		
劉 仰	高教部副部長	交通部副部長	
黃 慶 熙	內務部副部長		
彭 敏	科技委副主任		
鄧 崗	新華社副主任		新華社副主任
周 紹 裳	海洋局副局長		海洋局副局長
李 權 中	旅遊局副局長		旅遊局副局長
王 光 偉	農林弁公室副主任		
甘 重 斗	內務弁公室副主任		
劉 寅	四機部副部長		
蕭 鵬	水產部副部長		
聶 榮 臻	副總理	三機部部長代理	
吳 融 峰	三機部部長代理		

氏 名	旧 職	現 職
楚 凶 南	外交部副部長	
曾 湧 比	二輕部副部長	
王 振 乾	三機部副部長	
武 衡	科技副主任	
胡 耀 邦	青年工作委第一書記	

## ○ 復帰旧幹部表(二) (1969.4.~1970.12. 九全大会以後)

氏 名	旧 職	現 職
王 諍	四機部部長	新疆省革命委副主任
吳 振	農業部副部長	
宋 致 和	物資部副部長	新疆省革命委副主任
羅 貴 波	外交部副部長	
郝 中 士	農林弁公室副主任	農林部副部長
梁 昌 武	林業部副部長	上 同
劉 星	六機部副部長	新疆省革命委副主任
唐 克	石油部副部長	燃料化工部副部長
申 光	郵電部副部長	
高 修	商業部副部長	
趙 生 洪	体委会副主任	体委会副主任
宋 養 初	基建委副主任	建委会副主任
蘇 杰	鉄道部副部長	交通部副部長
朱 礼 泉	秘書庁副主任	



氏名	旧職	現職
吳波	財政部副部長	
喬培新	人民銀行副行長	人民銀行副行長
馬耀驥	交通部副部長	
劉新樞	外交部副部長	駐蘇大使
卓雄	地質部副部長	福建省革命委副主任
林沢生	冶金部副部長	冶金部副部長
黄学忠	六機部副部長	
趙堯生	糧食部副部長	
沈鴻	一機部副部長	一機部副部長
顏金生	文化部副部長	
謝扶民	民族委副主任	
揚立功	八機部副部長	農林部副部長
屈志統	外專局副局長	外專局副局長
高富有	機関局副局長	

○ 復帰旧幹部表(三) (1971.1. ~ 1972.6. 省級党機関完成以後)

氏名	旧職	現職
楊殿奎	一機部副部長	冶金部副部長
李建平	石炭部副部長	陝西省革命委副主任
齊一丁	四機部副部長	
王毅之	一輕部副部長	輕工業部副部長
鄧存倫	物資部副部長	
段君毅	一機部部長	四川省革命委副主任

○ 復帰旧幹部表(四) ( 1972. 7. ~ )

氏 名	旧 職	現 職
陳 雲	副總理 ( 党副主席 )	副總理 ( 党中央委 )
楊 勇	副總參謀長	
陳 再 道	國防委委員 ( 武漢部隊加令 )	
鍾 漢 華	武漢部隊政治委員	同部隊副政治委員
勝 代 遠	鐵道部部長	政治協商會議 全國委副主席
劉 道 生	海軍副司令	
李 惠 民	軍事學院院長	
李 達	國防體育協會主席	
廖 漢 生	國防委委員 ( 北京東區第二 政治員 )	
甘 渭 漢	成都部隊副司令	
李 燿	軍總機部副政治委員	
莫 文 驊	軍政治學院院長	
彭 嘉 慶	軍總後勤部副政治委員	
李 雪 三	上 同	
曾 漢 周	最高人民法院副院長	同 左
吳 冷 西	新華社社長	
王 觀 瀾	農林辦公室副主任 ( 北京農 業大學學長 )	

이같이 文革收拾 以來 文革派와 實務派의 潛在的 對立이 暗示되고 있지만, 1972年 5月부터 새로 党基本路線이 강조되고 있다. 1972年 8月까지 党路線과 毛路線 둘다 強調되어 왔다.

大體的으로 最近 中共이 指向하고 있는 路線은 3가지로 集約할 수 있다.

① 党路線을 強調하면서, 한편 毛路線을 아주 적게 取扱하고, 다시 党路線을 배우는 것이 党政策을 보다 잘 理解하는 것이 된다고 強調하는 것으로 앞에 말한 人民公社의 獎勵物質 같은 것이 그 例이다. 이 境遇는 分明히 急進의 毛路線을 排擊하지 않는다는 實務派의 主張이다. ② 党路線을 強調하면서 한편 党路線을 把握하는 것은 毛路線을 完全히 執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中立的 立場에 있는 者의 主張일 것이다. ③ 党路線의 基本은 階級鬭爭이며, 毛沢東이 만든 것으로 社會主義 段階에서의 階級鬭爭의 存在와 階級鬭爭의 必要를 說明한 것은 毛主席이라 強調하고, 毛路線의 見解를 主張하는 것으로 이것은 分明히 文革中の 路線 強調의 繼續으로 文革派의 主張일 것이다.

約 3個月에 걸쳐 路線強調의 記事는 위의 3種類가 있고 그 中에는 党이나 毛를 指名치 않고 단지 路線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있으며 더욱이 이것들이 서로 牽制하고 있는 實情이다. 1972年 8月부터 人民日報는 路線은 一體 主張되지 않고 단지 實際를 調查하여 그것에 基礎하여 工作하려는 記事가 많아진 것을 볼때 前述한것처럼 政治不安, 經濟停滯가 현저하기 때문에 어떻게해도 客觀的이고, 具體的 政策이 取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絶對的 條件에서 實務派의 힘이 優勢한 것이 아닐가? 江清, 周恩來의 對立이 伝해지고 있지만 實際에 있어선 周恩來의 影響力이 優勢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닉슨美大統領을 받아들인 것은 結論的으로 毛沢東의 結斷이지만, 實質的으로는

周恩來의 影響이 많이 作用한 것이 事實일 것이다.

### 5. 十全大會와 政治動向

毛沢東의 重態說이 떠도는 가운데 1973年 8月 中共의 十全大會가 北京에서 非公開裡에 毛沢東의 主宰로 열렸다고 大會公報가 發表했다. 이번 大會는 異例의으로 非公開裡에 進行되었으며 5名의 副主席團의 등장과 함께 王洪文이 中共의 第3 實力者로 登場되었다. 周恩來의 政治報告와 王洪文의 黨規約 改正에 關한 報告로 進行된 十全大會는 黨主席에 毛沢東을 추대하고 過渡期的 性向이 담긴 副主席團에 周恩來, 王洪文, 康生, 葉劍英, 李德生等 5名을 選出했으며, 政治局 黨務委員도 9名으로 擴大하고 政治局 委員 21名과 195名의 中央委員과 124名의 候補委員을 各各 選出했다.

九全大會가 毛沢東, 林彪體制라던 十全大會는 毛沢東, 周恩來體制라고 할 수 있으며, 세로 選出된 中央委員과 候補委員의 勢力分布를 살펴 보면, 어느때 보다도 広範한 人事的 配慮인 것처럼 보인다. 十全大會의 新指導體制를 日本이나 美國側에서는 周恩來體制라고 하는가 하면 台灣이나 蘇聯側에서는 오히려 周恩來派의 勢力이 弱화되고 江清派의 勢力이 強化되었다고 分析하기도 한다. 어떤 側面에서 이번 指導體制를 分析하느냐에 따라서 그 結果도 다를 것이로되, 아무튼 周恩來의 影響力이 強化되었다는 分析은 그대로의 妥當性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이번 十全大會에서 가장 異色的인 現象은 從來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毛沢東을 頂上으로 한 過渡的 後繼體制라 할 수 있는 集團指導體制인 副主席團의 出現이다. 終來 繼續해서 毛沢東은 集團指導體制에 對한 疑懼心을 가져왔고, 後繼體制로도 一人을 指名했던 事實을 勘案해 볼때 이 體制는 注目的 對象이 아니될 수 없다. 周恩來, 王洪文, 葉劍英, 康生, 李德生의 5人體制는 中共의 現實을 勘案해 볼때 그래도 性分別, 世代別 配慮인 듯 하다.

<表 - 3> 中共의 新指導體制

中 央 委 員 會

主 席 : 毛沢東

副主席 : 周恩來, 王洪文, 康 生, 葉劍英, 李德生

中央委員 : 195名 候補委員 : 124名

中 央 政 治 局

主 席 : 毛沢東

副 主 席 : 周恩來, 王洪文, 康 生, 葉劍英, 李德生

常務委員 : 毛沢東, 周恩來, 王洪文, 康 生, 葉劍英

( 9 名 ) 李德生, 張春橋, 朱 德, 董必武

委 員 : 毛沢東, 周恩來, 葉劍英, 康 生, 李德生

( 21 名 ) 王洪文, 董必武, 朱 德, 張春橋, 劉伯承

江 青, 姚文元, 許世友, 陳錫聯, 汪東興

韋國清, 李先念, 紀逢奎, 華國峰, 陳永貴

吳 德

候補委員 : 蘇振華, 賈福鼎, 吳桂賢, 倪志福

5人指導体制은 毛沢東의 委任을 받아 實質적으로 中共을 支配하는 것이 라든지 그렇지 는 않다고 하더라도 毛沢東 死後를 勘案한 過渡的 指導体制은지 間에 이번 5人体制은 中共政治現況을 分析하는데 매우 意味深長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껏 周恩來는 中共指導者中에서 비교적 穩健路線을 指向하는 外交政策의 實權者도 알려져 있지만, 그가 政權成立以來 繼續 首相으로 일해왔고, 內戰期에 軍事問題에 밝은 理論家로서 軍事實務를 担当해 왔다. 이로서 그는 軍部の 最高指導者級과 行政官僚의 實權者들과도 親分이 두텁고, 또한 넓은 支持를 받고 있다고 한다. 葉劍英은 井崗山時節부터 오랫동안 周恩來와 親交를 맺은 사이이며, 「原子彈의 아버지」라 指稱되는 바가 뜻하는 바와 같이 中共軍의 노익장이며, 象徴的인 大元帥다. 또한 그가 林彪 去勢後 實質적으로 中共의 軍權을 掌握하는 過程에서도 周恩來의 影響을 적잖게 받았다 한다. 康生은 1930年을 前後하여 中共黨에 特務機關이 만들어질 때 부터 周恩來와 親密한 사이였다 한다. 事實上 康生은 中共의 特務機關의 實權을 行事해온 者이며, 이것이 이번 副主席團에 오른 動機가 아닌가 生覺된다. 그러나 그는 最近 臥病中에 있어 實際로 活動이 不可能하다고 한다. 王洪文은 이번 大會가 낳은 奇蹟이라 할 수 있으나, 그 背後를 살펴보면 上海를 根拠地로 한 文革派의 實權者中의 한 사람이다. 37才라는 약관으로 文革에 江青, 張春橋, 姚文元과 함께 紅衛兵을 조종, 毛沢東의 行勳隊長으로 毛의 총애를 받아왔다. 그가 文革後로 改編된 上海市黨委 書記 및 上海警備區 第1政治委員을 兼任하여 왔다는 事實에서도 그의 革命的 性向을 알 수 있다. 卽 林彪派의 득세와 軍幹部의 進出을 抑制키

爲해 1970年부터 毛沢東은 軍出身이 아닌者를 軍指導體制의 核心인 政治委員에 進出시킬려는 意圖를 가졌는데, 이것이 王洪文의 政治委員 進出과 때를 같이 했다는 것이다. 王洪文이 副主席에 일약 進出되었다는 事實은 文革의 精神이 中共에 맥맥히 흐르고 있다는 事實을 反映한 것이된다. 元來 文革期에 새로운 指導體制를 軍·黨·革命群衆의 三結合을 내세우게 되었으나 軍의 影響力 비대는 이 指針을 무색케 했다. 또한 이것은 江清과 張春橋, 姚文元이 이번 大會에서 脫落되었다는 事實과 關係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할점은 毛沢東의 政治理想과 그 側近에 對한 見解다.

스탈린은 自己 生存時의 政治指導權과 革命은 크게 執着하고 있었지만 그 死後問題는 別로 生覺하지 않은듯 했으나, 毛沢東은 自己의 生前의 革命과 中共의 政治方向에 對해서 關心을 가질뿐만 아니라, 그 死後에 있어서 中共의 政治方向, 그 後繼者, 中共의 運命에 對해서 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關心에 自己와 現任關係에 있는 者들에 對한 關心이 重要하다. 毛沢東의 長子 毛岸英은 中共軍 下級將校로 韓國戰에 參戰했다가 戰死했으며, 지금 生存하고 있는 2名의 아들도 別로 重職을 맡지도 않고 있을뿐 아니라 毛의 총애를 받고 있지도 않는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이번 大會에서 毛의 妻 江青派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事實과 關聯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毛와 血緣關係에 있는 側近을 그의 後繼者로 浮刻시키지 않거나, 적어도 그들을 그 以後의 權力鬭爭의 一次的인 타겟으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意圖의 反映인줄도 모른다.

이때문에 江青, 張春橋를 副主席에 指名하지 않고, 彼女の 사위로 알려진 姚文元, 毛의 양자라는 汪東興을 모두 副主席團에 올려 놓지 않고, 第2線에서 그들의 行態를 監視하고, 이것을 批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意圖인지? 아마 이같은 推測은 分明히 筆者의 個人的인 臆見이 듬뿍 담긴 臆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大會의 特徵은 첫째 軍部勢力의 현저한 退潮와 特히 林彪系인 第4野戰軍 出身이 거의 一掃되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軍에 依한 政治라 할만큼 軍의 勢力이 비대한 事實을 毛沢東 以下 많은 指導者들이 걱정해왔다는 事實을 反映한 것일 수도 있다.

둘째, 文革으로 批判을 받고 去勢되었던 實務派 幹部들이 大挙 再 起用되었다는 事實이다. 劉少奇와 함께 去勢되었던 鄧小平, 李井泉, 譚震林, 烏蘭夫 등의 登場은 中共의 最近 政治動向을 分析하는데 있어 매우 興味있는 事實일 것이다. 勿論 九全大會의 權力構造에 對한 反探的인 要素가 다분히 介在하고 있겠지만, 實務派의 經驗과 新進革 命勢力의 生氣가 混合調和됨으로써 보다 建設的인 方向을 指向하겠다는 意圖에 기인할 것이며, 이것은 周恩來에게도 關係가 있을 것이다.

셋째, 十期中央委員과 候補委員中 新人이 各各 73名, 63名을 차지하고 있어, 新進勢力이 大挙 進出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注意할 點은 반드시 新人이 아니라 할지라도 少壯派 指導者의 進出이다. 여기에는 30代의 王洪文과 40代의 紀登奎, 姚文元의 役割이 注目되는 點이지만, 九全大會에서 得勢한 文革派가 十全大會에서 도 繼續 그 勢力을 굳히고 있다는 事實을 反映한다.

넷째, 多數의 勞動者出身의 進出이다. 王洪文, 陳永貴 등을 包含해서



十期中央委에서는 勞農出身이 各各 25名, 12名으로 全体的 20%를 차지하였고, 候補委員의 境遇도 24名으로 19.5%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女性이 中央委에 20名이나 進出하고 있다. 九全大会에서는 江靑과 林彪의 妻 葉群이 政治局 委員으로까지 進出하고 있었으나, 全体的으로 中央委에는 女性이 13名이었다. 또한 候補委員에도 20名이 起用되었으며, 그 代表的 存在로는 江靑, 周恩來의 妻 鄧疑超, 康生의 妻 曹軟歐, 李富春의 妻 蔡暢等 要人의 妻 11名과 對外經濟連絡部 副部長 陳恭華, 水利電力部 副部長 錢正英 등이 끼어 있다. 끝으로 十全大会에서는 中央委員에 少數民族의 代表도 더러 눈에 띈다. 烏蘭夫, 韋國靑, 賽福鼎 등이 끼어있는 點으로 보아 中央이 最近 少數民族에 對한 關心이 增大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이 十全大会로 改편된 權力版圖는 비교적 多樣的 性分을 考慮한 分布를 보이고 있고, 어느 一派에 편중을 牽制한 苦心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副主席團의 構成에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毛沢東 自身이 自己의 生前에 마지막인 党大会인 줄도 모르며, 그렇다면 後繼者問題로 심한 鬭爭을 벌려왔던 前情을 밝지않으면서, 自身을 상징화 시켜놓고, 各派의 均衡된 構性으로 副主席團에 依해 實際的인 党支配體制를 구상했는지도 모른다. 勿論 이같은 集團指導體制는 毛沢東의 健在를 前提로 한 것이겠지만, 性分構成을 살펴볼때 이같은 體制에서는 周恩來의 實務派가 보다 活潑히 活動할 수 있는 條件이 주어진 것 같다. 한편 지난 半世紀가 넘는 中共黨의 權力鬭爭史에 關聯시켜 周恩來의 形態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周恩來는 陳獨秀 時代부터 瞿秋白, 向忠發, 李立三, 陳紹禹, 奏邦憲體制를 일관하여 党内

重要 포스트를 占해왔으며, 이들이 去勢될때마다 교묘히 화살을 피해 前犯者를 処罰하는 裁判官格인 姿勢를 지켜왔다. 그리고 結局 毛沢東體制가 登場한 後에도 毛에게 신임을 받았고, 그後로 수많은 同僚가 숙청되었으나, 그 渦中에서 교묘하게 피해온 者이다. 이같은 狀況을 勘案해볼때, 林彪의 去勢와 關聯시켜 다음 차례가 自己가 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意識한 戰略인지도 모른다. 林彪 以後에 周恩來 自身이 너무 確固한 地盤을 굳힌다면 毛沢東에 密着되어 있고 江青을 업고 있는 急進的인 革命派의 注目을 받게 될 것이므로, 自己 스스로의 保護를 爲해 젊은 王洪文을 行動隊長에 끌어올려 놓고 그를 방탄조끼로 利用하려는 手段에 얼마만큼은 기인할 可能性이 있다. 勿論 이같은 斷言은 筆者 自身の 憶測이겠지만, 長期間 周恩來의 行態를 注視해온 者는 누구든지 이같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周恩來와 王洪文의 報告를 通해본 十全大會에서 確認된 對内外 政策과 黨規約의 特色을 살펴보기로 하자.

「林彪는 九期二中全會에서 反革命政變을 招來할 陰謀를 꾸며, 毛沢東의 殺害를 劃策하고, 그 陰謀가 失敗하자 1971年 9月 12日 蘇聯으로 逃避하려는 飛行機 墜落으로 死亡했다」고 報道했고, 林彪의 去勢를 2年이나 지난 後인 十全大會에서 公式的으로 確認한 것이다. 林彪事件은 迷宮에 쌓여 있다가 1972年 8월에야 對外的으로 알려졌으며, 十全大會에서 公式的으로 그의 去勢를 宣言한 事實은 林彪가 쌓아 놓은 權力構造가 얼마나 튼튼했는지를 暗示해 준다. 또한 林彪系列의 大學 숙청에서 오는 惡循環을 考慮, 이번 十中全會에 林彪

系 人士들이 더러 눈에 띄는 것을 볼때, 林彪事件을 마무리 하려는 意圖도 엿볼 수 있다.

美国과 蘇聯을 帝國主義로 規定, 帝國主義가 일으킬 수 있는 侵略 戰爭에 對한 境界心을 提高시켰고, 特히 蘇聯 社會帝國主義로 規定, 그 危險性을 強調했다. 또한 政治報告中에서 「党的 一元化된 指導를 強調, 党, 政, 軍을 指導한다고 指摘한 點은 党이 軍·政을 支配해야 한다는 毛沢東 思想이 九全大會의 體制에서 심히 破壞되었다는 事實을 反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党에 依한 一元化된 指導體制의 確立으로 毛沢東 以後에 대두된 集團指導體制의 安定化와 人民經濟의 安定등을 도모하려는 對內政策의 追求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對外政策에 있어 美蘇를 共히 非難하고 있지만, 蘇聯에 比해 美国에 對해서는 온화한 表現을 하고 있으며, 党指導體制가 毛·周를 王軸으로 하고 있다는 點으로 미루어보아 中共의 對美政策은 別다른 變動없이 現狀維持 또는 보다 더한 柔軟性 있는 姿勢로 尤대강화를 도모할 可能性이 있다. 蘇聯에 對해서도 체코事態, 中蘇國境衝突, 國境地方에 兵力增強등을 들어 攻撃하고 있지만 平和5原則에 立脚한 和解를 바라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蘇聯은 完全히 異質體制의 國家로 看做하지만 窮極의으로는 和解를 希望하고 있는것 같다. 特히 蘇聯과의 國境問題에 있어 從前과는 달리 日本의 北方領土나 東歐의 例를 前提하는 것으로 보아, 國境調整問題를 어느程度 늦출 수 있다는 基本姿勢의 變化라고도 볼 수 있을런지?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次元높은 戰略으로 日蘇의 接近에 袂기를 밝고, 日本을 두둔함으로써

第三国の 領土問題 解結의 前例가 나타날 때까지 中蘇國境問題를 潛在化시키겠다는 底意가 있는 것이 아닌지? 中共이 UN에 加入한 後로 크게 強調하고 있는바와 같이 中共은 超大國 行勢를 하지 않고, 美蘇의 兩超大國의 霸權主義를 牽制하기 위해 中小國家들이 團結해야 한다는 所謂 第3世界의 포섭이 對外路線에 重要한 領域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黨規約의 改正에 있어서도 林彪關係 部分이 完全削除 되었다. 新規約은 6章12條로 되어 있는데 그 形式面에 있어서는 九全大會의 그것과 類似하게 黨의 性質, 指導思想, 基本綱領, 基本路線에 關한 規定을 保有하고, 그 構成과 內容에 약간의 調整을 加하고 있다. 特히 黨規約에서 毛沢東思想의 性格 規定과 毛沢東 同志가 指導하는 中國共產黨이라는 文句를 削除하여, 毛沢東思想의 絶對化를 避하고, 毛沢東 個人崇拜思想의 極大化를 일소한 点이다. 이 条項의 削除는 毛沢東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더불어 中國共產黨의 理論的 基礎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絶對性이 緩和되었다는 事實은 最近에 展開되고 있는 中共의 大衆運動과 實務派의 得勢에 따른 紅보다 專의 重視 및 毛沢東 死後의 布石에까지도 關係가 있지 않는가 生覺된다. 毛思想의 弱化는 1956年 8全大會의 規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林彪가 文革中에 精神的 團結을 위해 毛沢東을 神聖화시키므로써 毛思想의 絶對化가 다시 浮刻되기 始作했다. 그러나 中共에서 社会的, 政治的, 經濟的 諸般 現狀이 危機에 逢着했을때는 이데올로기의 強化를 부르짖는 例를 찾을 수 있고, 이 危機意識이 弛緩되고 實質的인 組織이 強化되는 때는 이데올로기의 大衆運動이 弱化되는

性向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例는 大躍進運動期, 文化革命期를 들 수 있고, 劉少奇體制나 最近의 경향이 그 對照를 이룬다 할 것이다.

또한 新黨 規約이 毛沢東 死後를 爲한 布石이란 點에서 黨의 各級 指導機關이 프롤레타리아 革命事業의 繼承者의 條件과, 老, 壯, 靑의 三結合이라는 原則에 基礎하고 있다는 點도 注目된다. 이번 5 名의 副主席과 9 名의 政治局 常務委員의 構成에서도 三結合이 暗示하는 世代交替의 性向도 찾아볼 수 있으며, 中共의 先決問題가 단지 毛沢東 後繼者의 選出보다는 權力移讓을 柔軟하고 順調롭게 解決하는 問題라는 것을 例証하고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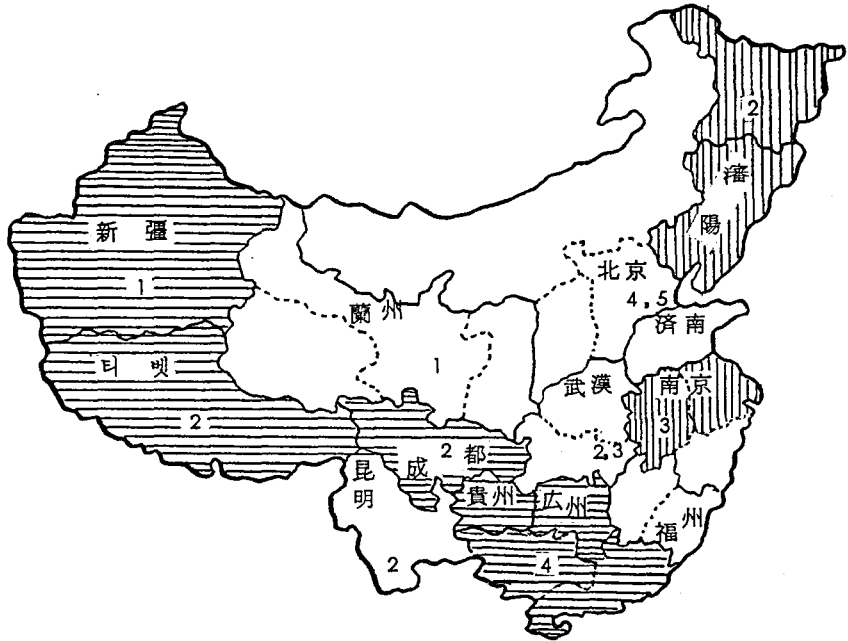
## 6. 毛沢東 以後의 中共

文革以後 繼續된 中共의 政治動向은 軍部の 影響力 除去와 文革派의 強硬路線 緩和를 위한 方向으로 推進된 結果 最近 中共의 方向을 「劉少奇 없는 劉路線」이라고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 中共을 統治하고 있는 最高政策決定 水準에 있는 派閥은 80 才의 毛沢東을 떠받고, 長期的 革命遂行過程을 통해 그의 信任을 받고 있는 元老級과, 黨幹部로 劉少奇의 휘하에서 組織에 밝은 劉少奇派, 比較的 온건路線을 걸으면서 周恩來를 떠받고 있는 行政官僚와 北京 外地의 軍幹部, 江靑을 先頭로 毛沢東에 對한 私的 關係를 活用하여 그 基盤을 굳힌 紅衛兵을 이끌었던 革命急進派로 크게 4 大別할 수 있다.

한편 軍部の 派閥과 政治派閥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表-4〉 軍区와 政治派閥圖



그 淵源이 中共軍의 初期 派閥과 聯閥이 있다. 中共軍의 派閥은 政權成立 以前 1路軍에서 5路軍까지의 系譜에 依한다. 毛沢東은 2~3路軍의 確固한 支持를 받고 있으며, 現在에도 武漢, 南京, 瀋陽, 티벳, 昆明, 成都等 全國的인 基盤을 가지게 되었고 周恩來는 5路軍의 支持를 받고 있으며 林彪는 4路軍의 支持로 한때 큰 勢力을 確保했었다. 또한 中共全土가 軍区制를 採択하고 있으므로 毛沢東

以後 中共의 權力鬭爭과 軍部の 影響力이 強化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複雜한 系列을 가진 中共軍인 만큼 毛沢東이 죽은 다음에는 各派閥間的 鬭爭이 強化되어 傳統的인 中國의 武力鬭爭과 類似한 競爭이 展開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이럴 境遇에는 各軍區가 가진 위력에 따라 그 우열이 判가름 될 것이다. 軍區別로 自治能力을 保有한 地域은 北京軍區, 瀋陽軍區가 가장 有利한 立場에 있으나, 北京軍區는 中央機構를 擁護하는 性向이 強하므로 瀋陽軍區가 가장 問題가 된다.

<表 - 5 > 軍區別 力量比較

軍 区	重工業 (順位)	主要軍需 産 業	航空機 生 産	核ミサ 일 生産	交通通信 發 達	食糧生産	自治力
北 京	2	0	0	0	上	不 足	弱
濟 南 (山東)	9	×	×	×	中	不 足	弱
南 京 (양자강下流)	4	×	×	×	上	不 足	強
広 州	5	×	×	×	上	豊 足	強
瀋 陽 (만 주)	1	0	0	0	上	不 足	強
武 漢	3	0	×	×	中	豊 足	弱
福 州	7	×	×	×	中	豊 足	中
蘭 州	6	×	0	0	下	豊 足	強
新 疆	10	×	×	×	下	豊 足	強
成 都	8	0	0	×	中	豊 足	中
昆 明	11	×	×	×	下	豊 足	中
티 벳	12	×	×	×	下	豊 足	強

그러나 毛死後에 軍指導者는 오히려 分裂意識 보다는 團結意識이 強하기 때문에 軍部는 붕괴 可能性도 있다고 많은 專門家들은 내다 보고 있다.

中共을 支配하고 있는 第一그룹은 80才의 毛沢東, 76才의 周恩來, 83才의 朱德等 그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는 者들이다. 十全大會에서 밝혀진 老, 壯, 靑의 集團指導體制를 中共政治의 核心으로 본다고 해도, 實際로 毛沢東이 죽은 다음에 누가 後繼者그룹에서 實力者가 된 것인가를 推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지금 時點에서 볼때 周恩來가 有利한듯 하지만 그 나이 이미 老齡으로 毛沢東보다 오래 살런지는 疑問이다. 또한 王洪文이 많은 革命 先輩를 물리치고 中共의 實權者가 된다는 것은 現時點에서 볼때 納得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毛의 後繼者가 되든지 간에 中國의 지난 100年間의 歷史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心理가 強하게 作用할 것으로 본다. 毛沢東의 一人獨裁는 事實上 四分五裂되어 外國의 侵入을 받던 過去 歷史를 거울삼아, 中國의 統一, 獨立, 自由의 實現을 즐기차게 試圖한 結果라 할 수 있다. 이것을 實現할 수 없던 陳獨秀 以來의 指導者는 모두 도태하고, 強力한 指導力을 가진 指導者를 中心으로 團結 全黨을 統一, 團結시켜, 이 目標을 達成할 것을 試圖했다.

強力한 敵을 對했을 때는 強力한 指導者 밑에서 團結할 必要가 있고, 그 條件에 맞는 毛沢東이 內部鬭爭에서 得勢, 獨裁者로 굳립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獨裁의 根拠로서 레닌의 프롤레타리아獨裁의 理論을 교묘히 應用하여 自己 地位를 合理化시키고, 黨의 權威와



權力を 確固히 하여 軍·政을 党에 從屬시키고, 毛沢東의 指示를 따르지 않는 者는 용서없이 彈圧되었다. 高崗, 饒漱石, 彭德懷, 劉少奇, 林彪 등이 그 犧牲의 代表的 存在라 할 것이다.

그러나 國家의 統一이 實現되고, 安定되어 建設段階에 들어가면, 이러한 戰時共産黨으로서의 態度는 取할 수 없다. 그는 항상 對外鬭爭을 내세워 對內緊張을 造成하고, 그 獨裁를 合理化시켰다. 1950년부터 3年間の 復舊期에는 三反五反運動, 對外的으로는 韓國戰을 介入, 第1次 5個年計劃은 對內 反右派鬭爭과 金門島事件의 조작, 第2次 5個年計劃 初期의 對內高恣勢, 1960年代에 大躍進運動의 失敗를 對印戰爭과 中蘇紛爭에 연계, 文革등 수많은 危機意識을 造成해 왔다. 이같은 많은 危機意識을 造成하여 毛沢東 一人獨裁를 굳히고, 黨·軍·政을 한손에 쥐고 人事를 마음대로 해왔다. 그러나 文革의 후 유증으로 地方 各省에서는 軍·黨·政의 三權을 掌握한 現役軍人이 出現했다.

北洋軍閥時代부터 國民黨時代까지 中國을 명실공히 統一하지 못한 것은 軍閥과 妥協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併合할 能力이 없었다. 國民黨은 軍政, 訓政期를 통해 형식적으로 一黨獨裁를 實現했다. 그러나 地方의 軍·政權을 掌握하고 있는 軍閥은 國民黨에 入黨은 했으나 旧地域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만약 黨의 指命이 그들의 利益에 合致되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았다.

蔣介石은 黃埔軍官學校 出身將校를 各軍閥에 派遣하여, 黨의 權威를 올리려는 指導를 했으나 이것도 失敗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國民黨內에 各派閥間的 相互關係가 黨의 運命을 定하는 重大한 모멘트

가 된 것이다.

이같은 前例를 본 毛沢東은 그 派閥을 결코 許諾치 않았다. 말하자면 軍이 黨·政의 實權을 掌握하는 것을 許諾치 않은 것이며, 이것은 中共政權이 国民党 政權에 比하여 무엇인가 정돈된 인상을 주는 理由인 것이다. 그러나 文革은 이것을 破壞하고 29省에는 軍·政·黨 三權을 掌握한 軍인이 활거하게 되었다.

이로써 林彪가 毛의 後繼者로 되고, 그를 따르는 第4野戰軍 出身의 進出이 현저히 나타난 것이다. 軍部の 影響力을 弱화시키기 위해 試圖한 中共은 全國에 걸쳐 4野戰軍을 除去키 위해 行政官僚, 黨, 他軍勢力이 合勢한 것이 林彪 失脚의 原因이 된 것이다.

요컨대 中共의 將來를 짐쳐볼때, 十全大會 以前엔 江青·周恩來의 對立이 있었다면, 이제는 王洪文, 周恩來, 江青의 三角關係를 毛沢東이 조종하면서 이끌어갈 생각할 수 있다. 王洪文의 役割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의 背景條件으로 볼때 上海를 根拠로 하는 江青, 張春橋, 姚文元의 支持를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王洪文이 上海에 基盤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副主席이 된 以上 江青派와의 關係도 달라질 可能性이 있다. 만약 王洪文의 將來가 순조롭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線을 넘을때 王洪文은 大衆路線을 위한 하나의 simbol화된채 犧牲될 可能性도 있다.

巨視的 觀點에서 볼때 막상 毛沢東이 死亡할 境遇, 中共内の 權力 鬭爭의 양상은 보다 幅넓게 展開될 可能性이 있다. 特히 準自治化되어 있는 一級軍區 指導者들의 壓力과 鬭爭도 결코 경시하지 못할 것이다. 卽 瀋陽軍區의 陳錫聯이나 南京軍區의 許世友 같은 케이스

가 바로 그렇다. 世代別 結合에서도 70代가 政權을 掌握하고 있으나 60代를 걸치지 않고 50代로 이양되려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現 60代의 指導者들은 長期 革命經驗者들이기 때문에 결코 毛가 죽은 後에 政治에 對한 欲望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中共의 다음 權力構造는 世代別, 地域別, 分野別 考慮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傳統的으로 中國政治는 分業體制(一定한 階級에 依한 政治獨占)를 形成해 왔으므로 傳統的인 中國의 政治文化를 度外視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데올로기 性向이 다분한 指導體制는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毛沢東의 死後에도 얼마동안은 毛沢東思想은 持續될 것이며, 새로 登場할 權力構造는 周恩來, 王洪文 또는 다른 人物을 中心으로 하는 集團指導體制가 登場할 것으로 보인다.

## 参 考 文 献

- Barnett A. Doak ; Cadres, Bureaucracy and Political Power in Communist China,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en Jerómer ; Thought Reform of Chinese Intellectuals, Oxford University Press.
- Arthur A. Cohen ; The Communism of Mao Tse-Tu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ay Jack ; Modern China's Search For a Political Form, Oxford University Press.
- MCFarquhar Roderick ; China Under Mao, M.I.T. Press
- Stuart R. Schram ; Mao Tse-Tung, Baltimore Pengiun.
- 岩間一雄著； 中国政治思想史研究， 未来社 .
- 市古宙三著； 近代中国の 政治と 社会， 東京大学出版部 .
- 唐繼著； 共匪暴政 十年， 中央文物交応処 .
- 人民出版社； 毛沢東選集 1,2,3,4 卷 .
- 金相浹著； 毛沢東思想， 知文閣 .
- 羅昌柱著； 中共指導思想論， 国際学術院 .
- 羅昌柱訳； 周恩来， 国際学術院 .
- Asian Survey,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World Polititics, Foreign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Issues and Studies, 中共研究, 匪情月報, 外多数参考 .

## 第七章 中共의 軍事力과 核開發



## 第七章 中共의 軍事力과 核開發

### 1. 머리말

中共은 好戰的인 性向이 다분한 共產國家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난 4半世紀를 돌이켜보건대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과 中蘇分爭에 물린 소련의 위협으로 統治權이 미치는 地域의 安全保障의 확보가 고작이었다.

中共軍의 特徵을 살펴보면, 黨의 絶對的인 指揮를 받으며, 黨委員會의 統一된 集團指導下에 있는 首長들이 責任을 지는 制度를 택하고 있다. 軍內에 政治委員制度를 택하여, 이들로 하여금 黨路線, 政策方針이 部隊內에서의 집행, 관철됨을 보증하고, 部隊內의 政治工作을 指導하는 任務를 맡게하고 있다. 軍·民團結과 官民團結을 원칙으로 하고, 部隊를 戰鬥隊, 工作隊, 生産隊의 武装政治集團으로 建設할 것을 理想으로 하고 있다. 또한 鉄의 規律에 의한 일사분란한 命令體系를 확립하여, 大衆路線을 강화하여 政治民主, 軍事民主, 經濟民主의 三大民主制度를 채택하고, 階段路線으로 部隊教育을 전지하는 것을 建軍理念으로 삼고 있다.

黨과 軍의 관계는 黨이 軍을 指導하며, 이는 ① 黨中央軍事委員會의 統帥는 軍政面에 對한 內的 指導를 관장하고, ② 軍內 政治委員에 對한 直接指導를 시행하며, ③ 軍內 黨組織에 依한 將兵의 파악이라는 형태에 依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中央黨軍事委員會는 軍令, 軍政

兩面에 걸친 最高 方針, 重要政策, 主要人事 등을 결정하고, 國家機關을 통해 이를 집행한다. 憲法上으로는 國家主席이 軍統帥權을, 國務院이 軍政을 指導하도록 規定되어 있으며, 國務院에 속하는 國防部는 軍政에 관하여서는 國務院 總理의 指揮를 받으나 軍令은 國家主席의 直接指揮를 받는다.

黨은 政治委員을 軍에 파견하여 各級 軍의 政治部에 배치되며, 黨의 軍에 對한 政治指導와 軍政治活動의 指導를 擔當하고 있다. 軍內 政治部는 軍總政治部에 屬하며, 軍總政治部는 黨 中央軍事委員會의 指揮를 받는다. 同一한 各級 軍의 政治委員과 軍事指揮官은 共히 部隊의 頭으로써 部隊指揮의 責任을 진다.

그러나 이들 兩者間에는 業務가 分擔되어 있어, 上級의 命令, 指令 및 同級 黨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軍事活動에 對해서는 軍事·指揮官이 執行의 責任을 지고, 政治活動이나 思想的인 것은 政治委員이 責任을 지고 있다.

## 2. 軍事力의 概況

中共의 軍事力의 現況은 正規軍은 315萬으로 全人口比에 전주어보면 美國은 1.7%, 소련은 1.36%인데 비해 中共은 0.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中共特有 民兵制를 채택하여 基幹民兵 3,000萬名에 普通民兵 2億이라는 어마어마한 兵力을 保有하고 있다. 中共은 量的 軍事超大國이지만 現尙의 組織과 配置는 防禦力 確保에 급급하고, 軍의 現代化를 시급히 추진하지만 資本, 資源, 技術 不足으로 곤경에 빠져 있



는 상태이다.

世界 最大의 地上軍을 保有하고 있으며 第2 砲兵이라는 미사일부대를 가지고 있다. 中蘇間엔 世界 最長의 國境線에서 各軍 100 餘萬名이 대치하고 있으며, 軍需工業도 상당히 발전하여 對戰鬪戰車, 장갑차등을 大量수출하고 있다. 海軍의 戰力을 보면 2,000 餘척의 中型級 以上の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1,000 km의 사정거리를 가진 극동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감치한 잠수함이 취항하고 있다. 美國防省 情報에 의하면 中共은 現在 大型原子力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하며, 中共海軍의 特徵도 방어위주의 戰鬪用 艦艇이 主力을 이룬다고 한다.

現在 中共의 空軍은 미그 15機, 17機, 21機 등이 大部分으로 3,500 餘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964년에는 미그 개량기인 F-9機의 生産水準이 소련水準을 도달했다고 한다. 中共은 1971年 以來 航空機를 年間 300~400機를 生産하고 있으며 Tu-34 重爆擊機로 大量生産하고 있다. 中共의 空軍도 戰鬪機 위주의 空軍이다. 核武器의 現況을 살펴보면, 1973年 6月 現在 15回에 걸친 核實驗을 했고, 2차례의 人工衛星의 實驗을 했다. 現在 소련, 日本, 구라파의 當擘 목표의 ICBM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며, 新疆, 吉林省에 미사일 試驗場을 設置하고 있는 第3位의 核保有國이다.

### 3. 中共軍의 沿革

朱德과 毛沢東이 主導한 井崗山鬪爭期의 1928年 3月로 中共軍의 創軍이 소급된다. 國共合作에 結렬에 쫓겨 井崗山에 主둔한 毛沢東의

勞農紅軍은 소비에트式 政治體制를 이식함으로써 黨의 支配에 있는 軍을 養成하였다. 1931年 11月 瑞金에서 갖은 第一次 中央소비에트大會時인 30萬軍으로 성장했으나 各地에 창궐하는 共產軍의 討伐인 五次에 걸친 剿共作戰에 몰려 1935年 9月 保安에 온신탈 때는 3萬名으로 줄어들었다.

抗日合作으로 紅軍을 해체하고, 國民軍에 편입시켜 葉劍英산하에 3個師團, 92,000名으로 편성하여 화북지방에 진출케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華北地方을 근거지로 하여 中共軍은 表面合作, 內面發展 戰略으로

라. 중공군의 성장 (1937-45)

表 1

년 도	8 로군	신 4 군	계	증 가		회 생		총정발
				8 군	4 군	8 군	4 군	
1937	80,000	12,000	92,000	-	-	-	-	-
1938	156,700	25,000	181,700	76,000	13,000	12,539	59,085	117,011
1939	270,000	50,000	320,000	113,300	25,000	46,079		199,150
1940	400,000	100,000	500,000	130,000	50,000	49,187	59,085	243,958
1941	305,000	135,000	440,000	95,000	35,000	59,732		14,503
1942	340,000	110,960	450,960	35,000	24,000	63,847	17,601	92,408
1943	339,000	125,892	464,892	1,000	14,932	29,485	16,029	59,446
1944	320,000	153,676	474,476	18,200	27,784	28,919	17,073	55,576
1945	600,000	260,000	880,000	279,200	106,324	33,838	11,091	430,453
계 1937-45	-	-	-	520,000	248,000	323,628	120,879	1,212,505

出處 : John Gittings: The Role of Chinese Army P. 85

크게 成長할 수가 있었다. 1940年 新四軍과 8路軍을 合한 軍隊數는 13萬으로 성장했고, 1945年에는 88萬으로 성장했다.

日本의 항복으로 國共軍의 內戰時에는 中共은 軍事管別地區를 확정, 中央企劃區 山西軍區, 瀋陽軍區의 3區로 편성했다.

1946年 6月에는 127萬 8千名으로 급성장하는가 하면 1948年 6月에는 400萬으로 成長했고, 1950年 6月에는 500萬으로 되었으며, 1953年에 들어서는 軍費의 과대지출을 막기위한 減軍作業으로 350萬線으로 축소되었고 1963年에 들어서는 320萬線의 軍隊를 유지하게 되었다.

中共軍은 1940年 第3次 國共協商時부터 攻擊의 인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即 延安에 물렸을때는 거의 全滅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抗日合作으로 소생발전을 기할 수가 있었고, 1943年에 들어서부터 美國의 착각을 유도하여 國府와 美國을 교모히 이간시킴으로써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 二次大戰이 종로되자 만주지역에서 日本 關東軍의 장비 일체를 인수하여 크게 발전, 中國本土를 석권하게 되었다.

마. 중공군의 성장 (1944-50)

表 2 - 1

년  도	정  규  군	계  린  타  군	계	년  간  증  가	년  간  회  생
1946.6	612,000	1,278,000	1,278,000	-	-
1947.6	1,000,000	950,000	1,950,000	672,000	357,000
1948.6	1,490,000	1,310,000	2,800,000	850,000	542,000
1949.6	2,000,000	1,900,000	4,000,000	1,200,000	533,300
1950.6	-	-	5,000,000	1,900,000	89,600
1946-50	-	-	-	3,722,000	1,522,500

出處: John Gittings; ibid

出處: John Gittings:ibid

表 2 - 2

바. 중공군의 성장 ( 1950 - 58 )

년 도	총 계	징 모	계 대
1950	50,000,000	-	-
1951	-		
1952	-	2,940,000	1,750,000
1953	3,500,000		
1954	-	1,820,000	830,000
1955			500,000
1956	2,750,000	740,000	500,000
1957	2,500,000	800,000	500,000
1958	2,500,000	500,000	500,000
1950-8	-	1,800,000	4,580,000

1946년에 이르러서는 傳統的인 中國의 軍事概念에 立脚하여 軍區制를 채택하였다.

사. 중공의 국방비 ( 50 - 60 )

表 3

년 도	100 억원	예 산 비 %
1950	2,827	41.53
1951	5,061	42.52
1952	4,371	26.04
1953	5,680	26.43
1954	5,814	23.63
1955	6,500	24.30

년 도	100 억원	예 산 비 %
1956	6,117	19.91
1957	5,509	19.24
1958	5,000	15.12
1959	5,800	11.2
1960	5,826	8.3
1970	-	5-6로추산.

出處 : John Gittings : Op. Cit P. 205

中共의 軍事費는 外部에서 알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軍事費의 산출방법이 대단히 어렵다. 1950년에 總豫算의 41.53%로 나타났지만 軍區單位의 各種軍事費를 계산한다면 60% 이상인 軍事費로 活用된다고 추측하고 있다.

1950年 新疆과 티벳地方의 解放과 全國에 散在한 國府 敗殘兵을 제거함으로써 軍隊의 감축이 논의되었지만 當時로는 軍隊를 生産活動에 活用, 豫算을 절감할 것을 試圖했다. 그러나 韓國戰爭의 발발은 軍縮問題를 연기시켰고, 1953年 韓國戰爭의 休戰으로 軍隊를 年間 2個月以上 生産勞動에 活動시킬 것을 시도하였다. 이같은 結果로 1954년에는 豫算의 23.8%로 감소시켰고, 繼續的인 감군과 生産에의 参加로 1960년에는 8.3%로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70年度의 中共軍事費를 外部 專門家들은 30% 이상의 예산인 100億弗 程度를 消費하고 있다고 分析하고 있다.

軍事費의 절감요인은 무엇보다도 감군에 기인하며 또한 軍隊의 生産化計劃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中共은 방어위주의 軍事

概念으로 軍區制를 活用하고 있는바, 正規軍의 人口比를 감소하면서 全體 人民의 軍事教育으로 民兵制를 채택, 平和時에는 生産에 活用시키고 戰時에는 戰爭動員을 効率的으로 活用할 것을 試圖하고 있다.

中共의 軍事行政을 살펴보면, 私兵인 경우에는 18~20歲에 兵籍申告를 하게되고, 이때부터 兵力의 의무가 부과된다. 大學生은 在學時의 訓練과 일정한 軍事訓練을 經과하여 將數로 任命된다. 各軍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4~5年의 軍服務를 마친다음에 民兵에 편입되며, 動員令을 내렸을 경우는 全國의 40歲 以下의 將丁을 動員하여 現役化한다.

各軍의 服務年限

		1955	1965 改正
陸 軍	보 병	3	4
	특수부대	3	5
	경비병	3	5
空 軍		3	5
海 軍	연안부대	5	5
	함 대	5	6

1953年 以後 軍隊의 수적절감은 1955年에 이르러 服務年限의 단축을 초래했으며, 1965年에 이르러 軍隊의 수적제한의 완성은 질적향상의 必要性이 강조되어 복무연한이 늘어남 듯하다. 수적제한과 복무연한의 연장은 國民既兵制를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現在로서는 年間 80萬名 정도의 장정이 제대되고 있다 한다.

한편 將數의 昇進上限年限은 小尉 30歲, 中尉 30歲, 大尉 35歲,

小領 40歲, 中領 45歲, 大領 50歲, 上將 50歲, 准將 55歲, 少將은 60歲로 되어 있다. 尉官의 領官으로의 승진요건은 3年以上의 服務者로서 24~6個月 前에 추천을 받아 1~2年의 教育後에 승진시킨다. 그리고 상한년한이 넘어도 승진되지 못한자는 除隊된다. 同一階級에서 最大 근무연한은 5年으로 되어 있으며 승진추천자는 元老 革命隊와 系列的 추천에 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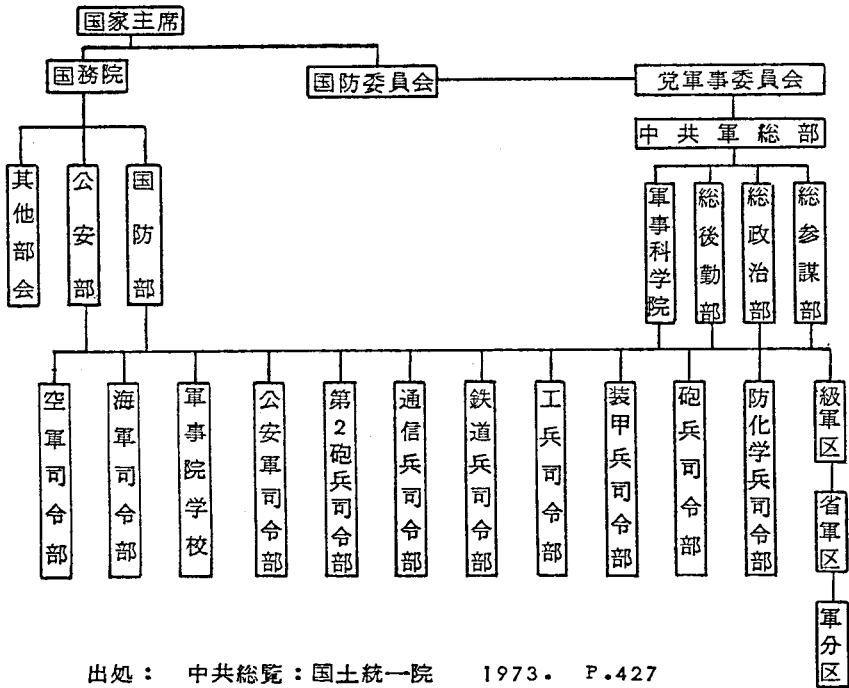
#### 4. 國防機構

中共黨 軍事委員會는 黨의 軍에 對한 最高統帥機關이다. 黨의 政治的 통제로 一元化된 命令체제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비에트式 軍指揮體制로 軍隊의 영향력 극대화를 방지토록 시도하고 있다. 軍部에서도 政治委員이 最終·政策決定權을 보유하고 있다.

中央軍事委員會는 黨이 軍을 支配하기 위한 方法으로써 武装力을 통수하고, 軍作戰을 指揮한다. 戰略方針과 作戰面을 擔當하고, 軍事制度의 계정, 軍의 近代化와 訓練에 對한 감독, 國防工業 및 運輸關係의 建設計劃을 수립하며, 軍에 對한 政治工作을 계획하고, 軍首腦部에 對한 人事移動을 관장하므로써 軍의 實權을 장악하고 있다.

國防委員會는 實권이 없는 軍事諮問機關이다. 國防部는 弁公廳, 外事局, 政治委員會로 구성되어 있고, 軍의 編成, 裝備의 改良이나 更新, 國防施設의 건설, 軍事關係 法令의 制定, 兵器의 개발등에 關한 當核 施策을 계획하고 樹立하는 일을 한다. 또한 中共軍 總司令部는 總參謀部, 總政治部, 總役勤部로 구성되어 있고, 實質적으로 軍을 統率, 指揮

中共軍의 軍事組織 表 4



出处： 中共總覽：国土統一院 1973. P.427

指揮하는 일을 이곳에서 맡고 있다.

中共軍 組織上의 特徵은 軍区制를 採択하고 있다는 점이다. 軍区도 1級軍区, 省軍区, 軍分区 等으로 區別되어 있다.

一 級 軍 区 表 表 5

( 73.2. 現在 )

軍 区	司 令 官	管 掌 地 区
北 京	鄭 維 山	北京衛戍区, 天津警備区, 河北京 軍区, 山西省軍区, 內蒙古軍区.



軍 区	司 令 官	管 掌 地 区
審 陽	陳 錫 聯	黒龍江省軍区，吉林省軍区， 吉林警備区，遼寧省軍区。
濟 南	楊 得 志	山東省軍区
南 京	許 世 友	南京警備区，江蘇省軍区， 浙江省軍区，杭州警備区， 安徽省軍区。
武 漢	会 思 玉	湖南省軍区，武漢警備区， 河南省軍区，鄭州警備区。
蘭 州	張 達 志	甘肅省軍区，寧夏軍区，陝 西省軍区，青海省軍区。
福 州	韓 先 楚	福建省軍区，江西省軍区， 南昌警備区。
広 州	丁 盛	広東省軍区，広州警備区， 海南軍区，広西軍区，湖南 省軍区。
成 都	梁 興 初	四川省軍区，成都警備区， 重慶警備区，西藏軍区，拉 薩警備区。
昆 明	王 必 成	雲南省軍区，貴州省軍区。
新 疆	龍 書 金	新疆省軍区

1 級軍區는 中共安保의 血脈이며 , 中央機關인 國防部와 省級軍區를 연계시키는 中間機構이다 . 特히 이것은 省單位 以下の 軍區에 對한 直接的인 統制와 감독을 맡고 있다 . 當해 地域의 주둔군을 포함한 全軍의 指揮를 맡고 있으나 , 陸軍에 對한 統制機能은 比較的 強力하지만 , 海軍과 空軍에 對해선 行政的인 役割外에는 別다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 軍區司令部는 中央機關에 상응한 權限을 보유하지만 中央軍은 當該地域의 作戰, 訓練 및 行政的 統制를 담당하고 있다 . 기갑兵 砲兵, 工程兵은 特殊參謀部와 軍區司令部의 二重統制를 맡고 있다 . 最近에 이르러 軍部努力의 擴張과 軍區의 準自治化 機能으로 中央軍事委 責任者級은 그 努力억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

## 5. 各軍의 編成

### 가. 陸 軍

中共軍의 正規軍의 總兵力은 315 萬名으로 추산하고 있다 . 그 中 大部分인 260 萬名은 陸軍으로 步兵 110 個師團 , 裝甲兵 5 個師團 騎兵 3 個師團 , 對戰車砲兵 5 個聯隊 , 工程兵 67 個聯隊 , 自動車 輸送 34 個聯隊 , 通信二個聯隊 , 鐵道兵 11 個師團 , 辺方部隊라 불리는 團境경비대 19 個師團과 30 個聯隊가 別途로 있다 . 總陸軍兵力은 11 個兵科에 170 個師團 , 138 個聯隊로 編成되어 있다 . 兵科에 따라 裝備, 火力이 각각 다르다 . 葉劍英이 밝힌 바에 依하면 , 「各部隊의 編成裝備는 任務나 地形과 관련해서 定할 必要가 있다 . 全級의 編成裝備는 勿論 統一하여야 하지만 具體的으로 地域에 依해서 定해야 한다 . 山岳의 師團은

平原의 師團과는 다르며 華北平原의 部隊는 河川이 많은 地域部隊와 同一하지는 않다.」

龐大한 中共軍을 全體로 볼때, 상당히 近代化된 部隊와 아주 낮은 수준의 部隊까지 그 間에 여러가지의 部隊가 있을 것이다.

自由中國의 軍事情報에 依한 研究發表에 依하면 甲, 乙, 丙의 3形態로 編成되었다.

甲編成師團은 가장 近代化된 部隊이며, 1個師 兵力은 約1萬3千名으로 構成되어 있고, 步兵 3個聯隊, 砲兵 1個聯隊, 戰車 1個聯隊가 기간이며, 對戰車大隊, 高射砲大隊, 工兵大隊, 通信大隊, 自動車輸送大隊, 등이 부속되어 있다. 砲는 76미리 自走砲를 각기 12門씩 장비한 것 외에 57미리와 85미리의 對戰車砲를 갖고 있으며, 戰車 32輛과 裝甲車 10輛을 갖고 있다. 輸送力으로는 트럭과 各種車輛을 합하여 約600輛을 保有하고 있다.

乙編成師團는 甲編成師團과 그 장비가 같으나 좀 劣勢인 것이다. 戰車, 裝甲車의 保有數는 甲師團과 同一하나, 火砲는 122미리 級이 아니고 76미리 自走砲와 85미리 對戰車砲를 가질뿐이다. 輸送力은 自動車 約 200량이 넘지 않으며, 不足量은 馱獸 1,300頭로 代置하고 있다.

丙編成師團은 1萬名으로 甲, 乙에 비해 小規模의 戰車, 裝甲車가 없고, 火砲도 적고 步兵部隊의 重火器도 훨씬 적다. 이들 3種類의 師團을 전력을 비교하면, 車輛에 依한 步兵部隊의 기동력도 다른 型の 사단에 比하여 높다. 이 師團는 平原地帶의 作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乙師團은 甲師團에 比하여 火力도 弱하고, 將兵의 기동력도 약

하고, 복잡한 地形의 作戰에 活用할 수 있는 獸獸를 많이 가지고 있다. 丙師團은 큰 火砲, 戰車가 없고, 戰力은 甲, 乙師團보다 적고 山岳地帶作戰에 적합한 部隊이다. 東北方面에서 몽고, 신강等 中蘇國境地區作戰에 적응하는 것은 甲編成師團이다. 中共陸軍의 110師團中 甲師團은 約60%程度인 約70個師團의 장비는 우수한 부대로 추측되고 있다.

中共軍은 5個團의 戰車師團을 保有하고 있으며, 各師團은 裝甲車部隊 2個聯隊, 步兵 1個聯隊가 기간을 이루고 있다. 各師團의 戰車保有數는 100輛程度이며, 大部分의 戰車는 蘇聯의 T-54型 戰車가 主力이다. T-54型 中戰車는 36톤으로 100밀리砲를 갖추고 있다. 소련에서는 1953~54年경에 大量으로 T-54型 戰車로 부대장비가 개시되어 그때까지 主力戰車인 T-34型과 交替한 우수한 性能을 지닌 戰車이다.

그후 10年이 지난 1963~64年경에 다시 T-62型이 出現하여 戰車로 T-54戰車에 代替하였다. 中共은 소련에서 T-34型 戰車를 공여받고, 그것이 中共軍의 主力戰車가 되었으나 1959年頃부터 T-54型 戰車의 自體生産이 시작되었다. 中共軍에 T-54型 戰車가 처음 出現한 것은 1959年10月1日 中共政權成立 記念日의 퍼레이드이며, 이때 수 10량의 T-54型 戰車가 天安門앞 廣場을 行進했다. 中共이 T-54型을 T-59型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正式으로 生産을 開始한 것은 이 戰車가 새로 公開된 1959年으로 보아도 無방할 것이다.

1966年3月 이 T-59型戰車는 파키스탄 陸軍記念日의 퍼레이드에

出現했다. 이 페러이드에 나타난 T-59型 戰車는 中共이 파키스탄에 供與한 一部로서 當時의 印度 報導에 依하면, 中共은 파키스탄에 T-59型 戰車를 200輛 公여했다고 主張했다. 中共이 T-59型 戰車를 外國에 까지 公여한 것은 이 生産이 순조로우며, 또한 大量 生産이 可能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一說에 依하면 最近 中共의 戰車 生産能力은 年間 200輛 以上 生産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이 事實이라면 1959年 以後 現在까지 져어도 2,000輛 以上の 戰車가 生産된 것으로 된다.

中共이 서두르고 있는 陸軍 現代化計劃은 步兵의 裝甲化에도 나타나고 있다. 先進國의 軍隊에서는 여러가지 步兵과 車를 타고 運搬되는 步兵, 裝甲車를 타고 가는 步兵으로 進歩하고 있다. 中共도 裝甲軍의 輸送車의 自國生産을 추진하고, 이미 一部 裝甲師團內의 步兵隊는 이 裝甲兵員輸送車가 完全히 行하여 지고 있다고 專門家들은 추정하고 있다.

2個師團의 空艇隊를 保有하고 있으나 이 部隊의 空輪用 輸送機는 充分치 않다. 수송기는 軍用, 民用을 합하여 수백기로서 大砲, 戰車를 수송할 수 있는 大型수송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中共의 空艇部隊는 重裝備를 갖추고 있지 않다. 中共공정대는 美, 蘇처럼 師團單位의 중장비한 大部隊를 한꺼번에 散後方에 投下할 수 있는 能力은 없다.

自由中國側의 研究에 따르면 中共의 公정대가 한꺼번에 空輪할 수 있는 兵力은 最大 5,000名 程度라고 한다. 中共이 美蘇水準의 公정대를 갖추는데는 앞으로도 相當한 時間이 要할 것이다.

中共이 가진 辺方部隊는 國境地帶와 海岸地帶에 배치하고 있는 部隊로서 東北地區와 新疆, 우수리江邊의 中蘇國境地方에 集中的으로 배치되었다. 最近 情報에 依하면 소련군은 全軍의 兵力을 中蘇國境地帶에 배치하고 있다고 하며 中共도 48 個師團의 正規軍과 相當量의 生産兵團을 集中的으로 配置하고 있다고 한다. 一說에 依하면 中蘇國境地方에 兩國이 各各 100 萬大軍을 集結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現象은 最近에 두드러지게 強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最近에 널리 퍼지고 있는 소문에 依하면 앞으로 18 個月 以內 中蘇戰爭이 不可避하다고 한다. 또한 지난 8 월에 열린 十全大會 公報에서도 이같은 危機說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미를 엿볼 수 있다. 大體적으로 소련이 中蘇國境地方에 軍隊를 集結시키는 것은, 유럽 安保會議의 성공으로 유럽지역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인할 것이다. 널리 알려졌던 추측이었지만 1969 年 中蘇國境武力衝突은 中共의 成長을 견제하려는 豫防戰爭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中共이 經濟的 落後性이나 제반 어려움을 무릅쓰고 集中的으로 개발하고 있는 核武器에 관계된 사항이다. 이것은 現在까지도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中共은 短距離와 準距離 탄도탄은 多量보유하고 있으나 中距離 미사일로서 모스크바와 소련의 主要都市를 攻擊할 수 있는 能力의 미사일은 1973 ~ 74 年경에 다량生産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76 年경에는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依하면 中共은 소련을 공격할 수 있는 核武器를 現在 다량 保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이같은 水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또한 中共의 核開發이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

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회에 소련으로서는 中共을 공격하므로써 核施設을 대량파괴하여 버릴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共產圈에서 중주국적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中蘇國境地方에 소련군의 집결은 또한 중소국경지역의 小數民族인 소련의 分散防止의 戰略도 개제하고 있으며, 아시아地域에서 中共을 포위함으로써 中共을 계속고립시키고저하는 의도일 것이다.

中共軍은 正規軍이 아닌 新疆이나 內蒙古地方, 그리고 黑龍江地區等에는 「生産建設兵團」이라는 地區兵 形式의 武装조직이 있다. 이들은 自區들의 農場에서 경작하고, 食糧을 自給自足하여 辺方地區 경비에 임하고 있다. 中共이 新疆地區를 해방했을때 同地區에 있는 國府軍을 이런 形으로 改編하여 新疆의 開發과 경비에 임하게 한 것이 그 始初라 한다.

中蘇關係가 험악하던 1969~68年頃부터, 內蒙古, 黑龍江등을 비롯하여 主로 辺境地區에서 生産建設團이 出現되었다.

當時 30萬 前後이든 新疆地區의 同兵團은 現在 50萬이며 全國各地區의 生産兵團을 합치면 60~70萬名에 이른다. 辺方部隊와 함께 中蘇國境의 有力한 경비부대이다.

中共軍은 在來式 性向이 다분한 前現代의 軍隊이며, 1950年代의 소련과의 合同軍備現代化 計劃은 50年代 終盤부터 援助中斷으로 失敗했다. 軍備現代化와 軍裝備國産化計劃은 産業發展의 침체를 초래했으며, 軍事費의 과중부담 억제와 軍費의 自給을 위한 軍隊의 生産要員化計劃을 추진하여 왔다. 中央軍事委員會, 總參謀部, 省軍區等의 復合指導體制는 混亂수반의 동기가 될 것이며, 黨에 의한 軍隊, 行政權의 效率的인

統制平段은 毛沢東式 指揮體系의 소산이며, 1級軍區의 管轄지역방대성은 軍區司令官의 省行政權의 간섭을 수반한 軍의 우월정치가 불가피하게 초래되며 各種 兵器, 火器, 武器는 自給生産에 倚점을 두고 있다.

#### 나. 海 軍

中共의 海軍은 北海, 東海, 南海의 3個의 海洋艦隊와 1個 潛水艦司令部로 편성되어 있는바 그 總兵力은 海軍 航空隊 1萬6千名, 陸戰隊 11萬9千8百名을 포함하여 總兵力은 27萬6百餘名이 달한다. 船舶保有數는 作戰艦 111隻, 上陸 輸送艦艇 540隻 및 미사일 潛水艦 (G型) 1隻을 포함하여 總 1,540隻, 約 38萬6千餘噸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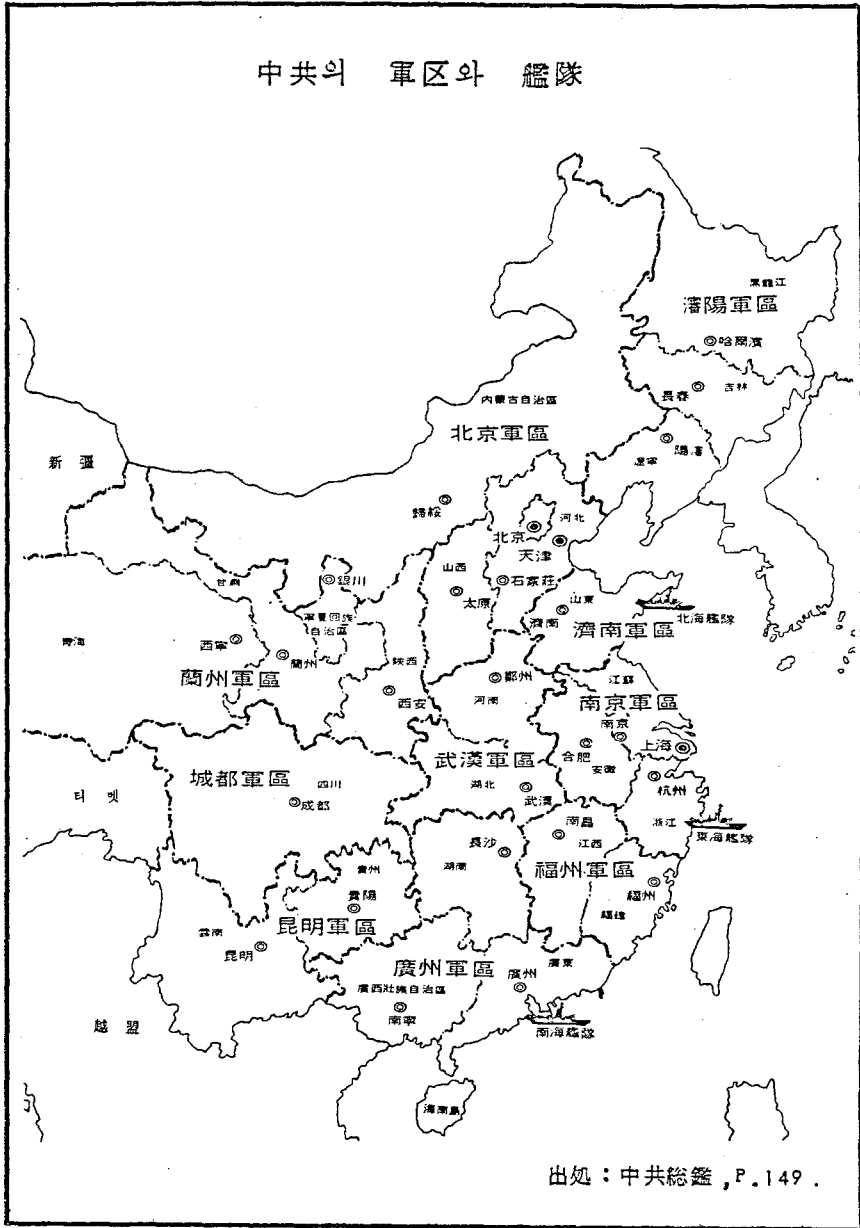
中共 海軍은 지금까지 沿岸防備型의 海軍으로 大型艦船은 거의 없고 小型艦艇이 主力을 이루고 있다. 現在 中共은 합정의 國産化를 시도하고, 3000餘噸급까지 自國生産을 하고 있다.

中共의 3大艦隊는 大陸의 연안을 3大分하여 北海, 東海, 南海艦隊에 各各 1個艦隊가 배치되어 있다. 北海艦隊는 各種 艦艇 270隻을 보유하고 主로 韓中國境地方인 압록강어귀에서 揚子江 以北 海岸의 防禦任務를 담당하고 있는바, 함대기지는 靑島에 있고, 그 主力은 旅大와 靑島地域에 集中的으로 배치되어 있다.

東海艦隊는 都合 800隻의 各種 艦艇을 保有하고 있고, 江蘇省 海復鎮에서 부터 廣東省 南奧에 이르는 防禦任務를 담당하고 있다. 艦隊基地는 上海이고 그 主力은 上海와 舟山列島 附近에 配置되어 있다. 南海艦隊는 都合 400隻의 各種艦隊를 保有하고 있는바, 廣東省 南奧로 부터 中·越國境地方인 北侖江까지의 大陸 南端 南支郡海 地域에 對한



中共의 軍区와 艦隊



防禦任務를 담당하고 있다. 艦隊기지는 黃埔, 洪江이며 廣東省의 洪江과 海南島의 榆林港에 集中 配置하고 있다.

中共은 1958年 以後 自國 設計에 依한 高速초계링이 계속 건조되고 있으며, 最近 排水量 30 屯, 速力 30 노트 以上の 水中翼어뢰정도 生産되고 있다 한다.

中共의 海軍에서 注目할 것은 潛水艦이다. 現在 中共은 40 隻을 保有하고 있으며 그 主力은 W型 潛水艦과 R型의 潛水艦으로 이것 모두 소련의 中型航海潛水艦으로 유명하나, R型 潛水艦은 1萬3000海哩의 航속거리를 가지며, R型은 W型보다 그 性能이 우수하다. G型이라는 미사일 發射管 3個를 가진 潛水艦 1隻도 취항하고 있다. 이 潛水艦에 積재한 미사일은 1,000 km로 극동全域을 커버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最近 情報에 依하면 中共은 原子力潛水艦 건조에 착수하고 있다 한다.

1971年 6月 5日 워싱턴, 포스트紙에 依하면 美정찰기의 사진판독에 依하면, 中國은 最初의 原子力潛水艦을 건조하고 있다고 生覺된다. 이것은 原子力추진장치의 수용시설을 保有하고, 미사일 발사관이 아닌 攻擊用潛水艦으로 보인다고 한다. 美國防省 代弁人도 「可能性은 10分 있으며, 中共이 大型潛水艦을 건조하고 있더라도 意外는 아니라」고 肯定的으로 대변했다. 이같은 一連의 상황을 비추어 볼때 中共은 1971年 부터 原子力潛水艦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며, 潛水艦의 戰力增強에 對한 執念과 戰鬪力의 向上度를 대충알 수 있다.

中共海軍은 艦隊以外에도 陸上기지에 雷裝한 IL-28型 輕폭격기 約 150機와 미그-17 防空戰鬪機等 600機の 海軍航空隊가 있다. 中共이

保有한 艦艇의 種類와 能力으로 보아 外洋에 進出하여 기동작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最近의 건조상황으로 보아, 그 戰鬥能力의 擴大되는 傾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空 軍

中共 空軍은 海軍航空隊의 600 臺를 제외하고, 總 3,500 餘臺의 各種 航空機를 保有하고 있다. 戰鬥 3,300 臺, 폭력기 300 臺, 輸送機 200 臺, 헬리콥터 100 臺 및 기타 경찰기, 水上機 約 200 臺로서 30 餘個師團, 總兵力 38 萬名으로 구성되어 있다.

中共 空軍은 主力이 戰鬥機로서 MIG-15, 17 機가 1,700 臺 MIG-21 機가 다수있다. 폭격기는 IL-28 型 경폭격기가 空海軍 合計 300 機 TU-16 型 폭격기가 100 臺 以上으로 되어 있다.

中共空軍은 戰鬥師團 8 個師團, 攻擊師團 4 個師團, 爆擊師團 5 個師團 輸送師團 1 個師團, 獨立聯隊 4 個聯隊로 編成되어 있다.

中共의 航空機 生産過程을 살펴보면, 1956 年 6 月 瀋陽航空機 工場에서 처음으로 MIG-17 型 戰鬥機 製作에 성공하게 됨으로써 航空機의 自國生産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것은 1957 年 9 月부터 量産하게 되었고, 1959 年에는 月産 25 機의 能力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0 年 소련의 軍事援助中斷時까지 中共은 約 100 臺의 MIG-19 型 戰鬥機와 若干의 MIG-21 型 戰鬥機의 公여를 받고 있었으나 이중 MIG-19 型의 모방生産을 서두르게 되었다. MIG-19 型은 1962 年 試作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어 1964 年부터 量産에 들어갔다. 同年 여름경에는 瀋陽의 MIG-19 型 工場은 소련수준의 量을 生産할 수 있었다 한다.

1971년에 와서는 年間 300臺의 生産能力을 갖게되었다. 더욱이 MIG-19型이 改良型이 수년전부터 生産되고, 이것을 美國側 專門家들은 F-9型 戰鬥機라고 칭하고 있다. F-9型은 中共의 独自の 設計에 依한 戰鬥機라 할 수 있으나, 그 性能은 소련의 MIG-19型보다 약간 進歩되어 있고, 原子爆彈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最近에 와서는 TU-16型 中爆擊機도 生産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1970年9月13日 「워싱턴·포스트」紙에 依하면 TU-16型機의 生産能力은 月産4~5機로 전하며, 1972年2月 當時 여름까지는 상당한 量의 TU-16 폭격기를 保有할 것이라고 報告했다. 1971年度 對蘇貿易量을 보면 1970年 4,500萬弗에서 1億3千5百萬弗로 늘었고 特히 타보트롭기, 헬리콥터, 핵탄재 제트기의 샘플을 도입한 것으로 보아, 보다 現代的인 航空機 生産에 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中共空軍은 機種面에서 戰鬥機가 圧倒的으로 많고, 폭격기는 적다. 이런 側面에서 볼때 中共空軍은 防空의 性格을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最近 航空機 生産方向은 防空성에 攻撃的 性格을 附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라. 民 兵

中共의 民兵組織은 中共 特有的 武裝組織이다. 抗日鬪爭期로 부터 正規軍의 補助手段으로 民兵을 育成해 왔다.

大戰이 끝날무렵 民兵數는 286萬餘名이였고, 1951년에는 1,280萬名, 1958年 人民公社의 창설과 더불어 全民皆兵政策에 따라 급속히 增加하였다. 1960年4月 林彪는 「우리는 國防建設의 改善, 軍의 近

代化 建設에 全力을 기울려 강력한 正規軍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國防建設의 일면에 불과하고, 다른 일면은 民兵建設을 強化하고 民兵師團을 大大的으로 건설하여 全民皆兵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國防에 있어서 民兵의 地位를 명확히 했다. 또한 1965年 9月 21日 人民日報는 「民兵建設의 強化는 美帝國主義의 侵略戰爭擴大에 대처하는 極히 重要한 조치이며, 民兵建設이 成功하여 億萬의 人民이 組織되고, 武裝되어 있으면 美帝國主義가 전쟁을 우리 머리위에 까지 가져와도 우리 正規軍과 民兵遊擊隊는 서로 正規戰과 유격전을 연결, 수억의 人民, 億萬의 民兵이 각처에서 사격하고, 지뢰를 묻고 적을 人民戰爭의 大海原속에 묻을 수 있다.」고 호언했다.

民兵은 基幹民兵과 普通民兵으로 구분되며, 男子 16~30歲, 여자 16~25歲에 해당하는 者를 기간민병이라 하며, 그 數는 3,000萬名으로, 中共黨에 忠誠을 맹세한 身體健康한 男女로 復員軍인과 除隊兵士는 基幹民兵의 中核이 된다. 普通民兵은 남자31~45歲, 女子 26~40歲로 편성되며 그 總數는 2億을 上廻한다.

장비는 農村, 機關, 工場, 學校等에 따라 다르며 地域에 따라서도 大小 差異가 있다. 防衛上 主要地域 民兵은 박역포, 重機關銃等的 우수한 兵器로 무장되어 있으며, 福建省 沿海地區 民兵은 野砲 訓練을 받고 있다. 內陸地方의 農村의 어떤 地域 民兵은 곤봉이나 창을 가진 民兵도 있다.

訓練도 農閑期, 生産의 여가등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총검술, 폭파 수류탄 투척, 지뢰부설, 등산, 수영등의 訓練을 받고 있으며, 訓練科目으로는 政治, 思想教育, 基本訓練, 部隊訓練, 警戒, 連絡訓練, 戰鬪訓練等을

설정하고 있다.

民兵이 現代戰에서 어느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는 의문시 하는 측도 있으나, 일단 大陸에 발을 디딘 敵軍에 對한 民兵의 戰力은 洪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戰鬪가 展開되는 後方에서는 正規軍에 對한 物質수송, 鐵道道路, 교량정비, 前線地區에서는 正規軍의 有力한 豫備兵力이나 支援部隊가 될 것이다. 또한 敵後方地區에서는 遊擊戰을 展開하여 敵을 교탄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學生의 軍事訓練도 強化하여 各級學校를 分隊, 小隊, 中隊, 大隊의 中共軍 編制에 따라 조직했으며 學生의 團結과 戰鬪意識의 強化를 爲해 學生, 教員, 勞動者의 三結合을 의침으로써 이른바 毛沢東思想 宣傳隊를 편성하여 晝일적인 지도체계를 強化하고, 軍事訓練 科目을 설정하여 政治, 思想 教養科目을 비롯하여 広範한 軍事訓練科目을 설정하고 있다.

## 6. 核開發

政權 成立 即後 中共은 全國에 散在한 기존 軍需工業시설을 가동함으로써 小火器, 手榴彈, 地雷 등을 自力으로 生産하고 기타 重裝備 등을 건리품으로 충당했다. 韓國戰에 介入하여 現代 兵器로 무장된 UN軍과 人海戰術로 맞섬으로써 많은 人命被害를 입게 되었으나, 소련은 그의 代價로 10億弗에 相當하는 軍援을 中共에 제공함으로써 中共軍을 近代武器로 장비시키는 동시에 全域에 산재한 兵器廠 및 修理廠을 新設하거나 보수하여 軍備工業의 기초시설을 建設하는데 主力했다.

中蘇紛爭이 격파됨에 따라 소련은 一方的으로 「國防 新技術에 關한

協定」을 파기함으로써 中共의 軍需産業은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中共은 自力更生의 구호를 내걸고 独自の인 軍需工業의 發展을 위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各種 兵器와 核武器에 이르기까지 自力으로 生産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現在 中共은 全域에 散在한 軍需工業시설로써 兵器製造 및 修理廠 140 個所, 항공기 제조 및 修理廠 30 餘個, 造船所 30 餘個, 自動車製造 및 修理廠 30 餘個所等 240 餘個의 軍需工場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은 各種 軍需工場을 保有하고 있는 中共은 陸軍장비로 155m /m 以下, 各種 步兵火器까지 海軍장비로는 G級 미사일 潛水艦을 空軍장비로는 Mig-21, F-9 超音速 제트기까지 量産하여 在來式 장비를 먼저 못한 軍장비 改良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다.

中共의 軍事力中 注目되는 것은 核미사일의 威力이다.

1950年 12月 中共은 科学院內에 原子力研究室을 設置하고, 1953年 2月 26名의 中共科學者들이 소련을 방문하여 中·蘇兩國間의 原子力 資源開發과 研究情報交換等의 諸般 協力を 강화했다. 1953年 7月에는 原子力 綜合開發 計劃을 수립하고, 소련의 支援에 依한 開發을 추진하였다. 1954年 3月에는 原子力 開發에 關한 國務院 命令이 公布되고 郭沫若이 科学院 院長이 되면서 活氣를 띄기 시작했다.

또한 1954年 7月 우라늄開發을 위한 「中蘇科學 技術合作 協定」을 체결하고 우라늄의 資源調查와 開發에 關한 技術資料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中共의 核開發은 1955年 부터 급진전하게 되었고, 核力의 平和的 利用에서 이탈하여 軍事的 利用에 重點을 두고 있다.

1956年12月에는 政府内에 原子力委員會를 설치했으며, 1957年10月中蘇国防 新技術에 關한 協定을 체결하고, 原水爆彈의 제공을 포함한 本格的인 核武器開發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958年3月에는 原水爆에 關한 兵器研究, 放射能 개발, 原子力 潛水艦 設計, 研究等을 目的으로 軍事科學院을 設置하여 核開發에 主力하였다. 1958年6月에는 熱出力 7,000 ~ 10,000 kw의 제1호 원자로를 北京에 설치하고 自力에 依한 核武裝을 결의한 후부터 總力을 기울여 왔다.

1959年6月 소련은 核實驗禁止에 동조하고, 一方的으로 中蘇国防條約을 폐기하고, 中共에 原子彈 샘플 提供을 거부함으로써 中蘇紛爭이 격화되게 되었다.

中共의 獨自의인 힘에 依한 核開發을 1964年10月16日 第1回 核實驗에 成功하게 되었다. 그 規模는 20K㎞이며, 우라늄 235型으로 新疆省 노프르루에서 이루어졌다. 1967年12月24日 第7回 核實驗에서 所期의 目的을 달한듯하다. 1966年12月24日 第4回 實驗은 甘肅省 雙城子에서 新疆省 노프르루 上空 約700㎞ 떨어진 곳까지 미사일을 사용해서 폭발시킴으로써 中距離미사일 開發에 力點을 두게되었다.

지금까지 15國의 核實驗을 해왔으며, 第6回에는 水爆實驗에 成功하고, 9回에는 地下實驗을 했다. 現在 中共은 大威力의 熱核彈의 完成을 目標로 하고 있는 한편 核彈頭의 小型化에 힘쓰고 있다. 또한 人工衛星도 두차례에 걸쳐 實驗하였는바, 1970年4月24日 雙城子에서 173kg의 1次實驗과 1971年3月 역시 雙城子에서 遠地點 1,800㎞ 近地點 269㎞의 3리에 169분에 1回 선회하는 위성을 발사하였다.

現在 中共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大威力의 水爆彈頭는 美國



出処：中共統鑑 P.457

## 中共의 核實驗 狀況

회수	일 자	장 소	위 력	비 고
1	1964.10.16	新疆省노푸 노르	약 20Kt	塔上爆發(原爆)
2	1965. 5.14	"	약 20~40Kt	항공기에 의한 공중투하
3	1966. 5. 9	"	약 200~500Kt	
4	1966.10.27	雙城子노푸 노르	약 20Kt	항공기에 의한 공중투하(水爆)
5	1966.12.28	新疆省노푸 노르	약 200~900Kt	IRBM에 의한 폭발
6	1967. 6.17	"	약 3Mt	공중투하폭발
7	1967.12.24	"	약 20Kt	공중투하(水爆의 實用化)
8	1968.12.27	"	약 3Mt	항공기투하
9	1969. 9.23	"	약 25Kt	제1차 核實驗
10	1969. 9.29	"	약 3Mt	수폭實驗
11	1970.10.14	"	약 3MT	항공기에 의한 공중투하 (경량화 실험)
12	1971.11.18	"	약 20Kt	" (核彈頭的 實彈 實驗)
13	1972. 1. 7	"	약 8만 t	"
14	1972. 3. 2	"	약 2~20만 t	"
15	1973. 6.	"	-	-

本土나 구라파, 소련의 ICBM(大陸間彈爆彈)에 裝着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原爆의 輕量小型化나 短射程의 미사일이나 戰爭에 使用하는 核戰術을 目標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水爆에 小型原爆의 核탄두의 活用경지에 있다고 한다.

核의 운반수단으로써의 미사일을 살려보면, 中共은 核開發과 同時 併行的으로 미사일 개발에도 注力하고 있다. 1966年 10月의 核實驗은 甘肅省 雙城子에 있는 미사일 試驗場에서 西쪽으로 약 700 km 떨어진 鄯善湖의 核實驗을 향하여, 核彈頭를 단 미사일을 발사한 폭발실험을 하여, 이때 이미 中共은 射程거리 700 km 以上の 미사일을 完成한 셈이 된다. 그후에도 繼續 미사일 開發에 注力하고 있으므로 現在는 強力한 추진력을 가진 미사일이 完成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中共은 1970 ~ 71年 사이에 東北地區 吉林省에 새로운 미사일 試驗場이 建設完了되었다 한다. 폭발지점은 그곳에서 約 500 km 떨어진 사막지대를 향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미사일 실험이 행하여 졌다고 전하기도 한다. 中共은 推進力的 面에서 ICBM 미사일問題를 해결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닐 것이다.

中共이 지금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미사일을 正確히 目標에 유도하는 電子技術장치와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는데 必要한 耐熱材料의 問題해결이 급선무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美國防省報告에 따르면 中共은 MRBM (準中距離탄도탄), IRBM을 이미 配置했을지도 모르며 1972年 中에는 MRBM, IRBM의 실전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1975年까지는 소련의 大部分을 공격범위에 들수 있는 能力을 保有할 것이며, 1977年까지는 美國本土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中共의 最終目標은 美本土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完成과 그 實戰配置 단계에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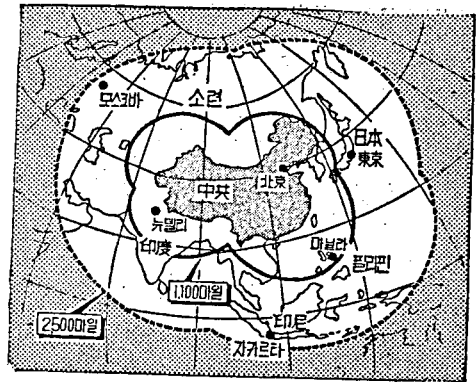
美海軍 무어提督에 依하면 수년후에 中共의 미사일 3대가튼의 核彈

頭를 6,900 마일까지 運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美國의 公式報告書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美國 大陸의 事實上の 모든 主要 目標에 到達하는데 充分할 것임을 의미한다.

무어제독에 依하면 中共은 이미 中間型미사일 및 中距離 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으며, 中間型 미사일은 1,100 마일까지 비행하여 中距離 미사일로 分類된 2,500 마일까지 날아간다는 것이다. 最近 情報에 依하면 中共은 3,500 마일의 대륙간 미사일의 배치준비를 거의 完了했으며, 核力を 保有한 空軍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西方側 專門家들의 추산에 依하면, 中共은 20 ~ 30 個의 사정거리 2천마일과 사정거리 1,500 마일의 中型 미사일 30 ~ 50 個를 配置했다 한다. 그러나 소련측 발표에 의하면 美國側 보다 많은데 中共은 約 200 個의 짧은 거리용 미사일과 약 150 個의 大陸間 미사일을 1980 年까지 保有할 것이라 한다. 미사일과 함께 中共은 목적원대에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TU-16 型의 中型목적기를 保有하고 있다 한다. 中共은 또한 소련의 MIG-19 機를 모방한 F-9 초음속 戰鬥機를 수백대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中共은 핵탄두를 적제할 수 있는 3백대의 목적기를 갖고 있는 셈이된다.

中共의 核攻擊 可能圈



出處：中央日報 1973.5.29

1949年 美國의 核独占을 소련이 깨뜨린 이래, 지난 4 반세기 동안 대대수의 다른 國家들은 두개의 강대국중 어느 하나에 依存해 왔다. 그 結果 世界는 2개의 영향권으로 나누어졌다. 이제 世界는 그의 同盟, 國家利益, 國防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제 美國이나 蘇聯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國家들의 當面 問題는 모스크바나 워싱턴이 이들 國家를 방위하려 와서 이들을 위해 만일 中共과 대결할 경우 입을지도 모르는 10~30개의 公營시설의 損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한편 만일 中共과 蘇聯이 그들의 견해차이를 해소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일 美國이 中蘇두나라에 의한 攻擊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컨대 中共은 현재 미소에 다음가는 世界 第3의 核武器 保有國家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인 위협 이외에는 미소수준의 핵력 보유는 아직 빠르다고 할 것이다. 現在 中共은 核攻擊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용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다. 核武器는 소련과의 國境地域에 중점배치하고 있으며, 급진적인 핵개발을 위해 資本, 技術, 資原의 한계성에 고충을 당하고 있으며 年間 核開發을 위해 10억 弗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 7. 結 論

1950年 對內 軍事作戰의 終結은 500만이라는 엄청난 軍隊의 減縮을 절감했다. 韓國戰爭에 介入함으로써 中共軍 減縮은 1953年까지

연기 되었다.

韓國戰의 종식으로 中共軍의 수적절감이 절실하게 되어 1961 때부터 1965 年까지에는 300 萬名總의 正規軍을 규제할 수가 있었다. 이에 따라 軍의 수적절감은 質的 向上을 시도하게 되었고, 一般 住民에게는 軍事訓練을 正規的으로 받게 하는 民兵制를 採択하고 있다.

또한 1950 年代 초반의 소련의 軍事援助는 中共軍의 現代化를 자극하게 되었으나 소련의 援助中斷은 中共의 支援, 技術, 資本, 豫算不足으로 現代化의 템포를 늦추게 만들었다.

核武器를 포함한 現代 戰略 武器의 生産에 對한 집념의 과충은 不作用을 적잖게 수반하게 되었다. 또한 年間 100 億弗 이라는 國防費는 中共 經濟를 장기침체시키는 要因이 되었고, 住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지 못하고 있다.

最近의 급진적인 開放政策은 軍事의 現代化 計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外資의 大量導入은 戰略武器의 量産能力을 保有할 수 있게 할 것이고, 軍事의 現代化는 中共의 政治的 大國化가 不可避할 것이며 政治的, 軍事의 大國化는 中共의 好戰性을 자극할 可能性이 甚다.

根本的으로 中共의 軍事概念은 防禦力 確保에 急急해 왔다.

## 参 考 文 献

- o John Gitting; The Role of Chinese Army, Oxford University Press.
- o Robert A. Scalapino; Elit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o Witson; The Field Army in Chinese Communist Military Politics, The China Quarterly No. 37
- o William W. Witson; The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in China; the 1970's, New York Prdager.
- o John M. H. Lindbeck, China; Management of a Revolutionary, Societ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 Frank N. Trager and William Henderson; Communist China 1949-69; A Twenty years Appraisal, New York University Press.
- o 桑原寿二編; 中国の実象, 永田書房.
- o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大陸光復, 世界週報, Military Valance, Issues and Studies, Asian Survey 等 多数参考.

第八章 最近 中蘇紛爭의  
樣相과 極東情勢





## 第八章 最近 中蘇紛爭의 樣相과 極東情勢

### 1. 中蘇紛爭의 沿革

歴史的으로나 地政學的으로 미루어보면 中蘇間의 宿怨關係는 이들 두나라가 個別的으로 美國에 對한 敵對意識보다 훨씬 強하다는 事實을 再認識할 수 있다. 中蘇는 世界에서 가장 긴 國境線을 接한 隣接國이며, 19世紀 淸朝의 衰退期를 利用하여, 유럽勢力의 對中進出에 踴躍, 帝政러시아는 東邦領土를 繼續적으로 擴張했던 것이다.

1917年 10月革命으로 中國知識層의 對蘇매력을 利用한後, 兩國間의 紐帶強化의 매개체는 共產革命 이데올로기뿐이었으며, 最近에는 이 매개체마저도 그 기능을 거의 마비된 狀態에서 緊張이 고조되고 있다. 毛沢東은 蘇聯이나 共産黨의 指示를 外面함으로써 中共黨權을 掌握하게 되었고, 蘇聯의 忠告를 繼續 반박함으로써 政權을 奪取했던 것이다. 毛沢東은 1950年 中蘇友好協力協定으로 對蘇一辺倒外交를 追從하게 되었고, 이것은 共産圈에 對한 蘇聯의 主導權을 認定하고 非共産世界에 對해 蘇聯政策에 박수를 보내는 方向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이로써 스탈린은 中共을 蘇聯의 앞잡이로 利用하려는 意圖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反해 毛沢東은 이데올로기團結의 根底에 흐르는 潛在的 鬭爭意識은 延安時節부터 마르크스·레닌思想의 土着化를 내세워 中共의 對蘇偏向을 抑制해 왔던 것이다. 表面上으로는 毛沢東은 스탈린이 살아있는 동안에 蘇聯의 軍事施設을 만주地域에 配置할 것

을 許諾했으며, 韓國戰爭에서 蘇聯指領에 따른 戰爭을 遂行해야만 되는 등 蘇聯의 指示를 따르는 듯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자, 毛沢東은 中共指導体制에서 親蘇派의 두목 高崗과 饒漱石을 거세하고 兩國間的 不平等關係의 修正을 위한 努力을 展開했다.

中蘇間的 이 같은 潛在的 紛爭은 1956年 2月 2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格下運動과 對西方 平和共存提議로 露骨化 된 것이다.

1957年 가을 毛沢東은 共產블럭과 對內的 危機를 解消키 爲해 毛沢東의 要求를 本質的으로 許諾해 줄 것을 후르시초프에게 要請하게 되었다. 여기에 毛의 要請은 中共에 새로운 資本의 援助와 核武器 製作에 關係된 設備을 包含한 新武器와 아시아에서 毛沢東 革命 輸出을 主張했던 것이다.

처음 후르시초프는 마지 못하여 毛의 提案을 承認했으나, 國際的 勢力均衡에 關한 蘇聯의 見解는 中共의 發展을 抑制하려는 故意的인 陰謀와, 蘇聯의 資源狀況과 東部유럽에 對한 蘇聯의 與件으로서는 中共에 對한 經濟, 軍事援助를 中斷케 되고, 原子彈 샘플의 提供을 취소하게 되었다. 더욱이 中共은 蘇聯과 國境을 接하고 있으며, 中共이 核武器를 保有한다는 事實은 蘇聯戰略家들에게 큰 危險스러운 것이 事實化되었다는 것도 推定할 수 있다.

1957년부터 한층더 露骨化된 中蘇間的 네쇼날·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에 直結된 見解差는 漸次 擴大되어 蘇聯의 援助中斷, 技術者소환을 가져왔고, 大만危機, 中東問題, 中·印關係에 있어서 兩國

間에 對立關係를 暴露시키게 되었다.

中共의 蘇聯에 對한 不滿은 1958~59年 사이에 편의적 手段에 依해 蘇聯과의 이데올로기 鬭爭을 試圖케 되었으며, 蘇聯의 主導權에 도전함으로써 中共의 地位를 伸張하며, 中共은 蘇聯을 修正主義라고 主張하므로써 人類史上 보기드문 이데올로기 鬭爭을 展開했던 것이다.

普遍的인 이데올로기가 共產陣營間的 紛爭에 對한 橋梁役割을 더 以上 할 수 없게 되자, 鬭爭的인 이데올로기는 이같은 方向을 正當化 하려는 政策方向으로 기우러지게 되고 共產國家間的 理念紛爭에 對한 和解要素를 찾기 힘들어져 갔다. 中蘇兩國이 서로 自國의 理念을 마르크스·레닌思想의 正統派로 主張함으로써, 結局 이데올로기 鬭爭은 自國의 地位와 指導體制에 強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서로 自國의 統治權을 妨害하려는 意圖에서 이데올로기 紛爭을 惹起한다고 理解하게 되었던 것이다.

中共의 工業의 躍進을 爲한 近代化計劃이 蘇聯의 援助中斷으로 威脅을 당하게 된 不滿은 毛沢東에게 人民公社, 大躍進運動, 總路線等 3面紅旗運動을 展開토록 誘導했고, 毛沢東은 人民公社를 中共의 共產主義段階로의 지름길이라고 主張하므로써 共產陣營에서 敎祖國인 蘇聯에 挑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一連의 躍進計劃이 失敗하게 되자, 中蘇理念鬭爭은 다시 初期段階로 還元하게 되었으며, 蘇聯과의 內通이라는 罪名으로 彭德懷一派를 肅清토록 毛沢東을 誘導하였던 것이다. 毛沢東의 立場에서는 中共의 躍進計劃이 失敗하게 되고, 中共指導層의 蘇聯과의 內通은 確實히 蘇聯이 中共을 破壞하려는 陰謀에 起因하는 것이라는 信念을 남게 되고, 이것은 自然히 蘇聯을 더없는 敵으로 看

做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1960年 레닌誕生 90週年을 즈음하여 中蘇紛爭을 外交戰略에 依한 鬭爭으로 轉換하므로써 第2段階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國際 프롤레타리아革命에 對한 支援과 第3世界에 對한 鬭爭으로 中共은 獨立된 強大國으로서의 地位를 確保하려는 姿勢로 任하게 되었다.

1960年 여름 中共에 머무르고 있는 蘇聯技術者 全員을 撤收하였다는 事實은 中共指導者들을 激奮시켰고, 이로부터 共產圈內의 勢力鬭爭은 勿論이려니와 對內問題에서도 심각한 事態에 突入함으로써 兩國間의 理念紛爭이 한층더 熾烈化되었다. 이것은 1960年 11~12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世界共產黨大會에서 中蘇紛爭을 解決하려는 余他 共產黨指導者들의 努力에도, 中共指導者들은 蘇聯의 指導体制의 變化나, 또는 갑작스런 政策變化가 없는限, 中共은 蘇聯의 援助없이 自身이 國家發展을 圖謀해야 한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蘇聯은 經濟的 優位性을 利用하여 對外政策 遂行過程에서 理念鬭爭을 避하기 위해 世界共產圈의 主導權을 主張하게 되었고, 中共이 許諾한다면, 蘇聯도 中共에 對한 非難을 삼가겠다는 態度로 任하게 되었다. 中共이 蘇聯에 對해 反對立場을 取하는 알바니아를 支援하고 나서므로써, 中蘇紛爭은 共產圈內에서 公開적으로 擴大되는 開放的 理念鬭爭化되었고, 이로써 中蘇紛爭의 第3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60年代에 들어선 從來에는 理念鬭爭의 性向이 질면 狀況에서, 國家的 利害問題로 擴大되었다. 中印國境紛爭에 있어서 蘇聯의 態度나, 쿠바事態에 對해 蘇聯의 未穩的인 態度에 對한 反撥 등이 主動機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線을 넘게 되었다.

初期 中蘇紛爭에 있어 主要論争點은 戰爭과 平和에 對한 概念 核武器와 核戰爭, 平和共存, 修正主義와 敎條主義, 社會主義의 實踐方案 問題로 大體的으로 集約할 수 있다.

1964年 中共의 核實驗은 兩國關係의 險惡狀을 露出시켰고, 1965年 下盤에 이르러 越南戰의 擴戰과 美國의 擴大介入은 共產陣營의 越南戰에 對한 國際統一戰線의 形成이 대두되었다. 이에 對한 國際統一戰線의 形成은 中蘇와 그 衛星國들 間의 심한 見解差異를 露示시켰고, 中共內部的 權力鬭爭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이로 因해 越盟과 北韓이 自主路線을 標榜하게 됨으로써 中蘇紛爭은 보다 湍이 벌어지게 되었다.

1966년부터 始作된 文化革命은 蘇聯에 對해 심한 衝擊을 주게 되었고, 蘇聯은 이를 毛沢東의 冒險主義의 所産이라고 非難하였고 蘇聯은 對西方 平和共存으로 보다 紐帶를 強化함으로써 中共은 完全孤立되었던 것이다. 即 60年代는 中蘇紛爭이 國家利益으로 集約되었지만, 蘇聯의 平和共存에 물러 中共만이 孤立無援의 狀態로 물고 갔던 것이다.

中共의 政治, 權力鬭爭化된 文化革命은 中共에게 돌이킬 수 없는 國際關係의 孤立을 自招하였지만, 1968年 8月 체코事態는 共產弱少國家들에게 共同威脅感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即 브레즈네프·닥트린으로 체코와 같은 自由化에 對해 蘇聯의 強硬路線을 合理化시켰고, 그것으로 因하여 共產諸國에 對해서는 相互 紐帶強化의 緊迫性을 絶憾케 되었던 것이다. 체코事態後 中蘇國境地域에 蘇聯軍의 大挙集結, 軍事訓練의 強化는 中共에게 심한 반발을 낳게 했을뿐만 아니라 1969

年 3月 珍宝島事件을 爲始하여 該해 8月까지 攄은 國境武力衝突이 發生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69年은 美國에서도 닉슨大統領이 就任하게 되고, 닉슨의 새로운 아시아政策에 關心을 가진 中共은 바르샤바會談을 1968年 11月 再開할 것을 希望하므로써, 蘇聯을 第一의 敵으로 하고, 美國을 利用하여 蘇聯을 牽制하려는 方向으로 나오게 되었다.

中蘇國境紛爭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17世紀 中盤으로 소급해야 그 理由를 說明할 수 있거니와, 우선 領土問題에 局限시킬때 1960~80年 사이에 맺어진 璦琿條約, 北京條約, 이리條約등 領土할양에 關係된 不平等條約에 關心을 기울일 必要가 있을 것이다. 中共側에 依하면 淸朝로서는 淸朝와 攄은 不平等條約으로 150萬km<sup>2</sup>의 領土를 蘇聯이 強占했다고 主張한다.

이로써 1969年 4月 中共黨 9全大會에는 三反鬭爭을 標榜하여 蘇聯을 中共의 第一의 敵으로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攄은 國境衝突은 蘇聯에게도 하등의 利益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므로 1969年 9月 胡志明 越盟大統領의 死亡에 參席했던 코시킨은 歸國길에 北京에 들러 周恩來와 國境衝突을 回避하고, 中蘇國境會談 開催에 關한 原則的인 合意에 到達, 國境會談을 開催하게 되었다.

周恩來와 코시킨會談에서 兩側의 主張을 보면, 蘇聯側에는 國境會談 代表를 副首相級으로 하고, 兩國大使의 歸任, 通商, 經濟關係의 回復, 軍事의 衝突의 停止, 雙方의 國境軍 撤收, 公開的인 非難 停止를 들리고, 中共側은 國境의 嚴格한 現狀維持, 紛爭地域의 軍隊撤收, 平和的인 國境會談, 150萬km<sup>2</sup>의 國境地域調整으로 兩者間의 意見이 엇갈리고 있

다.

우선 中共側의 主張에 依하면 兩國間에 이루고 있는 現國境線이 不平等 條約을 認定하고, 平和的 方法에 依한 協商으로 國境을 再調整토록 하며, 中蘇新條約의 締結에 依한 國境調整을 主張했다. 그러나 이에 對한 蘇聯側의 見解는 現國境線을 劃定한 條約을 根拠로 하고, 解釈上 相異點이 發生하는 곳에 限해 調整할 것과, 이로 因해 變更된 地域은 居住住民의 事情과 希望을 考慮하여 現行條約에 根拠한 處理를 하자는 것이다.

根本적으로 兩側의 主張은 妥協線을 摸索한다는 것은 相當히 어려울 것이다. 만약 蘇聯側이 中蘇國境을 平和적으로 解決하려는 意圖가 있다면 이에 對한 誠意와 함께 國境劃定條約의 不當性을 認定해야 할것 같다.

## 2. 最近의 中蘇紛爭

가. 美·中共接近 機微와 蘇聯의 反應

極東에서의 美·日·中·蘇의 四強體制가 形成된 70年代에 있어서 中蘇間에 亞細亞戰略과 그로발戰略(Global strategy)를 依한 政治戰略의 衝突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66年 文革 開始 以來 中共은 「美帝國主義에 反對하여 싸우려면, 먼저 蘇聯 現代修正主義에 反對하여 싸워야만 한다」라고 主張, 反蘇 第一主義를 取한 反面, 蘇聯은 毛沢東一派와 下部黨員 및 人民大衆과 分離해서 毛沢東一派를 打倒한다는 政治戰略을 決定하여 (1966.12. 蘇

聯 共產党中央委 決定) 雙方이 正面对決段階에 접어 들었다. 또한 1969年 3月~8月 사이에 우수리江邊을 따른 갖은 國境衝突과 1968年 체코侵入事態는 中共에게 심한 衝擊을 던졌다. 이같은 事態에서 結局 從前에 凶敵인 美大統領을 中共에 訪問토록 招請하는 事態로 誘導되고, 中共이 서둘러서 对西方 開放外交를 展開했던 最大 理由가 된다 하겠다.

닉슨美大統領의 中共訪問에 즈음한 美中共의 接近에 對한 蘇聯의 政治戰略을 살펴보면, 1971年 4月 第24回 党大會에서 中共의 反蘇主義를 단호히 粉碎하면서, 中共에 對한 關係正常化와 兩國人民間의 友好關係 回復을 希望한다는 對中共 基本政策을 提議했다.

蘇聯은 中共의 美國에 對한 關係改善希望을 極大 非難하면서, 이것을 中共의 無節制한 中共의 對美政策이라고 各 報道網을 통해 攻擊했는데, 1971年 5월에 접어들자, 毛沢東의 親美態度에 激憤하는 어조로 • 中共의 對美鬪爭의 決意는 虛偽였었다. • 고 非難하는가 하면 • 中共은 美蘇 兩大國의 武力衝突을 바라며 두마리의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산속의 원숭이가 구경하는 정경으로 誘導하려 한다. • 고 비유하기도 하고, • 中共은 傳統的인 中華思想으로 他國에 自國의 意志를 命命하려 하고 있다. • 는 各가지 方法으로 中共指導部를 攻擊하였다. 그해 6月이 되자 그 攻擊의 度는 보다 強해져 • 中共은 毛沢東의 남아빠진 中華思想에 依해 지금에야 社會主義 共同體의 一員으로 부터 世界反帝路線의 主力部隊 蘇聯에 反對하는 勢力으로 變質되었다. 고 非難하고 • 中共의 對外政策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가 아니라, 뻘뻘 부르조아의 好戰的 民族主義이며, 이것은 大國主



義의 쇼비니즘 (Chauvinism) 의 大漢民族主義로 變質되었다. 고 점차 攻擊에 熱을 올리고 있었다.

1971年 6月 中共을 訪問한 초세스큐 國家評議會 議長에 對해 中共은 安암리에 蘇聯을 指摘하여 帝國主義의 干涉, 支配, 脅迫에 反對하여 獨立, 自主를 지키는 루마니아를 激勵하고, 超大國의 霸權主義와 強權政治에 反對한다. 고 指摘하여 中小國家의 團結鬪爭의 強化를 호소하는 態度로 일관했지만 초세스큐가 多少 中共外交의 反蘇, 反美 베이스에 휘말려 들어간 것은 元來 그가 美中共接近의 使者役割을 했다는 推測과 함께 蘇聯의 신경을 크게 刺戟한 것 같다. 그리하여 그가 中共訪問을 마치고 歸國길에 蘇聯에 들렀으나 蘇聯指導層은 그를 外面했던 것이다.

1971年 7月 1日 中共黨 創立 50週年을 기하여 프라우다는 第24回黨大會가 採択한 原則에 따라 中共의 人民大衆과 참다운 共產主義者들과의 友好協力을 바라는 反面, 毛沢東一派의 反蘇主義, 브며·부르크 民族主義의 野心에 猛烈한 攻擊을 加했으며, 이무렵 모스크바의 報道網은 「中共指導者의 對外政治戰略」이라는 題目으로 毛沢東一派의 背信的 外交戰略에 攻擊을 加했다.

또한 7月 6日 닉슨美大統領의 訪中發表는 蘇聯에게는 重大한 衝擊을 던졌던 것 같다. 蘇聯은 論評없이 이 事實만을 報道했지만, 즉각 親蘇共產黨과의 協議를 거쳐 7月 25日 되어 비로소 프라우다紙는 美中共의 接近에 對한 本格的인 반격선전을 展開했다. 同紙는 「美·中共接近의 進展을 監視하여 諸般事態에 對處하지만 美·中共 共同의 對蘇壓力은 絶對 許容치 않는다」고 主張하였고, 7月 28日 이즈베스

차紙도 美·中共 雙方에 對한 強烈한 不信感을 表했다. 이 같은 一連의 狀況속에서 蘇聯은 越盟과 北韓의 對中共 不信感을 利用하여 反美鬭爭의 緊다운 指導者는 蘇聯이라는 趣旨의 宣傳을 強化했던 것이다.

美·中共의 接近에 對한 蘇聯의 對抗策은 8月에 들어 한층 強化되었다. 1971年 8月9日 蘇聯은 印度와 印·蘇平和友好協力條約이 조인되었던 것이다. 이 條約은 事實上 相互援助條約의 一步前인 安全保障協議條約이며, 그것이 當時 일족적발의 狀態에 있던 印度와 파키스탄間의 險惡한 情勢를 이용, 南아시아 方面에까지 中共에 對한 包圍網을 펼쳐려는 蘇聯의 意圖에 의한 結果였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것이었다. 蘇聯은 條約에 依해 印度洋 方面에 對한 進出의 重要한 발판을 얻어 世界戰略上 커다란 成果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런 意味에서는 이 條約은 蘇聯의 中東方面 進出의 重要한 발판이 된 5月の 蘇聯 이집트條約에 맞서는 國際的인 重要性을 가진 條約이었다.

#### 나. 9月 異變과 中蘇紛爭

이와같은 蘇聯의 世界政治戰略은 中共의 繼承孤立을 爲한 戰略으로 發展, 中共의 이에 對한 威脅感을 加重시켰을 것이다. 中共은 印·蘇條約에 對抗하여 파키스탄과의 協力友好關係를 強化했으나 이무렵 中共의 對西方開放과 特히 美國에 對한 開放外交를 둘러싸고 美·蘇와 中共關係에 있어 中共指導層의 最高政策決定 水準에서 심각한 論爭을 惹起시켰던 것이다. 卽 對美接近으로 蘇聯을 牽制하겠다는 意圖

는 그동안 출몰 反美第一主義를 標榜해 온 中共에게는 價值觀의 衝擊的 變化를 招來하게 되었고, 이것이 對內問題로 派及될때 派生되는 諸問題點을 考慮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指導層에 對美接近이나 對蘇關係 正常化나에 對해 심한 見解差를 露呈시켰던 것이다.

9月異變이라는 林彪一派의 肅清事件의 真相은 中共의 몇몇 秘密文件이나 中共當局의 7月末에 對外에 對한 發言같은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틀림없이 明確하게 되어있지 않고, 그 中에는 信用할 수 없는 點도 있지만 9月12日 外蒙古 領土內 墜落한 中共의 輸送機가 林彪의 陰謀에 依한 것이라고 이번 10回大會에서도 公式的으로 宣言했다.

林彪의 罪相中에 外國과의 通謀라는 條項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當時 林彪는 對美接近보다는 對蘇關係 正常化를 主張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比較的 自然스러운 일일 것이다. 林彪肅清事件後 中共 指導層의 內部混亂時期에 蘇聯은 10月初 포고르니 最高會議 幹部會議 議長을 하노이에 보내 大量의 軍事援助를 約束했다. 이것은 美 中共의 接近에 對해 不信任을 지닌 越盟과 印度支那 革命勢力에 對한 蘇聯의 影響력을 強化하고, 南아시아 方面으로부터 새로이 인지方面까지 中共의 包圍網을 넓히려는 蘇聯의 戰略이라 明白한 일이었다.

또한 10月12日에는 닉슨大統領의 蘇聯訪問이 發表되었지만, 그가 中共을 蘇聯보다 먼저 訪問한다는 초조가 蘇聯으로 하여금 베르린問題의 妥結과 SALT(戰略核武器制限協定)의 進展을 促進시켰으며 이것이 美蘇首腦會談의 實現을 可能케했다면, 닉슨의 中共訪問發表가 美

蘇首腦會談의 時間을 앞당겼다는 推理가 妥當할 것이다. 어떤 測面에서 볼때 美中共關係의 完보狀態, 그 以後의 美蘇關係를 살펴볼 때 닉슨大統領에게는 中共보다는 蘇聯에게 關心을 가졌었지 않을가도 생각 이 든다.

#### 다. 中共의 UN 加入과 印·파戰爭

70年連에 들어서자 對外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한 中共은 1971年 10月25日 드디어 UN에 加入하게 되었다. UN에 加入이 決定되자 中共外交部는 즉각 그들의 外交戰略의 새로운 方針으로 두개의 超大國 에 對한 中小國家의 團結鬭爭思想을 宣言하는 메시지를 UN 事務總長에게 보냈으며, 11月15日 矯冠華는 UN에서의 첫演說을 통해 中共은 中小國家의 團結鬭爭의 指導者로서 두개의 超大國에 反對하여 鬭爭한다는 意志의 主張으로 일관되었다.

中共의 UN 活動方針은 蘇聯이 提案한 世界軍縮會議 召集에 對하여 11月末경에는 中蘇間에 UN에서 격들을 惹起시켰다. 12月初에 들어서자 中蘇間의 對立은 한층 더 加熱되었으며 이것은 印파問題를 싸고 드디어 暴発되었다. 印파戰爭은 2週日만에 蘇聯이 支持하는 印度의 全面 勝利로 끝났지만 中共側은 UN을 利用하여 印度 擴張主義의 파키스탄 侵略과 이를 뒷받침하는 蘇聯 社会帝國主義의 南아시아·印度洋 方面에 對한 侵略과 支配欲을 猛烈하게 攻擊하는 한편, 中共은 全報道·宣傳機關을 總動員하여 UN에서의 論爭을 中心으로 激烈한 反蘇運動을 展開했다. 이와같은 境遇 特히 主目되었던 것은 中共側이 12月7日 UN總會의 表決에 104對2의 圧倒的인 찬성으로

國際聯合을 背景으로 蘇聯과 印度의 侵略行爲를 糾彈했다는 事實이다.

이에 對해 蘇聯側은 中共이 「美帝國主義」와 同調하여, 八波戰爭의 原因인 파키스탄 軍事政權의 東파키스탄 住民의 彈壓에 對해 눈을 감고 孟加拉데쉬의 民族解放戰爭을 背信했다고 猛烈하게 攻擊하고, U N에서 強烈하게 攻擊하는 한편 모스크바의 報道網을 利用, 中共指導部의 國際共產主義運動과 民族解放運動의 背信과 大國主義, 分裂主義, 民族소비니즘을 強力히 攻擊하고 있었다. 이 사이에 프라우다, 콤니스트 等의 主要論文에 林彪事件後 中共內部的 政治的 危機에 對한 攻擊宣傳도 絶었다.

蘇聯과 中共은 各各 印度와 파키스탄을 支援하여 對立하고, U N에서 事事件件 衝突을 反復하게 된 이상, 兩國이 多같이 拒否權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他 理事國이 어떻게든 問題解決을 서둘러도 全然 解決될 可望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果然 U N 安全保障理事會에서 中蘇對立과 重複되는 蘇聯의 拒否權의 行使에 依해 印과兩國의 停戰後 까지도 結局 平和維持機構로써의 技能을 發揮하지 못했던 事實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같이 中蘇의 政治戰略의 激突이 世界平和의 癥의要素로 擴大하는 狀況까지 突入하여, 70年代는 中蘇가 탈이데올로기의 狀況에서 國家利益을 추구하면서 對立하고 있으나, 中蘇間에는 아시아問題와 歐洲問題에서는 激突이 豫想되지만 中東問題 같이 兩國이 相互衝突要因이 比較的 弱한 곳에서의 問題에는 아직 意見統一을 기할 수 있고 나아가 行動統一까지도 可能하게 誘導할 수 있다고 豫想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아직도 共產圈內에는 이데올로기의 團合이 可能하다고 할 要因이 있는 것이며, 이에 對해 우리도 세

심한 注意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印·과 戰爭에서 印度의 勝利는 南아시아·印度洋으로의 進出이란 蘇聯의 傳統的인 宿望을 達成시킨 한편, 中共 包圍網을 強力하게 펼 수 있는 好機가 되었지만 蘇聯은 그위에 美中共接近과 같이 印度支那 革命諸勢力의 對中共不信感 때문에 中共이 困難한 処에 놓인것을 모르는 채 보다 越盟에 對한 支援을 強化, 印支革命勢力의 心理를 利用하여 또다시 ASEAN 諸國의 中立化의 움직임에 聲援을 보내, 이 方面에 까지도 中共의 封鎖政策을 實現코져 努力했다.

#### 라. 그로미코의 日本訪問

美國과 中共의 接近試圖에 蘇聯은 歐洲地域의 緊張緩和를 必要로 했을 것이며, 아시아地域에서 中共의 封鎖를 위해 日本을 意識하고 있었을 것이다. 1972年 1月 하순 구디·그로미코 蘇聯外相을 日本에 보낸것은 1個月後로 迫頭한 닉슨中共訪問을 앞두고, 美·中共接近을 牽制하고 中共과 日本의 接近의 熱을 冷却시켜 中共封鎖의 손길을 日本에까지 擴張하려는 戰略이었을 것이다. 그로미코의 訪日과 함께 나타난 記事에서는 「蘇聯은 中共과 日本의 接近을 讚成하지만, 그것이 他國의 利益을 損傷시켜서는 안된다」라는 記事를 종종 찾아 볼 수 있었다. 蘇聯側은 「日本의 北方領土問題는 이미 解決済」라고 固守했던 從來의 立場을 後退시켜, 兩國間의 領土問題를 包含해 日蘇平和條約의 交渉을 조만간 開催키로 合意했다.

2月 下旬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의 時期에 맞춰 日蘇經濟合同委員會에서는 시베리아 츄메니油田으로 부터 極東까지의 送油管의 建設,

南야구도의 石炭과 天然가스의 開發, 樺太 大陸棚에 있는 油由의 探查等 수종의 有望한 經濟技術協力の 可能性·이 蘇聯側으로부터 提案되어 日本側의 協力を 구했고, 同時에 日蘇間의 友好宣傳이 強化되었다.

이와같은 蘇聯側의 対日接近의 움직임이 中共側을 刺戟하지 않을 理 없다. 中共側은 1月下旬 中共을 訪問한 日本의 総評: 労働者代表團에 對해 일부러 蘇聯의 수많은 「反中國 罪狀」을 暴露하는가 하면, 周恩來는 特別 日本의 北方領土返還要求를 支持하면서 日蘇接近을 妨害하려고 하였으며, 2月3日 新華社 通信은 日本 反動派와의 結託을 非難하는 蘇聯社會帝國主義의 反中共意圖를 猛烈히 攻擊하고, 또 2月4日 新華社 通信은 孤立的 窮境으로부터 脱出하기 위해 蘇聯社會帝國主義와 結託하는 佐藤政權의 意圖를 攻擊했는데, 또 2月15日 「北京週報」도 「그로미코의 東京訪問의 무대뒤」라는 題目으로 여러 方面으로 蘇聯의 対日接近의 意圖를 非難했다.

#### 마. 美·中共頂上會談과 蘇聯

1972年2月下旬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때에는 지극히 和氣에 찬 美中共首腦會談의 狀況이나 그 一行의 動靜을 텔레비를 통해 全世界에 放映되었고, 人民日報 등에서 華麗하게 報道되었다는 事實은 美·中共會談을 批判적으로 본 蘇聯과 그밖의 指導者들의 신경을 刺戟했음은 當然한 일일 것이며, 中共側은 意識적으로 그런 心理戰的인 效果를 노렸는지도 모른다. 이런 狀況에서 蘇聯은 印과戰爭後의 印度·아시아大陸에서의 발언을 굳히는 한편 中東·아랍帝國과의 政治的, 軍事的

協力を 強化하는 工作을 活潑히 展開했지만, 直接的인 美·中共會談 牽制工作도 2월에 들어 最高潮에 達했다. 毛沢東一派 또는 北京指導者에 對한 非難攻擊의 煽動宣伝이 모스크바의 全宣伝報道機關을 總動員하여 繼續되었으나 그중에서도 2月17日 프라우다가 美·中共接近에 依해 社會主義 共同體의 利益에 批해 國際緊張을 高조하려는 意圖가 窺보인다.

그러나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의 의의는 會談과 內容과 結果가 判明되면 評價하는 것이 理論的이라고 일단 進行狀況을 정관할 態度를 보인것이 主目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主로 모스크바 放送에 의한 反中共宣伝煽動은 美·中共會談의 直前に 그 極에 達했다. 이 무렵의 反中共宣伝에서 窺볼 수 있는 뚜렷한 特色은 닉슨의 中共訪問과 印支에서의 美空軍의 爆擊強化를 결부시켜 美·中共의 共謀 또는 民族解放戰爭에 對한 中共指導者들의 背信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일관되었다. 이것은 인도지나革命勢力의 中共에 對한 不信感을 높이는데 꽤 奏効한것 같다. 美中共首腦會談 後로도 3月까지 매일 美·中共共同宣言을 非難했지만, 그 代表的인 것은 3月5日 프라우다의 다음과 같은 論調의 것이었다. 「美國은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支配計劃의 失敗로 中共과의 接近을 試圖했지만, 美國에게 이같은 方向을 選擇케 한것은 中共의 反蘇方針인 것이다. 中共은 蘇聯과 아주 어려운 事態가 發生할때는 美國을 友邦으로 看做하고 있다. 台灣問題의 뒷去來에는 인도지나問題가 있었다는 것은 分明하다. 美中共兩國은 印支人民의 背後에서 뒷去來를 했지만 印支人民은 忠實한 友邦을 갖고 있고, 그 斷乎하고 決定的인 支持 밑에서



英雄的 鬪爭을 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것은 北京指導者들의 反革命的 背信을 널리 世界 共產主義者들에게 印象지워 줌과 同時에 印支革命勢力에 對해 蘇聯의 主導權을 確立코져 試圖했던 것이다.

果然 3月 15日 「新時代」誌의 社說은 「美中共會談은 國際的인 勢力의 再編成에나 勢力均衡에도 何等的 變化를 가져보지도 않았다. 現代의 革命勢力에 反對하여 行動하려는 者, 革命勢力으로부터 떨어져 帝國主義와 公共의 利益을 추구하려는 者는 不可避하게 世界의 發展의 本계도에서 落伍될 것이다」라고 中共에 對해 蘇聯側의 自身滿滿한 表現을 誇示하고 있었다.

#### 바. 브레즈네프의 平和攻勢

1972年 3月 20日 全蘇聯勞動者大會에서 行한 演說에서 브레즈네프는 中共과 蘇聯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蘇聯의 中共에 對한 態度는 第24回黨大會에서 決定된 것과 같지만 中共側은 蘇聯과 中共關係는 平和5原則에 立脚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中共이 社會主義諸國 相互間의 關係正常化를 願치 않는다면 별 수 없다. 平和共存의 關係라도 좋지만 그때문에 蘇聯은 相互不可侵, 國境問題의 造成, 互惠의 原則에선 關係改善등을 내놓고, 具體的이고 建設的인 提案을 하고 있다. 일의 成敗는 中共側의 態度에 달려 있다」라고 主張했다.

이것은 蘇聯側의 一種의 平和攻勢로 볼 것이지만, 蘇聯이 中共과의 關係는 이 時期에 공공연히 社會主義諸國 相互間의 關係로부터 社會

制度가 상이한 國家關係의 平和共存으로 發展했다는 것은 그 義意가 크다 하겠다. 브레즈네프는 또 이 演說에서 日本과 蘇聯과의 完全한 國交正常化에 큰 期待를 表함과 同時에 또다시 아시아集團安全保障의 實現을 提唱하고 日本과의 正常化는 이것과 결부시키고 있었다.

蘇聯의 아시아集團安全保障의 구상은 닉슨·닥트린에 依해 아시아에서 美國의 退地는 아시아의 힘의 공백을 남겨지는데, 이때를 利用하여 蘇聯이 아시아에 進出하여 全面的으로 아시아勢力에 介入하려고 한다는 것은 確實하며, 또한 이것은 中共封鎖를 노리고 있다는 事實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 사. 베트남戰局과 美蘇會談

1972年 3月末 越盟은 갑자기 越南에 對한 大攻勢를 開始하여 越南戰局을 未曾有의 緊急狀態로 몰아 넣었다는 事實은 美蘇首腦會談을 앞에 둔 蘇聯에게는 큰 衝擊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越盟의 이같은 冒險的인 大攻勢가 5月8日에 이르러서는 越盟 諸港灣의 機雷封鎖와 交通, 運輸, 軍事等 諸般施設에 對한 北爆의 強化는 越南戰이 始作된 以來 最惡의 事態로 突入시킨 것은 蘇聯을 困境으로 몰아넣었다. 방금 美·中共會談으로 美國과 平和共存을 確認한 中共도 이같은 情勢推移에 當황했던것 같다. 蘇聯도 中共도 5月11日 美國에 對한 抗議聲明을 發表했지만 別로 效果的인 對案도 提起치 못했다.

越盟의 立場에서 볼때 自己自身이 自招한 禍이지만 蘇聯이나 中共의 그와같은 未穩的인 態度가 커다란 不滿의 씨가 되었다는 것도

疑心の 여지가 없다.

이 같은 緊迫한 事態推移는 한때 닉슨大統領의 蘇聯訪問이 果然 實現될 것인가에 對한 判斷을 가져올 수가 없었다. 그러나 蘇聯은 이를 受諾하여 歡迎하므로써 美·蘇會談이 豫定과 같이 進展되었고 오히려 보다 더한 成果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美蘇會談에 對해 美中共會談을 겨냥한 蘇聯의 激烈한 反中共의 煽動宣傳에 對한 報復의 意味로라도 反蘇的 煽動宣傳을 強化하리라고 豫想했지만 豫想을 뒤엎고 美蘇會談에 對해선 거의 沈黙을 지켰다. 아마 이것은 심각한 越南事態때문에 取해진 戰略인지 모르며 美·中共會談에서 얻은 모처럼의 蘇聯에 對한 心理的인 優勢를 繼續 持續하겠다는 意圖에서 인지도 모르지만 이 時期에도 蘇聯의 世界的인 政治戰略에 對抗하려고 하는 中共의 對外活動은 매우 活潑하게 展開하고 있었다.

美蘇首腦會談을 通해본 蘇聯의 中共封鎖를 爲한 世界的인 政治戰略中에서 中共指導者를 가장 크게 刺戟한 것은 歐洲地域의 緊張緩和이며, 이것이 蘇聯의 對아시아 進出戰略이 보다 積極的으로 나타나고, 中共에 對한 政治的, 軍事的 壓力이 훨씬 強化되는 徵兆가 나타난데 있을 것이다.

1971年 5月에 들어 獨蘇條約의 発効가 이것을 더 強化시켰으며, 蘇聯의 對日政策에 依한 시베리아 共同開放政策이 유독히 中蘇國境線을 沿한 石油파이프라인의 建設計劃을 包含시키므로써 蘇聯의 極東方面 軍事力을 劃期的으로 增強할 것으로 보고, 中共에 對한 危機感을 強하게 造成하였으리라는 추측은 比較的 自然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때문에 中共은 戰略核武器와 核兵器搭載戰艦機의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고도 伝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6月下旬 中共에 招請된 美下院의 民主党·共和黨 兩院內總務에 對하여 中共指導者들은 蘇聯이 中蘇國境地方에 擴充한 軍事力을 指摘하면서 아시아·太平洋 方面에서 蘇聯과의 힘의 均衡維持를 暗暗裡에 美國에게 호소하였다. 이 밖에도 蘇聯을 歐洲地域에 묶으려는 戰略에서 7月 슈만 仏外相과 슈레다 西獨議會 外交委員長을 연이어 北京으로 招請하여 中共은 反蘇鬪爭을 強化했다. 이런 結果 西獨은 머지않은 將來에 中共과 國交正常化를 希望했고 1973年 여름철에 蓬피두 仏大統領이 中共訪問을 實現하게 된 것이다.

蘇聯은 이같은 中共의 움직임에 對해 7月부터는 反擊의 증후를 보이다가 8월에 접어들자 東歐의 言論까지 動員하여 「歐洲地域의 緊張緩和를 反對하는 中共을 總攻擊을 開始했다. 이것이 7月末 크리미아에서 열린 社會主義諸國의 黨指導者會議에서 나온 結果였다고 하는 點은 대강 짐작이 간다.

한편 蘇聯의 中共封鎖를 為한 1971年以來的 露骨的인 南아시아·印度洋 方面으로의 進出狀況은, 孟加拉देश의 U N加入申請問題로 中共側이 猛烈的 反擊으로 나와 8月25日 安全保障理事會에서는 結局 最初의 拒否權을 行使해서 加盟權勸告決議案을 부결시켰다. 이것은 孟加拉देश의 U N加入 支持의 大勢를 탄 蘇聯이 無理하게 中共을 拒否權 行使로 몰아세운 結果라고도 생각되지만, 蘇聯은 이 機會를 利用하여 「第3世界의 指導者 또는 擁護者라 自處하는 中共」이 孟加拉देश 人民의 民族獨立鬪爭을 背信했다고 猛烈히 中共을 非難하기 始作했다. 이같은 蘇聯의 態度에 對한 中共側의 反擊도 前例없을

程度로 加熱되었다. 黃華 中共代表는 8月25日 「蘇聯 社会帝國主義의 侵略의 野慾은 끝이 없다」고 主張했고, 8月28日 人民日報의 社說도 「蘇聯 社会帝國主義는 全아시아人民의 가장 凶惡한 敵이다」라고 主張하였다.

이 같이 歐洲 및 아시아에서의 中蘇의 政治戰略은 衝突되었고, 中共側의 「두개의 超大國」論에 依한 蘇聯攻擊의 度가 점점 激化되어 갔다는 事實을 主目할 必要가 있다. 中共側은 U N의 어떤 討議場所이건 開發途上國 要人을 北京에 招請을 利用하여 第3世界의 立場에서 「두개의 超大國」論에 依한 帝國主義와 社会帝國主義에 對한 攻擊을 強化하고 있으며 8月中旬에는 北京을 訪問한 발트·하임 U N 事務總長에게 까지 두개의 超大國을 非難했다.

이에 對하여 蘇聯은 中共이 現實的으로는 美國을 비롯하여 日本, 西歐諸國 等과 接近하고 있다는 事實을 들어 「中共의 두개의 超大國」論은 實인즉 反帝의 모양을 띤 反蘇主義의 立場에 不適當한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그 歪曲된 意圖를 攻擊했지만, 中共側은 7月18日 사다트 이집트大統領의 蘇聯軍事顧問團의 追放宣言에도 여지없이 두개의 超大國論에 따른 趣旨에서 反蘇派의 煽動宣傳을 展開했다.

이와같이 中蘇의 政治戰略의 衝突로부터 오는 蘇聯의 立場은 中共側의 不當한 領土要求에 對해 8月한달 동안 줄곧 毛沢東主義 攻擊等에 잘 나타나고 있다. 林彪事件의 發表 以後 「이 事件의 背後에는 蘇聯이 있었다」라고 主張하는 中共側의 宣傳이 繼續된 事實에 對해서도 蘇聯은 1個月餘의 沈黙後에 8月下旬부터 이에 對한 攻擊을 開始했다.

아. 中共의 極東情勢에 따른 戰略

1972年 8月에 접어들자 中共은 美·日에 對한 接近의 效果보다는 蘇聯의 對中共戰略에 물리고 있다고 느껴 초조해지기 始作한듯 하다. 더욱이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은 이어서 蘇聯訪問으로 그 成果가 거의 相殺되었으며, 브레즈네프의 政治戰略에 依해 歐洲에서는 安保會議에 對한 從來의 蘇聯立場을 수그리므로써 事實上 蘇聯의 극도로 實現되어 가고 있고, 獨蘇, 獨과 條約은 歐洲地域에서의 緊張緩和가 거의 緩和되고 있으며, 그 남은 력을 蘇聯은 極東으로 대거 移動함으로써 蘇聯의 極東戰略은 孟加拉देश의 支援에 依한 南아시아의 影響力 強化, 日本과 시베리아 共同開發計劃으로 中共에 편향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中共을 孤立시키려는 蘇聯의 試圖는 어느程度 成果를 거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中共은 對日國交正常化를 서두르게 되었다. 中共으로서는 빠른 時日內에 日本과의 復交가 기선을 잡아 蘇聯이 意圖하는 中共의 包圍網을 깨뜨으려는 戰略으로 任하게 되었다. 이래서 中共은 對日復交條約을 緩和하고, 繼續해서 日本의 經濟人을 이끌어 들이고 있었다. 中共의 추파에 日本의 能動的인 措置로 中日復交가 具體化되자, 蘇聯에 신경을 쓰게 만들었고, 이것은 7月末부터 日本과 中共의 接近을 牽制하려는 對日宣傳이 強化되었다. 長期間 停止되었던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을 非難하는 宣傳도 8月初부터 再開되었다. 그러한 蘇聯의 對日 態度에서 8月中旬에 「極東의 諸問題」誌가 「帝國主義는 지금 中共을 社會帝國主義 勢力에 對抗하는 아시아의 第3勢力으로 보고 있고, 美·日은 다투어

中共에 接近하고 있다. 中共을 對象으로 하는 美日同盟은 그 意義를 喪失하여 崩壞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中共도 美國도 其他 아시아 諸國들도 日本 軍國主義의 復活을 不安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같은 아시아의 情勢아래에서는 蘇聯이 提案한 아시아의 集團安保만이 아시아와 太平洋地域의 平和와 安全의 唯一한 道인 것이다」라고 論評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安保에 있어 蘇聯을 제쳐놓고 美日·中共의 三極關係에서 展開된다고 고집하는 主張이지만, 여기에는 美日을 離間시키고, 中共과 日本의 接近의 危險性을 認識시켜 國際적으로 中共과 日本의 接近을 牽制하는 한편, 이 機會에 아시아 集團安保攻勢를 한층 더 強化하려고 하는 蘇聯의 政治戰略을 영역하게 엿볼 수 있다.

이같은 蘇聯의 움직임 속에서 프라우다의 주고프 評議員이 8月20日 테레비解說에서 「中蘇間에 진지하고 重要的 會談이 進行中」이라고 한 것도 注目해야 할 것이다. 當時 中·蘇·越盟間에 새로운 援助物資의 輸送協定이 成立되었다고도 전해졌지만 一說에는 蘇聯이 中共에 對해 中蘇間의 首腦會談을 提起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었다. 이와같은 中蘇間의 움직임 속에서 中共에 對한 日本의 立場도 日本 特有의 實利追求方案으로 展開하고 있었음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 3. 最近 極東에서의 強大國의 움직임

美蘇의 軍備擴張 競爭은 벌써 어떤 一定한 限界에 達해 그 以上

의 延長狀態로서의 恐怖의 均衡에 依해 國際關係를 과정하지 않고는 維持하기 困難하게 되었고, 이것이 第3의 当事者를 介入을 가져와, 美·中·蘇의 三角關係를 놓게 된 理由가 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即 三者가 各各 相互가 다른 2者를 끌어내어 싸움을 시킴으로써 破國을 避할 수 있다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任務를 받은 中共이 果然 주어진 役割을 할 수 있을지에 對해서는 疑問이다. 그 理由로서 우선 中共의 政治的 不安이 그 第一 要因이 될 것이다. 또 核力의 保有나 産業 經濟의 發展도 도저히 中共은 美蘇와는 견줄 수가 없다. 그러나 欠點은 同時에 長點도 될 수 있다. 가령 生活水準이 낮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政治的 原動力으로서 美蘇를 凌駕하고 있다. 蘇聯이 中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 龐大한 人口속에 潛在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爆發的인 힘때문이며, 美國과 西方國家들은 아직 中共의 核攻擊의 恐怖를 느낄 段階에 있지는 않지만 最近 中共의 東南아시아와 아프리카에 對한 政治戰略에는 많은 우려를 表하고 있다. 또 龐大하고 貧困한 大衆을 包容하고 있다는 것은 特히 南北問題가 시끄러운 오늘에 있어서는 어떤 意味에서는 커다란 政治資產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性格이 다른 三者, 相互間의 三角關係는 限定된 局面에서는 緊張緩和의 役割을 할 수 있음에 反해 重大事態의 變動을 招할 可能性이 있다. 또한 이 三者는 항상 利害關係가 엉켜있으므로 相對國에 對해 意識的으로 타산적인 立場에서 活動하게 된다는 데에 그 問題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三角關係를 認定한다면, 第3世界를



이 끌수 있는 經濟力을 지닌 日本의 戰略과 役割은 大端히 重要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展開될 世代에 있어서는 政治戰略과 經濟가 一體化되어야 된다는 假設에서도 볼때 重要하며, 日本으로서는 經濟大國이면서 政治的, 軍事的으로 작은 日本으로서 美國의 그늘 아래서 지난 4半世紀동안 지내왔다는데 보다 큰 問題가 있는 것이다. 또한 日本은 經濟大國이면서도 그 資源이 不足하여 大部分을 外國에서 輸入하고 있다는 點을 勘案할때 必히 日本도 政治大國과 軍事大國으로 化해야 된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中蘇對立과 西太平洋의 情勢를 살펴보면, 英國海軍의 스웨즈 以東撤收에 隨伴하여 蘇聯艦隊의 印度洋에서의 움직임이 점차 活潑한 畧을 보여온 것은 蘇聯이 美國의 海洋勢力에의 挑戰인가 그렇지 않으면 中共을 包圍하려는 戰略인지에 對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가지 뚜렷한 事實은 蘇聯이 自國의 強大한 領土를 円滑히 統治하기 위해 레닌그라드나 또는 무즈만스크로 부터 우라디보스로그나 나호도가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海上輸送路를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補給路를 確保하기 위해 상당한 量의 海軍力을 增加하였다 하더라도 그 自体는 別달리 異常할 것은 없다. 元來 南方海上 交通路는 시베리아의 內陸輸送 또는 北冰洋 交通의 欠陷을 메꾸기 위한 것이어서 이것은 蘇聯의 國利에 貢獻하는 바가 많다는 것도 事實이다. 또한 이 기나긴 海岸을 따라 散在하는 여러나라들이 蘇聯의 海洋進出을 歡迎치 않고 있으며, 그의 首腦가 바로 中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東南亞諸國中에는 中共의 華商을 通한 經濟工作을 체크하는 勢力으로 蘇聯勢力의 進出을 默認하는 底意도

없지 않다.

中蘇間의 國境對立이 다만 當事者들 사이에서 만으로 解決된다면 第3者는 커다란 損失을 보지 않을 것이로되, 이것이 印度洋과 太平洋地域까지 發展되면 東南亞 여러나라들은 각기 자위의 對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東南아시아地域의 國際情勢가 相互關係의 多樣性때문에 심히 複雜한 實情이다. 그러나 過去로부터의 慣例化되어 있는 中共의 經濟進出에 對해서는 심한 警戒心을 發散하고 있으며, 中共은 이 地域과의 貿易去來에서는 엄청난 輸出超過로 많은 利益을 占하고 있다. 지난 1972年 겨울철에 泰國에서의 日本商品 不買運動의 展開와 같이, 日本이 經濟的 利益을 위한 活動에만 일관한다면 많은 問題點을 提起시킬 것이다. 그러나 나아직까지는 日本이 軍隊를 保有하지 않고 있다는 意味에서 容認되는 것이다. 만약 中蘇紛爭이 擴大되면 西太平洋, 極東, 東南아시아에 對한 責任을 日本이 감당해야 될것 같다. 이것은 勿論 軍事的인 面에 限하지 않고, 오히려 經濟的 役割에 對해서도 強化되어야 할것이다. 이 경우 만약 中共과 日本이 經濟的으로 競爭을 強化하여 이것이 東南아시아에 傳播될때는 전반적으로 지금것 造成되고 있던 힘의 均衡을 깨뜨려 實際的으로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게 될 것이다.

美·中共·蘇聯의 三角關係를 基本으로 維持하고 日本의 影響力을 造成하려는 極東情勢推移로 볼때, 中共의 經濟成長을 促進시켜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相當한 規模의 經濟技術援助를 西方國家들이 提供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地域에 對한 美國과 日本의 相關關係를 살펴보자. 1972年 11月 이미 東南亞諸國에서는 日本의 지나친 經濟的 浸透를 牽制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日本은 아시아를 支配코져 軍國主義的 侵略을 했으며, 그의 侵略을 이들 國家 大多數가 당했다는 民族的 感情이 여기에는 얽혀있는 것이다. 그때문에 페르샤만을 中心으로 蘇聯의 政治的 活動이 強化됨에 따라 EC諸國들은 日本 海軍力을 페르샤만에 進出토록 希望하고 있지만, 이 地域의 日本에 對한 感情과 아울러 이 地域에서 2次大戰에 싸운 美國의 態度의 流動性은 日本의 과격한 東南亞進出을 체크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볼때 美國의 極東에 있어서의 役割을 日本이 代理한다는 期待는 事實上 어렵다 할 수 있지만, 日本으로서도 이같은 契機를 잘 活用하지 않으면 그 많은 資源을 어느 方面에서 供給할 수 있겠는가가 問題다. 여기에 바로 極東地域이 國際政治에 占하는 影響力이 增大한다는 理由가 있는 것이다. 現在 日本의 原油資源 開發能力은 資本에서나 技術面에서 日本의 需要를 充足시킬만한 底力이 있는지는 疑心스럽다. 日本政府에서도 상당히 苦心하고 있는 일이지만, 急激히 上昇하는 石油資源은 現在로서는 中東을 除하고는 供給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補完할 低硫黃石油의 主된 供給源은 인도네시아를 들 수 있다. 丘메니의 油田의 將來性에 對해서는 蘇聯 自身の 石油不足의 絶對的 現象이 改善되지 않는限 큰 期待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結局 日本이 아시아에서 美國勢刀을 代理한다는 것은 美國의 加호 아래서 可能한 것이며, 이것도 軍事的 問題로 擴大될때는 日本의 現

防衛体制로서는 결코 問題解決을 能動的으로 代廻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日本의 再武裝을 可能케하고 있는 것이 된다. 70年代에 들어서 中共의 對西方 柔軟外交로 美國을 活用하여 蘇聯을 牽制하겠다는 姿勢로 나감에 따라 西方側의 對中共接近 熱이 매우 強化되고 있다. 이것은 中共에 對한 經濟援助를 強化하게 되고, 이것은 中共의 現代化를 推進시킬 수 있는 方案으로 活用될 수도 있을 것이다.

## 参 考 文 献

- o John Gittings ; A Survey of the sino-soviet Dispute  
A Commentary and Extracts from the Recent  
Pole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o Harold C. Hinton ; the Communist China in the World  
Politics, Houghton Mifflin.
- o Rokert C. North : Moscow and the Chinese Communist,  
Standford University.
- o Harrys Salisbury : the sino-soviet Dispute, New York.  
Praeger.
- o 羅昌柱著； 中央外交論， 一潮閣。
- o The Asian Survey,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World politics, China Review, Foreign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Issues  
and studies, 北韓, 政經研究 外 多数 参考。



## 第九章 最近中共의 外交政策과 韓半島





## 第九章 最近 中共의 外交政策과 韓半島

### 머 리 말

文化革命으로 對外關係를 스스로 고립시켜 한 동안 造反外交를 展開했던 中共은 1969年 4月 九全大會를 契機로 對外關係의 復文活動과 對西方對交를 두드러지게 強化해오고 있다.

美·中共間의 이른바 핑퐁外交는 自由中國을 UN에서 追放시키고, 그 자리를 中共이 차지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닉슨美大統領과 田中 日本首相의 中共訪問 後 中共은 보다 폭넓은 柔軟外交를 汎世界的으로 展開하고 있고, 또한 西方 諸國의 對中共接近 무드가 급작기 高調됨으로써 世界 耳目의 中共에 對한 關心度가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 1. 外交政策의 背景

傳統的인 中國帝國의 外交政策과 現中共의 對外政策에 미치는 共通的인 要素는 傳統이다.

中國이 世界의 根源이라는 中華思想은 傳統的인 中國의 自負心과 優越主義에 바탕을 둔 思想으로 歷代 中國을 통해 假想的으로는 攻擊的이었지만, 理念的으로는 受動的이고, 그 行態는 지금처럼 消極的이고 防禦的으로 東洋의 共通的 政治文化圈의 中心이었으며 스스로 中心으로 自進해온 中國人 特有的 思惟概念이다. 事實上 現中共은 核時代의 深刻性을 인지하여 軍事的 側面에서 假想的으로 攻擊的 (Paper Tiger) 이

고, 때로는 그 武力을 國境線밖으로 行事하기도 하였지만, 힘의 限界를 통감하여 지극히 防禦的이고 受動的인 姿勢로 一貫해오고 있다. 毛澤東이 信奉하고 있는 共產主義는 유럽에서 기원한 마르크스 레닌主義로 이것을 人間前進勢力이라고 자처하는 中共에 소환시킴으로서 世界支配의 꿈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일관하고 있다.

中國의 現代史를 돌이켜 볼때 19世紀 中葉을 기점으로 西歐勢力의 露骨화된 中國侵略은 허약한 상태에 있던 中國의 産業과 技術, 經濟組織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日本의 近代화와 日本帝國主義의 中國侵略은 封建主義의 沒落을 促進시킨 바되었으나, 封建主義의 沒落 以後 中國에 對해서는 何等의 功勳을 하지 못했다.

孫文의 辛亥革命과 國民革命運動은 大衆의 기반미약과 住民의 無知, 交通, 通信施設의 未弱으로 침체되게 되었고, 蔣介石의 國共合作중용에 의한 共產黨의 흡수는 國民革命을 促進시키는 듯했으나 共產黨의 침투 進술의 주효로 實効를 거둘 수 없이 결렬되었다. 이에 強力한 軍權을 장악한 蔣介石의 주도로 일단 1928年 大陸統一을 기할 수 있었다. 英國, 러시아, 프랑스, 日本等 帝國主義의 침략으로 本質적으로 연약한 中國의 政治風土는 外勢에 對한 증오와 반발에 몸부림치다가 敗北한 것이 共產黨 以前의 中國이었다면 먼저 中國大陸에서 外勢를 追放하고 國家近代化를 實現한 다음에 東北亞 및 그 隣接國家에서 帝國主義的 外勢를 追放한다는 것이 共產黨의 中共姿勢였다고 할 수 있다.

19世紀에서 20世紀初 外國資本에 의한 國家近代化는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과 生活水準의 격차를 深化시켰다. 中日戰爭은 比較的 文明화된 地域의 住民을 대폭적으로 移動시키는 결과를 招來하여 傳統的인

家族制度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蔣介石政權의 官僚와 軍部の 不正腐敗, 職權남용, 住民의 貧困, 人口과잉, 과중과세等 自然 發生的인 現象은 中國大陸에서 共產勢力이 急成長하는데 촉매 작용이 되었다 하겠다.

毛沢東은 現實打開誘導策으로 社会变革, 社会正義의 實現, 經濟共有權을 제창하였고, 重工業의 促進을 강조하여 그 資本動員方法으로 內資動員, 外國援助의 유도, 外國人 投資誘致를 주장하였다. 新民主主義論, 聯合政府論等 달콤한 계의로 平凡한 住民의 支持를 구했으며 權力찬탈방안으로 온건정책을 추구할 것을 표방하여 共產主義의 理論이나 論理的 妥當性을 의면한채 大衆의 支持를 유도했던 것이다.

마르크스.엥겔스 (Marx.Engels)의 中國觀에 依하면 當時 中國은 反西歐文化圈의 모델이었고, 유럽經濟의 死活은 對中貿易量에 依存할 것으로 展望했다. 中國의 巨大한 人口, 廣闊한 領土, 土着的인 政治文化를 反西歐革命의 잠재력으로 看做했다. 이런 假定下에서 레닌은 國民革命을 反帝鬪爭의 核心運動으로 看做하여, 反帝, 反西歐思想의 高취를 위해 카라칸宣言 (Karakhan Proposal)을 하였고, 中國의 特殊여건을 감안하여 中國革命의 二段階論을 가지고 레닌과 로이 (Roy)가 격론을 벌리게 되었던 것이다. 當時 소련 指導層은 中國에서의 共產革命보다는 反西歐運動으로 소련 安保와 國家利益의 보호에 對해 보다 깊은 關心을 쏟고 있었다.

10月革命과 콤민테른의 支援, 소련의 接近外交는 中國 知識層에 많은 자극을 주었지만, 孫文의 死亡으로 國民黨權의 分散, 共產黨의 陰謀로 國共合作이 결렬되자 스탈린은 中共여건을 不考한 指示와 信증노선은

急成長한 共產勢力에 많은 問題點을 제기시켰다. 스탈린. 콤민테른의 소극적인 지원과 1930年代를 전후하여 英國경찰이 콤민테른요원을 소탕함으로써 강서소비에트( Soviet )에 기반을 둔 毛沢東은 소련의 지원에서라기 보다는 井崗山鬪爭을 통해 独自の 革命路線을 追求하여, 蔣介石政權의 脆弱點만을 꼬집으므로써 大衆의 支持를 얻어, 全滅의 危機에서 蘇生發展의 여지를 開發하고, 共產主義의 土着化를 試圖하였던 것이다. 延安으로 거점을 옮긴 毛沢東은 소련세력과의 접촉을 도모했지만, 中共이 소련에 지나치게 편향하는 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왔고, 그 시도의 일환으로 張國燾를 숙청하고, 王明을 黨權에서 추방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련은 1942年부터 본격화된 聯合軍의 作戰計劃에 지나친 거스림을 막기 위해 콤민테른을 해체하고, 毛沢東을 土地改良主義者로 規定 비난하였던바, 이것은 무언중의 中共과 소련의 일치된 계략으로 美國의 착각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毛沢東思想은 元素로 化合되어 共產主義의 結晶으로 된 民族主義로서 이것은 反帝, 反封建, 反資本主義 프롤레타리아 農民의 階級鬪爭의 綱領이로 추앙되고있다. 政治掛首( Politics is Command )의 打天下思想 ( 政權은 銃口에서 나온다. : Political Power grows with the Barrels of Gun )을 信奉, 主觀意思是 客觀意思를 支配한다는 主觀主義, 實踐主義 우선의 概念이며 四大優先原則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毛思想의 精髓라 할 것이다.

또한 毛沢東은 權力掌握手段으로 外柔內強手法을 활용하여 派閥主義, 宗派主義, 모험주의를 배격하고, 對蘇等距離外交를 유지하며 對蘇問題를 權力鬪爭 政策批判에 이용하고, 大衆支持를 獲得키 위한 方便으로 이를

뿐만 民主集中制 (Democratic Centralism) 를 채택, 党이 統制하는 警察國家의 건설을 시도했으며, 工業과 農業의 社會主義化를 위해 먼저 反帝, 反封建, 反独占資本主義革命을 完遂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中國의 傳統, 後進國家의 近代化의 모델을 시도하는 革命 모델,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소련의 영향, 土着的 상황에 입각한 共產主義運動과 毛沢東思想 등은 中共對外政策의 背景에서 빼놓을 수 없는 要素들이며, 이들은 直接, 間接으로 中共對外政策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 2. 基本外交政策

### 가. 對外政策의 目標

中共의 對外政策은 強·穩兩面이 있다고 主張되어 왔다. 即 穩健路線을 취하고 있는 主張에 의하면, 中共은 傳統的인 中國帝國과 같이 對外政策 수립에 있어 受動的이고 防禦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고 한다. 中共은 共產國家이므로 國際프롤레타리아革命을 追求하지만, 힘의 限界性 때문에 지금껏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과 소련의 壓力에 물려 自體防禦에 급급해왔다. 소련이 共產國家이지만 對外政策은 帝政러시아時代와 別로 다를바가 없다는 理由를 들어 中共의 對外路線이 傳統的 中國과 같이 수동적이고 防禦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依하면 中共은 本質적으로 強大國이 아니며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對해 中共의 對外政策이 攻擊的인 強硬路線을 追求한다고 主張하는 側은 中共이란 教條主義的 共產國家이며, 國家利益은 共產主義의 本

質에 從屬되는 것으로 外交의 最高理想은 共產主義 政治哲學을 實現하는 것이며, 世界赤化를 위한 侵略者이며, 一切의 國際的 活動은 世界赤化陰謀의 일환으로 판단하며, 中共을 好戰의인 強大國이라 판단한다.

中共의 對外政策의 목표를보면, ① 統治權이 미치는 지역까지의 中央集權을 強化하며, ② 國家安全保障, ③ 傳統的으로 單一國家였다는 觀念에서 國家統一, ④ 隣接國에 對해선 內境과 外境概念을 건지고 있다. 內境은 實際 統治權이 미치고 있는 境界線을 뜻하는 한편, 外境은 歷代 中國의 支配를 받았거나 中國文化圈에 屬하는 地域을 뜻한다. 이 지역에 對해선 中共스타일의 政治體制를 수립하게하여 傳統的으로 中國帝國과 隣邦과의 關係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나, 이것이 不可能할때는 最少限 中共安保를 威脅받지 않는 완충지역화하려는 것이 中共의 意圖이다. 또한 傳統的인 中華思想의 實現으로 亞細亞의 宗主國의 소비니즘 ( Chauvinism )을 實現하려고 든다. 그런관계로 中共세력이 隣接國에 미치는 것은 自然스러운 것이지만 餘他 外勢가 亞細亞地域에 영향을 주거나 干涉하는 것은 侵略的 帝國主義라고 주장한다. ⑤ 強大國 水準의 國際的 地位의 伸張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우선 中國大陸에서 外勢를 축출하여, 外勢의 干涉을 받지 않도록 하고 國家 近代化를 實現한 다음에 隣接國에서 外勢를 追放하여, 궁극적으로 國際프롤레타리아革命을 實現하는 것이 中共外交政策의 一般的 目標라 할 것이다. 이같은 目標을 實現키 위해 中共은 戰爭과 平和의 二重概念에 입각한 人民戰爭路線과 平和共存路線을 추구하고 있으며, 傳統的 中國外交概念인 以夷制夷를 구사하여 國際革命을 위한 統一戰線의 形成을 시도하는 戰略으로 임하고 있다.

## 나. 對外政策의 基調

스탈린은 그의 著「레닌主義의 根源」(The Foundation of Leninism)에서 外交를 「쇠와 증기없는 물로 만든 돌」로 비유하여 共産國家의 外交政策을 교묘하게 설명했다. 소련 外相을 지낸바 있는 비신스키(Andrey Y. Vishinsky)는 「外交가 戰爭과 다른 점은 軍事的 戰爭이 아닌 平和의 戰爭인 점이며, 同時에 이 戰爭은 政府가 海外에 파견한 代表에 依해 수행된다」고 풀이했다. 또 中共이 發刊한 新名詞字典에 依하면, 外交란 概念을 위의 비신스키와 스탈린의 主張에 다음의 要素가 혼합된 性向을 띄고있다.

北京大學教授로 있던 소련인 쿠타코프(Kutakov)는 그의 著「現代 國際關係史」(The Modern Chinese Foreign Relations)에서 스탈린의 주장에 유사한 「國家의 對外政策機能은 그 國家의 對外關係에 있어 作用되는 戰術的 技能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 共産黨의 對外政策의 풀이 方法에 의거하고 있다.

쿠타코프와 스탈린에 依하면 戰略(Strategic)은 힘의 展開이며, 特定한 歷史的 기간중에 그 技能을 수행하므로 단편적인 시점에서는 變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外交戰術에 관한 해석에서도 그는 스탈린의 해석 方法에 거의 일치한 「우리가 일상체험하고 있는 外交活動은 他國에 對한 戰術的 表現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탈린은 「戰略에 依속되어 종속적 任務를 遂行한다」고 주장하고, 쿠타코프는 外交는 戰術的 表現이며 外交政策에 依속되어 종속적 行위를 수행한다고 풀이하고, 社會主義의 外交政策은 융통성과 신축성에 依해서 규

정되지만, 언제나 原理原則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그는 프롤레타리아政党的 政策은 高度로 原理化되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융통성을 지녀야 하지만, 융통성과 필요한 조정으로 인해 基本原理와 국제프롤레타리아革命的 목표는 변동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依하면 外交는 国内政策과 不可分の 關係를 지니고 있으며 政治主權에 合致해서 결단된다고 한다. 또한 中共의 概念에 依하면 政治主權의 本質에 입각한 路線에 따라 對外政策이 決定되는 것이지 결코 選拔的(Alternative)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같은 概念에 따라 中共은 現世界를 ① 發展하는 社會主義國家, ② 植民地 상태에서 탈피하여 急進的으로 發展하는 開發途上國家, ③ 沒落하는 資本主義國家의 3大體制로 分類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3大體制内에서 四大敵對鬭爭이 展開된다고 주장하는바, ①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對決, ② 資本主義國家内 無產階級과 有產階級の 對決, ③ 帝國主義國家와 被壓迫國家間的 對立, ④ 帝國主義와 特權資本主義階級間的 對決로 分類하여 이 3大體制内에서 四大敵對意識을 開發하는데 中共對外政策은 根柢하고 있다.

中共은 社會主義 國家間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에 立脚하여 相互友好, 平等互惠, 相互協力에 基盤한 關係를 유지하며,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國家間에는 平和五原則(領土保存, 主權尊重, 相互不可侵, 內政不干涉, 平等互惠, 平和共存)에 立脚한 對外關係를 유지하며, 피압박人民의 革命鬭爭을 支援하는 統一戰線의 形成을 中共外交의 基本路線(Basic Line)으로 設定하고 있다.



이같은 基本路線에 입각하여 最近의 中共對外政策의 支柱는 反美, 反蘇, 反反動的 三反鬭爭을 강화하며, 國際프롤레타리아 革命을 위한 統一戰線을 形成하는 것을 關鍵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를 實現키 위한 戰略으로 우선 政治體制와 政權의 安定을 도모하며, 人民生活을 向上시키며, 經濟建設을 촉진하고, 國內환경조성에 기반한 國際환경의 조성을 위한 平和共存을 확대실현하고 있다.

事實上 中共은 中蘇紛爭의 격화에 의한 소련의 國境威脅과 소련의 아시아 進出을 견제하고, 美國의 退陣을 촉진하며, 日本의 成長을 견제키 위해 脫이데올로기의 實用主義 外交를 展開케 되어 自然히 平和共存이 擴大된 것이고, 人民外交의 擴大로 超大國에 도전하고, 아시아 指導者로 君臨코저 시도하는 戰略이기 때문에 柔軟外交로 임할수 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70年代에 들어서 中共의 對外政策이 60年代 下半期の 造反外交와도 方向感覺에 있어 正反對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變動도 그 저류를 形成하고 있는 基本路線을 分析해 보면 對外戰略과 戰術은 可變性을 보이고 있지만, 基本路線이나 政策은 不變하고 있다 하겠다. 中共이 最近 對外戰略으로 平和共存을 擴大하는 것은 統一戰線의 특수한 形態라 볼 수 있으며, 柔軟성과 伸縮性에 의한 國家實利를 追求하여, 共產陣營에서 소련세력을 고립시키고 對西方外交에서 人民外交를 伸張시켜 종래의 고립적인 國際關係를 먼저 打開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3. 中共 對外政策의 變遷

1949年 10月 中國大陸을 장악한 中共은 對外關係에 있어 50年代에는 對蘇依存一辺倒外交를 指向타가, 1956年 흐르시초프의 平和共存主張과 非스탈린運動에 불만, 점차 中蘇紛爭이 고조되고 60年代에 들어선 점차적으로 분쟁이 격화되어 1969년에는 國境地方에서 實戰으로 확대되었고, 60年代 後半期에는 스스로 對外關係를 달리한 造反外交를 展開하여 왔다. 그러나 60年代의 中蘇紛爭의 격화는 소련의 平和共存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招來케 되었다. 소련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中共은 文化大革命으로 國內을 정비한 후에 開放外交로 平和共存을 확대주장함으로써 60年代 共產圈內에서의 싸움이었던 中蘇紛爭은 全世界를 무대로 확대되고 있다. 大體的으로 中共의 對外政策은 時代別로 区分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期 (1949 ~ 53) 武力鬪爭期로 中共은 政權을 탈취한 후 國內秩序 回復에 급급하고, 對西方條約을 사실상 무효화하였으며 韓國戰에 介入함으로써 全外國人의 投資, 株式, 資本 一切를 沒收하고 外國人을 追放함으로써 竹의 幟幕 (Bamboo Curtain)을 내렸고, 美國의 對中封鎖政策에 물리게 되었다. 1949年 12月 ~ 1950年 2月, 毛沢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담판을 함으로써 中蘇 30年 友好協力協定을 체결케 되었으며, 이로 인해 中共은 소련의 經濟援助와 차관을 얻어 石油, 烏拉늄을 포함한 工業開發을 착수할 수가 있었다. 1949年 11月 北京에서 國際貿易團體聯盟會議를 가져, 북한과 월맹의 共產勢力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었고, 소련도 匪細匪 共產革命의 指導理念으로 毛沢東思想을 인정하게 되었다. 韓國戰에 과중 개입함으로써 中共安保에 直接威脅을 받게 되었고 戰爭費를 포함한 對蘇債務의 격증은 中共을 經濟的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나. 제 2 期 ( 1954 ~ 57 ) 반동체제라 할 수 있다. 소련은 急成長하는 中共의 견제를 시도하고, 한국전이 교훈이 되어 中共勢力膨脹에 武力第一主義는 그 成果가 회의적이라는 實証을 얻게 되었다. 덜레스 美國務長官의 中立勢力 포섭政策을 방해하고 中共 自體의 新生亞·阿諸國에 對한 接近 微笑外交를 展開함으로써 中·蘇가 匪阿中立主義者 포섭에 대한 각축전을 벌리게 되었다.

周恩來의 주도에 의한 柔軟外交로 美國에 對해서도 臺灣問題의 解決을 위한 協商用意를 시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指導者들에 대한 유화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中共은 아시아세력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勢力으로 확창할 것을 시도하고, 얼마만큼의 外交的 勝利를 거두었지만 中印國境의 긴장이 고조되고 티벳地方에서 印度와 소련의 조종에 의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흐르시초프의 非스탈린운동과 平和共存의 주장이 중 소간의 잠재적인 불만으로 표면화되어 中蘇紛爭이 고조되고, 소련은 對中共核實驗支援의 회피를 가져오게 되었고, 제네바에서는 美·中共大使級會談이 시작되었으니, 이때가 中共의 對外政策에 있어 맨 먼저의 柔軟外交期에 해당한다.

다. 제 3 期 ( 1957 ~ 59 ) 再調整期라 할 수 있다. 中蘇關係의 惡化, 中印國境긴장의 高潮等 積極的인 國際的 反應으로 國內問題에 있어 總路線, 大躍進運動 人民公社等 이른바 三面紅複運動의 失敗로 對內外 問題에 있어 再編成을 가져오게 되었다. 周恩來는 印廬에 對해 友好的 제스처를 보이고, 소련의 人工衛星發射에 對해 「東風이 西風을 制壓한다」고 극찬하였으나, 대만위기에 대한 소련의 소극적 태도에 中共은 能動的인 반발을 표했다. 亞·阿諸國은 中共의 武裝게릴라 폭동정책에 항의하고, 反共態勢를 強化하고, 시토회( SEATO )會議에서 中共의 干渉침략을 규탄하였다. 美, 蘇, 英의 核實驗과 프랑스의 核에 對한 관심증대는 中共을 초조속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소련의 一方的인 核實驗中止 宣布에 中共은 크게 반발하게 되었다. 티벳의 不安이 고조되고 中印國境긴장과 大躍進運動은 中蘇紛爭의 격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로서 彭德懷의 숙청과 劉少奇의 執權을 가져왔다.

라. 제 4 期 ( 1960 ~ 63 ) 中蘇紛爭의 격화기로 中共은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中立國關係改善을 계속 시도하고 印度와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흐르시초프의 東南亞巡訪으로 周恩來·레루會談이 결렬되었으나, 중공의 처베팔, 버마 국경조정이 성립되어 不可侵條約이 체결되었다. U - 2 機사건에 대한 美大統領의 사과 거부는 베르린問題해결을 위한 美·蘇파리會談을 결렬시켰고, 中蘇紛爭은 다른 共產國家들의 國際會議에 전파되어 81 個國 共產黨大會에서 中蘇紛爭의 조정의 실패되고 소련과 알바니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라오스 中立政府의 수립으로 印支事態는 악화되었고, 美國이 對월남 軍事, 經濟援助를 강화함으로써 일촉직발의 상황을

초래했다.

中共의 經濟的 落後性, 國府의 大陸光復準備, 라오스事態에 대한 美國의 強硬路線과 소련은 티벳反政府派와 內通하고, 印度는 中共의 秘密軍事路線을 차단함으로써 中共은 直接, 間接의 安保의 위협을 받게되었다.

中共의 印度國境侵透로 中印戰爭이 발발하였으나 美國의 강경노선에 따라 中共은 一方的인 休戰을 宣布하게 되었고, 소련의 쿠바미사일 적재에 대한 中共의 기대가 증대되었다. 케네디大統領의 強硬態度에 굴복함으로써 中共은 反蘇運動을 展開하고, 흐르시초프는 유럽共產黨大會에서 反中共運動을 전개함으로써 中蘇紛爭이 격화되었으나 소련의 平和共存에 물러 中共은 계속고립되고 있었다.

마. 제 5 期 ( 1963 ~ 65 ) 第 3 世界에 對한 外交強化시도기로 볼 수 있다. 周恩來는 아시아, 아프리카 13 個國을 순방하여, 이들에 대한 反美, 反蘇, 反印度 宣傳을 강화키 위해 제 3 世界에 對한 微笑外交를 전개한 두번째의 柔軟外交期라 할 수 있다. 中共은 아메리카地域의 革命基地로 쿠바를 아프리카地域 開發途上國에 對한 유대강화를 시도한 결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아프리카 國家들의 中共承認을 유도할 수 있었다.

월남에서 고딘 . 디엠政權의 실각으로 印支事態는 악화되고, 이에 對한 美國의 적극적인 介入으로 라오스의 安定을 도모했으며, 소련, 中공은 越南問題로 不和하여 中共은 海南島 近海의 外國船舶의 항해 規制를 宣布함으로써 소련을 궁지로 몰았다.

1964 年 12 月 中共의 核實驗은 中蘇紛爭을 격화시켰고, 越南戰에 對

한 美國의 挑戰으로 베트남에서 美, 蘇, 中共의 대결이 現實化되었다.

越南戰問題에 對한 中共 高位層의 大論爭( The Great Struggle )은 軍部の 分裂을 招來 羅瑞卿派의 去勢를 가져왔고, 越盟에 對한 積極적 介入보다는 土着革命의 精神的 支援이라는 美名으로 消極的인 介入 宣言은 中共의 安保本位인 實利追求라는 반발과 함께 월명, 북한등의 自主路線 표방을 낳게 했다.

바. 제 6期( 1966 ~ 69 ) 文化革命期의 對內政治的 不安으로 對外關係를 스스로 단절시킨 造反外交를 展開하였다. 이 期間中에 이집트駐在 大使 黃華를 제외한 全在外 公館長을 文化大革命 再教育이란 口實으로 소환했다. 對內政治鬭爭과 이를 利用한 소련의 위협으로 中共安保는 심한 위협을 받고 있었으나 1968年8月 체코사태는 共產弱少國의 共同威脅感 때문에 中共의 對共產圈의 교예 자극되었고, 우수리江邊을 위시한 中蘇國境衝突은 소련의 豫防戰爭에 對한 威脅을 실감케하여 中共의 對外關係 改善의 시급성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事實上 60年代는 中蘇紛爭이 격화되었지만 소련의 平和共存 戰略에 물려 中共은 고립되는 反面에 소련은 對西方外交를 통해 共產圈의 主導權을 堅持할 수가 있었다.

사. 제 7期( 1969 ~ ) 柔軟外交期라 할수 있다. 체코사태는 中共에게 바르샤바會談( Warsaw Talk )의 再開를 미국에게 要求하도록 유도했고 우수리江邊에서 中蘇國境紛爭의 격화는 文化革命으로 피해된 中共에게 심한 心理的 打擊을 가져다 주었다. 닉슨·伊藤會談에서 日本의 役割增大의 시사는 分明히 中共에게 또다른 威脅이 아닐 수 없었다. 이갈



隣接國에 對한 中共의 姿勢는 國境概念에서 內境 (Inner Frontier) 과 外境 (Outer Frontier) 概念을 가지고 있어, 內境國家에 對해서는 中共型態의 國家를 建設하고, 이것이 不可能할때는 最少限 完善地域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意圖이다.

주변 국가에 對해서 相對國이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不安하여 現政權을 打倒할 수 있는 여지를 개발할 수 있을때는 戰爭精神에 입각한 人民解放戰爭으로 임하고, 이에 反해 政治, 社會, 經濟的으로 安定된 상태에 있는 주변 국가에 對해서는 平和5原則에 입각한 平和共存을 展開한다.

平和共存을 追求하는 國家에 對해서는 中共스타일의 國家成立의 꿈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를 유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平和共存으로 임한다는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때 平和共存은 共產主義戰略인 統一戰線의 한形態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스카라피노 (Scalapino) 教授에 의하면 中共은 國家外交 (Nation to Nation), 人民外交 (People to People), 同志外交 (Comrade to Comrade)의 3大外交概念을 가지고 있다 한다. 國家外交는 正式 國交樹立國家內의 外交를 의미하며, 人民外交란 平和共存으로 國家間에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民間베이스의 外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國家外交, 人民外交를 展開할 수 없는 지역에 對해서는 中共의 동조세력을 활용하여 극단적인 方法에 의한 革命鬭爭을 強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中共은 주변 국가에 對해 전통적인 中華思想에 입각한 毛沢東思想의 주입을 시도하며, 美國, 日本, 蘇聯에 반대하는 이른바 反帝鬭爭의 巨頭로 자처하며, 隣接國에 대한 物質的 精神的 支援으로 大兄의 地位를



자처한다. 그러나 인접국지원에 있어 物質的, 軍事的 援助보다는 政治的 性向이 다분한 전신효과적 원조와 精神的 支援에 치중하고 있다.

#### 나.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北韓은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金日成 體制가 성립될 수 있었다. 그런 관계로 1950년까지는 對蘇一辺外交에 치중하고 있었다.

6.25事變에 의한 中共軍의 과중개입은 自然히 中共의 對北韓영향력을 강화하여 1958年 中共軍의 완전철수시까지는 크게 中共의 은혜를 입고 血盟之間이 되었던 것이다. 1956年 흐르시초프의 非스탈린運動과 平和共存의 主張은 中共과 北韓의 반발을 크게 사게되어 中共과 北韓關係는 밀착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1960年代에 들어 中蘇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北韓은 점차 中共과 소련의 불화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시도를 보였다. 1965年 월남전에 美國의 擴大介入은 中共과 蘇聯 및 共產圈의 對越盟支援에 對한 國際統一戰線의 形成問題가 대두되었다. 中共指導部에서는 월남전의 지원問題를 놓고 中共이 소련을 업고 直接介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共產革命의 土着革命을 내세워 物質的, 精神的 援助에 局限시킬 것이냐는 두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 이 問題는 自然히 韓國戰爭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中共이 한국전에 직접 介入한 가장 큰 要因은 中共安保의 직접적인 위협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越南戰의 擴戰은 결코 印支의 17°線을 넘어서 聯合軍이 진격하지 않을 것이므로 中共의 安保는 直接的으로 위협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大戰略論爭(The Great Struggle)에서 國際的 統一戰線形成을 주장하던 羅瑞鄉派가 속

정됨으로써 北韓은 中共의 對隣接國 지원에 희의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北韓은 中共과 蘇聯에 對해 自主路線을 표방하게 됨으로써 共産國家들의 이데올로기의 團結性은 심히 약화되었다. 1966年 文化大革命은 中共과 北韓關係에 있어 大使關係를 단절하는 약화된 처지로 몰았지만, 1968年 체코사태가 자극되고, 중소국경분쟁의 격화는 兩政權의 接近을 가져오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1969年 10月 中共創立 日에 北韓에서는 崔庸健을 中共에 보내고, 1970年 4月 周恩來가 北한을 방문함으로써 復交 및 옛 友好關係를 부활할 수가 있었다. 事實上 최근의 추세를 미루어 보아 中共은 北韓에 對해 接近外交를 취하고 北韓도 소련과 中共사이에서 實利를 추구함으로써 유대가 밀착되고 있다.

中共과 北韓은 東洋式 共産主義體制의 一人獨裁體制이며, 유구한 歷史와 傳統的인 關係, 地政學的 關係로 보나 毛沢東과 金日成 共히 好戰性과 後進國家로서 唯一思想을 개발하고 있다는 側面에서 볼때에도 中共과 北韓의 密着性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추세로 미루어보아, 北韓이 中蘇에게 共히 提議할 수 있는 要求는 ① 金日成 體制의 安定을 도모하고, ② 中共이나 소련이 모두 北韓의 內政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③ 北韓의 安全保障을 보장하고, ④ 韓半島의 赤化統一計劃을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⑤ 經濟發展과 工業化를 促進해 주고, ⑥ 고립된 國際的 地位를 伸張할 수 있는 支援과 國際的 統一戰線을 形成하고, ⑦ 國際共産主義運動에 北韓을 참여시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北韓主張에 對해 소련의 영향을 中共보다 크게 받을 수 있

는 것은 經濟發展의 지원과 工業化의 促進뿐이고, 그밖의 사항은 中共에게 보다 큰 比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側面에서도 中共과 北韓關係가 소련과 북한관계 보다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最近 中共은 文化大革命이후 對內不純分子를 숙청하고, 새로운 體制를 강화하였고, 強硬路線을 指向하는 것으로 알려진 林彪派를 除去함으로써 國際情勢추이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平和共存의 擴大主張으로 人民外交를 강화하고 있으며, 敎條主義를 이탈한 實用主義的 外交를 指向함으로써 匪細匪지역의 현상고정화를 인정하게되므로, 自然히 한반도의 현상유지 (De Facto) 方向으로 기울고 있는것 같다.

이렇게 볼때 中共이 북한에 대한 자세는 ① 남북한을 UN에 동시 초청, 또는 同時加入을에는 融通性을 두고 ② 日本의 한반도 대거진출을 견제할 것을 시도하고, UN軍의 철수와 UNCURK의 解體를 주장하지만 잠정적으로 美軍의 한국주둔을 용인할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③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모색하고, 남북대화를 政治協商場으로 전환할 것을 희망할 것 같다.

이런 觀点에서 볼때 中共은 北韓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表面的으로는 유사한듯이 보이지만 實利追求의 現實外交에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동태에 대해서 中共은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이 勝算이 없는 모험적인 行爲를 시도할 경우, 中共은 可能性으로 보아 支援치 않을 것이며, 한사코 北韓이 고집할 경우에는 굳이 말리지도 않을 것이다. 前者는 美國과 自由陣營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기 위함이고 後者는 북한과의 반복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現中共이 내세우고 있는 經濟政策은 自力更生主義로 三大差別의 해소에 注力하고 있다. 卽 두뇌노동과 肉體勞動의 격차해소, 都市勞動과 農村勞動의 소득격차해소, 工場勞動과 農業勞動의 소득격차해소이며, 먼저 農業에 기반한 國家近代化를 달성하고, 輕工業을 발전시킨 다음에 重工業發展의 시도로 社會主義工業國家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中共은 重工業發展에 핏치를 가하고 있음으로, 自然히 貿易性向도 工業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品目에 우선하고 있다. 1971年度 무역현황을 보면 對西方貿易이 全무역비율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의 프랜트 수입에 치중하여 수출이 정체되고 수입이 증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中共의 對自由地域 貿易增大는 共產敎條主義, 고립주의 性向이 쇠퇴되고 自由陣營의 動態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 보다 호의적으로 化할 것이며, 이렇게 되므로서 親西歐化와 自由化를 기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側面에서 볼때 한국이 中共에게 無害한 敵意없는 國家라는 사실이 객觀적으로 입증될때 第3國中介나 또는 다른 方法에 의한 對中共接觸이 不可能한 것은 아닐 것이다.

#### 다. 韓國의 對中共 姿勢

最近의 極東情勢를 잠깐 살펴보기로하자. 먼저 中蘇關係는 1950年代 對蘇依存一辺倒外交에서 60年代는 中蘇紛爭이 高潮됨에 따라 中共은 소련의 平和共存戰略에 물려 고립되어 中蘇紛爭에서 소련은 中共을 고립시킬 수 있었고, 또한 美國의 對中共봉쇄정책에 물려 헤어날 수 없는데다가 60年代 下半에는 國境紛爭으로 最大의 위기에 물리게 되었

던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서 中共의 柔軟外交의 展開는 소련에게 많은 問題點을 던져주었을 것이다. 60年代에 거의 完全고립할 수 있었던 中共이 갑자기 美·日을 비롯한 西方國家와 平和共存을 擴大함으로써 中蘇紛爭은 事實上 全世界的으로 확대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소련은 中공의 高립을 계속시도하게 되었고 高립이 不可能하다 할지라도 對西方外交에서 中공을 궁지로 몰 方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은 印·파전쟁의 支援으로 印度洋의 기반을 확고히하고 日本과의 접촉을 통해 日本의 對中接近을 견제하려 했고, 美國에 對해서도 中공과의 접근을 체크하겠다는 戰略으로 臨하게 되었다. 그러나 第一段階라 할 수 있는 中공의 高립은 事實上 國際政治의 多極化 現象때문에 不可能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은 第二段階의 戰略으로 對西方關係에서 相當한 水準의 양보를 하면서라도 中공과의 接近度를 弱화시키려는 試圖를 견지해오고 있다. 이같은 側面은 印度洋에서의 소련군사력의 조절, 中東問題의 해결, 베르린問題의 해결시도, 공격용 核武器制限協定(SALT)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다는 자세로 임해왔고, 中공의 成長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歐洲安保協力會議을 추진키 위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브레즈네프는 美國, 프랑스, 西獨을 訪問하여 西方主要國과의 의견조정을 시도하여 1972年 11月부터 豫備會議에서 西方側이 主張해온 人間과 文化의 自由로운 交流案을 수락하여 歐洲安保會議의 급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번 구주안보회의가 成功된다면 이것은 中공의 安保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소련은 계속해서 中공의 高립시도의 일환으로 아시아 集團安保論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않을 것이다.

한편 美國과 소련의 關係를 볼때 50年代는 소련의 도전에 대해 美國의 主導로 유지되었다면, 60年代는 소련의 도전에 美國의 積極的 反應에 依한 現狀維持(De Facto)를 도모했으나, 70年代는 美國의 外交的 도전과 소련의 反應에 依해 좌우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이같은 情勢推移는 美蘇間에 核均衡이 現實化된 여건에서 進行되고 있음으로 美國의 主導에 依한 소극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美國의 國際收支를 향상시킴에 도움을 주고져 할 것이다.

美·日關係에 있어서도 지난 4半世紀間 日本은 對外政治的 力量(Potentiality)을 포기한 작은 日本(The Little Japan)으로 行勢해왔으나, 70年代에 들어서자 日本이 亞細亞地域에서 소련과 中共에 처한 전세계력으로 看做하는데 처한 무리가 있으며, 작은 日本이라는 概念은 變質되어 가고 있는 同時에 美日間에는 國際收支의 不均衡 등 경제적 여건등으로 兩國間의 갈등요소가 膨大하고 있으므로 70年代에 있어 美日關係의 明確한 方向은 展望할 수 없으나, 잠정적으로는 美國의 核우산의 보호下에 美國이 聯合과 協助體制를 指向할 것으로 展望할 수 있다.

日本과 소련關係에 있어서도 多極體制의 抬頭로 國家的 獨自性이 현저히 노출되고 있으며, 極東地域에서 四大國이 각축하고 있을때는 日本이 最大利益者가 될 공산이 크다 할 수 있다. 現여건으로 미루어 보아 日本과 소련間에 가장 큰 장애는 北方領土問題이며, 당분간은 國家利益 中心의 經濟協力の 적극적 추진이 기대되며 日本은 소련의 中共 孤立戰略과 아시아 進出전략에 대해선 相衝된 見解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이 極東地域에 對한 強大國의 立場은 한마디로 말해서 國際政治의 다극화 추세에 따라 理念이나 우호보다는 實利追求의 現實的인 자세에서 신축성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美國, 日本, 中共이나 소련 共히 韓半島에 對한 現狀고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 韓國의 對中共姿勢

朴大統領의 6.23 宣言은 國際潮流에 부응하고, 韓半島의 向方을 韓國이 主導的으로 이끌고 나갈수 있는 가장 基本的이고 적절한 方向제시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최근의 극동정세는 美國이나 日本이 對北韓 접근을 시도하고있고, 北韓은 中共과 소련을 업고 西方國家에 對한 國際地位 신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에 한국만이 唯一合法政府라는, UN이 승인한 한국의 正統性이 퇴색될 우려가 짙다. 이것은 韓國이 對外方向을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이제 時代的 大潮流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最近의 정세로 미루어보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方向은 이제 적극적인 자세와 소극적인 자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積極的인 姿勢에 있어서 우리는 美·日이 對北韓接觸을 최대로 견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기적 側面에서는 상당히 實効性이 있겠지만 長期的 側面에서 볼때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한국의 지나친 고집은 한국의 國際的 高립을 招來할 위험마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積極的인 姿勢로는 우리는 美國에 對해 對北韓 접촉의 견제를 시도하되 그 程度와 活用度를 側定하고, 同時에 南北對話를 진전시켜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모색하며, 민간 베이스의 접촉시도로 中共과 소련

에 대한 긴장완화를 도모함으로써 북한의 도전성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北韓이 美國과 日本에 接近한다는 것은 많은 問題點을 제기하겠지만 부수적으로 北韓의 自由化를 기할 수도 있을것이다. 南北對話를 진전 시킴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人的, 物的, 文化的 交流를 실현한다면 分斷의 不便을 어느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자세를 한국이 취할 경우, 자칫하면 위험을 수반하는 副作用이 뒤따를 수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中共, 소련, 北韓에 처한 긴장완화를 유도할 경우 北韓의 도발이나 武力侵略에 처한 견제력 준비를 동한시 할 가능성이 있으며, 긴장완화의 추구와 남북對話의 진전은 國民의 反共概念과 共產主義에 처한 적개심을 해이시켜 韓國의 價值觀에 불안을 招來할 위험이 있다. 또한 긴장완화만을 目的으로 中共, 소련 및 共產圈과의 國交關係를 적극 추진한다면 韓國에 처한 美國의 코밋먼트(Commitment)에 회의를 가져올 위험이 있으며, 그렇게되면 經濟援助와 安保上에 있어서도 많은 난문제를 대두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한국이 對北方關係에서 적극적 자세로 임할때는 상당히 세심한 注意가 요망될 것이다.

美國과 日本이 北韓에 접근하는 것을 억지로 견제코저 한다면 한국이 好戰性의 國家로 國際적으로 誤認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日本의 對北韓 中共接近을 한국이 全的으로 억제할 수는 없으나 정중한 反對意思를 表明해야 될 것이고 非敵性 共產國家와 對蘇接近을 시도하여 한국의 소의를 막아야 될 것이다.

中共과 소련에 처한 韓國의 接近을 北韓의 도발성을 견제시키는데



활용하고, 美·日·中共·蘇等の 強大國에 對한 韓國의 實利保護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最近의 極東情勢를 살펴볼때, 韓國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方向은 먼저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길일 것 같다.

긴장완화 추구에의 어프러치를 구상해 본다면, ① 南北對話를 계속한다. ② 우리政府의 政策方向과 같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統一問題를 앞세우지 말고, 이 問題는 잠정적으로 잠복시켜 놓고 南北韓의 物的, 人人的 交流를 實施한다. ③ 이것이 사실상 무르익어 갈때 北韓을 政治體制로 認定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이질성이 交流를 통해 점차 同質性으로 좁혀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南北間의 거리가 좁혀져 어떤 中間哲學에 依한 統一을 회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단계가 성숙했을 때에야 軍備縮少問題가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는 전제조건으로 中共·소련·美國·日本 共히 한반도를 세력팽창의 발판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자세를 명백히 해야될 것이다.

사실상 軍備縮少問題는 우리가 보아온 바와 같이 가장 데리케이트하고 어려운 問題다. 美·中共의 關係改善, 美·蘇간의 平和共存의 實現은 外交的, 政治的 긴장완화이지 軍비축소에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고 가까운 장래에도 그렇게 展望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의 軍備縮小라는 면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美國이 한반도에서 退陣한다면, 地政學的으로 한국안보는 自動的으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美·中共關係가 떼어놓을 수 없는 不可分의 관계로 승화될 때는 北韓의 南侵可能性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한국 방위력이 重要하다는 것을 절감케 한다.

그러나 美·中共·소련·日本의 극동지역에서의 긴장완화가 정상적으로 發展된다면 상호 견제와 균형 ( Check and Balance ) 를 유지할 것이므로 地政學的인 問題는 별반 위협을 받지않게 될 것이다.

70年代의 국제정치의 다극화와 冷戰體制의 종식을 절감하는 段階에서 우리 한국이 中共에 對해서 敵意없고 無害한 하나의 平和守護國家라는 사실이 各觀의으로 증명될때는 中共도 現國際政治의 추이를 逆流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한국에 對한 接近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中共이 한국에 對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소련이 한국과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平和共存을 추구하게 된다면 中共의 安保는 적지 않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냉정히 이야기해서 中共은 北韓과 接境하고 있지 韓國과는 接境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政治, 經濟, 社會的 諸分野에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國家安定이 정립되어 있다. 中共의 對隣接國政策이 人民解放戰爭과 平和共存의 平和와 戰爭의 二重概念에 입각하고 있고, 스칼라피노 教授의 틀어와 같이 中共은 國家外交 ( Nation to Nation ), 人民外交 ( People to people ), 同志外交 ( Comrade to Comrade ) 의 3가지 형태의 外交戰略을 취하고 있다. 체제와 경제, 사회, 정치적 不安이 重要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人民解放戰爭路線에 입각하여 反政府勢力을 지원하고 폭력적 혁명을 지원하지만, 체제와 政治 社會 經濟的 安定을 기하고 있는 國家에 對해서는 自體의 安保에 直接 위협을 받지 않으려는 관점에서 平和共存을 희구하여 완충세력화하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가정할때 韓國이 中共에 對해서 敵意없는 國家라는

事實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때 對中共接近이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中共의 對韓半島 자체에 대해 현상고정화를 희망하고 있는 限 北韓의 반대나 저지를 설득할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北韓이 아무리 中共의 對韓接近을 저지한다 할지라도 時代의 大潮流를 逆流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마치 日本이 北韓에 接近하는 것을 송두리채 韓國이 저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論理에서도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o Harold C.Hinton : Communist China in the World politics, Houghton Mifflin Co.
- o Werner Levi : The Modern Chinese Diplomacy.
- o Conrad Brandt ; Stalin's Failure in China ; 1924 - 27, Harvard University Press
- o Edgar Snow ;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Random House.
- o Edmund O.Clubb ; 20th Century Chin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o John K.Fairbank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 o Robert G.North ; Moscow and Chinese Communist, Standford University Press.
- o 蔣中正著 ; 蘇俄在中國, 中央文物交應社.
- o 羅昌柱著 ; 中共外交論, 一潮閣.
- o 羅昌柱著 ; 中共指導思想論, 國際學術院.
- o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World politics, Asian Survey.
- Survey of Mainland China Magazine, 北韓, 政經研究, 國際問題外定期刊行物等 多數參考



## 第十章 中共經濟의 現況과 그 展望



## 第十章 中共經濟의 現況과 그 展望

中共 經濟는 한마디로 말해서 낙후성을 면치못하는 後進의인 長期 遲滯 상태에 있다. 政權을 成立한 即後부터 巨視의인 長期政策 云云하면서 政治優先의 經濟政策을 추구하고, 社會主義 經濟體制를 표방하여 集團經濟를 추구했지만 그 成果는 他後進國에 比較해 볼 때 맨 밑바닥의 水準을 免치못하고 있다. 勿論 中共經濟가 낙후되어 있는 理由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며, 例컨대 巨大한 人口, 광활한 領土의 結束性的 弱化等을 들 수 있겠지만, 戰後 亞細亞國家 特히 東亞諸國의 발자취를 더듬어볼때 그래도 中共은 보다 좋은 여건에서 出發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럼 本章에서는 中共經濟의 長期 落後性에 대해서 그 實體를 알아보는에 主眼을 두어 풀어보기로 하자.

### 1. 概 況

中共의 總面積은 987만  $km^2$ 로 우리 韓半島의 約 47個程度의 大國이다. 人口도 8억 3천여만명으로 세계 第1의 人口大國이다.

美 陸軍省의 調查 報告에 依하면 現在 中共은 經濟的으로 落後되고 遲滯되어 있지만, 文化革命後 勞動集約的인 生産方法에 依해 最近 地方人民公社 및 地域 單位로 製鐵工場, 發電所, 機械工場, 肥料工場, 시멘트工場等 5個工場 建設方針下에 地域別로 同類工場을 開發하고 있는 奇型的인 經濟體制를 이루고 있으며 地域 單位의 自

級自足 經濟를 추구하고 있다한다. 이런 結果 산간벽지에 까지 相当規模의 公廠이 建設되고, 어느 정도 電化施設이 되었으며 交通現況도 여러개의 揚子江 渡江橋를 建設하여 地方 各省에 幹線 鐵道를 建設하고 있다고 한다. 工業진흥을 위해 自力更生을 내걸고 工業을 취진해온바, 小規模의 動力資源에 石油를 充當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肥料를 日本, 西歐等地에서 輸入했으나 近年에 들어선 그 수입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教育面에도 많은 진척을 볼 수가 있었다. 文盲人이 많기로 알려진 中國에 1971年 現在 文盲率이 20% 以下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文革 後로 正規過程의 단축과 理論教育보다 實驗教育의 強調로 教育의 勞動化를 正當化시키고 있다.

教育의 3大目標을 政治奉仕, 生産活動에의 參加, 黨指導에 따르는 教育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社會主義 人間(Socialist Man)을 形成하는 것이 그 目標라고 내걸고 있다.

初等學校, 中等學校를 나온 사람은 義務的으로 2~3年間 集團勞動場에 수용되고 高等部에 취학코자 하는 者는 生産隊의 責任者의 薦거와 해당 黨書記의 추천이 있어야 되며 入学式驗 制度를 폐지하고 있어 質的으로 심한 차이를 들어내 教育成果를 심히 감소시키고 있다.

現在 中共에 취학하고 있는 아동은 1억 1천 6백만 (1972) 程度로 평가되고 있다.

中共의 軍需産業은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으로 후속국이며 침체되어 있지만, 傳統的인 大國이라든지 蘇聯과 美國의 위협을 견제



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의 발전에 신경을 써왔으며 1973年6月 現在 15차례의 核實驗을 했고 人工衛星의 발사도 2차례에 걸쳐 했다.

이때문에 核開發에 소요되는 中共의 年豫算은 大体的으로 10億 弗로 추산되며 國防費는 100億弗정도로 總 豫算의 30%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1971年度 對外貿易量은 約 46億弗로서 우리와 비교해 볼때 國土 人口의 龐大性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못할 만큼의 貿易小國이다. 이것도 1970年代에 들어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일이며 1960年代 後半은 더 소량이었다.

그러나 그 貿易上 한가지 중시해야 될 것은 무역흑자를 고수하고 있고 이것은 비교적 계속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과의 무역량을 증가하는 것은 相對國의 力量에 있기 보다는 中共자신이 어떤 商品을 상대국에 팔 수 있는 水準과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때문에 中共의 무역량은 크게 증가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을 비롯한 非共產 先進國과의 무역적자를 상당히 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개발도상국가나 홍콩, 마카오와의 무역흑자도 충당하고 있다. 무역 적자의 충당력은 후진국과의 무역흑자 해의 화교들의 送金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것으로 커버치 못할때는 相對國의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요컨대 中共經濟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農業에 있어선

人民公社를 主軸으로 되어있으며, 이것은 生産隊와 生産大隊, 人民公社의 三級所有制로 되어있다.

60 ~ 80세대가 一群이 되어 生産隊를 이루며, 또 몇개의 生産隊나 生産大隊를 형성하고 5,000 ~ 6,000세대가 人民公社를 이루고 있다.

그 所有權도 集團體制化되어 있으며 生産隊에 6~7%의 耕作地를 私有로 인정하여 農業에 對한 勞動力과 物質 자극을 줌으로서 生産을 증가시키려는 政策으로 임해오고 있다.

工業에 있어선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地方 單位의 細胞經濟體制 (Cellular Economic System)로 이루어지고 있다.

文革 以後 中央機構의 비대를 제거키 위해 地方分權化를 시도하면서 計劃委員會에서 全擔하던 諸般 經濟計劃이 地方으로 分散 移讓되어 省政府에게 큰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實際로는 省보다 낮은 水準의 地域別로 自治經濟를 도모하고 있는 性向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即 政府가 캐치·프레이즈 (Catch phrase)를 내걸어 地方 單位의 小規模인 五大工場 建設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發電所, 肥料工場, 機械工場, 시멘트工場, 製鐵工場을 건설토록 함으로써 文革 以後에 수많은 工場이 地方別로 雨後竹筍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短期的 側面에서는 勞動力 集約으로 生産增加를 도모할 수가 있다할지라도 그 產品의 品質이 前近代의 低質品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장기침체 내지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으며,

地域別 경제심과 不安을 팽대시킬 위험이 크다. 이런 觀點에서도 中共은 技術, 資本, 資源의 도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구조를 보면 1971年度에 共產障營과 非共產障營의 비는 82%, 18%로 비공산제에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中共의 賃金과 生活를 알아보면 工場勞動者의 등급이 8等級으로 分類되고 이 8등급중 上層은 月 100원 (2.23원 : 1弗) 中層 : 60元, 下層 : 30元 程度이며, 公務員이나 黨幹部는 24等級으로 분류되어 上層인 1~12等級은 400元 以上, 中層인 13~17等級까지는 100~160元 程度, 下層인 18~24等級까지는 40~90元 程度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敎職者의 봉급은 上海地域인 경우 初等敎師 40元, 中等敎師 50元, 高等敎師는 75元, 大學敎授 310元을 받는다고 한다.

우선 中共의 賃金分布를 살펴보면 等級에 따른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것은 中共에서 專門職의 待遇가 좋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오랫동안 紅과 專의 싸움에서 最近 實務派의 복귀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專이 우세하다는 暗示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平常 中共인들이 1세대 5人家族으로 볼때 食生活費가 60~75元, 主居費가 5~15元, 衣類等 30元, 其他費 30元으로 보아 150元程度의 비용이 1個月 生活에 소요된다고 한다.

비교적 食生活費는 저렴하지만 생활필수품인 자전거, 시제, 라디오 같은 물건이 매우 비싸다.

## 2. 中共 經濟의 變遷

中共政權이 成立된 後에 그들의 經濟政策은 社會主義 集團體制을 위한 工業化를 시도하여 왔다.

1950年代 初盤은 土地改革을 도모하면서 重工業의 신속한 발전을 도모코저 시도했다. 1957년부터 소련의 支援이 약화됨과 동시에 工業의 느린 發展速度와 農業部門의 낙후성으로 大躍進運動을 전개하여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總路線, 大躍進運動, 人民社會의 三面紅旗運動이 失敗하자 廬山會議의 結果, 毛沢東이 第二線으로 물러나고 劉少奇가 國家主席에 올라 新經濟政策을 도모하면서 二足走行으로 農工併進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은 점차 資本主義 經濟體制化할 可能性이 짙어진다는 毛沢東의 기우는 다시 1966년부터 文化革命을 일으켜 經濟狀態를 심히 퇴폐시켰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선 中共經濟도 점차 활기를 띄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個工場建設을 강력히 추진하는 바람에 기형적인 細胞經濟體制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하겠다.

### 中共經濟의 發展過程

대략 中共經濟의 發展過程을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改革, 復興期

長期間의 抗日戰爭과 國共戰爭으로 中國은 극도로 퇴폐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1949年末 中共의 政權이 成立된 직후 對內 사정은 엉망이라는 말대로였다.

1931年の物価指數를 100으로 볼때 1949年 10月末 中国의 物價指數는 108,357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해 10月 첫주에서 셋째 주까지의 물가지수는 74,367에서 108,357로 3주사이에 급격한 변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中国戰爭의 위험성과 國民政府의 權威下落到 있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中国을 인수한 中共은 먼저 그 回復을 위해 주력하게 되었으나, 그 當時 사정으로 여러가지 장애가 가로놓여 不可能했던 것이다.

이에 毛沢東은 重工業 發展에 우선을 두면서 우선 对内 政治, 經濟, 社会安定을 시도했다.

이같은 計劃은 土地改革, 工業, 商業制度의 改編, 貨幣流通의 改革 反動分子의 肅청, 反美鬭爭, 北韓支援等 政治運動등을 주축으로한 몇 가지 運動이 전개되었다. 85% 人口가 農業과 農業에 부수된 商工業에 종사하고 있었다.

長期的인 日本支配로 困해 滿州地域에 製鉄, 鉸山, 電力의 상당한 生産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日本의 항복을 접수한 소련이 많은 重工業 施設을 해체해버렸기 때문에 執權후 中共 工業發展에 대해 많은 장애를 주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공·농업생산

표 1

종	류	단위	중공성립이전최고	1949	1952				
선	철	만 톤	180.1	25.2	192.9				
조	강	"	92.3	15.8	134.9				
석	탄	"	6,188	3,243	6,649				
발	전	억 KWH	59.6	43.1	72.6				
석	유	만 톤	32.1	12.1	43.6				
시	멘	트	229	66	286				
硫	酸	"	18.0	4.0	19.0				
화	학	비	22.7	2.7	18.1				
金	屬	切	削	機	械	대	5,390	1,582	13,734
면	사	만	梱	245	180	362			
면	포	억	m	27.9	18.8	38.3			
사	탕	만	t	41.4	19.9	45.1			
식	량	만	t	13,870	10,810	15,441			
면	화	만	피	콜	1,668	889	3,607		

출처 : 國家統計局編, 「偉大的十年」北京 1959年.

中共政策의 강력한 인플레이션정책은 財政, 금융, 상업의 각기구의 정  
비와 強力한 디플레이션政策에 依해서 추진되고 있었다.

具體的으로 1950年3月 國家財政經濟統一工作인 中央政府에 依한  
財政收支의 統一을 달성하여 호전시킬 것을 노력했다.

또한 엄격한 現金管理政策으로 통화팽창을 억제시키고, 人民銀行에 의한 貸付를 엄격히 規制시키고, 物價面에서도 國營貿易公社를 설치하였던바 이것이 大量의 食糧, 石炭, 綿花等 重要物價를 장악하여 市場을 조작했다.

土地改革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952年말에 이르러서는 基本的인 改革에 성공했다 할 수 있다. 土地問題는 農業이 中共經濟에 點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다.

中共 全國土의 約11%가 耕地로서 農家 一戶에 分配되는 土地는 約1ha 정도였다.

정권 성립 當時 中國의 貿易比는 非共產陣營에 편중되었지만 共產政權이 성립됨으로 자연히 中共貿易量은 社會主義 國家에 편향하고 있었다.

1952年 무역거래액은 約13億弗이었으며 이중 69.6%가 共產陣營에 편중하고 있었다. 1948년까지는 中共과 正式 交易이 不可하였지만 1949年 中共勢力이 南下함에 따라 中共側은 貿易規則을 發表하여 소수국가와 貿易去來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韓國戰爭으로 美國의 對中共封鎖政策은 中共의 對外貿易成長에 큰 장애가 되었다. 1950年 2月 中蘇友好同盟條約이 체결되어 소련의 원조에 依한 경제개발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 나) 第1次 5個年 計劃

1952년까지 戰爭 상처를 치유했다고 생각하는 中共指導者들은 1953년에 들어 長期計劃을 始作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第1次 5個年計劃은 自力更生을 위한 重工業發展을 목표로 自体完結的인 工業

체제의 수립, 높은 投資率의 달성, 重工業部門에 우선적인 投資, 大型企業 즉 近代的 技術體系를 중시하여 많은 소련 기술자를 초청하였고, 東部 沿岸의 傳統的인 工業中心地와 균형을 이룰수 있게 하기 위해 內陸地方에 工業의 育成을 촉진시켰고, 工業과 農業의 社會主義 運動과 政策을 展開하였고, 極端的인 中央執權化의 制度를 확립했다. 이같이 中共政權이 成立된 후로는 政治的으로 뿐만 아니라 經濟關係에서도 소련 一辺倒的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 期間에 經濟實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5개년계획기간중의工業農業生産

表 2

종 류	단 위	1952	1957 계획	1957 실적		
선	첼	만 t	190	467.4	593.6	
粗	鋼	만 t	135	412	535.5	
발	전	량	억 KWH	72.2	159	193.4
석	탄	만 t	6352.8	11,298.5	13,000	
석	유	"	43.6	201.2	145.8	
유	안	"	18.1	50.4	63.1	
金屬切削機械	대		13,734	12,720	28,000	
목	재	만 m <sup>3</sup>	1,002	2,000	2,787	
시	멘	트	만 t	286	600	686
제	지	"	37.2	65.5	122.1	
면	사	만 樞	361.8	500	465	
면	포	만 필	11,163.4	16,372.1	15,339.4	
식	용	유	만 t	72.4	155.2	110.0
사	탕	"	24.9	68.6	86.4	
식	량	"	15,440	18,162	18,500	
면	화	만피콜	2,607	3,266	3,280	
대	두	만 t	950	1,120	1,005	

출처 : 中共總覽 : 國土統一院 . 1973 . P.26.



이 期間은 工業發展에 主力했던 關係로 工業成長은 亂目할만 하지만, 소련 援助의 중단은 일을 벌려서 中共에게 심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이 기간중 年間 經濟成長은 9%이었고 重工業成長率은 年 30%의 기록을 보였다.

이 期間에 中共經濟의 특징은 ①部門別 經濟 計劃에 주력하여 地域別 특수성보다는 中央管理에 依한 工業部門別 계획으로 地方權限은 약화되고 中央의 權限이 강하여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②一長 制를 택하여 全分野에 있어서 最終責任이 한사람에게 주어지는 제도로, 어떤 기업소가 割當된 責任畛을 달성하는데 對한 責任을 企業長 한사람이 진다는 것이다.

#### 다) 大躍進運動 ( 1955 ~ 60 )

百花齊放運動은 예상보다 심한 反撥을 보이게 되어 1957年 부터 大躍進運動이 전개되었다. 이 運動은 對內不安과 對外的으로 台灣危機와 美國의 強硬路線에 對內的 團合을 시도하는 運動이 바로 이것이라 할 것이다.

政治的으로는 反右派運動이 展開되었고, 이같은 渦中속에서 大衆의 意識을 生産, 建設, 鬭爭으로 몰아갔다. 이 運動의 一環으로 大規模의인 水利, 灌溉施設의 建設運動이 전개되었다.

1958年에 접어들면서 大規模의인 노동력의 동원으로 변모되었으며 이러한 水利施設運動은 60年 初까지 계속되었다.

이 결과 1960年에는 中國全農土의  $\frac{2}{3}$ 가 관개시설이 확충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또한 大躍進期間中 全國에 約 20 萬의 小規模工場이 建設되었으며 1958 年에 200 萬基의 용광로가 만들어져 年間 400 萬t의 철을 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人民公社가 등장한 것은 1958 年으로 한해 사이에 約 5,000 戶의 농가로 구성된 人民公社가 全國적으로 約 25,000 個가 設립되었고 人民公社, 生産大隊, 生産隊의 三大區分으로 區分되어 운영되었으나 1960 年에 들어선 全面的으로 失敗한 것으로 나타났다.

即 長期間의 凶作과 中蘇紛爭에 依한 소련의 援助中斷이 그 理由가 된다 하겠다.

라) 調整期 ( 1961 ~ 65 )

大躍進運動의 失敗는 毛沢東에게 심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이것은 또한 劉少奇체제의 등장으로 新經濟政策이 선포되므로써 物質 자극에 의한 人民의 勞動의욕을 강화코져 시도하였다.

從來의 工業 우선정책을 수정하여 먼저 食糧자급을 위한 農業 우선 政策을 밀고 나가게 되었다. 한마디로 당시 中共經濟的 파정을 헤쳐나가는 열쇠가 食糧增産에 있으며 이를 위해 全力을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

많은 農業部門中에서도 化學肥料와 農機構生産에 注力하게 되었고 非農業部門의 發展은 農業需要를 충족시키는데 最優先 順位가 주어졌다.

1960 年부터는 農業生産을 지원키 위해 2,000 萬 이상의 都市民을 이주시키는 運動을 展開하였다.

이에따라 中共은 食糧輸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綿花生産의 不足을 메꾸기 위해 이때부터 合成섬유공업의 발전을 시도하기도 했다.

1960年 소련기술자의 완전철수, 소련자본의 완전중단등은 중공에게 모든 基本 建設項目은 特別히 규정한 것 외는 一律적으로 건설을 中止하고 赤字企業은 모두 조업을 중단토록 함으로써 事實上 發展的 建設사업은 完全中止된 것이다.

大躍進期에 기업의 경영권은 共產黨 組織속으로 移管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다시 行政組織인 企業長에게도 복귀되었다. 1961년에 들어 農業生産을 위한 大躍進의 꿈은 깨어지고, 人民公社制度로 후퇴하게 되었다.

農業生産方法도 大躍進期의 方式을 포기하고 퇴비증산, 구식農具使用等 구생산방법으로 환원했던 것이다. 土地所有와 經營單位는 生産隊였다.

50 ~ 60戶의 농가를 단위로한 生産隊는 경작면적의 6 ~ 7%의 農地를 個人所有로 허용하여 個人의 物質자극을 유도토록 했다.

1960年末 이후 中共은 資本主義 諸國과의 貿易擴大를 위해 여러 方案을 강구했으며 共產圈에 편향한 무역은 先進國에 추궁할 수 있는 급진적인 발전단계를 허용치 못하고 소련의 원조 중단과 중소분쟁의 격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73年을 기점으로 소련이 무역 第一相對國에서 日本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自力更生의 自由化를 약간 허용하던 劉少奇의 경제정책은 農業우선정책에도 不拘하고 큰 成果를 거두지 못했으며, 專門職의 우대

로 毛沢東派의 심한 반발을 초래케 됐다.

마) 文化革命 ( 1966 ~ 69 )

1966년부터 제 3次五個年計劃이 시작되는 해였지만, 文化革命으로 經濟發展을 기했다기 보다는 全面的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 特히 都市地域의 소요는 工業生産을 저하시켰으나, 비교적 피해가 적은 農村地方에서는 生産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輸送과 通信網의 파괴로 원할을 기할 수가 없었던 關係로 對外輸出量은 현저히 감소되었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 對外關係를 의면한 造反外交때문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

劉少奇体制의 비판은 그의 經濟政策에 비판을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都市人口의 農村分散政策의 일환으로 紅衛兵과 젊은 學生들을 農村에 보내 집단노동을 시키게 되었다.

바) 새로운 發展期 ( 1970年代 )

1969年 文化革命의 종식을 선언하고 부터 中共은 피폐된 對內問題에 집중신경을 쓰게 되고, 소련의 위협에 對한 견제책이 不可避함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政治, 外交問題와 함께 經濟的인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中蘇紛爭의 확대와 체코事態로 인한 브레즈네프·닥트린 ( Breznev Doctrine ) 에 依한 制限主權 ( Limited Sovereignty ) 論은 共產弱小國들의 공동위협감과 함께 중공에게도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對外關係에서 夷以制夷策으로 美國을 이용하여 소련을 견

제하겠다는 傳統的인 中國外交概念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經濟적으로 피폐한 대내사정을 美·일을 비롯한 西方先進工業施設, 技術, 資本, 資源을 도입한다는 것은 自力更生에만 注力하던 中共의 方向轉換과 工業國家化를 促進시키는 가속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西方國家의 자본, 기술, 시설이 中共發展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그들이 共產國 陣營의 무역에서 60年代 初盤에 對西方貿易으로 기울고, 항상 反日을 내세우면서 日本과의 貿易 去來가 과중한 赤字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國家安保라는 側面에서도 西方의 先進工業要素를 유입시키므로써 重工業發展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軍需工業이 급격히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때에는 中共의 방어력과 공격능력은 상당히 격상되고, 종래 방어위주였던 軍事政策이 攻擊化될 가능성이 짙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인방국가에 對한 中共 타입의 政權 成立 기도가 보다 적극화되어 게릴라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中共의 구식 軍裝備을 인접국가에게 제공함으로써 인접국가의 정세를 소란시키도록 조종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文化革命 以後 中共의 經濟政策은 종전과 판이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수가 없었던 것 같다.

毛沢東은 劉少奇를 除去한 후에 官僚主義를 배격키 위해 中央政府의 公務員을 대량으로 감원 숙청했다.

周恩來가 밝힌 바로는 文化革命 以前의 勳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같은 말을 畧의으로 신임할 수 없지만, 中共을 방문한 西方側 專門家들의 견해에 의하면 中央의 權限이 축소되고 官僚주의가 사라지고, 관리들의 친절미를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中央의 權限이 약화됨에 따라 자연히 그 權限은 地方政府(省, 廳) 單位로 대폭이양되었을 것이다. 中央機構中 종래 國家計劃의 全体를 담당했던 計劃委員會의 機能이 심히 감소되어 地方分權化 되고 있다고 한다.

現在 中央機構가 관장하고 있는 主業務는 各種 會議, 團體의 活動을 관장하고, 外國의 使節團을 접대한다든지, 國家레벨의 展示會(廣州交易會等), 研究業務 國家企劃業務만을 관장하고, 大規模産業工場의 관리원을 관장하고, 그 밖의 업무는 地方으로 離散되었고, 종래 經濟업무에 큰 영향을 준 人民銀行이 財政部산하로 귀속되므로써 그 기능이 심히 감소되었다.

이같이 政策方向이 轉換함에 따라 나타나는 現象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地方別 自立自足經濟體制는 集團體制로 國家所有 원칙에서 연유한 物質방관과 욕구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小規模의 經濟體制가 필요케 되었을지도 모른다.

地域 單位의 5個工場원칙을 실현함으로써 地域的 自給自足 經濟體制를 실현하고 있다.

地域別 經濟體制는 細胞經濟體制라고 말할 수 있는바 이것은 기술, 자본, 자원의 부족으로 현대 工業化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勞動

力を 최대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난 기형적인 상태이다. 또한 이것은 그 부작용으로 地域간의 유대가 결여되고, 地方과 中央간의 원활한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 된다면 中共을 기형적인 國家로 만들 우려도 있다. 그러나 現代技術과 資本, 자원이 증공이 대량투입된다면 이같은 기형적인 사태는 무너지게 될것이다.

이런 側面에서도 中共의 對外 開放政策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 3. 農業生産

傳統的으로 中國은 農業國家였으며 現在도 80% 이상이 農業人口로 나타나고 있다. 中共의 農業에 있어서 特徵은 人民公社를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周恩來가 밝힌바에 依하면 1970年 현재 全國에 7萬餘個의 人民公社가 있으며 75萬個의 生産大隊가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보통 人民公社는 4,000 ~ 5,000戶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内部에 산하조직으로 生産大隊, 生産隊로 되어있다.

1950年 現在로 보면 全國 土地面積이 100萬 ha로, 食糧生産 1億 2,470萬 t을 生産했고 人口도 5億정도였다고 한다. 최근 中共이 밝힌바에 依하면 農業의 集中開發을 시도하고 있으며, 肥料工業, 農機構工業, 水利施設等이 相當히 發達되었다고 한다.

現在 耕作地는 全土의 11%정도이며, 化學비료의 生産, 살충제, 灌溉시설 및 種子改良에 注力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資料에 依하면 1971年 食糧生産高가 2億 4,600萬 t이라고 한다.

1971年 10月 1日 人民日報에 依하면 수년동안 糧년으로 食生活이 改善되고 生活水準이 向上되었다고 主張했다. 아무튼 文化革命 後로 個人의 食生活 改善에 力을 가하고 있으며, 黃하지역에서의 生産比가 줄어들고 타지역에서의 生産비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全國적으로 農業生産方法이 改善되어 가고 있는것 같다.

이에 依하면 1959年度 遼寧省의 收穫량이 1묘당 220 캐트였는데 1970년에는 全國 土地의 半以上의 그 收穫량이 400 캐트를 超過했다고 한다.

지역별 食糧生産量 (1949-71)

表 3

단위 100萬 t

지 명	1949	1957	1971
黃河流域: 長沙 河南, 內蒙古, 甘肅, 寧夏, 山西, 山東, 陝西	25,180	41,865	44,820
中部揚子江流域, 安徽, 湖南, 湖北, 江西, 廣西 上海	30,855	60,095	101,822
河 北	4,550	9,750	13,300
廣 東	8,000	12,200	16,000
小 計	68,585	123,910	175,942
國 家 總 生 產	108,100	185,500	240,000 ~ 246,000
위 17개성생산 (%) 국가총생산	63.4 %	66.8 %	73.3 ~ 71.5 %

出處: 北京周報: 1972.No.1



대체적으로 1965年에서 1970年 사이의 수확증가율은 黑竜江地方은 33%, 四川地域 16.2%, 雲南 20%, 河南 35.2%, 新疆地方 32%의 增加로 平均 28.2%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中共의 農業中에서 다음으로 重要한 것은 綿花를 들수 있다. 이것도 食糧生産量에 근거하여 산출해보면 다음표와 같다.

綿 花 生 産 量

表 4

(단위 1000t)

지 역	1949	1957	1971
黄河地域：淸海，河南， 內蒙古，甘肅，寧夏，山 西，山東，陝西	247.7	571.4	587.0
揚子江 中下流，安徽， 折江，湖南，湖北，江西 江蘇，上海	115.8	558.5	787.4
小 計	363.5	1,129.0	1,374.4
全 國 總 生 産 量	444.5	1,640	2,450
14 省 生 産 量 全 國 生 産 量 (%)	81.8 %	68.9 %	56.1 %

出処： The China Quarterly Vol.53 Jan/mar.1973. p.6

綿花生産地の 主要地인 위에는 14個省의 生産比가 1949年에는 82%였던 것이 1957年에는 69%, 1971年에는 56%로 점차 감소되었다. 이 사실은 아마 全國적으로 변화재배지가 확대되었고

특히 요령지방을 비롯한 地方에 면화생산을 장려한데 기인하며, 新疆地方은 1961 ~ 65年 보다 1966 ~ 70年 사이에 69.9%의 生産增加를 보였다고 中共當局이 발표했으며, 四川省은 1969年에 20% 증가되고 1970年에는 25%가 增加되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1965年까지는 면방직공업에 피치를 가하고 있었고, 이것은 共產化되기 이전의 中國에 西歐 勢力이 침투할때부터 면방직工業을 발전시킨데 기인한다.

1965年 一年 사이에 全國에 37個의 면방직공장과 1천 4백만개의 방직기를 도입 또는 生産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1966年에도 9개의 방직공장과 많은 방직기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1966年부터 면화생산은 부진하기 始作했다. 1957年の 면방직공업실행은 전수요량의 70 ~ 77% 程度를 충당했다고 하며 大躍進期에는 紡績機 수요량의 겨우 40%의 충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1961年度는 이같은 빈약한 시설로 綿絲 81%, 옷감 68%를 충당할만큼 생산하고 있었다하니 그 영세성과 후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65年の 綿紡織 事情을 살펴보면 1958年度 綿花生産量은 2백 10만 t이라 発表했고, 1964年の 제증정기에 1958年 수준을 능가했다면 1965年度에 10만톤의 수입과 140만대의 제사기 수입을 감안할때, 1965年은 면방직생산의 피크를 이루어 66億 66萬개 이상을 생산한 것으로 西方側 專門家들이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對해 소련측은 500만 ha로 면화경작지가 제한되어 있었고,

大躍進 이후 사실상 개간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관계로 1957年보다 1965年 면화재배 面積이 50ha이 적었다고 한다. 또한 自由中國에서 研究한 자료에 의하면 1957年의 綿花生産高는 1천 6백 만 匁이었고, 1971年은 1천 7백만 匁으로 14年사이에 겨우 1백만 匁의 증가를 보일뿐이라고 주장한다.

이같은 몇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한 西方側 專門家の 見解에 依하면, 1957年을 指數 100으로 볼때 1961年은 110으로 겨 農業生産의 成長率 (1957-71)

表 5

品 目 \ 年 度	1957	1965	1971
곡 물 ( 1백만톤 )	185.5	200	246
면 포	1.64	2.1	2.45
곡 물 ( 10 억원 )	22,816	24,600	30,258
면 포	2.786	3,566	4,160
계	25,601	28,166	34,418
지 수	100	110.0	134.4

출처 : F.H.Mah : The Foreign Trade of Mainland China  
Aldine 1971, p.77

우 10% 成長을 보이고, 1971년에는 134.4로 34.4%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1952년부터 1971年 사이의 人口增加率이 2.2%임을 감안할때 농업생산은 人口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

中共의 虛와 實

는 形편이다.

일본에서 나온 資料에 의하면 1957년부터 1971년까지의 농업성  
 장율은 너무나 느려서 農業위주의 中共經濟는 필연적으로 長期沈滯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農 業 總 生 産 (1957 ~ 71)

表 6

구 분 년 도	곡 물 (1백만톤)	경 지 면 적 (1만 ha)	수리시설발전량 (15馬力 표준台)	농업총생산 (1억원)
1957	18,500	11,183	24,629	537
1958	25,000	10,779	45,330	671
1959	27,000	-	-	783
1960	15,000	-	79,000	-
1961	16,000	-	99,000	-
1962	-	-		-
1963				
1964				
1965	20,000	11,000	-	604
1966	17,730 ~ 20,000		-	598
1967				
1968				
1969				
1970	24,000		-	-
1971	24,600	10,700	250,000	720 ~ 740

出處：中国の 実像 . 桑原寿二 , 1973.P.152.

지난 4 반세기 동안 全般的인 장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면방직工業은 비교적 발달하고 있다. 이것은 西歐勢力이 中國에 침투할때부터 輕工業에 치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綿花재배의 現狀에 기인할 것이다.

中共의 農業生産을 보다 광범위한 조사연구에 依해 산출해야 되겠지만 채소, 가축같은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식량, 면포에 근거하여 產出한 것이다.

上海, 廣東等 낙농업이 앞선 地方에는 비교적 배급이 풍족하지만 內陸地方의 배급 現狀을 보면 1957 年の 食糧配給 보다 1970 年の 配給이 6% 저하되었고, 면포도 每年 9m, 솜 4.4 파운드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3~4 年 동안에 衣服 3~4 벌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고 한다.

#### 4. 工業生産

政權成立時부터 계속적으로 工業發展을 시도해왔으나 그 政策은 거의 失敗한 現狀에 있어 長期침체를 이루고 있는 形편이다. 工業도 農業이나 其他 産業과 같이 1958 年に 피크를 이루었다가 1960 年후반은 계속침체되다가 1965 年に 이르러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文化革命으로 피폐되었고, 이것이 1970 年に 들어서 다시 회복하여 최근 상당히 發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工業中에서도 輕工業은 비교적 발달하는데 反해 重工業은 一般的으로 장기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一部 工業品目, 例컨데 肥料, 시멘트, 農機具등은 상당히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機開路을 포함한 軍輸産業에 막대한 豫算을 투입하고 있기때문에 一般工業은 落後性을 면치못하고 있다.

文革 以後 技術, 資本의 不足으로 最近 中共에서 나타나고 있는 工業政策方向은 地方分權化 傾向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機械工場, 製鐵工場, 肥料工場, 시멘트工場, 發展所等 5 個工場을 地方單位로 建設하는 運動이 전개되어 소규모의 5 個工場이 각지방에 건설되고 있다.

이것은 규모가 적고, 生産과정의 비교적 準手工業의이어서 勞動力을 集中 投入하므로써 生産을 增加시키려는 運動이다. 이것은 現中共의 여건에서 가장 最善의 方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品質이 나쁜 產品이 나오지만 短期的으로는 노동력을 最大로 活用하기 때문에 生産量을 증가시킨다는 利點이 있고 이렇기때문에 이같은 工業方向을 권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主要機械類 生産量 (1957 ~ 65)

表 7

(단위 : 1 백만원)

品 目	1957	1965	品 目	1957	1965
紡 績 機	176	638	자 전 거	115	191
디젤엔진	24	210	라 디 오	32	173
重 機 械	99	638	農 機 具	430	1,540
트 랙 터	0	312	機 械 工 作	286	569
트 렉	180	648	計	1,393	5,240
미 싱	51	348	指 數	100	375

出處 : Rawski: Machine Building p.55

위표가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1957년에서 1965년 사이에 3.75 배로 機械工業이 成長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事實上 이 品目들은 대개 鐵鋼生産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鐵鋼生産이 1957年度에 535万 t에서 1965年 1,500万 t으로 成長했다고 北京當局이 主張했고 西歐 專門家들은 大體的으로 1,100万 t 程度로 추정하고 있다.

철강생산이 2배程度 成長했으니 鐵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機械類도 2배程度로 추정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외적인 것으로는 이 時期에 農機具, 트랙터, 디젤엔진 유의생산이 급증하였다.

한편 이 時期에 投資率과 生産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82億元의 투자에 62億元의 生産을 보였고, 輸入된 機械類가 10億元으로 수요율의 76%를 充當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65년의 기계류의 사정은 投資額은 급증하여 349億元에 生産은 151億元을 나타내고 이해 7億元의 기계류를 輸入하였으나, 수요율 68%를 充當시킬뿐으로 1965년의 수요율보다 下降했다.

이것은 政策的인 機械化의 강조는 오히려 諸般 不作用을 수반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化學肥料의 生産實態를 살펴보면, 비교적 農工併進政策에 依해 自給을 위해 力點을 두어왔다. 農業生産의 증가를 위해선 肥料의 生産은 시급한 것이었고, 비료는 日本, 西獨 등에서 대량 수입했으나 1971년에 들어선 수입량이 지극히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文革 以後 肥料增産計劃의 집중투자에 의한 결과이라고 생각된다.

## 化学工業，化学肥料의 生産高 (1949 ~ 71)

表 8

年 度	化学工業 (10 億원)	化学肥料 (100 만톤)	年 度	化学工業 (10 億원)	化学肥料 (100 만톤)
1949	0.162	0.027	1965	13.699	8.900
1957	4.291	0.871	1966	17.808	11.600
1962	4.628	3.000	1970	21.492	14.000
1963	6.480	4.200	1971	25.790	16.828
1964	9.072	5.900			

出処： The China Quarterly VoL.53. Jan ~ Mar. P.14

## 主要工業成長 (1965 ~ 71)

表 9

(단위 : 10 億元)

항 号	1965	1970	1971
鉄 金 屬	10.7~12.6	17.3	20.4
化 学 工 業	13.7	21.5	25.8
石 油	2.3	8.7	11.0
上 海 工 業	27.3	43.6	47.5
山 東 工 業	5.2	10.3	11.8
計	75.6~77.5	122.3	137.4
指 数	100.0	157.8~161.8	177.3~181.7

出処： China Quaterly. VoL.53. P.18



主要工業 品目別生産과 主要工業地域別로 집계하여 보면, 1965 年에서 1970 年 사이에 工業成長率は 58 ~ 62 %로 나타난다. 또한 中共當局이 發表한 바에 따르면 同期間에 安徽, 湖南, 內蒙古, 吉林, 廣西, 北京, 山西, 陝西, 西川과 雲南의 10 個省의 工業成長률이 62 %라 한다.

1970 年 1 年間の 成長率は 表에 依하면 12 %로 추정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西方側 專門家들이 10 %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1965 ~ 70 年の 成長은 60 %로 보고, 1970 年 1 年間の 成長率は 10 %로 추정하는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같은 論理에 따르면 1957 ~ 65 年 사이에 9.0 ~ 10.8 로 보고, 1965 ~ 71 年 사이를 10 %로 볼때 1952 ~ 57 年 사이의 19.2 %에 훨씬 미달하는 形편이다. 1957 年부터 1959 年 사이에 工業成長률이 계속 성장한 사실은 1次 5 個年計劃에 依해 工業施設이 확장되었고, 勞動者들의 技術연마와 여가교육으로 勞動力의 質的 向上에 기인하며, 小規模 工場의 수확증가에 依한 단기적 上 황이었다.

輕工業이 發展한 地域으로는 上海, 山東, 廣東地域을 들수 있으며 主로 綿紡織工業이 發展하고 있다. 1957 年 ~ 65 年사이의 經濟 發展 狀況을 살펴보면, 工業 平均 成長률이 210 %인데 反해 輕工業은 147.1 %의 낮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벌써 輕工業은 어느정도 發展되어 있다는 사실과 政權수립시부터 重工業 우선 政策에 依해 輕工業이 等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바침해준다 하겠다.

工業總生産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工業總生産 (1957 ~ 71)

表 10

(單位：10 億元)

年 度	生 產 高	指 數	北京側発表
1957	65.0	100	
1963	101.4~115.7	156 ~ 178	116.5
1965	129.4~147.6	199 ~ 227	
1970	207.4~236.6	319 ~ 364	216
1971	228.1~260.3	351 ~ 400	226

出處：Tomas G. Rawski: Machine Building P.170.

1961 ~ 63年 사이의 成長率은 비교적 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시멘트는 15%, 25%로 증가하고 비료는 40%, 기계류는 20% 증가하였으나, 農村地域의 工業成長率은 8%로 製鋼工業 水準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963年度는 1957年度の 50%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66年은 일단 生産高가 피크를 이루다가 文化革命으로 다시 피폐되었다.

大體的으로 1971年은 1957年의 3.8倍 程度로 평가하고 있으며 1952 ~ 70年 사이의 工業成長率은 年8%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5. 國民總生産 (Gross National Product)

1959年은 고비로 中共經濟는 만성적 정체기에 들어갔다는 단련

적인 北京側 発表에서도 明白히 나타나고 있다. 工業生産도 59 年을 피크로 7年 後인 1966年에 겨우 이 記錄을 회복하는가 하였으나 文化革命으로 다시 3年後에야 1966年 水準을 돌파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1959年에서 69年까지의 10年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같은 사항은 粗鋼의 生産量으로 부터도 잘 알 수 있는바, 1960年에 18 百万톤을 生産했지만 1970年에도 겨우 그 수준을 돌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勿論 石油나 化學肥料처럼 그 期間에 활발한 成長率을 보인 例外的 品目이 없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中共經濟는 圧倒的으로 石炭의존이며 石油는 尙에 네르기의 5%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또한 化學肥料는 農業生産에는 過大한 影響을 미치지만은 工業生産 그 自体의 地位는 미미하다.

農業生産에 있어서도 支配的 位置를 차지하는 食糧生産은 1959年 피크를 이룬 後, 1960년에는 1次 5個年計劃 以의 수준까지 떨어지고, 1970년에 들어서야 59年 水準을 회복할 수 있는 程度다.

中共이 發展한 1959年과 1970年의 農業生産이 이것을 잘 反映하고 있다. 農業生産의 경우에는 工業生産과는 달리 1964 ~ 65年頃에 피크를 이루었는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明白하지는 않다. 1966 ~ 67年의 低水準의 食糧生産數字는 紅衛兵신문에 나타난 周恩來와 謝富致의 談話를 따르다면 中間피크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와같이 北京発表를 기초로 하여 中共의 GNP를 1달러를 2.4

中共의 虚와 実

元으로 환산하여 보면, 1959년에 約 800 億달러의 수준에 달한 것을 전기로하여 急速히 下降하여 60年代에는 이 수준을 회복할 수가 없었으며 70年代에 들어와서 겨우 10年間の 수준을 초과한 결과가 된다.

国民總生産量 (1957 ~ 71)

表 11

(단위 : 1 億 \$)

년 도	중공발표근거	일본외무성발표	지 수	추 정 액
1957	496	486	100	819.4
1960	-	588	109.16	894.6
1964	587	569	109.83	899.9
1965	665	608	118.56	971.5
1969	783	680	133.46	1,093.6
1970	841	750	148.73	1,218.7
1971	907	-	156.69	1,283.9

出處 : 桑原寿二 : 中国の实像 P.85.

大躍期の 經濟成果를 어떻게 評價하느냐가 문제다. 1954년에 設 立된 統計機構의 원활한 機能마비로 1958年度の 公式統計는 과대한 것이며, 実態와는 相当한 거리가 있었다.

1972年 5月 美議会同經濟委員會의 報告에 따르면 1958 ~ 59年 食糧生産은 中共側 발표인 2億 5千万톤과 2億 7千万톤이 아니고, 2億톤과 1億 65百万톤이며 同期間의 工業生産도 北京側 発表보다

낮게 評價하고 있다.

1971年의 國民總生産을 1,250億弗로 1人當 所得 156弗로 1952년부터 年4%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1957~70年 사이의 人口增加率은 2.2%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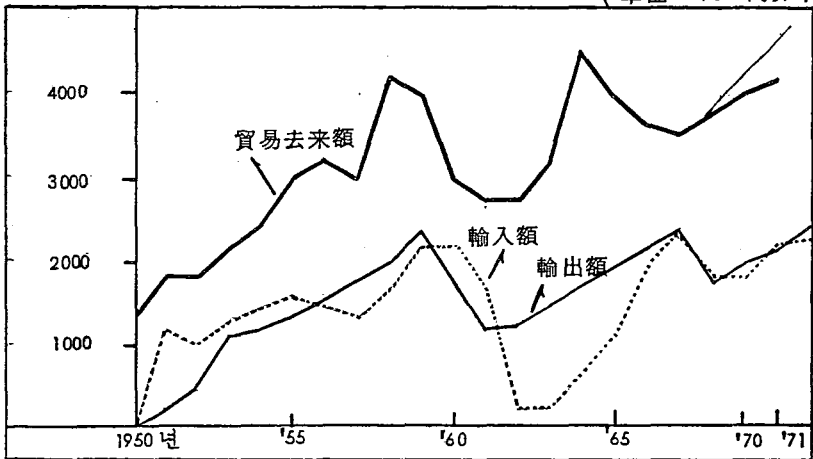
1952~70年 사이의 農業生産은 2%, 工業生産率은 8%, 文革 이후 工業生産은 상당히 회복되고 있으며, 人民의 生活水準은 1959年보다 낮은 편이라 생각된다.

### 6. 對外貿易

對外貿易도 他分野의 經濟事情과 같이 심한 굴곡을 이루어 왔다. 1959年의 對外貿易은 피크를 이루었지만, 三面紅旗運動의 실패로 심각한 사태로 돌입하여, 1960年代 초반은 下降하게 되었다.

中共의 貿易動態

(單位：100萬弗)



出處：羅昌柱著：中共外交論 P.410.

中共의 虛와 實

1963년부터는 中蘇紛爭의 격화와 共產陣營의 工業的 後進性때문에 對西方貿易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對西方 依存度가 현저히 나타나게 되었다.

1965년에 들어선 일단 중간피크를 이루었으나 1966년부터 文化革命으로 무력화되어 지극히 貿易저조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1969년에 이르러서 1960年代 초반수준을 회복하게 되고, 1970년부터는 점차 상승하였고, 1972년에 들어선 對西方貿易量이 현저히 늘어나 共產圈에 대한 貿易量이 20%이하로 떨어졌다.

中共의 對外貿易動向

表 13

(단위: 100万弗)

년 도	무 역 총 액			공 산 권			비 공 산 권		
	재	수 출	수 입	계	수 출	수 입	계	수 출	수 입
1950	1,210	620	590	350	210	140	860	410	450
1955	3,035	1,375	1,660	2,250	950	1,300	785	425	360
1959	4,245	2,210	2,035	1,090	585	505	3,155	1,625	1,530
1971	4,635	2,415	2,220	1,040	430	430	430	3,595	1,790

出処: 美商務省報告

1971년의 對外貿易量이 46億3,500万弗이었으나, 수출이 24億2,000万弗로 무역흑자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中共과의 貿易量은 中共의 수출품을 相對國의 구입 能力에 의존한다.

中共의 主要輸出品

表 14

(단위 : 100 万弗)

品 目	1965	1968	1970
總 計	2,035	1,945	2,050
食 糧	530	535	645
원료, 연료, 식용유	405	415	430
工 業 製 品	915	850	860
化 学 品	75	85	105
其 他	110	60	10

出處 : 美商務省報告

中共의 主要輸入品

表 15

(단위 : 100 万弗)

品 目	1965	1968	1970
合 計	1,845	1,820	2,170
食 糧	520	410	355
原 料	145	200	230
工 業 製 品	695	775	1,115
化 学 品	230	315	330
섬 유	190	100	110
機 械 설 비	330	275	395
철 강	145	265	390

出處 : 美商務省報告

中共의 虛와 實

위 두표가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中共의 輸出入 構造를 보면 최근 나타난 수출품은 직물, 鐵鋼製品, 獸肉, 農産物 加工品, 生鮮 海産物, 채소, 과일, 생사, 藥材, 茶, 콩, 綿絲, 衣類, 고무製品, 手工製品, 완구 其他 日用品등으로 대부분 재래식 方式에 依해 生産되는 것이며 輸入品은 곡물, 化學肥料, 살충제, 鐵製品, 차량, 기계류, 中藥, 化學製品, 군수부품, 燃料, 化學섬유원료등 주로 工業產品에 치중하고 있다.

다음 地域別로 中共의 對外貿易構造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非 共產國에 對한 무역량이 全體의 80%였고 共產陣營과의 무역은

중공의 지역별 무역비율

表 16

(단위: %)

지 역	1965	1970	지 역	1965	1970
비공산국	70	80	라틴·아메리카	3	-
선진제국	39	53	아프리카	4	5
동아·태평양	18	25	홍콩, 마카오	9	9
서 유럽	17	24	공산제국	30	20
북 미	4	4	소 련	11	11
개발도상국	22	19	극 동	6	5
동 남 아	8	6	동 구	5	8
근동·동아시아	7	7			

겨우 20%선을 유지하고 있다.



非共産圈 貿易中에서도 先進諸國에 對한 무역량이 53%이고 개발도상국과의 무역량이 19% 였으며 소련과의 무역은 4,500여만 불로 최하점에 이르렀으나 1971년에는 1億4,500万弗로 상승하고, 1972年은 3億餘弗로 外部 專門家들은 추정하고 있다.

곡물, 고무, 철강, 화학비료등 공업제품은 거의 非共産世界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先進國과의 무역赤字를 홍콩, 마카오와 東南亞地域 및 開發途上國家와의 무역으로 얻는 흑자로 커버하고 있다. 中共의 總收入額中에서 先進國家로부터  $\frac{2}{3}$ 를 수입함에 반해  $\frac{1}{3}$ 의 수출단을 할 정도니 다액의 무역적자를 선진국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같은 추세는 중공무역이 農業生産品 우선에서 工業製品쪽으로 기울어짐에 비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對自由陣營과의 무역실태를 살펴보자.

中共의 對自由地域 貿易

表 17

(단위 : 100 만불)

	수 입			수 출		
	1960	1965	1970	1960	1965	1970
합 계	637	1,252	1,611	767	1,407	1,706
日本	3	245	569	21	225	254
홍콩	2	3	5	208	406	467
싱가포르	28	7	23	57	106	126
호주	23	64	129	10	26	36
캐나다	9	98	135	6	13	18
서독	95	74	167	69	73	84
영국	90	72	107	69	83	80
이탈리아	40	56	57	24	38	63
프랑스	53	60	81	23	44	70

먼저 日・中共貿易構造를 살펴보면 1963년부터 日本이 中共에 對한 主要貿易 相對國으로 등장하였으며, 1971年度는 對日貿易이 全中共貿易量의 20%를 차지하게 되는데, 反해 日本의 全貿易量의 2~3%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에, 中共의 對日貿易은 注目을 끌을 수 밖에 없다.

鐵鋼, 化學肥料, 機械施設等の 全輸入量의 80%는 日本産인데 反해 對日輸出의 主要品目은 原料와 農産加工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中共의 粘結炭, 石油, 植物性油의 공급도가 兩國 貿易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日中共和國交正常化로 對日依存도가 현저히 나타날 것이지만 東南亞에서 兩國의 競争과 對美關心이 注目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日本의 經濟力을 中共의 工業發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과중한 對日貿易赤字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中共의 對西歐貿易의 重要性을 들 수 있다. 現在 英國,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의 4個國은 中共의 10大貿易 相對國에 들고 있다.

現在 中共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섬유제품을 이지역에 소비시키고 있다. 이지역은 1970年度에 中共貿易總額의 25%를 점하고 있고, 수입품은 비료 57%, 鐵鋼 31%, 非鐵金屬 67%, 機械施設 34%, 섬유원료 56%의 높은 수입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0年 섬유수출량의 53%를 점하였고, 이탈리아가 그중 80%를 수입했다.



또한 1971년에는 中共의 홍콩에서 사업과 華僑들의 송금을 포함하면 中共이 7億의 利益을 내고 있다. 한편 마카오는 1970년에 約1億6千萬弗의 수출에 수입량은 매우 경미했다. 中共이 수출하고 있는 農業生産의 34%가 홍콩, 마카오가 수입하고 있고, 이지역에 식량, 섬유, 경공업제품 수출의 60%를 수출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中共에게 농산물 저장산품의 제일시장이며 年間 1億弗 이상이 海外華僑로 부터 홍콩을 통해 송금되어 오고 있으며, 中共産, 아편, 모르핀을 이곳에서 집산하여 세계각지역에 暗売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共의 開發途上國과의 貿易을 黑字原則일뿐 아니라, 先進國과의 貿易赤字를 이지역과의 무역흑자로 커버하고 있다. 1966년부터 每年 2億2千萬 ~ 2億6千萬弗의 範圍內에서 去來되었으며, 그 태반은 東南亞地域과의 무역이다.

1970년에는 中共貿易 全體의 19%를 점하고 있었으나 輸出은 26%인데, 輸入은 12%를 나타내 많은 무역흑자를 냈다.

中共의 貿易은 그들의 政治戰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키스탄, 탄자니아, 수단과 크게 증가를 보였다. 개발도상국가와의 무역총액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기간에 個個國家別 무역량은 많은 굴곡을 보이고 있다.

특히 貿易量의 변화요인은 相對國과의 政治關係에 밀접성을 보이고 있다. 1970년의 수출비를 보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은 주요 수출품으로 곡물, 工業製品이 主要品目이었고, 수출품은 곡물 45%, 방적사, 직물 43%, 과일, 야채 35%, 철강이 25%의 수출비를

보이고 있다.

中共의 共產陣營과의 貿易은 1967~70年 사이는 年間 8億弗의 바탕에서 이루어졌고, 對蘇貿易이 減少하고, 對東歐貿易이 增加하는 趨勢를 보였다. 그러나 1971년에는 蘇聯, 루마니아, 유고順으로 9億弗이 거래되었다. 中共 輸入品の 50%以上이 機械, 施設의 工業品이고, 輸出品은 纖維製品, 食品, 動物性原料, 各種工業品이다. 最近에 들어선 共產陣營과의 貿易量이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特히 蘇聯과의 貿易은 1970年 4億7千萬弗에서 1971年 1億4千5百萬弗의 거래를 이루었고, 中共은 蘇聯製 AN-24 타보트륙기, M1-8 헬리콥터, II-42 長距離제트기를 導入했으며, 1972년에는 約3億弗이 거래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루마니아와 貿易이 현저히 增加되었으며, 1965年 4千9百萬弗에서, 1970年 1億8百萬弗, 1971년에는 1億4千萬弗로 폴란드, 체코, 東獨과도 1965年以來 增加趨勢에 있다. 1971年 2月 中共과 루마니아는 3年間の 貿易協定을 締結했고, 中共은 루마니아에 對해 2~3億에 根拠하고 있다. 蘇聯에 對해 中共의 스피카 口實을 하고 있는 알바니아와 友誼를 強化하고 있으며, 中共과 北韓과 貿易도 擴大되고 있으며, 몽고와도 每年 數百萬弗을 거래하고 있다.

中共의 美國과의 貿易은 1971年 6月 닉슨大統領의 禁輸措置解除로 활기를 띄기 始作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어서 1972年 2月 美國系 企業의 對中共輸出節次의 緩和를 宣言하고 美·中共의 尙해共同聲明으로 兩國關係는 好轉되고 있다. 1972年 여름철에 열린 廣州交易會에 美國의 30~40會社가 參加함으로써 本格化되기 始作했다.

1972年 처음 4個月間에 1,700萬弗이 거래되어 1971年 去來額을 突破함으로써 美·中共貿易의 主要性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中共이 農業爲主의 完備國家이기 때문에 美國과의 貿易은 問題點이 많다. 中共이 重工業發展을 促進할 경우는 美國의 經濟力이 地극히 重要하며, 特히 美國의 航空機, 컴퓨터製作等 技術集約工業產品은 中共에게 緊要한 品目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아 中共의 對美輸出 可能品은 傳統의인 奢侈品인 鴉片, 象牙, 絹織品, 美術品 등과, 茶, 絹織, 糖, 石油가 有望하며, 農産加工品이나 纖維製品의 對美輸出 展望은 地극히 어둡다. 또한 美·中共間의 貿易에 障礙가 되는 要素는 美國의 對中共輸出入規制, 1933年에 對中貿易의 前提策으로 發効시킨 존슨(Johnson)法이 있으며 또한 輸出入銀行의 便宜提供等이 問題로 등장한다. 그러나 美·中共間의 貿易量은 兩國間의 關係 改善과 接近度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地극히 政治的인 問題이다.

國際收支를 살펴보면 中共과 共產陣營과의 貿易收支는 金, 外貨에 無關하다. 現在 非共產世界와의 國際收支는 輸出, 海外送金, 短期延払로 償還하고 있다. 1950年代 下半期에 國際收支가 惡化되었다가 1963年에 일단 回復이 始作되어 1966년에는 貿易黑字로 國際收支에 黑字를 만들 수 있었으나 文化革命으로 惡化되고, 1970年의 貿易赤字에도 70年代에 들어선 好調되고 있다.

金과 外貨準備는 大躍進으로 惡化되었다가 現在는 50年 下半線을 回復하고 있다. 金, 外貨準備는 화교의 送金, 香港에서의 事業, 貿易黑字, 國內生産, 購入으로 充當하고 있다.

<表 - 18 >

中共의 外貨·金準備高

(單位：百萬弗)

		年初準備	增		減		年末準備
			外貨배런스	購 入	產 出 高		
1960	計	530	-150	0	35	415	
	金	80	-	0	35	115	
	外貨	450	-150	0	-	300	
1965	計	450	190	0	25	665	
	金	310	-	35	25	370	
	外貨	140	190	-35	-	295	
1970	計	855	-160	0	25	720	
	金	535	-	0	25	560	
	外貨	320	-160	0	-	160	

蘇聯에 對한 外債가 14 億의 長期借款으로 했으나, 中·蘇紛爭이 激化됨에 償還期間을 앞당겨 1965 年에 完全償還했다 한다. 非共產 國에 對한 債務는 短期延払을 原則으로 하며, 6~18 個月의 延払로 하며, 商業프린트는 中期延払로 하고 있으며, 만약 中共 自身이 長期 延払을 希望할 境遇 外國資本의 多額을 유치할 可能性이 있다. 現在 中共이 使用하고 있는 外貨는 스위스 프랑, 마르크, 파운드貨이며, 日本의 一部 企業에게는 一部 中共 元貨를 使用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1965 年에 中共의 未決濟 外貨가 3~4 億弗이었으나 1970 年 末로 모두 償還하고 現在는 表面的인 外貨는 없다 한다.

한편 中共의 對外援助를 살펴보면, 中共의 政治戰略의 擴張戰略에 密著되어 있다. 1953년부터 1970년까지 56億弗의 經濟, 軍事援助를 했는데 이것은 年間 國民總生産의  $\frac{1}{3}$  %에 該當한다. 1970年 1年 사이에 亞·阿諸國에 對해서만도 12億弗을 提供했으며, 1971年中에는 22億弗을 提供했다고 한다. 大體的으로 中共의 對外借款의 返済條件이 유리한 편이며, 5~10年 據置에 無利子로 10~30年 償還으로 되어 있으나 그 規模가 지극히 적고, 受援國에 對한 政治的 影響力 強化는 勿論, 프로젝트에 大量의 中共要因을 投入할 것을 試圖하며, 많은 人員을 派遣하여 技術指導라는 名目으로 갖가지 戰略을 展開하고 있다. 1971년에는 受援國에 派遣한 技術者가 19,000名의 技術者를 派遣하고 있으며, 탄광철도에 對한 借款을 除外하고는 大體的으로 展示效果와 政治性이 다분한 支援을 하고 있으며, 예컨대 養魚場, 集團農場같이 적은 부담으로 빨리 完成하여 宣傳效果에 活用할 수 있는 方法으로 일 관하고 있다.

## 7. 맺는 말

結論的으로 中共經濟는 長期沈滯로 住民生活이 低水準에 있으며, 文化革命 以後 化学肥料, 시멘트, 機械, 製鉄, 發電所等 5個工場을 各地域別로 권장하여 現在에는 雨後竹筍格으로 各地方에 수많은 工場이 建設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 工場들은 小規模的으로 大躍進期와 類似한 現象으로 專門家들은 評價하고 있다. 이것은 勞動集約의 生産方法으로 그 產品의 品質이 低下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地域間的



競争과 非協助를 가져와 이른바 細胞經濟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나 農村은 人民會社單位로 農業의 機械化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으며, 水利施設도 상당한 進展을 보고 있다한다.

貿易面에서도 非共產世界와 去來額이 상승하므로써 工業化를 促進시키려고 試圖하고 있다. 앞으로 美·日과의 關係가 中共經濟의 急進的인 發展의 關鍵이 될 것이며 이것은 重工業의 發展과 함께 軍수工業의 躍進을 招來케 될때 지금껏 防禦의이었던 中共의 軍事政策이 攻擊的으로 化할 可能性이 있다.

끝으로 韓國과 中共의 經濟關係를 살펴보기로 하자.

1960年代 中盤에 들어 日本과의 急進的인 貿易增大는 그때까지 東歐나 西歐와의 去來에서 생기는 原價面에서 현저한 차이에 크게 起因한다. 그리고 日本의 技術과 地理的 利點이 있었다. 韓國은 中共에 對해 地理的 利點을 活用하는 方案을 摸索할 것이 重要하다. 우선 中共과 去來가 不可能할 때는 西方國家들의 對中共貿易에 있어 地理的 利點을 活用할 것이 重要하다. 예컨대 美國의 資本에 依한 工場을 韓國에 유치시켜 對中輸出品을 生産토록 한다면 美國은 原價節減이라는 利點을 얻게되고 韓國은 技術, 勞動, 輸送 등의 利點을 갖게되고 同時에 美國의 關心을 韓國에 묶어 놓음으로써 北方의 牽制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中共과의 直接 去來方法의 摸索이다. 現在 中共과의 關係改善이나 去來에는 北韓이 크게 계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韓國이 中共과 去來를 할 수 있다면 中共은 原價가 크게 廉 優良品을 韓國으로부터 輸入할 수가 있을 것이다. 現 與件으로 보

## 中共의 虚와 実

---

아 우리의 化学肥料, 電子製品, 自轉車, 車輛, 工業產品의 輸出이 可能하며, 우리는 原油, 藥材, 原綿, 쌀等의 輸入이 可能하다. 우리가 第3國을 통한 間接去來나 또는 直接去來를 하려면 우선 北韓의 牽制力을 緩和시키도록 中共을 誘導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對蘇接近을 통해 摸索토록 試圖하는 것도 한 方案이 될 것이다.

参 考 文 献

- Jan S. Prybyla: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t China. International Text Book Co. 1970.
- DonThorne Audrey: The Chinese Economic System, New York, Praeger 1971.
- Ekstein Alexander: Communist China's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New York, McGraw Hill.
- Dwight H. Perkins: Agricultural Development in China; Chicago University Press.
- T.C.Liu and K.C.Yeh: The Economy of Chinese Mainland, National Income and Development, 1933-59.,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R.M.Field: Chinese Communist Industrial Production, U.S.Goverment Printing Co.
- U.S.Commercial Department: An Profile of Mainland China. 1971.
- 山用坂仁 著：中国経済の解剖，サイマル出版会，1973。
- 大士家恆雄 著：中国経済の変貌，白桃書房，1972。
- Problems of Communism, China Quarterly, Issues and Studies 外 多数の 定期間行物 参考。



# 第十一章 最近 中共의

## 人口政策과 農業生産



## 第十一章 中共의 人口政策과 農業生産

### 1. 穩健路線의 定着化

中国의 第4次5個年計劃은 1971년부터 開始되고 있다고 再三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第4次5個年計劃을 充足하기 위한 文化大革命 初期의 全國人民代表大會는 最近 1~3年 때때로 開催가 豫測되면서도 아직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 当然之事이면서도 第4次計劃이 이미 作成되어 있다는 徵兆는 아직 窺볼수 없다. 中国의 農業生産이 只今 어떤 狀態에 있으며 今後 어떤 方向으로 나갈것인가는 이 第4次計劃의 基本方針에 依하여 規制될 것이므로 中国의 農業生産의 基本政策도 또한 確定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中国의 國民經濟의 壓到的 比重을 占해 農業人口가 全人口의 85% 以上을 占하고 있는 것이므로 第4次計劃의 基本方針이 決定되지 않으면 農業政策의 性格 方向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第4次計劃의 基本方向이 아직까지 決定이 안된것은 3년에 걸친 文革이 政治經濟에 가져온 混亂이 아직 完全히 回復되지 않고 그 後遺症이 아주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 毛沢東의 側近으로 文革의 推進派指導者이던 陳伯達에 이어 毛沢東의 後繼者로 選出되어 文革을 總括한 九全大會의 基本報告를 行했던 林彪가 失却되고 이와 함께 最高指導部의 黨中央政治局멤버 21人中 3年남짓한 사이에 9인이 失却되었다고하는 中央指導部의 混亂에 똑똑히 나타나고 있다.

林彪失脚의 背景에는 文革에서 政治에 異常進出한 軍人優位の 指導體

制로부터 如何히 脫皮해갈 것인가, 文革의 所産인 地方行政組織의 革命委員會를 維持할 것인지 아닌지 文革에서 打擊받은 旧党幹部를 어느程度 復活시킬 것인가 하는 問題點이 가로놓여 있었다.

둘째로 이런 政治體制와 並行한 經濟建設의 基本路線에 關하여 以前 毛沢東路線 文革路線의 影響이 殘在하고 새로운 現實路線이 아직 完全히 定着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文革後 經濟政策面에서는 大躍進, 人民公社化型的 毛沢東路線을 指向하는 急進派가 物質의 刺戟을 重視하는 党的 現實主義的인 實際政策을 修正主義的인 것으로 보는 抵抗, 人民公社에 權限을 集中시키려 하여 生産隊를 基礎로한 3級所有制의 堅持란 党的 政策에 反한 케-스가 人民日報에 數없이 게재되고 있다. 이것은 文革後 오늘날에 있어서도 如前히 經濟政策上 文革路線을 繼承하려는 急進派가 党的 實際政策에는 커다란 障害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세째로 이러한 指導體制와 基本路線에 있어서 文革의 後遺症과 聯關시켜 只今 中共이 直面하고 있는 重大한 選擇이 基本路線의 確定을 困難케 하고 있다.

中共의 社會主義建設은 58년부터 大躍進 人民公社, 66년부터 文革等 2次에 걸친 混亂으로 建전한 發展을 沮止當했다. 이것은 中國經濟의 現實, 大衆의 經濟的要求, 党指導部, 多數派의 意見에 挑戰하여 毛沢東의 急進路線이 經濟建設의 基本方向을 決定하고, 中國을 攪亂시켰기 때문이다. 毛沢東路線은 經濟의 着實한 發展보다는 急tempo의 發展을, 經濟的 客觀的 法則性의 尊重보다는 主觀的 能動性의 優先을, 大衆에 對한 物質的 刺戟 보다는 政治思想의 優先을, 大衆의 生活向上보다는 階級鬭爭을



優先시키는 것에 의해 中共의 現實에 도전을 하였다.

지금 中國은 58年以來 10餘年에 걸쳐 中國을 攪亂한 毛沢東路線에서 如何히 벗어날 것인가의 重大한 選擇에 처해있다. 毛沢東路線을 維持시켰든 基盤의 하나인 經濟的 後進性, 더욱이 農業이 國民經濟에서 占하는 決定的인 役割, 都市와 農村 또는 勞動者와 農民의 커다란 生活水準의 格差위에 이루어진 農業으로부터의 脫皮에 依한 工業化에의 原始蓄積이란 條件은 지금도 아직 基本的으로 變換한 것이 없다.

그런데 毛沢東路線의 또하나의 基盤으로 되어있든 國際環境의 惡條件은 이제 急速히 變化되어가고 있다. 69年 가을 以後 周恩來가 推進한 新外交路線은 敵의 侵略과 包囲의 威脅을 自招, 그로因해 國內에 緊張狀況을 持續시켜 政治優先의 熱狂의인 大衆運動에 依해 自力更生의 經濟建設方式을 企圖하였든 毛沢東路線의 基盤이던 國際環境을 크게 變化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外交路線의 選擇에 의한 國際環境의 改善이란 條件變化만은 아니다. 新外交路線의 導入은 政治優先의 自力更生, 建設方式의 基盤을 崩壞시켜 經濟建設의 새로운 方式을 選擇할 새로운 條件을 만든 것이다. 58년부터 政治優先의 毛沢東路線은 文革이라는 大混亂을 낳아 黨組織의 破壞 및 有能한 黨幹部 技術者와 知性人에게 打擊을 주었다. 그러한 國內分裂이란 現實이 逆으로 毛沢東路線의 推進을 不可能하게 하였을뿐만 아니라 文革後의 毛沢東路線으로 부터의 完全한 脫皮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이 第4次計劃의 基本路線이 確定되지 않은 基本的인 原因이 되고 있다.

## 2. 穩健路線의 復歸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1,2年간의 中共狀況은 차차 經濟의 安定的 發展을 保障하는 條件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第1條件은 陳伯達에 이어 林彪의 失却으로 毛沢東路線을 推進하는 急進派의 政治的 基盤이 무너졌다는것. 林彪失脚의 犧生을 隨伴해서 "脫文革化"의 政治指導體制. 필경은 周恩來體制가 大體로 確立되어진 것이다. 이 "周恩來體制"는 朱德 董必武 葉劍英 徐向前等 黨軍元老를 浮上시켜 李先念, 李富春, 聶榮臻, 陳雲等の 元老級을 부레인으로하여 文革前의 黨幹部 優位의 指導體制를 겨누어 이제 總整理의 段階로 옮겼다. 文革에서 打倒된 旧黨幹部의 再起用으로 經濟建設의 安定的 發展을 爲하여 政治的 條件을 一層 整備하여 갈 것이다.

第2의 條件은 國際環境의 改善에 隨伴한 經濟 技術交流의 活潑化이다. 69年 가을 以後 周恩來外交의 展開에 의해 中共의 國際政治에의 登場과 國際的影響力의 擴大는 현저한 成果를 보였다. 그러나 이 新外交路線은 單只 소련에의 挑戰이나 國際的 影響力을 擴大하는것 그 自體를 目標로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 根底에는 中共의 내소달 인터레스트의 追求가 있고 그 中에서도 特히 工業化의 推進이란 強한 要請이 推進力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國際環境의 改善, 特히 西方 工業國과의 接近에 의해 工業化에 必要한 經濟 技術協力の 導入을 目標로 겨눈 外交戰略이란 點이다. 文革後의 經濟政策은 걸핏하면 "劉少奇없는 劉少奇路線"이라고 말해 지는데 國際環境의 惡條件 속에서 自力更生을 외쳤던 當時로서는 이 點에도 큰 差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國際的 條件의 變化는 이제까지

의 “國際孤立下의 自力更生”이란 毛沢東路線으로 부터 脫皮을 推進하는 重要な 要素가 되어가고 있다.

第3의 條件의 經濟建設의 指導思想, 指導理論의 基本方向이다. 經濟建設의 基本路線이 아직 確定되지 안했다고는 하지만 最近 1~2年の 「人民日報」에 展開되어온 論調가 表示하고 있는 方向은 大概 確實해지고 있다.

그것은 文革을 거쳤음에도 不拘하고 文革의 理念이 되었던 毛沢東路線에 따른 劉少奇時代의 經濟調整政策에의 挑戰이나 復權은 아니고 逆으로 毛沢東路線, 文革路線으로부터의 脫皮와 經濟調整政策에의 回復이다.

「人民日報」에 掲載된 諸論調를 總括적으로 보면 經濟建設의 基本方向은 다음 諸點에서 나타낸다.

첫째로 71年 後半 以後의 심각한 經濟現實을 認識하기 始作하였다는 點일것이다. 이것은 UN에서 喬冠華의 演說 이락政府代表에 対한 李先念副首相의 發言, 今年 元旦의 「人民日報」 「紅旗」, 「解放軍報」의 共同社說에 明確히 表示되어 있다. 드디어 中共經濟의 發展은 「어느程度 뒤졌다」란 認識이다.

이런 深刻한 現實에 對한 認識은 元旦社說에서 論述하드시 「교만과 사치」를 排斥하고 「謙虛」하게 建設에 臨할 方向을 表示하고 있다.

當然히 毛沢東路線에 있는 유토피아의 急進의인 建設方式은 選擇되지 않고 現實에 適応할 穩健路線을 指向할 것이다.

둘째는 經濟建設의 基本方向을 表示하는 指針을 58年 以前의 緩和期에 있어서의 穩健路線에 求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71年 10月 6日字 「人民日報」에 掲載된 輕工業省의 論文이 「第4次 5個年計

劃은 毛主席의 十大關係論과 人民內部的 豫言을 指針으로 한다」고 明確히 지적한 것으로보아 分明하다. 이 두개의 毛沢東의 發言은 어느 것이나 56~7年 緩和政策期에 있어서의 方向指針이 된 것이다. 中共은 58年 初頭부터 大躍進, 人民公社의 急進路線을 걸었는데 그 轉期가 된 것은 57年 下半의 言論自由化運動,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挫折과 그 反動으로서의 反右派鬭爭이었다. 이 轉換點을 通하여 毛沢東思想의 核心을 占치게 되었던 것이 階級鬭爭優先論이며, 이것이 大躍進, 人民公社, 對蘇이데올로기, 論爭의 思想的 根源이 되었다. 이 階級鬭爭優先論이 經濟建設의 安定的 發展을 위한 現實主義的인 穩健路線의 選擇을 不可能하게 하였다.

지금 56~7年의 毛沢東의 發言이 第4次計劃의 指針으로 삼게 되는 것은 中共이 58年 以後의 階級鬭爭 優先論을 基礎로한 毛沢東路線에서 脫皮하여 現實主義的인 穩健路線을 取함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 方向은 穩健路線의 具體的인 內容이다. 毛沢東의 大躍進型 急進路線의 特徵의 하나는 經濟의 客觀的 法則性을 輕視하고, 政治思想의 優先에 의한 主觀的 能動性의 發揚에 의해 生産에너지를 誘導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陳伯達이 失脚한 70年 가을 以後 客觀的 法則性의 重視가 強調되어 主觀主義 極左觀念論批判을 이르게 되었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나타낸 것은 經濟의 現象을 認識하고 發展의 可能性을 찾는 尺度가 되는 統計의 重要性이 再認識된 것일 것이다.

또하나의 毛沢東路線의 特質인 大衆의 生産意慾을 높이기 위한 物質的 刺戟의 否定義를 變更 人民公社에서는 末端單位의 生産隊를 基礎로 하는 3級所有制를 堅持한다는 黨政策이 維持됨에 따라 末端農民의 自

主的 權限이 認定되어 生産意慾의 低下를 막는다는 것이다. 그 위에 農民의 生産意慾을 높이기 위하여 自留地에 의한 副業이다 報酬等 物質的 刺戟이 充分히 考慮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傾向에 反하여 人民公社에 權限을 集中시키는 것이나 農民에게 一定한 報酬支給을 否定하고, 이를 修正主義라 하여 抵抗하려는 急進的인 傾向은 嚴하게 批判되고 있다.

이와같이 經濟建設, 特히 農業政策의 基本方向을 表示하는 指導思想, 指導理論이 바야흐로 脫文革化, 脫毛沢東路線化를 目標하고 있으며, 그 方向은 거의 定着되어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政治指導體制, 經濟發展의 指導思想, 指導理論의 側面에서 文革路線, 毛沢東路線의 離脫이 進行되고 있으며 여기에 中共經濟의 安定的 發展을 阻害하며 그를 攪亂했던 主要한 原因이 只今 除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3. 農業生産의 問題點

文革後 農業政策에 關하여 이를 文革路線 毛沢東路線의 發展이라고 보는사람들은 大躍進政策의 再現이나 人民公社에의 權限의 集中을 豫則하였다. 그러나 現實을 그렇게는 되지않았다. 그에 代身하여 強調되고 있는 것이 自力更生의 典型으로서의 大寨方式이며 또하나는 地方에서의 中小型 工業體係의 育成이다. 그러나 이 1年餘間에 中國의 機關紙에는 이런 典型的인 方式로서는 包括할 수 없는 農業生産上的 問題點이 있다고 表現되고 있다.

그러한 農業政策上的 "背景" 을 最近의 指導的論調로 부터보자. 文革

後의 農業政策의 指導的 論文으로서는 우선 71年 4月 13日의 「人民日報」에 掲載된 國務院農林省執筆 그룹의 「『農業은 大寨에서 배워라』의 빛나는 길을 勝利속에 前進하자」는 題下의 論文이다.

이 論文의 要旨는 第1은 正確히 黨의 農村 各項政策을 實行할 것을 求하여 「同志들은 다만 方向만 설정되면 그로 定하다. 政策의 限界를 뛰어넘어 지나쳐도 太平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다. 이것은 毛沢東路線에 充實하려고 하는 急進派가 黨의 農村政策을 實行하지 않은 것을 批判함과 同時에 그러한 政策上의 主觀主義, 感情, 感覺이 大衆의 積極性을 挫折시킨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第2는 黨의 農村政策의 基本으로서 人民公社의 3級所有制 生産隊를 基礎로한 現行體制, 勞動에 應한 分配와 等價交換等의 政策을 반드시 貫徹할 것을 들고, 이 政策의 合理性을 마르크스主義에 있어서의 段階革命論으로 證明하고 있다.

第3은 黨의 農村政策을 具體的으로 證明하여 ①食糧生産을 빈틈없이 하고, 換金作物의 生産에도 努力할 것, ②集團經濟의 發展과 優勢를 條件으로하여 社員 (農家)에 小量의 自留地와 農家副業을 許用할 것, ③集團의 公共蓄積에 注意를 쏟을 것이나 一舉에 過度한 蓄積을 禁止할 것, 每年 個人收入이 增加되게 配慮할 것, ④公社나 生産大隊가 經營하는 企業이나 事業에 生産隊의 勞動力이나 物資를 無償으로 徵用하여서는 안된다. ⑤人民公社나 生産隊의 非生産 人員이나, 非生産支出은 自由롭게 增加시킬 수 없다. ⑥工業 交通 大型水利事業을 行할 時 基本建設이라해서 生産隊의 勞動力을 過度히 徵發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을

들고 있다. 如何히 生産隊, 特히 農家の 生産意慾을 떨어치지 않게 慎重하게 配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注目된 論文은 71年 4月 17日의 「人民日報」에 掲載된 湖南省 道県黨委員會의 報告다.

이의 第1은 食糧生産의 把握을 前提로하고 積極的으로 多角生産에 努力하여 “副業만에 精力을 기울려 農業을 輕視하는것” 등의 限界를 分明하게 할 것, 필경 經營作物이나 副業生産에 힘을 기우릴 것을 強調하면 곧 食糧生産의 集團農業이 輕視될 傾向을 指摘하고 있다.

第2는 國家計劃에 따른 植付와 “自由植付” 외에 限界를 分明히 할 것, 이는 國家計劃대로 심지않고 값비싼 他的 換金作物을 심으려 하는 傾向을 指摘하고 있다.

第3은 黨의 政策에 따라 許用된 家庭副業과 自然發生的인 資本主義化 傾向間에 限界를 分明히 할 것, 結局은 集團의인 副業을 優先할 것을 條件으로 家庭副業을 奨勵할 것이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이다.

第4는 合理的인 報償과 物質的인 刺戟과의 限界를 分明하게 할 것, 結局 適當한 報償도 物質的刺戟이라하여 否定하는 傾向을 指摘하고 있다.

이같은 點을 強調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는 農村에는 複雜한 狀況이 있고 黨의 農村政策을 末端에서 實施할 段階가 되면 가지가지의 矛盾에 直面하는 것을 分明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農業은 大寨에서 배워라” “農業은 食糧生産을 中心으로 全面的으로 發展된다”는 斯로간으로 하나, 農業政策의 指導는 그렇게 簡單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最近의 論文에서는 72年 「紅旗」 6号에 掲載되어 6月22日 「人民日報」에 転載된 「農業·輕工業·重工業의 關係를 바르게 處理할 經驗을 總括한다」는 題下의 鍾力成論文이 注目を 끌었다.

이 論文은 우선 中國農業의 심각한 現實을 直視하여 ① 現在의 農業生産水準이 一般的으로 低調하다는것, ② 各地 發展狀況도 不均等하며 一部の 相當히 큰 地域에서 單位面積高가 「全國農業發展綱要」에 定해진 指標에 未達한것, ③ 農業機械化가 實現되어 있지않고, 自然災害에 對한 抵抗力이 弱하다는 것, ④ 農村에서의 商品穀物과 各種 工業用原料의 供給은 아직도 輕工業 重工業發展의 需要充足에 未達된다는것을 들고 있다.

여기서 社會主義建設을 推進하기 위하여 重工業을 中心으로하고 重工業을 優先적으로 發展시키기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한다. 그러나 重工業의 發展과 農業 輕工業의 發展을 分離하여 생각하는 見解를 批判하며, 이 三者가 勞動力 資本設備, 原資材 등의 配分過程에서 相互矛盾되는 一面만보고 이들이 相互間에 條件이되며 相互促進關係에 있는 面을 否認하는 見解를 批判하고 있다.

結局 이 論文이 目的하는 바는 文革後 全國各地에서 地方에 中心型 工業體系育成方案이 推進된 結果, 工業建設을 위해 農村勞動力을 吸收 投入할 傾向이 있음을 警告하고, 農業에서 工業에 勞動力이나 資源을 流出하는 것을 嚴重히 警告한 點일 것이다. 地方에 工業을 育成하려 하면 그것은 農業發展과 結付되어 農業에서 勞動力이나 資源을 빼앗는다는 傾向이 되는것은 工業과 農業의 有機的인 發展의 困難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周恩來는 71年7月 中國을 訪問한 캐나다의 배방通産相에게 中國 經濟 特別 農業의 方向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1. 社會主義國家로서 中國經濟는 弱體로 旧態以然, 工業化가 뒤져있다.
2. 農業機械는 더욱 뒤져있다. 當身이 訪問豫定인 人民公社는 어느 程度 機械化되어 있을 것이나, 中國의 農村의 태반은 人力에 依存하고 있다.
3. 食糧生産의 達成速度를 너무 당길 수는 없다. 우선 食糧의 供出 遲納을 주리는 것이며 面積當收穫의 增大가 必要하다.
4. 우리 國의 關心事는 工業開發로서 이것을 2~30年 繼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發言은 今後의 經濟政策의 基調가 大躍進型이 아니고 穩步前進이라는것, 中國이 工業化를 必要로 하는것, 工業化만이 아니라 農業의 機械化는 뒤져있다는것, 文革後「人民日報」에 表現된 「食糧을 總分配하여 먹어치운다」는 農民의 사보타지 現象이 있다는것이 암시되고 있다. 經濟發展의 後進이란 심각한 現實을 直視하여 거리에 經濟의 客觀的 法則性과 大衆의 生産意慾을 重視한 合理主義的인 經濟政策을 採択하여 大躍進型이 아니고 穩步前進型으로 2~30年의 長期間에 걸쳐 工業化를 겨누다는 基本方向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現實主義的인 對戰者가 國際環境의 改善을 毛沢東의 急進路線을 排除하여갈 條件을 가추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現實에는 農民의 極히 낮은 生活水準 都市와 커다란格差란 深刻한 條件이 散在해있다. 自力更生 片狹心에서 脫皮하여 先進工業國의 經濟·技術 協力을 導入한다고 하여도 農村의 低水準의 生活를 一挙에 向上시킨다

는 것은 不可能하다. 工業化를 推進하면서 同時に 農業의 發展과 農民의 生活水準을 徐徐히 向上시켜간다는 두개의 問題를 如何히 結付시켜 解決하여가는가가 今後의 最大課題이다.

그때는 國防費의 國民經濟에 미치는 壓力과 人口增大에 따른 食糧의 壓力이 重要한 問題가 된다. 文革後에도 中共의 人口問題가 完全히 解決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1957년에 6億5千6百63萬名이라고 公式發表된 以後 公式統計는 없다. 72年8月 北京에서 發行된 世界地圖의 記述에서 人口는 6億9千7百36萬名이라고 推定한 見解도 나왔다. 그러나 그 直後 李先念副首相은 8月22日 全日空代表團의 關係者에게 「中國의 人口는 自身도 知할 수 없으나, 7億5千萬以上이라는 것은 確實하다.」고 말했다. 要컨데 센서스에 의한 正確한 人口統計는 아직 없는 것이며 8億 以下이니 以上이니하고 있는 段階이다.

따라서 人口增加에 따른 食糧에의 壓力도 아직 充分히 測定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大躍進當時의 「人口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든 毛沢東式 沒經濟的 人口論은 사라지고 人口制限政策이 普及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도 좋으나, 人口問題로 今後의 政治動向이 어찌될 것인가, 工業化와 並行한 農業生産 特別히 食糧生産政策이 如何히 展開될 것인가에 關係될 것이다.

72年 10月 以後 自然災害에 依해 72年度의 食糧生産은 目置量의 未達이라고 強調되기 始作했다. 그것은 11月10日 周恩來가 北歐의 記者團에게 2億4千6百萬톤에 比해 1千萬톤 약4%의 減産이었다고 言明하고 있는것, 「紅旗」 11号 12号와 「人民日報」의 諸論調가 食糧의 節約과 備蓄을 소리높이 외쳤던 것을 보드라도 分明하다.

單 한번 農業生産이 不振했던 翌年の 國民經濟의 發展水準이 低下한다는 法則이 指摘되고 있다. 그런 構造가 基本的으로 變해 있지않는다면, 73의 人民經濟의 大幅的인 發展은 바라기힘들 것이다.

그위에 文革以來 現工科系大學의 空白으로 7年以上 新規卒業生을 排出하지 못했다. 이것은 中共經濟의 發展에 必要한 科學者, 技術者의 資源 不足을 가져오게 하며 中共農業의 發展에도 긴 歲月을 두고 陰路가 될것이 確實하다.

## 参 考 文 献

- o K,Chao; Agricultural Production in Communist China,1949-65,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o Thomas G.Gawski; Recent Trends in the Chinese Economy; China Quarterly Vol.53.1978.1 ~ 3.
- o D.H.Perkins; Market Control and Planning in Communist 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o - Economic Growth in China.
- o T.R.Tragear; Economic Geography of China, American Elsevier.
- o T.C.Liu and K.C.Yeh; The Economy of the Chinese Mainl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 C.Y.Cheng; The Economy of Communist China 1949-69. Michigan University Press.
- o 山田坂仁訳； 中国経済の解剖，サイマル出版会。
- o 大塚恒雄著； 中国経済の変貌，白桃書房。
- o Jan S.Prybyla;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t China, International Text Book Co.
- o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Survey of Mainland China Press, 明報，問題与研究，世界週報，北韓等 多数参考

## 第十二章 中共社會主義教育革命的 現況과 將來



## 第十二章 中共 社会主義 教育改革的 實態

### 1. 머리말

中国人은 傳統的으로 文盲率이 높기로 알려져 있다. 1949年 中共이 政權을 樹立할때 全中国人 80%가 文盲者였다고 하나 그후 繼統적으로 近代 教育運動을 강화하고 전후 4차례에 걸친 學制改革으로 상당히 文盲率이 낮아졌다고 한다.

1951年 10月 中共이 「學制 改革에 關한 決定」을 공포했는데 이 基本原則에 依하면 「教育은 勞働者·農民을 위해 始作한다. 모든 길은 大學으로 通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小學 5年一貫制는 1953年末까지 繼統되다가 教師와 教材 不足이라는 이유때문에 그 實施를 중지했고, 勞·農速成中學도 亦是 1955年 7月로 中斷되었다.

1958年 5月 中共中央은 總路線, 大躍進運動, 人民公社의 三面紅旗 政策의 實現을 선포하고 1958年 8月 國務院은 教育事業에 關한 指示에서 「全党全民辦學을 강조하고, 黨委員會가 學校를 指導할 것」을 강조했다. 여러차례에 걸친 學制改革을 통해 正規的인 學制를 파기하고 各地方의 必要에 따른 改革을 實現시켰다. 따라서 學校에서 工場을 운영하고, 工場이나 人民公社에서 學校를 運營할 것을 장려하여 紅專大學, 勞動大學 따위의 학교가 大量出現하여 學制의 극단적인 混亂狀態를 惹起시켰다. 이같이 많이 출현한 學校는 뒤따른 經濟의 파탄으로 폐지되었다.

1964年 中共中央은 두가지의 教育制度, 두가지의 勞動制度의 지시를 제기한 후 中共의 教育制度는 다시 흔들렸다. 中共은 정규

수업을 하는 正規學校를 운영하는 동시에 半工半讀, 半農半讀의 學校를 發展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形態의 學校는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教育의 원대한 發展方向이라고 주장했다. 1966년에 들어 文化革命으로 다시금 教育改革이 進行되었다. 이 改革은 더욱 広範圍하고 철저하여 各급학교의 入試制度를 폐지하고, 당시 施行되고있던 正規學制, 考試制度, 留級制度, 教育內容, 教授法등을 全般的으로 否定했으며, 심지어는 모든 學校를 폐쇄함으로써 長기간에 걸쳐 完全 教育不在의 現象을 초래했다. 이러한 現象은 아직까지도 完全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고 1970년에 들어와서 점점 회복되고 있으나 1972年 末 現在까지 大學의 約 半數정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 本稿에서 筆者는 주로 文革으로 황폐된 中共의 教育現況을 살펴보기로 하며, 資料의 不足으로 1972年 末까지의 狀態만을 分析하기로 한다.

## 2. 教育의 荒廢

文革으로 教育制度의 改革을 서두른지 7년이 되지만 大學에서 小學까지 繼統적으로 시행착오와 혼미 狀態를 繼統하고 있을 뿐이다.

中共의 政治的 混亂과 경제적 침체상태가 繼統되는 한 새로운 文化教育事業은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은 思想, 文化, 風俗, 學習을 타파하고, 社會主義화된 下部構造(經濟構造)에 対応하는 새로운 革命的 思想, 文化, 教育, 衛生, 기타 社會制度를 確立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當時 主張했던 「四舊打破」이며, 破舊立案이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革命이 그 中核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에 依해서 革命的 후계



자를 육성 단련하고, 中國革命을 永遠히 變色치 않도록 保障하는 것이었다. 全國學生이 홍위병운동에 일어선 것도 그러한 大義名分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의 意圖는 그들 紅衛兵組織을 反毛派打倒의 政治鬭爭의 道具로 이용하려는 데 있었다. 그것을 위해 1968年 후반부터 文革收拾期에 접어들 때까지 紅衛兵은 어용되었을 뿐이고, 組織은 해산을 명령받고 指導者나 幹部는 검거되었으며, 1천수백만의 男女學生은 農村벽지나 邊境지대로 추방되고, 貧下中農의 再教育을 받고 一生 그곳에서 安家落仁(뿌리를 박고 산다.)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까지 毛沢東의 教育革命에 對한 本來의 目的은 부르조아계급이 쥐어온 教育의 障地를 달취하고, 教育權을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손에 모으고 教育을 프롤레타리아 獨裁와 社會主義의 革命建設을 위해 봉사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르조아 教育의 內容인 舊思想, 文化를 일소하고 毛沢東思想 一色으로 바꾸어 革命的인 勞農兵에 學校管理權을 掌握시키고 知識과 勞動偏重의 入試制度를 폐지하고 수업年限등을 단축하는 改革을 단행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의 저의는 人間教育을 政治目的 達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毛沢東思想에 依하여 全人民의 頭腦를 一元化함으로써 政權의 不安 해소와 長期 固着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것 또한 紅衛兵을 政治道具로 活用한 것과 같이 解釋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되는 것은 1966年 8月 紅衛兵運動 開始 當時의 狀況이다. 毛沢東은 먼저 紅衛兵에게 「造反有理」의 無法特權을 부여하고, 전후 8回나 全國에서 모인 1千2百萬名의 紅衛兵을 天安門앞에서 檢閱, 革命의 小勇將이라 격려했다. 또한 北京大學長 陸平, 南京大學長 國亞明,

武漢大學長 李遠 等 무수한 學者나 教授를 「부르조아 學術權威」라 규탄, 추방했던 것이다. 全國의 大學, 高等專門, 高級中學은 이때부터 수업을 停止, 新入生의 모집도 취소했다. 各地의 學校에서는 校長이나 校師를 끌어내어 大衆鬪爭에 걸어 暴行을 가한후 손을 묶고 三角帽子를 씌워 마시지도 먹이지도 않고 街道로 끌고다니는等 暴行事件이 繼續되었다. 이때문에 死亡하거나 自殺 또는 不具가 된 教師가 얼마인지는 不明하지만, 적어도 各級學校의 過半數의 教師는 紅衛兵에게 集團暴行을 당했던 것이다.

1967年 紅衛兵의 武力鬪爭이 격화되고서, 毛·林派는 紅衛兵에 對해 「學校로 돌아가 授業을 再開하고 革命을 展開하라」고 指示했다. 그러나 學校는 이미 폐허와 같았다. 教師는 이데올로기이란 名目으로 勞動改造에 보내지고, 學生은 홍위병에 參加한 후 돌아오지 않고, 教材도 없거니와 教具도 없는 상황에서 授業再開란 언어도단이었다. 그래서 理工系 大學이 새로 學生을 모집하여 수업을 재개한 것은 1970年 가을부터이고, 人文系大學은 諸般 施設 및 教授難으로 거의 수업을 再開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中學이나 小學은 비교적 일찍 수업을 재개했지만, 새로운 教育制度가 確立되지않아, 各地에서 제각기 中途半斷의 시행착오를 계속, 教師는 어떤 기준에서 가르쳐야 할 줄을 모르고, 1969年 以來 中小學校는 全部 工場이나 人民公社의 經營으로 추방되고, 勞動者나 貧下中農의 관리로 이관되었다. 이때문에 資格있는 正規 教師란 거의 없는 實情이다. 文革기에 知識人이나 教師에 對한 박해, 學校教育에 對한 파괴가 너무 극심했으므로 「讀書無用論」, 「文化工作 危險論」, 「當 教師 倒霉論(教師가 된다는 것은 運命)이 대두되고, 中共의 教育再

建이 지지부진하고, 이것은 社会不安의 要因으로 擴大되고 있는 実情이다.

### 3. 農村 中·小學校 教育의 現況

文革 過程에서 中共이 取한 가장 현저한 사항은 「解放軍 毛沢東思想宣傳隊」와 勞働者 毛沢東思想 宣傳隊」를 各級學校에 주둔시키고 教育에 對한 門外漢에게 學校의 指導權을 掌握시킨 것과 最近에는 公營의 中小學校의 運營責任을 人民公社나 都市의 工場에 넘기고, 中共政府는 「돈은 안내지만 입은 낸다.」 「便利는 提供치 않지만 支配權은 掌握한다.」는 方式으로 바꾸고, 學校를 生産機構의 부속기구化시켰다. 이것은 또한 「勞働者階級이 一切를 指導한다.」는 社会主義의 方向에 합치하지만 實은 中共財政의 궁핍으로 教育이나 의료시설에 돌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中共이 文革수습기에 들어간 1968年 후반부터 「人民日報」를 通해서 紙上討論을 繼續해왔으나 그 中 小學校의 經營을 公社, 工場에 위임해야 한다는 많은 건의를 發表한 것은 1968年 11月 14日과 12月 2日의 紙上討論이다. 即 紙上討論의 形式을 취하여 全國에 命令한 것이다. 여기서 各縣이나 人民公社에서 여러가지 結果를 모델로 하여 맨 처음에 建립된 것이 1969年 5月 12日 人民日報에 發表된 吉林省 梨樹縣革命委員會의 「農村 中·小學校의 教育大綱」(草案)이 바로 그것이다. 同草案은 7章 30條로 되어 있고, 第 1章 總綱, 第 2章 指導, 第 3章 思想政治工作, 第 4章 學校의 配置와 學制, 第 5章 教師, 第 6章 修學工作, 第 7章 일하면서

배운다로 되어있다.

草案은 모두 總綱에서 「農村의 中小學校는 中國共產黨의 指導下에 貧農, 下農, 中農이 直接 管理하는 社會主義의 새로운型의 學校」라고 規定하고, 「農村 中小學校에서는 學生은 學業과 同時에 工業과 農業도 배우고, 부르조아階級에 對한 批判도 行해야 한다는 毛主席의 5.7 指示를 實行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계속해서 「農村의 中小學校는 貧下中農의 子弟에게 크게 문을 열고 入學시켜야 한다.

그래서 農村의 靑少年을 毛沢東思想에 忠實한 프롤레타리아 革命事業의 後繼자로 단련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第2章에서는 人民公社, 生産大隊의 黨組織과 革命委員會의 指導하에 貧下中農이 主体가 되어 人民公社 幹部, 革命的 教師, 生徒代表의 三結合으로 學校를 管理한다고 하고, 그 任務는 毛主席의 프롤레타리아 教育革命路綫을 貫철하는데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第4章에서는 小學校는 生産大隊가 經營하고, 中學校는 人民公社와 生産大隊가 연합하여 經營하며 費用은 民營으로 國家가 보조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年齡에 의한 入學制限을 突破하고, 勞動兵의 子弟를 우선적으로 入學시키고, 學年의 改定을 春季로 한다는 것이다. (從來는 9月이 學年開始), 第5章에서는 教師의 任免은 貧下中農이 討議決定하며, 生産大隊와 人民公社의 革命委員會가 批准한다. 教師의 賃金은 勞動點數制에 依한 보조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第6章에서는 小學校는 政治語文(毛沢東簡說), 算數, 革命文芸, 軍事體育, 勞動等 5課目으로 中學校에서는 毛沢東思想(中國近代史, 現代史, 두개 路綫의 鬭爭史) 農業基礎(數學, 物理, 化學, 經濟, 地理)를 加하고 高水準의 內容으로 하며, 수업일수는 中小學校 다 같이 年間 40週(勞動包含)前後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어서 第7章에는 生徒들은 校內勞動과 함께 生産大隊나 人民公社의 勞動에도 參加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같이 이 草案은 極히 文革의 ایده올로기가 강한 것으로 經費等 때문에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一片의 作文에 不過했던 것은 그後 이 草案의 實行에 관한 보고가 전적없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後 改革狀況은 극히 단편적인 것밖에 없어, 實體를 把握키 어려우나 方向은 대체로 위에 말한 吉林省의 정신에 따라 各地에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것 같다.

最近에는 부유한 農村 以外에 全日制의 正規 中·小學校는 아주 적고, 大部分은 半日制나 격일제 혹은 朝班, 夜班 내지는 複式混合의 夜學, 巡回教育班이라는 것이 있다. 이때문에 最近의 中共報道는 基礎教育인 小學校의 質的 低下를 감추고, 취학率이 몇 % 上昇했다던가 學校數가 몇 개 늘었다던가等 量的 擴大만을 宣傳하고 있다. 그러나 學校라 해도 大都市 近郊의 一部를 除하면 校舍도 없거니와 만족스러운 冊床 결상도 없고, 教育 設備도 없는 것이 大部分이다. 兒童, 生徒도 家事나 勞動의 여가에 적은 時間을 내서 政治語文이나 初步의 인 읽고 쓰기를 學習할 程度다. 심한 경우는 農事일의 中間에 나무그늘에서 여는 「耕讀班(河北省 遵化縣 西舖大隊)」나 漁船 위에서 여는 「海上 流動小學校(廣東省 陵水縣, 新林漁業公社)라는 것도 있다.

農村小學校의 취학률은 各地에서 80~90%라는 보도도 있으나 實은 50% 程度일 것으로 外部 專門家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學生中에 長期休學이나 무단退學者가 많다. 修學年限은 5년이 단축되어 初級中學 2年을 합하여 7年制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從

來 小學 6年, 初級中學 3年, 高級中學 3年, 大學 5年 이 正規였으나 文  
革에서 5. 2. 2. 3으로 단축) 最近 中共의 目標은 公社에 高級中  
學, 生産大隊에 初級中學, 各生産隊에 小學校를 設치하는 것이 目標이  
지만 實際로 高級中學를 유지할 수 있는 人民公社는 적은것 같다.

以上과 같이 文革의 教育改革에서 農村教育이 보급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初等教育의 質이 현저히 低下되고 30年前의 延安  
時代의 辺區教育으로 되돌아 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中共은 農村  
教育의 지연을 劉少奇 修正主義 都市偏重의 유산이라고 공격하고 있  
으나, 農村教育의 몰락은 어느것도 劉少奇時代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分明히 中共政權 成立 以來 가혹한 농촌착취와 社會制度의  
壓迫에 貧困이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農民의 教育改革에 對한 不  
滿의 소리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것 같다. 심지어 어떤 學父母  
는 子弟를 취학시키려 하지 않고 「學校에 가봤자 勞動을 하는 것이  
이니, 집에서 일을 시키고 勞動點敎를 얻는 편이 낫다.」고 말하며  
20여명의 生徒가 退學을 신청했다. (1972年 4月 20日 人民日報)  
河北省 遵化縣의 農民은 民兵學校를 不正規的이고 教育의 가치가 없  
다고 하여 이런學校는 가나 마나하며, 知識青年마저 조만간 下放될  
것이니 지금 논밭에 나가 노동점수를 따는 것이 낫다고 (人民日報  
1972. 2. 15) 말하고 있다. 1970年 中共에서 온 사람에 依하면  
農村의 150 個程度의 生産大隊에서 新聞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2~3名 程度라고 한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겠지만, 自由中國의  
義務教育 9年, 就學率 98.5%에 비하면 大差가 있는 것이다. 그  
러나 中共教育의 低水準에 비하면 家庭에 있어서의 道德教  
育, 人間教育이 의외로 잘되어 있다는 點에 農村社會의 進進성이 있  
다는 것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4. 都市 中小學校의 改革現況

農村에서는 「人民公社가 學校를 經營한다.」, 「學校가 農場을 갖는다.」에 對處해서 都市에서는 「工場이 學校를 經營한다.」 「學校가 工場을 갖는다.」는 運動이 大的으로 行해지고 있다. 이것은 教育改革的 「四合制度」라고 불리워 지고 있다.

이미 1958年 9月 大躍進運動 當時 中共中央과 國務院이 連名으로 「教育工作에 關한 指示」를 發表하고 學校에서 조건에 맞는 工場을 建設토록 강조했으나, 文革期에 들어 毛沢東의 「5.7指示」(1966年 5月 7日)에 依하여 이것이 強烈히 主張되고 中小學校의 生徒는 交替되고 農村이나 工場勞動에 參加하게 되었다. 다시 文革 수습기인 1969年부터 學校經營의 民間下放政策을 들고나와 「工場이 學校를 經營하고, 學校가 工場을 갖는다.」는 무드가 조성되었다. 最近까지 中共의 教育現況이 무질서를 회복하지 못한 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北京의 경우를 보면 全体市의 中小學校가 1970年 4月부터 다투어 「學校가 工場을 갖는다.」는 운동을 시작, 7月中旬에는 250餘校가 工場을 建設했다. 그러나 그 규모와 형식은 매우 複雜하고, 주로 機械部品, 金屬加工, 電氣, 光學機械, 印刷, 土木 서비스加工, 手工業 等이었다. 北京 第一中學에서는 電子工場, 北京 第23中學에서는 新北京中學과 聯合하여 「5.7工場을 創設하고 銅야스리를 生産, 北京 第31中學에서는 機械, 板金, 木工, 電工, 鍛造의 5單位를 갖춘 綜合工場을 建設, 北京 43中學은 靑수에서 알콜, 염산을 生産하는 化學工場을 經營하는 상황이었다.

廣州市의 경우를 보면, 1970年 5~7月 사이에 中學 68個校가 87個工場을 建設했다고 한다. 廣州 32中學에서는 용광로를 쌓고, 附近 工場의 廢物을 원료로 해서 酸化亜鉛鉄 生産工場을 開設했고, 第 61中學에서는 硫酸 알루미늄 生産의 小化學工場을 創設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1958年 대약진기 당시에 실패한 「全民 煉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이것은 「土法製鉄」의 소란무드의 再來를 생각해 한다. 當時 「土法 高炭」를 全國에 12萬基 만들어 64萬人的 農民 勞動力과 84萬톤의 석탄을 낭비하고, 10數萬人的 死傷者를 내고, 3個月만에 불이꺼진 것이다.

最近 전개되고 있는 學校工場運動도 一種의 人海戰術로서 紅衛兵運動의 工業版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다. 이미 原料問題, 製品의 品質問題, 用途, 輸送, 經費 등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간단한 手工業이나 加工勞動으로 바꾼 곳이 많다. 大躍進期の 「毛沢東化 教育」의 失敗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짙다. 中共이 「學校가 工場을 갖는다」, 學校와 工場의 合一을 장려하는 저의는 다음과 같다고 발표했다.

①理論과 實際의 結合: 學校가 工場을 가지는 것은 教師, 生徒의 思想的 革命化를 促進하고, 實踐을 통하여 理論과 實際를 結合하고 勤儉力行的 風習을 양성할 수 있다. 毛沢東은 「사람의 正確한 思想은 어디에서 오는가」라 묻고, 「사람의 正確한 思想은 實踐에서 온다. 即 生産鬭爭, 階級鬭爭, 科學實驗 3大實踐에서 온다.」고 말하여 實踐을 重視하라고 強調하고 있다.

②數學, 科學研究, 生産의 結合: 이것에 依해서 社會主義의 修養이 높은 教養있는 勞動者를 育成할 수 있다.



③學校와 工場의 結合; 이로써 教育目的과 經濟目的을 結合하여 革命의 후계자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條件이 맞지 않고, 資金사정이나 經營指導가 적절치 않으면 學校와 工場이 兩立하기 어려움은 事實이 証明하고 있다.

더욱이 위에서 말한 吉林省의 「農村 中小學校의 教育大綱」에 附屬되는 都市 中學校의 教育改革의 효시로 文革中인 1967年 12月 上旬에 「毛沢東思想 81 戰鬪兵團, 文化教育衛生系統總部」가 出版한 「綱 81 戰旗」第 1 号에 北京 23 中學校의 教育改革計劃이 發表되었다. 이것도 文革이데올로기를 나타낸 것으로 初級高級中學의 일관된 하나의 理想案을 作成한 것이다.

그후의 都市 中小學校의 改革추이를 살펴보면, 農村과 유사하게 學制는 단축되고, 小學校 四年, 初中二年, 高中二年으로 되어 있다. 또 文革中에 이루어진 三結合式의 「學校革命委員會」가 없어지고, 學校管理權이 都市教育局에서 工場으로 下放됨과 동시에 工場革命委員會의 直接관리로 되고 있다. 이런 結果로 專任講師는 감소되고 大部分은 工場勞動者의 兼任으로 校長은 工場 支配人, 教師는 工場의 職頭라는 狀況으로 되고 學校는 全적으로 生産單位에 附속되어서 「素人이 玄人을 指導한다.」는 기현상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 5. 大學 高專校의 改革現況

文革發動後 4年間 폐쇄되어온 中共의 大學, 高專校는 1970年 후반부터 소수학교가 學生募集과 授業을 재개하였다.

文革前에 全國적으로 約 600 個校였던 大學, 高專 中에서 1971年末까지

개교한 곳은 90餘個에 지나지 않고 1972年 1월에 들어 中共의 発表에 따르면 10個 省市에서 70校의 大學, 高專이 학생모집과 수업재개의 준비를 시작했다 한다.

1972年 10月 現在로 개교한 곳은 합계 165個校로 全體의 27%로 全面的인 大學, 高專의 개교는 전도요원하다. 또한 學生수도 격감하고, 文革前에 1萬名이 넘던 淸華大學은 1972年 4月 13日 北京放送에 의하면 2,800餘名, 9,000名 이상이던 北京大學은 2,660名, 上海 復旦大學은 겨우 1,000여명이라는 것이다. 卽 재개한 大學의 大部分은 理工系와 醫科系 一部學科이며, 文科系列은 教授와 施設破壞로 재개가 困難한 實情이다. 또한 全國 234校였던 中等高專門學校에서 이때까지 재개를 보도한 學校는 겨우 11個校에 不過하다. 그 入學生數도 아주 적고 말하자면 試驗的 性質의 것이다.

다음으로 文革의 教育改革은 從來의 勞力偏重의 入學試驗制度를 폐지하고, 入學이 許容되는 學生은 政治條件 第1로 學業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政治性分이 좋지 못하면 入學이 許容되지 않는다. 卽 毛澤東革命路線의 精神에 따라 學生은 出身階級에 重點을 두고 主로 勞動者, 農民, 兵士로 2年 以上 勞動經驗이 있는자 中에서 選擇하고, 其他 勞動改造로 下放된 知識青年으로 關門을 패스한 者를 若干 入學시킨다는 方針을 捫하고 있다. 그 手續으로는 職場에 있는 노동者 青年이 「스스로 入學希望書를 提出, 職場의 大衆의 稱거를 받아 지도기관인 入學委員會의 批准을 얻고, 다시 學校의 復査에 패스한다는 4段階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卽 부르조아 계급出身者나 政治性分이 불투명한자는 入學이 許可되지 않는다.

現在 靑華大學 2,800 名 學生中 45%가 勞動者, 40%가 農民, 15%가 軍人으로 그中 女性은 20% 전후라 한다. 北京에서도 勞農兵 學生이 90% 以上을 占하고 있다.

이와같이 新入生 선발에는 철저한 供給路線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開校時期나 學生募集이 각지에서 가지각색임을 볼때 中共에는 아직 高等교육에 대해 具體的인 統一規定이 없이 各地의 狀況에 따라 試驗케이스로 實施되고 있는것 같다. 教育行政의 最高機關인 國務院 教育部마저 文革에서 찌프러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文革後에 大學高等專門校가 어떻게 변했나를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上海同濟大學; 이大學은 建築關係의 綜合工科大學이다. 1968年 7月 21日 人民日報를 통한 毛沢東指示에 따라 上海機床廠의 實踐經驗이 있는 勞動者를 넣어 몇년간 訓練시켜 職場에 돌아간다는 方針을 취하고, 理工系大學의 改革에 관하여 먼저 初步的 구상을 發表하여, 大學改革에 앞장선 大學이다. 이 初步구상에 의하면 學校, 施工單位, 設計單位로 되는 三結合의 5.7 公社를 만들어 大學名稱을 폐지하고, 학제를 3年으로 단축, 每年  $\frac{1}{2}$  期間은 生産勞動에 參加한다.

學年을 폐지하고 몇개 三結合의 專業委員會를 만들어, 그밑에 몇개의 數學班을 두고 教師, 學生, 技術者, 勞動者가 一齊히 學習하고, 勞動하고, 生産한다. 學生은 定期的으로 交代되고 各專業委員會를 도와 生産實踐에 從事하고 學習과 단련을 받게 된다.

5.7 公社는 4번에 걸쳐 「實踐報告」를 發表했으나 最後의 4번째의 實踐報告가 1971年 「紅旗」第 6号에 發表된 同濟大學 5.7 公社 教育革命 革命實踐報告였다. 이에 依하면 5.7 公社는 1967年에 創立, 68, 69, 70年 3회에 걸쳐 學生 217 名의 修了者를 내고

1970年 11月 다시 215名의 勞農兵學生을 入社시켰다 한다. 同濟大學은 처음 74名의 教師, 學生이었으며, 5.7公社는 아주 적은 實驗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후 그 狀況에 대해 各方面에서 맹렬한 公박이 나왔는데 「이런것은 學校도 아니고 工場도 아니며, 空想的인 共產主義다.」, 「劉少奇의 半讀半勤의 낡은 方式이다.」라고 비난되고 결국 사라진 것이다.

②清華大學; 이 大學도 文革初에 「工科大學制度 改革에 關한 建議」를 提出하여 大學改革의 선봉이 되었다. 1970年 7月 紅旗第8号에 清華大學 毛沢東 宣傳隊가 쓴 「社會主義 理工科大學 創設을 위해 분투하자.」라는 題下의 論文을 發表했다. 中共은 이것을 大學改革의 청사진으로 宣傳하였다. 이에 의하면 教育革命의 지도권은 絶對로 勞動者階級이 掌握하고, 勞農兵과 革命技術人員 그리고 教授로서 구성되는 三結合方法을 취하고 旧式分子는 「一面改造, 一面使用」하여 가며, 또 教育体制는 大學에서 工場을 열고, 外部의 工場과도 연결하여, 「教學, 科學研究, 生産實踐의 三結合体制」을 樹立한다고 主張하였다. 教材도 「買辦洋奴哲學」을 파기하고 勞動兵의 수요를 기본으로 實踐하면서 新教材를 편찬해 간다. 教育方式은 生産과 科學研究를 結合하여 「배우는 자가 스승이 되어 서로 가르친다.」라고 한다. 이같은 狀況은 그후 繼續되어 1972年 4月 13日 北京放送에 依하면 最近 清華大學은 學生이 2,800餘名으로 大部分은 20세 전후 그 中에는 10年 以上 勞動을 한 30세된 工人이나 農民도 있다. 清華大學은 自動車 製造工場, 精密機械生産工場, 電子綜合試驗工場등 여러 種類의 中小工場을 經營하고 學生은 勞動者와 교사의 지도하에 生産과 科學研究에 종사하고 있다. 經驗이 豊富한 勞動者 農民中에서

40餘名이 초청되어 교단에 서 있다. 教育計劃은 教師와 學生이 共同으로 制定하고 教師와 學生이 等기관계로 平等하다. 授業은 政治課目 20%, 工業과 自然科學이 75%, 農業과 軍事가 5%이다. 學制는 종래의 6年을 3年으로 短縮하고 있다.

이상으로 보아 再開된 中共의 理工系大學은 아직 實驗段階에 있으며, 大學이라기 보다는 工場의 變形狀態이며, 技工, 勞動者 養成所가 되어 버렸다. 學生도 거의 初級中學程度의 기초學歷밖에 없으며 高度의 學理나 技術은 소화되지 않는 실정이며 大學, 高專教育의 현저한 수준저하 現象을 노정시키고 있다. 現在 中共은 中級技能者層은 保有하고 있으나 高級專門家는 현저히 부족하여 美國이나 기타 海外에 가 있는 學者, 技術者의 歸國을 열심히 호소하고 있다.

## 6. 5.7 幹部學校의 現況

5.7 幹部學校란 毛沢東이 1966年 5月7日 發한 지시에 따라 2年 後인 1968年 5月7日에 中共이 흑룡강성 慶安縣 柳河에서 시도한 하나의 集團工場이며, 이것을 5.7 幹部學校라 稱한 것이 시초이다. 以後 各地에서 속속 5.7 幹部學校가 出現하여, 文革에서 追放된 간부나 기구의 縮少에서 실직된 간부들의 下放運動을 시키는 장소가 되었다. 同年 10月4日 人民日報가 同校의 幹部下放勞動이란 經過보고를 發表하여 「기관이나 간부의 革命化의 典型」이라 宣傳하므로써 有名케 되고, 이것을 全國에 보급한 것이다. 이후부터 在職幹部도 交替로 여기에 들어가 勞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學校가 아니라 간부의 勞動訓練所이다. 最近까지의 狀況으로 보아 大體的으로 3個의 類型으로

나누어 진다. 卽 ①과오를 범한 간부를 懲戒하기 위한 勞動改造所, ②在職幹部 들을, 輪番으로 訓練키 위한 訓練所, ③新幹部 育成所이다.

1970年 11月 13日 人民日報는 5.7 幹部學校의 創設은 幹部教育路線의 一大革命이며, 이것은 결코 편의적 조치가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階級幹部를 양성하는 根本 大計다 라고 자화자찬하였다.

그러나 5.7 幹部學校의 實體는 「勞改農場」이기 때문에 점점 간부에게 경원시되고, 폐쇄한 곳도 많은것 같다. 党中央과 國務院 관제에서 1971年 1月까지 전후 100 餘個所, 5.7 간부학교를 열고, 9萬人에 가까운 간부를 訓練시켰다고 發表하고 있다. 그러나 各地의 狀況은 不均衡하며, 廣東省에서는 1969年 2月까지 983 個所의 5.7 幹部學校를 열고, 運번으로 항상 10萬餘의 간부를 訓練하였으나 廣東地區에서는 겨우 52 個所에서 1萬名程度의 간부를 수용한데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 現在の 狀況은 大体로 다음과 같다.

5.7 幹部學校는 이미 제도화되어, 県이상의 各機關, 各單位는 이를 設立하고, 계직간부를 運번으로 넣어 노동단련을 시키고 있다. 一般적으로 3.3 制로서 3分の1의 간부를 5.7 간부학교에 넣고 3분의1은 남아서 執務에 任하고, 3분의1은 調查研究等에 임하고, 3年間에 이 課程이 한바퀴 돌게 된다.

그러나 老幹部에 비해 이학교에서의 訓練은 青年幹部의 하방입교가 圧到的으로 많다. 5.7 幹部學校에서의 訓練은 勞動에 종사하는 外에 附近의 人民公社나 工場에 나가 民家工作을 하거나 社會調查를 한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의 저작이나 毛沢東의 저작을 学習하고, 路線鬪爭의 自覺을 높이는 일도 重要な 任務로 되어있다. 그러나 技術幹部나 知識人 幹部는 이 政策에 對해 不滿을 가지고 있으며, 解放된 幹部

중에도 5.7 간부학교를 거부하고 있다고伝한다. 차라리 간부가 되어서 思想改造나 路線鬪爭이니 등으로 줄리는 것보다는 無官의 太夫가 좋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7. 맺는 말

毛沢東은 文革중에 教育의 지도권을 부르조아의 學術權威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손에 들어주기 위하여 社會主義教育革命을 展開했다. 그 結果 教育機關은 破壞되고 부르조아 지식인은 일소되었으나 革命의 後繼者는 容易하게 育成하겠다는 것이다. 國家建設을 위하여 추방된 학자, 교사, 기술자를 다시 放勉하여 학교나 職場에 復歸시키고 있다. 그러나 毛沢東의 革命路線의 本質은 文化나 真理가 미리부터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學校教育 특히 高等教育은 쉽게 재건되지 않고, 지금도 中途半斷의 시행착오를 繼續, 中共의 教育은 混亂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도 教育을 階級路線으로 지배하고 神聖한 人間教育은 政治나 權力의 도구로 하려는 政策으로 임하고 있다. 文革以後 大陸의 高等專門教育은 공백상태를 계속, 그때문에 육성되지 않은 數10萬의 知識幹部나, 技術者, 專門家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中共治下의 젊은 世代의 人心을 황폐시킨 損失은 計算할 수 없다.

最近 政治不安, 社會不安, 經濟混亂의 근처에는 이 요소도 作用하고 있다는 것은 中共을 꺾이나 不安하게 만드는 것이다.

農村이나 변경지구로 追放된 1千數百萬 紅衛兵의 運命은 결코 中共 장래를 위해 建設的인 要素는 아닐 것이다.

中共은 最近 對內外 政策的 側面에서 유연적인 現實主義로 轉換하고 있으나 文化教育方面에서는 계속 毛沢東路線을 堅持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思想이데올로기와 現實政策간에 모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972年 7月 프라우다紙는 中共의 教育革命에 對하여 「中共의 高等教育施設에 일어나고 있는 狀況은 實生活에서 유리된 毛沢東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教育制度의 創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現實政策과 예리하게 對立하고 있다. …… 지금 一部 指導者는 毛沢東思想에 따라 再編된 새로운 教育施設이 직면하는 諸課題를 解決할 수 없음을 納得하기 시작했다.」라고 그것의 모순성을 지적한 바 있다. 要컨데 毛沢東思想이 中共의 教育을 지배하는 限 建設的인 真理探究를 為한 高等教育制度의 育成은 어려울 것이다.



## 第十三章 文化革命과 中國의 傳統文化



## 第十三章. 文化革命과 中国的 傳統文化

### 1. 中国的 歴史的 패턴

世界의 耳目을 混亂시켰든 「푸로레타리아 文化大革命」도 끝난 지금에서 보면 毛沢東이 國家 그 自体를 無視하고 測量하기 어려운 깊은 傷處를 남긴채 鎊少奇를 打倒하였다는것 外에 무어가 남아있을까. 結局 이는 毛王朝의 宮中内에서의 權力鬭爭에 지나지 않았다.

皇帝의 存命中에 太子가 權力을 한손에 쥐고 宮中内에서 勢力을 굳혀 皇帝를 허수아비로 만들거나 父子間에도 權力의 問題가 介在되면 미워하며 싸움이 있었던 것을 歴史가 再三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 境遇 太子에 該當하는 劉는 他人이었다.

여기서 皇帝가 太子에 對하여 쿠데타를 이르킨다는 奇妙한 일이 된다. 그러나 宮中内에는 太子의 影響力이 굳혀져 皇帝派는 小數에 不遇하고 正面衝突에서는 勝算이 없게 되었다. 皇帝에게 담겨진 武器는 偉大한 名聲뿐이다. 이 名聲의 크기는 참으로 偉大한 것이어서 實權을 잡고 있는 太子도 皇帝의 이름을 利用하지 않으면 政治를 行할 수 없을 程度였다.

皇帝는 天下를 向하여 太子는 皇帝의 이름을 팔아서 實은 皇帝를 背信하고 있다고 布告한다. 勝敗는 確實히 定해진것, 單純한 젊은이 나 어린이들이 皇帝의 一大事件에 糾合參加한다. 이때 한자리 노리는 野心家가 끼어들면 騷動이 벌어지며 바야흐로 亂世가 된다.

皇帝는 太子派를 눌러 降服을 받기 위하여 恐怖政治를 行한다.그러

나 이는 一時的이며 政治를 行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官僚가 必要함으로 太子派를 뿌리뽑을 생각은 없다. 首腦를 除去하고는 脅迫하여 改心시켜서 皇帝派로 鞍裝을 바꾸면 寬仁을 베풀러 容怒를 하여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恐怖政治의 勢를 타고 立身한 者는 그 機微까지는 理解할 수 없음으로 皇帝가 寬仁의 方向으로 方針을 變更한 後에도 最後까지 恐怖政治를 推進하려고 하나 이미 用務는 끝나 只속에 있어서는 妨害만 되므로 皇帝는 그러한 酷吏輩를 假借없이 淘汰시킨다는 則天武后 때와 같은 方法이다

그래서 事件이 一応落着이 되면 論功行賞을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一의 功勞者는 무어라 하여도 始終 皇帝의 쿠데타를 도와 積極的으로 活動한 兵部尚書의 林彪이므로 이者가 欠員이 된 太子의 後繼者가 된다. 이것이 祝福된 일이냐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人生의 재미 있는 곳이기도 하다. 皇帝가 事件을 이르킬 수 있었던 것은 무어라 해도 兵權을 掌握하고 있는 兵部尚書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쿠데타 過程中에는 過熱과 皇帝派라고 稱하는 者間에 派閥싸움도 일어나므로 이것을 放置하면 大混亂에 빠질 것을 兵權으로서 鎮壓하였든 者도 兵部尚書 林彪였다.

果然 功은 第一에 틀림없으나 그렇다하여 德望을 쌓을 性質의 것은 아니다. 亂世에는 武力으로 抑壓할 수 있으나 平時로 되도라면 政策을 實行하는 者는 官僚가 되지 않을 수 없다. 官僚가 德望이 없으면 政治는 할 수 없다. 이것이 恐怖政治의 渦中에 則天武后時의 狄仁傑과 같이 熱心히 無実의 官僚를 救한 宰相 周恩來의 株는 上昇一路이었다.

現狀대로 推移 德望이 없는 皇帝밑에 德望과 名聲과 더불어 皇帝를 넘겨보는 宰相이 있다는 事態가 發生하면 이미 때늦은 것이다. 扶來를

念慮하여 要所에 武人을 配置하여 둔 것도 지금에 있어서는 不平을 사기 始作했다. 太平스럽게 때를 보내서는 안된다. 兵權을 쥐고있는 只今 쿠데타로 一挙 힘에 依해 皇帝의 地位를 빼앗는 外 他 途는 없다.

五代 後唐時 明宗晩年에 皇帝는 高齡이며 또 重病에 걸려 있었다. 當然 臣下間에 年長의 皇子從榮을 太子로 冊封하려고 論議하였다. 國家를 爲해서는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이境遇 太子를 보살피는 臣下는 國家의 見地에서만 行動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太子를 冊封하려는 意見이 通하여 그 太子가 다음 代의 皇帝가 되면 그는 皇帝의 功臣이 되어 權勢와 地位를 保障받는다. 그런 野心的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 太子가 되는 것을 拒絶하고 그 代身 兵馬大元帥의 地位를 要求하여 그것을 入手 軍權을 掌握한다. 그에게는 他 途 思想이 있었다는 것을 이 從榮은 粗暴한 사내로서 德望이 없다. 그런데 아우인 從厚는 謙虛한 態度로 諸官을 待遇하여 德望을 얻고 있다. 從榮의 머리에는 아우從厚의 存在가 있었다. 結局 從榮은 兵權을 掌握하고 明宗에 대하여 쿠데타를 敢行하다 敗死하였다.

現代의 事實을 歷史上的 類似한 事件에 結付시켜 直接 引用說明한다면 危險하다. 그것은 自認하고 있지만 中國歷史를 보는 限 그들은 類似한 狀況에 대하여 놀랄만큼 類似한 反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特別히 權力을 前提로 하였을 경우 그 感은 더욱 強하다. 孔子의 「春秋」以來 歷史는 行動의 거울이라고 한 歷史觀을 中國人이 지녔다는 것은 참으로 當然하다는 생각이 든다. 時代는 移行하고 制度는 變하고 있다. 中共은 社會主義國家의 體制를 形成하고 있다. 研究學者는 그

곳에서의 事件을 政策의 問題이거나 그에 基盤한 權力關係라고 學問的이며 合理的으로 解釋한다. 그것을 過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基本的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中國을 생각하는 境遇에는 그 根底에 찰흙같은 끈질긴 人間이 있다는 것을 並行하여 생각할 必要가 있지않나 생각된다.

中國人을 前述한 바와같은 歷史的 패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 中世紀의인 淸帝國이 滅亡한 것은 머나먼 歷史上的의 事件처럼 생각되나 實은 二十世紀에 들어서의 일이다. 그 後에도 中國은 亂世가 繼續되어 平溫安定하게 國家나 國民의 近代化를 皮할 余暇가 없었다. 그 中에는 不安全한 機構나 制度라 하기 보다는 人間과 人間과의 對人關係面이 보다 큰 事情이었다고 말하여도 좋다. 그리하여 人間이라는 것은 그렇게 급히 쫓아지는 않은 것이다.

## 2. 文化革命과 文化의 破壞

文化에 對하여서도 中國에서는 남은 慣習의 束縛이 우리가 생각하는 以上으로 強하게 남아 있지 않나를 말하고 싶다.

文革이 政治上 元來 무엇이였는가와 같이 아니 그 以上으로 文化的으로는 무엇이였는가고 되묻지 않으면 안될 理由에서다. 누가 무어라 하여도 文化大革命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實際는 尙혀 期待할 수 없다. 自己일이 되어 萎縮이 되나 文革初期에 필자는 文革은 政治的 過渡한 介入으로 大學의 蒸竈이며 文化의 危機다 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後에도 같은 內容을 쓰기도 했다.

文革中 모든文化活動은 停止시키고 말았다. 學術書고 文學書고 한卷 남기지않고 그림자를 감추었다. 研究 發表나 創作도 一切 行해지지 않았다. 傳統的인 演劇은 그에앞서 舞臺에서 사라졌다. 있는 것은 毛沢東의 著書와 毛思想을 따르는 英雄의 伝記, 女子가 執統하고 시위하는 革命바래, 그리고 革命演劇뿐이었다. 世界史에 伝해오는 秦始皇帝의 「焚書抗儒」 以外, 類例없이 놀랄만한 無文化狀態가 出現한 것이다.

中國文化를 아끼는 者의 立場에서는 文化大革命은 이 한가지만 보드래도 容怒할 수없는 罪惡으로 비출것이다.

中國文化研究의 碩學이 이따금 發言하여도 妙하게 이사이에 가시가 박힌 狀態에서 中國의 傳統文化가 어찌해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重圧을 받는가를 說明하고 그로부터 脫皮에의 努力이란데서 文革을 評價하려고 한다. 學者나 評論家 文化人은 文革에서 全혀 새로운 文化가 誕生하는 것을 期待하는바와 같은것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結果는 어찌되었든가? 文革後 처음 出刊된 書籍은 郭沫若의 「李白과 杜甫」였다. 亦是 郭沫若이다. 그는 周知하는바와 같이 文革 初期에 「나의 著作品은 燒却하여 버려라고 한 者인데 沒收된 對象은 如前히 傳統中에 傳統이라 말해도 좋을 李白과 杜甫였다. 元來 杜甫보다도 評價가 낮은 傾向이 있던 李白을 오히려 相對的으로 높이 評價하여 李白의 家系에 새 考證을 加하고, 從來의 杜甫詩의 解釈에 對하여 몇가지 點에서 批判을 加하여 새로운 解釋을 한것等 어느 程度의 새맛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平凡한 意味에서의 新味이지 果然 이 程度면 文化大革命의 成果로서 나온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文革 以前에도 充分히 可能했던 研究에 不過했다.

最近 販売되고 있는 古典小說이 亦是 「三國誌演義」나 「紅樓夢」으로 市民이 줄을지어 사드릴만큼 一般市民은 文化에 굶주렸든 것이다.

### 3. 文革의 過誤

文化大革命이 政治的으로는 무엇을 實現하려고 目標하였는가는 現實에 있어서 劉少奇打倒外에는 전혀 不明한 것이 되고 말았다. 政治上의 問題는 言及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革命이라고 稱하는 것이 文化的으로는 무엇을 企圖하였는가를 생각하면 政治的인 境遇 以上으로 더욱 曖昧하고 模糊한 것이 되고 만다. 当初부터 文革에 確固한 文化政策의 有無, 그 自體가 극히 疑心스럽다. 理論으로서 新文化의 創造라하기는 너무 粗雜하였다.

「毛主席語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他的 特徵을 除하면 中國의 六億人口가 갖는 현저한 特徵은 하나는 經濟的으로 貧寒하며 또 하나는 文化的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보기에는 險하나 實除로는 좋은 것이다. 貧寒하면 變하려고 생각하고 지탱하려고 생각하고 革命을 이르기려고 생각한다.

一枚의 白紙는 아무런 짐이 없어서 보다 새롭고 보다 아름다운 文學을 쓰기에 알맞고 보다 새롭고 보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에 알맞다」 文芸講座 등을 보면 毛沢東은 中國文化에 對하여 그위에 相異한 見解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文革에서 使用한 用語는 오로지 「語錄」便이었다.

毛沢東은 思想家는 아니고 權謀術數에 能한 政治家이므로 때와 場所



에 따라 틀린 發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劉少奇의 時代에도 林彪의 時代에도 周恩來의 時代에도 큰일을 行하는 境遇에는 毛主席의 用語가 引用된다. 뒤집어 놓으면 劉少奇도 林彪도 或은 周恩來라도 「毛思想을 내세워 毛思想에 背信했다」고 打倒할 수가 있는 것이다. 打倒된 者에 이 렛텔을 붙이면 되고 이 렛텔은 붙이라고 생각만하면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다.

如何間 文革中에는 「毛主席語錄」은 「붉은寶書」로서 그안에 있는 用語가 真理였다. 그러나 文化에 關한 條項은 新文化를 創造하는 理論으로서는 너무나도 粗雜하였다. 「文化的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評價는 歐美의 近代 文明을 基準으로하고 있는 것은 明白할 것이다.

이것이 文革을 近代 또는 現代의 超越이라고 말한 學者가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이 잘못본 것이다. 더구나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中國의 文化는 質的으로 相異할뿐이지 決코 낮지는 않다. 뿐더러 充分히 世界에 자랑할 수 있는 高度의 文化이다. 「語錄」이라고 하는 用語의 조각을 모아서 허잡은 소리는 不可避하지만 이것은 評價가 粗雜하며 이것을 真理로 하였든 것이 文革이었음은 否定할 수 없다.

第二의 過誤는 「白紙」라고하나 이 高度의 文化는 白紙程度의 騷動으로서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러쿵 저러쿵 말할 必要가 없을 程度로 누가 보아도 明白한 것이다. 질수없을 程度의 무거운 文化의 傳統이 있다. 毛自身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破舊立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 스로간은 文革의 重要한 것이나 破壞하지 않으면 안될 舊가 嚴然히 存在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白

紙」라고 한 것은 현저하게 矛盾되고 있다.

第三의 過誤는 經濟의 貧弱 文化的인 後進을 「白紙」라고하여 「白紙에는 如何히 아름다운 文字도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한 이 比喻이다. 比喻를 使用하는 것은 中國人の 特技인바 더욱이 質이 相違한 것까지도 시치미를 띄고 自己가 세운 理論에 알맞게 바꿔치기를 한다.

中國의 古典을 읽을때 注意를 要하는 것으로 「孟子」등도 이를 驅使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傳統의인 것이다. 毛沢東도 그例를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經濟建設이나 文化創造는 글을 쓰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全然 質이 다른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通한다면 아프리카의 新興國들은 隆盛한 經濟建設과 눈부신 新文化를 創造할 수 있다는 것이된다. 이러한 일은 말할 必要도 없으나 現代의 經濟는 사람이 미친놈처럼 제멋대로 일만하면 되는것이 아니고 高度의 技術과 設備와 豊富한 資本을 必要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毛沢東의 大躍進은 人民의 勞動力만 依存하려 하였다. 如何間 文革의 文化面에 關하여는 「白紙에 아름다운 글자나 그림을 그린다」던가 「破舊立新」이라던가 하는 空言밖에 없었다. 먼저 「破舊」만 가지고 말하면 空言이라고만은 할수 없다. 舊뿐만 아니라 現까지 包含해서 文化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것은 허무에 가깝게 되었으므로, 그러나 「立新」의 面은 그렇게 簡單히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文化라고하는 것은 傳統위에 成立되는 것으로 그 傳統을 不定하고 새로운 것을 創造하는 境遇도 아니 그 境遇가 한層 깊이 傳統을 理解하지 않으면 批判도 否定도 無意味하게 되며, 結局은 傳統의 延長위에 成立하게되는 것이된다. 外國으로부터 影響을 받는 境遇도 그것을 自

己것으로 만들수 있는 主體性이 없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自國 文化의 傳統을 蔑外視하고는 얻을 수 없다.

文革과 같이 亂暴하게 傳統을 抹殺한 곳에서 새로운 文化가 發生할 理由는 없다. 自己들만으로 文化의 創造가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獨善이며, 矚보는 것이다. 「立新」은 이러한 獨善과 輕視에 便乘한 空言이었다. 여기서 發生하는 것은 虛偽, 虛飾과 思考의 怠惰外엔 없다.

#### 4. 文化와 政治

「中國에 毛沢東이 나와 그는 人民을 위해 幸福을 가져왔다. 그는 人民을 救해주는 커다란 별이다」, 「毛沢東 思想은 지지않은 太陽이다.」같은 찬사는 古代 帝王에 對한 贊歌와 同質의 인상을 느끼게 한다.

스타린이나 히틀러의 境遇와 같이 熱狂 狂氣라하는 點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決定的인 相違點은 帝王의 德을 贊美한다는것, 見解에 따라서는 牧歌的이라고 까지 말해지는 古風이며 傳統的인 것이다. 破舊를 외치고 學術文藝라는 것은 모조리 抹殺한 文革도 그 基底를 形成하는 発想은 亦是 傳統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러한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文革全體에 對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이點에서 結局 그곳에서 보여지는 古代的이며 牧歌的 性向에 慳惑되어 現代文明이 잃었던 人間本性을 發見한 氣分이 들어 文革의 評 価를 그르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知識人이나 幹部를 勞動과 結付시키는 運動에도 「君子는 大人은 못 된다.」는 式의 発想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指導級에 있는 君子는

一人一技의 專門家이어서는 안된다. 全人格의이며 모든德과 教養을 具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變形하여 人民이나 勞動者와 結合된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되어진것 뿐이다. 그곳에는 또한 모든사람은 땀 흘려 일하며 먹어야 한다는 「農家」의 思想도 있을 것이다. 學校를 工場이나 農場과 併設하여 半學 半勞의 形態로 만든것도 같은 理念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官僚가 特權階級化하여 人民으로부터 遊離되는 現象을 얼마간 防止하는 效果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儒敎가 中國의 思想界를 制霸하면서도 그 政治學이 아직 實現되어 보지 못한 것은 能率의인 機構인 官僚制度를 輕視한 所以가 아니었던가, 文革이 要求한 幹部의 人民이나 勞動과의 一體化에는 儒敎政治學的 發想과 一脈相通한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오늘의 中國은 西方側과 關係改善에 主力하여 合理的인 經濟建設에 뜻을 두고 있는것 같다.

그것이 端緒가 되었을때는 亦是 高度의 技術 高度의 專門的 知識, 그리고 行政의 能率化가 必要할 것이다. 그때에도 幹部의 下放, 學問과 勞動의 直結等等, 太平스러운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幹部의 下放이라한 것은 多少 五·七幹部學校처럼 組織化시켜도 結局은 個人의 自覺이나 自發性이 없으면 成果는 期待할 수 없다. 그것은 過去 儒敎의 경우처럼 아주 어려운일을 人間에게 要求하는 것이되며 이를 이미 人民日報 등이 警告한 形態로서 指摘하고 있다.

文革中에는 우리가 近代文明에 쫓겨 이것든 人間の 原始的 理想을 示唆하는 요소가 때때로 있다. 그러나 그것을 現代에서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은 至極히 複雜한 問題가 臚들고 있어 文革과 같은 單純한 發想으로는 處理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점은 우리도 虛無

한 생각에서 再考해도 좋을 것이다.

하여튼 文革은 文化的으로는 破壞 以外の 아무것도 아니었다. 文革에서 벗어난 中國은 그것을 徐々히 再建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事實이나, 文化라하는 것을 政治에 從屬시키거나 政治的 便宜에 따라 어떻게 다루건 無關하다거나 또는 文化를 政治의 手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文化認識을 改心하지 않는限, 빛나는 文化를 再建하기는 不可能할 것이다.

## 参 考 文 献

- 汪学文著；中共文化革命 与 紅衛兵；台湾 國際關係研究所刊
  - 伊藤喜久蔵著；文革の三年，経済往来社
  - 福川正夫編；中国の 文化大革命；御茶の水書房
  - Lifton J. Robert: Revolutionary Immorality; Mao Tse-Tung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Vintage Books Co.
  - Ho Ping ti(ed); China in Crisis 2 VO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eng Chester; Politics in the Chinese Red Army,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n. K.H(e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Grove Press.
  - Union Research Institute; The Great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Hong Kong, Union Research Institute.
  - 羅昌柱著；中共指導思想論，國際學術院
  - 羅昌柱訳；周恩来，國際學術院
  - China Quarterly, Problems of Communism Survey of Mainland China Press,
- 政経研究等 定期刊行物 多数参考

# 中共의 虛와 實

1973年 11月 1日 印刷

1973年 11月 5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電話 ㉔ 7 3 9 4

印刷處： (株)新進商事

電話 { ㉔ 5584•1344  
㉓ 1344

<非 賣 品>

